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021-01

2007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200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 11.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연구 원	김 혜 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 애 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혜 원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 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 효 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요약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소득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지원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학교급식(중식)과 조식, 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 중식으로 나뉨. 현행 무료급식은 지원체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음.
- 빈곤층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급식지원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원대상, 급식의 질, 공공·민간 전달체계, 주무 부처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됨.
- 본 연구에서는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지원제도의 정책상·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첫째, 결식아동을 위한 현행 정부의 주요 정책 및 급식인원을 파악하고, 현 급식 지원제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함.
 - 둘째, 외국 중 아동 빈곤율이 높은 미국 및 영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아동복지에서는 보다 발달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제도 중 목표, 지원대상, 내용, 전달체계, 재원을 검토함.
 - 셋째, 지자체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지역별 급식지원 체계를 비교하고 현행 급식정책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
 - 넷째, 민간급식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다섯째, 아동급식지원 정책 이행실태(아동의 건강권 보장정도, 지원·전달체계 등)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식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급식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동의 욕구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아동권 보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연구방법 및 연구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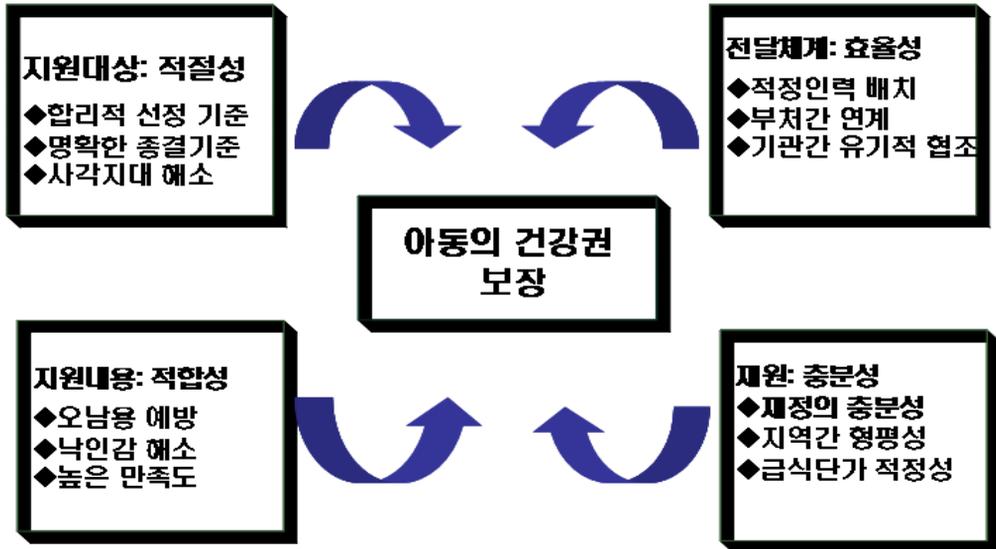
□ 연구방법

- 첫째, 문헌연구로 급식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의의 및 필요성, 급식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간행물, 선행연구, 외국자료 등에 관한 문헌연구를 실시함.
- 둘째, 4종의 조사를 실시함.
 - 지자체 급식 담당자 250여명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 민간조직(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담당자 300명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조사를,
 - 아동 대상 급식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아동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을 통한 면접 설문조사 실시함.
 - 아울러 아동 30명에 대한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급식지원 받게 된 동기, 급식 받은 후 생활의 변화, 개선희망사항 등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을 살펴봄.
- 셋째, 효과적인 급식지원제도 정립을 위해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함.

□ 연구분석틀

-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행 급식지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Gilbert와 Terrell(2005)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분석틀인 급여의 대상(The Basis of Social Allocations),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Nature of Social Provision), 급여의 전달체계(The Design of Delivery System), 급여를 위한 재원(The Mode of Finance)을 기준으로 함.

(그림 1) 연구분석틀



II.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

1. 공공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

□ 실태조사 개요

— 아동급식 지원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담당공무원에게 전자우편조사를 2007년 9~10월간 실시하여 시군구별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실태에 대해 살펴봄.

□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요 실태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65.8%) > 남성 ○ 30대(53.8%) > 40대이상 > 20대 ○ 사회복지직 > 일반행정직 > 기타 ○ 급식담당기간 : 1년 미만 > 1-2년 미만 > 2년 이상 ○ 중소도시 > 농어촌 > 광역시 ○ 주요급식지원방법 : 식품권 > 주부식 > 일반음식점 > 단체급식, 도시락

구 분	주요 실태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대상선정방법: 전화조사> 방문조사> 기타> 주위추천 ○ 급식대상 선정시 어려운 점: 대상아동선정기준 불명확(46.6%)> 인력 또는 시간 부족(42.9%) ○ 모든 결식아동 포함여부: 예(55.9%)> 아니오(43.5%) ○ 대상아동 발견경로: 읍면동 방문 및 면담 통해>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학교장(담임교사).통장.반장.이장.아동위원을 통해 ○ 대상아동 발견 시 어려운 점: 인력부족(69.5%)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종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 종결기준 유무 : 있다(81.5%)> 없다(18.5%) ○ 급식지원 종결기준: 전출> 수급자의 성장.진학.취업> 수급자의 거부> 가정경제회복 ○ 종결자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하지못함(93.5%)> 사후관리함(6.5%)
아동급식지원제도의 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급식단가: 3,000원(82.0%)> 3,500원(17.4%)> 4,000원(0.6%) ○ 급식단가의 충분성 : 예(68.3%) > 아니오(31.7%) ○ 주요급식지원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 일반음식점> 도시락> 단체급식> 식품권> 주부식 - 중소도시: 식품권> 주부식> 단체급식> 일반음식점/도시락 - 농어촌지역: 식품권> 주부식> 도시락> 일반음식점> 단체급식 ○ 현 급식 지원 방법에 대한 만족여부: 만족함(70.6%)> 만족안함(29.4%) ○ 지역 내 학교시설 활용한 단체급식방법 : 찬성(73.1%)> 반대(26.9%) ○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 학교단체급식(68.9%) ○ 방학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 학교단체급식(33.3%) ○ 현 급식담당부처에 대한 의견 :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80.0%)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정도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도시락배달처> 급식단체> 학교> 일반음식점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아동급식제도가 아동결식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2.88점) -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지역내 결식아동수가 감소되었다(3.19점) -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3.37점)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지원제도에 오남용소지가 있다(3.55점) ○ 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아동규모의 적절성(2.68점) - 지원대상 아동들의 지원사실에 대한 비밀유지(3.11점) - 아동급식위원회 활동(2.53점) - 예산의 적정성(2.73점) - 담당공무원 수의 적정성(2.23점)

구 분	주요 실태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기관과의 연계정도 : 읍면동 담당공무원(3.58점) > 관련조직(식당, 슈퍼마켓,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3.22점) > 교육청(2.83점) ○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심각한 문제점: 대상자 선정방법 모호(39.1%) >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이원화(19.9%) > 담당인력부족(18.0%) >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부족(6.8%) >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정상 어려움(6.2%) > 지역인프라부족(3.7%) ○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36.5%) > 아동급식 담당부처의 일원화(33.3%) > 담당인력 확충(13.0%) > 지역인프라 확충(5.7%) > 예산증액(5.2%) >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4.7%) >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1.0%)

□ 시사점

- 선정대상 면에서는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시 급식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지원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아동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함.
- 전달체계 상에서는 아동급식 담당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어야 함.
- 급식지원 형태는 학기중과 방학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을 가장 많이 꼽았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학중에는 식품권→주부식 지원방법의 순으로 나타남.
-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항은 지원대상 아동규모의 과다, 아동급식위원회 활동의 저조, 급식 예산 및 담당인력의 과소, 아동급식소 인프라 부족 등임.

2. 민간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

□ 실태조사 개요

- 민간기관으로서 아동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 300개소에 대하여 2007. 10. 18~ 10. 19 2일간 전화조사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실태를 살펴봄.

□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요 실태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75.7%) > 남성 ○ 중소도시 > 광역시 > 농어촌 ○ 대학교 이상(78.0%) ○ 사회복지사 자격증(63.2%) ○ 직급 : 센터장(38.2%) ○ 평균근무기간 : 3.83년
단체급식대상수 및 대상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급식기간: 1-2년(43.0%) > 3-4년(34.9%) ○ 단체급식 대상 아동수: 20~30명(42.2%) > 30~40명(22.8%) ○ 평균 급식대상 아동수 (3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3.03명, 초등학생 24.51명, 중고생 7.66명 ○ 급식대상 선정방법: 본인 가족신청 > 동사무소 > 주위추천 ○ 급식담당 직원 있는 경우(80.2%):
급식담당 직원 유무 및 업무량 적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담당 직원 있음(80.2%) : 중소도시(86.1) > 광역시(76.7%) > 농어촌(63.0%) ○ 업무량: 적정함 (48.5%) > 적정하지 못함(18.5%)
급식업무를 위한 외부인력활용 여부, 식단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력(자원봉사) 활용: 광역시(70.0%) > 중소도시(45.8%) > 농어촌(40.7%) ○ 영양사(전문가)에 의한 식단 작성 : 17.4%로 낮음 ○ 타기관 연계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 종교기관 > 자원봉사단체
급식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 : 충분함(39.0%) > 충분하지 않음(30.7%) ○ 아동과 부모의 의견수렴 정도 : 충분히 반영(65.9%) ○ 식사장소의 적정성(76.2%), 시설설비의 적정성(71.7%) ○ 아동급식의 긍정적 효과 : 있음(93.4%) ○ 아동급식 사업의 성과 : 만족(75.7%) ○ 급식사업의 해결 문제 : 전문인력확보(28.3%) > 예산증액(22.0%) > 식당설비개선(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증액 : 농어촌 > 광역시/중소도시 - 자원봉사자 확보 : 농어촌 > 광역시/중소도시 ○ 바람직한 급식방법: 단체급식(86.7%) ○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사항 : 예산증액(29.0%) > 담당인력확충 >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 시사점

— 빈곤아동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영양사 등에 의한 식단작성을 통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전체 아동급식 전달기관의 경우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도차원이나 시·군·구 차원에서 모범급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조직의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지원예산의 증액과 담당인력의 확충, 그리고 조리실의 제반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근본적으로는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아동이 누락되거나, 대상이 아닌데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3. 아동급식 이용자 실태

□ 실태조사 개요

- 빈곤층 아동의 급식과 영양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총 1,000명을 대상으로 2007. 9. 12~ 10. 5 약 3주간 조사원이 직접 단체급식소와 가정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600명과 지정음식점, 상품권, 주부식, 도시락 등 각각의 네가지 유형별로 100명씩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급식지원받는 아동 총 400명을 대상으로 함.

□ 실태조사 결과

구분		주요 실태
응답자 특성	일반사항	○ 단체급식> 개별급식 ○ 남아> 여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저학년> 중고등학생
	가정환경	○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수입: 50-100만원> 100-200만원> 5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 보호자 - 학력 : 고졸> 대졸> 초졸> 무학> 중졸 - 직업 : 판매/서비스직> 주부> 노동근로직> 무직> 사무직> 자영업

구 분	주요 실태
건강 및 영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성 : 단체급식 > 개별급식 ○ 수업집중력 : 단체급식 > 개별급식 ○ 건강상태 : 단체급식 > 개별급식 ○ 저체중율: 9.8%(아동평균에 비해 높음) ○ 과체중·비만율: 8.3%(아동평균에 비해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식사횟수: 3번 > 2번 > 1번 ○ 일주일간 식사횟수 - 매일먹음 : 점심(99.3%) > 저녁(89.5%) > 아침(58.1%) ○ 결식이유 - 아침 : 시간이 없음(43.3%) > 식욕없음(19.9%) > 습관(12.7) - 저녁 : 식욕 없음(26.3%) > 혼자먹기싫음(10.6%) > 반찬없음=습관(10.1%) ○ 아동이 직접 식사준비 : 저녁(6.8%) > 아침(5.0%) ○ 혼자 먹는 아동 : 아침(15.7%) > 저녁(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식사의규칙성): 1일 1회(62.7%) ○ 소고기 등(단백질): 1주일 1회 이하(30.7%)로 매우 섭취부족 ○ 야채류(무기질/비타민): 1주일 2-6회 미만(40.1%)로 매우 섭취부족 ○ 과일류(무기질/비타민): 1주일 1회 이하(28.1%)로 매우 섭취부족 ○ 우유및유제품(칼슘): 1주일 1회 이하(15.1%)로 섭취부족 ○ 젓갈류(염분): 1일 1회 이상(15.1%)로 섭취 과다 ○ 튀김 볶음류 등 패스트 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빈도 높음
급식이용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기간 : 3년 이상(42.8%) ○ 급식지원욕구 - 아침 : 지원 원하지 않음: - 점심 : 학기중- 무료학교급식, 토.공-지원 원하지 않음, 방학중-지원 원지 않음=지역아동센터 - 저녁 : 지원 원하지 않음 >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만족도 : 대체적으로 만족 - 식사메뉴와 질 : 단체급식 > 학교급식 > 지정식당 > 도시락 > 밀반찬 - 밥과 반찬 양 : 단체급식 > 지정식당 > 학교급식 > 도시락 > 밀반찬 - 위생상태 : 단체급식 > 개별급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인지 : 상관없다(45.0%) > 알기 원치 않음(32.6%) ○ 낙인감 수치심 없음: 감사하다(54.9%) > 특별한 느낌 없음(3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교육 : 참여 원함(59.3%) ○ 영양교육 : 참여 원함(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급식장소: 만족(46.9%), 매우만족(43.8%) ○ 단체급식장소 이용거리 : 도보 10분이내 (43.2%) > 20분이내(2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락 식재료 가족과 공유경험: 있음(73.6%) ○ 도시락 공유대상: 부모(43.6%), 형제자매(26.9%), 조부모(16.8%)

구 분		주요 실태
결식의 결과	학교생활 및 자존감	○친구관계 : 단체급식 > 개별급식 ○학업성적 : 단체급식 > 개별급식, 여아 > 남아, 초등저학년 > 초등고학년 중고생, 일반가정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 ○자아 존중감 - 하루식사빈도 : 3식 > 2식 > 1식 - 저녁식사빈도 : 매일 > 주3-4회 > 거의먹지않음 > 주1-2회
	가족응집성	○가족 적응성 - 급식유형 : 단체급식 > 개별급식 - 하루식사빈도 : 3식 > 2식 > 1식 ○가족 응집성 - 하루식사빈도 : 2식 > 3식 > 1식 - 아침식사빈도 : 매일 > 주3-4회 > 주1-2회 > 거의먹지않음

□ 시사점

- 식사의 제공뿐만 아니라 결식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점에서 단체급식지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활동성, 집중력, 긴장상태,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남.
- 급식지원 아동은 실생활 패턴이 불규칙하며, 성장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식습관의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파악됨.
-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아동의 발달별 정서 및 학업 및 생활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배달 등을 희망하였지만 중·고등학생들은 낙인감·수치감이 낮은 현금을 선호함
- 도시락과 식재료 급식방법에서 나타난 가족과의 식사공유에 대한 문제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 결식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이 낮아지므로 결식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및 지지 프로그램과 결식아동의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사례조사 개요

- 급식지원 받는 아동의 실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여섯 가지 급식유형 별로 5-6명씩 총 30명의 사례조사를 실시함. 이 중에서 2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조사대상의 가족유형은 양친부모 가정이 9명, 조손가정 6명, 한부모 가정 13명, 친인척 거주 1명으로 대부분 해체가정임.

□ 사례조사 결과

급식유형	사례수	조사결과 및 시사점
단체급식 (조식)	6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전반인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음. - 지원아동 16명 중 1명만이 수급자, 나머지는 ‘요리곤란형’ 결식아동임. - 결식아동별 사례관리를 위한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사례관리 부재 ○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토.공휴일에 대한 지원 필요 - 센터운영 또는 추가로 가사지원서비스나 도시락 배달지 지원되어야 함
식품권	4	○ 낙인현상 없이 식료품이나 다른 필요한 생필품 등을 자유롭게 구입 ○ 가정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 ○ 지원의 취지와 다르게 생필품 구입 등 식품권의 오남용 점검이 필요함.
일반음식점 (식권)	5	○ 지정음식점이 제한적이라 식권 사용이 불편함 ○ 주양육자의 부재 시 식사해결을 위한 편리한 수단 ○ 한정적 메뉴와 식권 잔금의 사용의 불편함 ○ 지정음식점을 늘려 메뉴를 확대하고 잔돈 사용이 유연한 방법으로 식권형태의 변경이 필요함.
단체급식 (석식)	5	○ 석식 지원을 받은 후 결식이 없어짐 ○ 보호자의 식사제공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경감 ○ 학습지원프로그램의 참여로 학업성취에 도움이 됨.
주부식	4	○ ‘요리곤란형리 결식’ 아동의 식사 해결의 수단으로써 한계가 있음. ○ 지원품목이 거의 양곡으로 한정되어 균형 있는 영양섭취가 부족
도시락	5	○ 개개인의 음식 선호도나 입맛을 고려하지 못함 ○ 토.공휴일에는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아 식사해결이 어려움 ○ 과일 유제품 등은 지원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시사점

— 급식지원대상자를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등 보호자의 양육기능 약화로 인한 ‘요리곤란형’, ‘방임형’ 아동으로 확대가 필요함.

- 아동의 대부분이 해체가정아동이거나 주양육자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음

— 단체급식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단순한 급식지원 외에 학습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등의 추가지원에 대한 만족과 관련 있음

— 모든 급식지원방법에서 토.공휴일의 급식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상품권은 오

남용의 문제, 식권은 이용음식점과 메뉴의 한계, 주부식은 보호자의 부재와 방임으로 결식문제의 해결이 힘들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IV.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1. 아동급식지원제도 기본 개선방향

□ 결식에 대한 아동권리적 접근과 공공성 강화

- 아동급식지원제도는 급식 지원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해당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임.
- 모든 아동의 기초생활보장과 방임으로부터의 보호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결식에 관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단순히 응급구호차원의 급식지원으로 그치기 보다는 부모교육, 가족 및 아동 대상 영양교육과 일상생활기술훈련 등을 통해 가족 단위로 양육자로서의 부모와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아동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함께 부모의 경제적 양육능력과 자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전달되어야 함.

□ 아동급식지원의 원칙

- 첫째, 급식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아동중심의 서비스이어야 함.
- 둘째, 급식지원은 음식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서비스이어야 함.
- 셋째, 급식지원이 오남용이나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함.
- 넷째, 급식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재정 및 법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함.

2.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 지원대상

- **선정기준 명확화:** 임의적 해석이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은 삭제되고, 지원대상아동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지원 대상 아동 및 가족의 구체적인 욕구별로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함.
- **선정기준 재설정:**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발견체계가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것임.

- **아동사례관리:** 급식의 지원대상을 융통성있게 하여 담당자나 아동전문가가 아동에 대한 개별 판정을 통해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원내용

- **단체급식 확대:** 아동급식지원사업은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의사소통기술, 자기주장향상, 문화체험, 일상생활기술, 식사예절,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급식지원아동이 복지관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아동복지관련조직 간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함.
- **결식원인 파악을 통한 급식지원 재사정:** 급식제공 이후의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점, 지리적 접근이 낮아 직접적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낙도·오지 아동, 고학년으로 정서적 접근이 낮아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개인음식취향으로 거부하는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여 재사정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토요일 및 일요일 급식지원 및 간식제공:**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우유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제공이 절실함.
- **학교시설을 이용한 급식지원 확대:** 학교급식시설을 활용하여 영양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제공되는 단체급식이 강화되어야 함.
-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아동급식과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즉, 급식제공만이 아니라 저소득 부모가 자활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탈출을 도와야 함.

□ 전달체계

- **아동급식지원의 중심축 형성:**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초기 접수와 진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협력과 네트워킹체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허브조직과 전문인력(예컨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정 그리고 수시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중심축의 전문인력 시스템을 갖춰야 함.
- **급식전달체계 일원화:** 아동급식사업의 담당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보건복지부

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어야 함.

- 대부분인 80%의 담당공무원들은 급식사업 담당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음. 담당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지원을 결정하면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여 아동급식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을 것임.
-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체계로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급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유형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상담, 보호, 후원, 자립지원 등을 상호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공공 및 민간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영양사에 의뢰하여 균형있는 식단을 공급하도록 함.
 - 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급식업무보조인력이 지원되어야 함.
 -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확충해야 함.
- **복지주체간 네트워크구축:** 푸드뱅크,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복지관 등 지역 복지주체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청와대에서 정책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함.

□ 재원

-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취약아동의 토·공휴일 중식지원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하는 것이 현실적임.
- 아동급식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여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급식 전담자와 같은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함.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의 가구별 조사비용과 사례관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 모니터링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함.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킴이」를 두어서 아동급식의 진행상태를 점검해야 함.

- 지역사회에서는 아동급식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함. 급식지원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선정하며,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이 필요함.
-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 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사업이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임.

목 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내용	25
제3절 연구방법	26
제2장 아동급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28
제1절 아동급식의 개념 및 의의	28
제2절 아동급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40
제3절 연구분석틀	50
제3장 우리나라 아동급식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53
제1절 아동 급식지원제도 현황	53
제2절 아동급식지원체계의 문제점	78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아동급식 지원제도	85
제1절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제도	85
제2절 영국의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91
제3절 일본의 학생중식 지원사업	95
제4절 시사점	98
제5장 공공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	100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00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00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0
제6장 민간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	122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22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2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37
제7장 아동급식 이용아동 실태조사 결과	139
제1절 실태조사 개요	139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40
제3절 사례조사 결과	193
제8장 결론: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22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20
제2절 아동급식지원제도 기본 개선방향	222
제3절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224
참고문헌	232
부 록	234

표 목 차

<표 2-1>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과 아동빈곤율 추이	30
<표 2-2> 결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및 신체적 질병유형	32
<표 2-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4-3-1 접근법	35
<표 2-4> 어린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36
<표 2-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지원 연혁	39
<표 2-6>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발달과정	39
<표 2-7> 선행연구결과 정리 1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40
<표 2-8> 선행연구결과 정리 2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 부천시 지역의 사례 연구’	41
<표 2-9> 선행연구결과 정리 3 ‘결식아동 가정실태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42
<표 2-10> 선행연구결과 정리 4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	44
<표 2-11> 선행연구결과 정리 5 ‘결식아동의 급식 실시현황 및 정책제언’	45
<표 2-12> 선행연구결과 정리 6 ‘방학 중 아동급식의 영양학적 진단 및 정책대안’	46
<표 2-13> 선행연구결과 정리 7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급식지원실태 및 급식지원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47
<표 2-14> 선행연구결과 정리 8 ‘구멍뚫린 결식아동 급식체계 해결방안은 없는가’	48
<표 2-15> 선행연구결과 정리 9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49
<표 2-16> 연구분석틀에 의거한 연구대상별 주요 조사내용	52
<표 3-1>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급식유형별 장점과 단점	58
<표 3-2> 급식지원대상아동 개인별 급식지원계획표	59
<표 3-3>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별 조직	64
<표 3-4>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68
<표 3-5> 보건복지부의 급식지원사업 요약	70
<표 3-6>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71
<표 3-7> 급식아동지원 비율	71
<표 3-8> 2006년 급식지원사유	72
<표 3-9> 지역별 아동급식지원 방식 분포	73

<표 3-10>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74
<표 3-11> 교육인적자원부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76
<표 3-12> 2007년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유별 현황	77
<표 3-13>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78
<표 3-14> 현행 교육청과 서울시의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선정기준	82
<표 3-15>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비교	82
<표 4-1> 미국의 아동급식 프로그램 지원규모 (대상자 및 예산), 2002~2006	90
<표 4-2> 미국, 일본, 영국 급식지원 지원대상 비교	97
<표 4-3> 미국, 일본, 영국 급식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재원 비교	98
<표 5-1> 공무원 설문조사 내용	100
<표 5-2> 응답자 특성	102
<표 5-3> 아동급식대상 선정방법1)	103
<표 5-4> 아동급식대상 선정 시 어려운 점1)	103
<표 5-5> 아동급식대상 선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적절성	104
<표 5-6> 보건복지부 지침 외 추가기준 유무	104
<표 5-7> 담당지역 내 모든 결식아동 포함여부	105
<표 5-8>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견경로1)	106
<표 5-9>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견의 어려운 점1)	106
<표 5-10> 아동급식지원 종결기준 유무	107
<표 5-11> 아동급식지원 종결기준	107
<표 5-12> 아동급식 종결 후 사후관리 유무	108
<표 5-13> 1인당 아동급식단가	109
<표 5-14> 아동급식단가가 충분한지 여부	109
<표 5-15> 주요 아동급식 지원방법	110
<표 5-16> 주요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택 이유	111
<표 5-17> 아동급식 지원방법별 문제점	112
<표 5-18> 현재 지역 내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여부	112
<표 5-19> 아동급식 지원방법별 개선점	113
<표 5-20>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단체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	114
<표 5-21>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115
<표 5-22> 방학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115

<표 5-23> 아동급식사업 담당 부처에 대한 의견	116
<표 5-24> 아동급식사업 운영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정도	117
<표 5-25> 아동급식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견	117
<표 5-26> 아동급식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	118
<표 5-27> 아동급식사업 운영시 관련기관과의 연계 측면	118
<표 5-28>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1)	119
<표 5-29>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1)	120
<표 6-1> 민간아동급식지원제도 설문조사 내용	122
<표 6-2> 응답자 특성	124
<표 6-3> 단체급식 실시 기간	125
<표 6-4> 전체 단체급식대상 아동 수	125
<표 6-5> 학년별 평균 급식대상 아동 수	125
<표 6-6> 아동급식 대상 선정방법1)	126
<표 6-7> 지역별 급식담당 직원 유무	126
<표 6-8> 지역별 급식담당 직원의 업무량 적정 여부	127
<표 6-9> 급식업무를 위한 외부인력 활용 여부	127
<표 6-10> 식단작성 방법	128
<표 6-11>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	128
<표 6-12> 급식제도 운영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	129
<표 6-13> 급식비, 아동·부모의견 반영, 장소, 시설·설비, 아동의 건강, 영양상 변화, 급식지 원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	130
<표 6-14> 지역별 급식비, 아동·부모의견 반영, 장소, 시설·설비, 아동의 건강, 영양상 변화, 급식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	131
<표 6-15> 급식지원사업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132
<표 6-16> 응답자 특성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1순위	133
<표 6-17> 응답자 특성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2순위	135
<표 6-18>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136
<표 6-19> 아동급식 지원제도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36
<표 7-1> 아동 설문조사 내용	140
<표 7-2> 응답자 특성	141
<표 7-3> 지역아동센터 이용	143

<표 7-4> 방과후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	144
<표 7-5>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145
<표 7-6>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하는 일	145
<표 7-7> 혼자식사준비 가능 여부	146
<표 7-8> 직접 조리하는 이유	147
<표 7-9> 가사일을 돕고 있는지 여부	148
<표 7-10> 아동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	149
<표 7-11> 질병(중복응답)	150
<표 7-12> 아동의 친구관계 및 학업성적	151
<표 7-13> 급식지원 아동의 저체중 및 과체중, 비만 상태	153
<표 7-14> 급식지원 아동의 하루 식사횟수	154
<표 7-15>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	155
<표 7-16>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점심식사 빈도	155
<표 7-17>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저녁식사 빈도	156
<표 7-18> 급식지원 아동의 아침결식 이유	156
<표 7-19> 급식지원 아동의 저녁 결식 이유	157
<표 7-20> 급식지원 아동의 식사시간의 규칙 정도	157
<표 7-21> 급식지원아동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158
<표 7-22> 급식지원아동의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158
<표 7-23>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지 여부	159
<표 7-24>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지 여부	159
<표 7-25> 급식지원아동의 밥(흰밥, 잡곡밥)의 섭취빈도	160
<표 7-26> 급식지원아동의 라면류의 섭취빈도	160
<표 7-27> 급식지원아동의 육류 및 난류의 섭취빈도	161
<표 7-28> 급식지원아동의 생선류의 섭취빈도	161
<표 7-29> 급식지원아동의 야채류의 섭취빈도	162
<표 7-30> 급식지원아동의 과일 또는 과일주스의 섭취빈도	162
<표 7-31> 급식지원아동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	163
<표 7-32> 급식지원아동의 밀반찬, 젓갈, 짬아찌류의 섭취빈도	163
<표 7-33> 급식지원아동의 튀김, 볶음류의 섭취빈도	164
<표 7-34> 급식지원아동의 탄산음료 섭취빈도	165

<표 7-35> 급식지원아동의 불량식품 섭취빈도	165
<표 7-36> 급식지원 받은 기간	166
<표 7-37>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장소	167
<표 7-38>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아침 급식방법	168
<표 7-39>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점심급식방법	169
<표 7-40>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저녁급식방법	170
<표 7-40-1>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주요 급식방법	170
<표 7-41> 학년별 희망 아침급식방법	171
<표 7-42> 학년별 희망 점심급식방법	172
<표 7-43> 학년별 희망 저녁급식방법	173
<표 7-43-1> 시기별 희망하는 주요 급식방법	174
<표 7-44> 급식방법별 식사메뉴와 질에 대한 만족도	175
<표 7-45> 급식방법별 식사메뉴와 질에 대한 불만족 이유	175
<표 7-46> 급식방법별 밥과 반찬 양에 대한 만족도	176
<표 7-47> 급식방법별 밥과 반찬의 불충분 항목	176
<표 7-48> 급식방법별 위생상태 만족도	176
<표 7-49> 급식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친구들의 인지 여부	177
<표 7-50> 급식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친구들이 알기 원치 않는 여부	178
<표 7-51> 급식 받을 때의 느낌	180
<표 7-52> 급식과 함께 제공받는 프로그램(중복응답)	181
<표 7-53> 요리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182
<표 7-54> 영양교육 참여 의향	183
<표 7-55>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 만족도	184
<표 7-56>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 불만족 이유	184
<표 7-57> 집에서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	185
<표 7-58>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는 여부	186
<표 7-59>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나누어 먹는 대상	187
<표 7-60>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을 의향	188
<표 7-61>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나누어 먹기 원하는 대상	189
<표 7-6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190
<표 7-63>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194

<표 7-64> 단체급식 조식 지원사례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195
<표 7-65>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의 10월 아침 식단표	198
<표 7-66>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 10월 간식 식단표	200
<표 7-67> 식품권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201
<표 7-68> 식권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204
<표 7-69> 단체급식 석식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207
<표 7-70> 주부식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211
<표 7-71> 도시락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214
<표 7-72> 급식지원 유형별 장단점 및 개선방안	21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7
[그림 2-1] 결식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수립과정	33
[그림 2-2] 연구분석틀	51
[그림 3-1] 방학·토·공휴일 급식지원대상아동명단 전달과정	55
[그림 3-2] 지역사회 아동급식모니터링체계	61
[그림 3-3]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	65
[그림 3-4]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 전달체계	67
[그림 3-5] 급식지원 아동수 및 지원율	71
[그림 3-6]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수 및 지원액 추이	7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일구어나가는 주체이고, 헌법상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인격체이다. 아동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은 아동의 발육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조건인 동시에 핵심적인 요건이다.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며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 중의 하나가 아동결식이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과 무관하게 아동결식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실직, 이혼, 가출,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어 결식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먹을 것이 없어서 결식하는 아동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형편상 음식을 준비할 수 없어서 결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결식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인 아동에게 가져다 준다. 결식은 아동의 신체적 성장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을 주며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행동 증후군 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아울러 결식아동은 친구로부터 소외되어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결식은 아동의 전생애에 걸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급식지원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 학교급식(중식)과 조식, 석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 중식으로 나뉜다. 학교급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부담 해소를 위해 1989년부터 초등학교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왔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1999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 빈곤학생을 위한 급식지원이 제도화 되었다. 석식과 조식 중 1식, 방학 중 중식,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되다가 2004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학교 중식을 제공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실태조사를 통하여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무료급식 지원제도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정기혜, 2005; 홀트아동복지회, 2001; 조홍식, 2000). 첫째, 급식대상아동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군구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상자 선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지원대상). 급식대상아동은 소득 기준이 명시된 것이 아니라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담당자나 기초자치단체, 담임교사 등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어서 선정 시 자의성이 배제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의 공무원들은 대상아동 선정 지침이 광범위하여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둘째, 아동결식의 발생원인과 아동의 건강 및 영양상태, 희망하는 급식방법 등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이 미흡하다(지원내용). 이로 인해 결식의 원인별 예방책과 결식의 파급 효과에 따른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채 지원되고 있어서 급식지원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 급식방법은 아동의 취사능력과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시설을 고려하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방법은 장단점이 있고 오남용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행정여력의 부족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식 내용 면에서는 식단구성, 식재료 구입과 지정식당 이용시 구매 식품에 대한 영양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전무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표준식단 등의 보급도 미비한 상황이다. 아울러 급식만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급식과 함께 학습 및 정서 지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할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실태파악도 필요하다.

셋째, 급식담당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상호 간 연계성이 미흡하여 업무의 중복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전달체계). 두 부처간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식업무가 효율적 및 효과적으로 수행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상자 선정을 중복해서 하므로 급식예산이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민간기관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재원). 빈곤층 아동급식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아동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급식예산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상 급식지원제도 관련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빈곤층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급식지원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고 지원대상, 급식의 질, 공공·민간 전달체계, 주무 부처간의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시급히 요청된다.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기관 및 담당자의 무료급식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급식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

다. 기존의 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들이 있었으나 연구 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여 급식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차상위 계층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제도의 운영 및 아동의 건강권 실태를 조사하고, 아동급식지원 제도의 정책이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공공 및 민간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제도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의 정책상·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와 차별되게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급식지원을 접근하고자 한다. 필요한 식품 공급을 통해 아동이 잘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을 아동의 건강권·복지권이 구현된 상태라고 전제한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8장으로 구성하여 내용을 담았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내용 및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아동급식의 개념과 결식아동 원인 및 결과, 아동 권리차원에서 아동급식의 의의(건강권, 복지권), 우리나라의 급식지원제도 연혁, 아동결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뒤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결식아동을 위한 현행 정부의 주요 정책 내용으로 급식자 선정기준 및 아동수, 지원내용, 전달체계, 재원 및 급식인원을 파악하고, 현 급식 지원제도 상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4장에서는 관련 외국사례 중 아동 빈곤율이 높은 미국 및 영국과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아동복지에서는 보다 발달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급식지원제도를 살펴본다. 각국의 지원대상, 내용, 전달체계, 재원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지자체 급식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행 급식지원제도의 현황 과 문제점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대상아동 선정 기준, 효과적인 급식방법 및 급식의 오남용, 부처간 연계, 공공과 민간 간 연계, 담당인력 및 예산의 충분성 등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민간급식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급식지원제도 실태를 파악한다. 주요 내용은 단체급식 대상자 선정방법, 급식담당직원 유무 의 업무량 적정여부, 식단 작성방법,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 급식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예산의 충분성 등

이다.

제7장에서는 아동급식지원 정책 이행실태(아동의 건강권 보장정도, 지원·전달체계 등)를 파악하기 위해서 급식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결식의 원인, 급식방법별 아동에 대한 복지 효과, 선호하는 급식방법, 급식 만족도, 낙인감, 결식과 자존감 및 가족응집성과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급식유형별 아동 사례조사를 통해서 급식 받게 된 동기, 급식 받은 후 생활변화, 급식지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아동권 보장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방안 구축, 바람직한 급식방법,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수립 방안,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의 건강권 및 복지권 보장방안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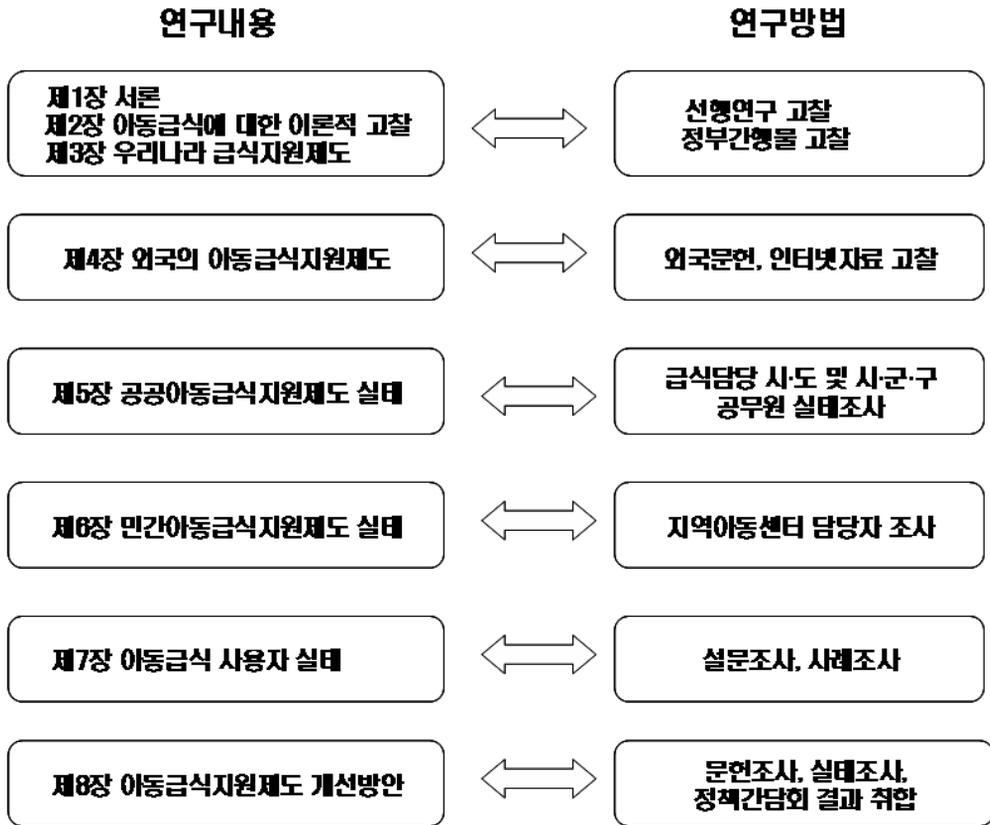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첫째, 문헌연구로 급식지원정책 및 전달체계, 의의 및 필요성, 급식상의 문제점에 대한 정 부간행물, 선행연구, 외국자료 등에 관한 문헌연구이다. 급식실태 관련 통계간행물 고찰, 주요 선진국의 결식아동 지원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문헌연구가 포함된다.

둘째, 급식담당공무원, 민간급식담당자,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급식 담당 공무원 250여명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민간조직(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담당자 300명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아동 대상 급식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조사원을 통한 일대일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수는 아동 약 1,000명(지역별 선정)으로 표본 추출 시 연령, 급식지원 유형, 지역 등을 고려한다. 추가적으로 아동 30명에 대한 심층사례조사를 실시한다. 급식지원 받게 된 동기, 급식 받은 후 생활의 변화, 개선희망사항 등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을 살펴본다.

셋째, 효과적인 급식지원제도 정립을 위해 학계전문가, 담당공무원, 관련 민간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한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아동급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아동급식의 개념 및 의의

1. 결식아동의 개념과 현황

가. 결식아동의 정의

사전적의미로 결식아동이란 끼니를 거르는 아동을 말한다. 그런데 행정적 혹은 학문적으로 결식아동의 개념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급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에서 조차 통일된 정의가 없는 실정이어서 결식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선미, 2001)

보건복지부(2007)에서는 아동의 ‘결식’을 ‘가정의 빈곤’,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및 직업적 특성, 아동 학대·방임·유기·부양기피 및 거부,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급식이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 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통보하는 아동급식지침에는 결식아동의 범위 안에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는 일선에서는 결식아동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데 있다. 최근 맞벌이 가족 등의 증가로 가족 형편은 어렵지 않으나, 가족의 기능상 아동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을 모두 결식아동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는 결식아동이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중식지원의 목적은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나아가 결식아동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이

1)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아동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절대빈곤아동 약 100만명(전체 아동의 8.9%),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상대빈곤아동 약 170만명(전체 아동의 14.9%)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미숙, 2006). 이 중 몇 명이 결식상태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아동실태조사를 통해서 결식아동 규모를 시급히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중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판단은 주로 담임선생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객관적인 증거없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아울러 낙인감 등의 우려 때문에 급식비는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발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결식아동에 대한 개념정의가 모호하여 일관된 급식지원정책이 시행되기 어렵고 아울러서 제도의 오남용의 소지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결식아동이란 가족의 빈곤과 가족의 결손 등으로 인해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를 모두 포함한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전자를 생계형 결식이라고 하고 후자를 조리곤란형 결식이라고 하는데, 최근의 가족해체 및 기혼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하여 조리곤란형 결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식이란 단지 식사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방임’으로 규정하고, 가족이 기능적 결손 상 아동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급식지원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아동은 학기 중 학교에서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59만명이고 토.공휴일과 방학중에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25만 여명으로 전체 상대빈곤아동의 34.7%에서 14.7% 가량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나. 아동결식의 원인

결식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크게 아동이 속한 가족의 빈곤과 가족성원의 결손으로 인한 식사준비의 불가능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두 유형이 혼재하여 한 가족에 나타난다. 특히 최근에는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절대빈곤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가족해체현상과 인구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가족 내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할 아동보호 인력이 부재해서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생계형 결식아동’이라고 하고, 후자를 ‘요리(혹은 조리)곤란형 결식아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빈곤율이 급증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율은 1996년 3.1%에서 10년 후인 2006년에는 11.6%로 급증하였다(이현주 외, 2006).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도 1996년 9.0%에서 2006년에는 16.7%로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결식아동도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한편,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율이 아동빈곤율도 1996년 8.7%에서 2006년 11.0%로 증가하였다.

〈표 2-1〉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과 아동빈곤율 추이

(단위 : %)

구분	절대빈곤율 (정책빈곤선)	상대빈곤율 (중위 소득 50%)	아동빈곤율 (중위 소득 50%)
1996	3.1	9.0	8.7
2000	8.2	13.4	9.6
2003	10.4	16.0	14.9
2006	11.6	16.7	11.0

자료: 이현주 외, 『우리나라 빈곤실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P61(성인빈곤율)
 김미숙,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06, 통권 103호(아동빈곤율).
 2006년 아동빈곤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사용.

이혼으로 대표되는 가족해체는 2003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혼율은 1990년에는 1.1에 불과하였는데, 2000년에는 2.5로 상승하였고, 2003년에는 3.5로 급상승하다가 2006년에는 2.6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GDP 수준에 비하여 높은 편이고,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김미숙 외, 2005).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1990년 9.7%이었는데 2005년에는 11.0%로 다소 상승하였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생계를 위해서 한부모가 생업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은 방치될 우려가 높다.

생계형 결식아동수와 요리 곤란형 결식아동의 수를 추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급식지원을 할 때는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기준으로 생계형 결식아동으로 측정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생계형 결식과 요리 곤란형 결식이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은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아동은 결식의 우려가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나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결손으로 인해서 결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극빈층이 아니면서도 부모의 적절한 보호 없이 방임된 체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급식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행 급식지원기준에서는 벗어나기 때문에 급식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기능과 경제적 형편상으로 볼 때 커다란 문제는 없는 가족이 있다. 그럼에도 급식대상에 포함된 아동이 있다. 이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발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재로서는 급식대상의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지원이 필요한 대상보다 많은 아동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급식지원의 종결기준이 없어서 한 번 지원을 받게 되면 가정의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채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²⁾

2. 아동결식의 영향

결식은 아동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결식은 Maslow의 욕구체계론(Hierarchy of Needs)에 의하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일차적 욕구인 ‘생리적인 욕구(배고픔, 갈증, 휴식, 주구,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도 아동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고에서는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결식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신체적 측면, 사회 심리적 측면, 학습 및 행동적 측면, 사회관계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체적 측면에서 결식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출한 학생성장지표에 의하면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하여 0.2~7.3% 정도 더 작다. 결식아동은 라면이나 빵과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하게 되는데,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기에 필요한 영양이 결핍되면 각종 질병에의 면역력이 약화된다(황영자, 2002). 아울러 결식으로 인해 아동은 감기, 호흡기 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치아 잇몸질환, 시력약화, 눈병, 소화불량, 만성위염, 소화기능 약화, 위궤양, 장경련, 과민성 대장염, 설사, 변비, 간염, 피부질환, 결핵, 야맹증, 빈혈, 청력장애 등이 발생하기 쉽다(이상미, 2001; 황영자, 2002). 미국의 결식과 아동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결식은 아동의 건강을 악화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더 잦은 두통과 복통을 경험하며, 학령전기 아동의 경우는 감기 걸리는 빈도가 더 높았다(Alaimo et al., 2001: 장신재, 박은미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아동기의 영양불량으로 건강에 장해가 오면 성인이 된 후에도 건강, 수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구재욱 외, 1995).

2) 이는 지자체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표 2-2〉 결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및 신체적 질병유형

빈곤/결식으로 인한 영양결핍	빈곤/결식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결핍으로 피로시 흥분 ○ 영양결핍, 만성영양결핍 ○ 일광부족 비타민D 부족 ○ 칼슘부족/골조송증 ○ 필수지방산 부족으로 약간의 추위에도 떨고 민감한 체질 ○ 비타민 B 종합결핍 ○ 비타민 B4결핍 - 정신질환과 위장질환발생 ○ 비타민 B6결핍 - 신경성빈혈, 구역질, 기억력 감퇴 ○ 비타민 C부족 ○ 오염된 상한 음식으로 인한 질병(도로가의 음식 떡볶이, 김밥, 튀김) ○ 갑상선 기능항진 ○ 추위, 청력장애 무감각 체중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능약화, 만성위염, 위궤양 ○ 장경련, 관민성대장염, 설사, 변비, 소화불량 ○ 갑상선기능 항진 ○ 당조질 질환(저혈당 치료 필요) ○ 신우염, 신장염 ○ 빈혈, 혈액순환장애, 관상동맥 경화, 저혈압/고혈압/부정맥, 관상동맥 서맥증 ○ 관절염 ○ 부비동 ○ 결핵, 간염 ○ 중이염, 체중감소, 야맹증 ○ 피부질환 ○ 호흡기장애, 감기 ○ 문란한 성 관계로 인한 매독의 유전 : 피부병, 성병으로 인한 유전적 질환

자료: 강명순. 2000. 「빈곤(결식)아동의 현황과 통합적 사회복지 접근방안」, 결식아동의 사회복지대책 워크숍 자료집.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결식아동은 집중력 부족, 자신감 결여, 책임감 부족, 애정교류부재, 부모에 대한 원망, 갈등, 열등감, 소유욕 과다, 우울증, 불안, 걱정의 순으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다(황영자, 2002). 또한 결식아동은 굶주림의 고통, 외로움, 부끄러움, 소외감, 부모에 대한 원망, 분노, 자존심의 손상, 자신감 결여, 열등감, 좌절감,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정서 등 ‘정신적 실조상태’를 겪고 있는 등 아동에게 치명적인 정신적인 손상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장숙, 1999; 염환, 1999; 강명순, 2000). 아울러 피로감, 정신적 무반응 및 애정교류의 부재, 소유욕 과다, 수면장애, 분노, 불안장애, 공허상장애, 우울 자살욕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강명순, 2000). 또한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가정과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박장숙 외, 2002). 즉, 결식아동일수록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학교생활에 대해 관심도가 낮은 등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해원(1999)은 결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자존감(Self-esteem)이 낮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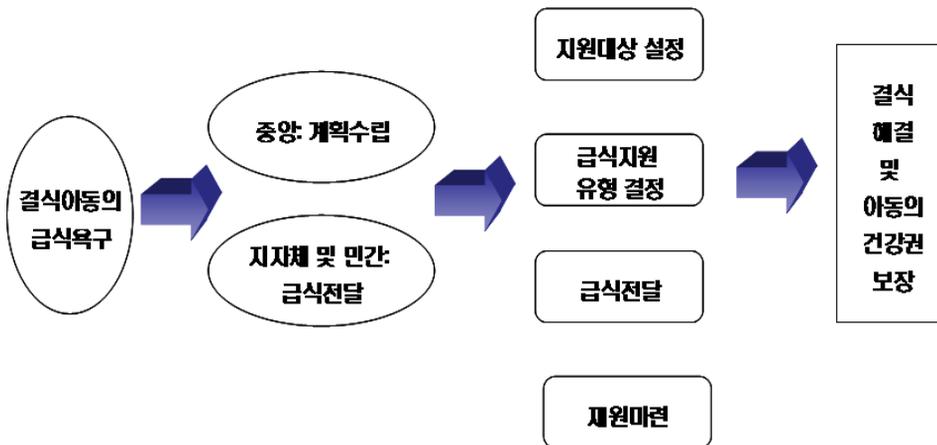
학습 행동적 측면에서는 영양의 섭취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혜경, 2003). 전반적으로 식생활이 양호할수록 과잉행동 평가 점수가 낮다는 것이다. 정경배, 김미숙(1998)의 연구에 의하면 결식아동은 학습부진문제(17.7%), 비행(6.6%)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아침식사에 대해 강조하면서 Dwyer(1969, 배은주 외, 2001에서 재인용) 등은 영양상태가 좋을수록 두뇌활동, 지적능력,

학업성취욕구 그리고 인지작용이 우수하다고 하였다. 특히 뇌는 영양공급이 항상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아침을 거르면 철분이 결핍되어 인지능력상의 저하가 온다. 이러한 상황의 아동은 행동발달도 문제가 생겨 공격적 행동, 가출, 비행 등 문제행동을 할 수도 있다(염환, 1999; 곽훈용, 2001).

마지막 사회관계적 측면에서의 결식을 영향을 살펴보면, 결식아동은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황영자, 2002).³⁾ 결식아동들은 교유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참여에도 소극적이며, 이로 인해 집단따돌림을 당하거나 단체 사회활동에서도 소외된다(이상미, 2001; 박장숙 1999; 염환, 1999). 아울러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다.

정리하면 결식아동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 아래 있다. 이는 단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라기보다는 빈곤, 가족 해체 등의 결과이다.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의식주의 해결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결식아동에 대한 식생활 지원은 단지 신체적인 보존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이 된다. 그러므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시 단지 음식을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정서 및 사회성 등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2-1) 결식아동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수립과정



3) 여기서 사회관계적 측면이란 인관관계, 사회성, 사회참여 등을 말한다(황영자, 2002)

3. 아동의 권리차원에서의 급식의 의의 및 필요성

아동의 존재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다. 저출산 문제의 대두로 아동을 미래의 생산인구, 부양인구로서의 가치가 부각되었다. 아동을 인적자원으로 보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개발을 도와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는 아동이 권리를 부여받은 독립적 인격체로서 그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192개국의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CRC는 국제적인 인권조약 중 하나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아동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CRC는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CRC에서 아동의 권리는 3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전개되는데, 첫째, 이 협약의 대상인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둘째,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아동에게 해당되는 ‘비차별의 원칙’과, 셋째, 모든 조치와 정책들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CRC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CRC가 규정하는 아동권리와 아동권리 이행에 대한 원칙은 아래 <표 2-3> 과 같이, ‘4-3-1 접근법’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 2-3>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를 위한 4-3-1 접근법

기본 권리 4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 충족의 권리 -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최상의 건강, 의료혜택, 음식),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교육, 레크리에이션, 놀이) - 위협요인 : 굶주림과 영양실조,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공격, 빈곤, 위험한 노동환경, 범죄에의 개입, 다양한 종류의 질병 - 피해아동: 15세 미만의 근로아동,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동, 부모에게 유기되는 아동, 장애아동, 소수민족아동, 난민아동, 인체면역바이러스 양성반응아동, 보호시설의 아동, 거리의 아이들(비행, 가출아동)
	보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고아 또는 난민아동, 상업적 또는 성적 착취,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무력행사, 차별로부터의 보호 - 위협요인 : 경제적 착취,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성학대, 방임과 유기, 전쟁, 흑사, 차별대우 - 피해아동: 위법행위를 한 아동,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아동(유기아), 학대당하는 아동, 성적 상품화된 아동, 거리의 아이들, 재난을 당한 아동(전쟁,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아동)
	발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최대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한 세상경험의 권리 - 신체적, 감정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지지적인 환경 - 정규적·비정규적인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 아동이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놀이, 여가, 정보를 누릴 권리,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줄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 -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알고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권리 -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 아동자신의 능력에 부응하여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권리
원칙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으로 정의하는 범위는 0-18세 미만 ○ 무차별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과정 1	○ 모든 사람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과정에 참여할 책임이 있음	

자료: 김경륜. 2005.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 아동권리교육과정 교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CRC에서 생존권과 발달권은 아동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빈곤층 아동의 급식문제는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침해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층 아동급식의 문제를 방임⁴⁾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보호권의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빈곤층 아동급식의 문제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이 박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여권의 실현될 수 없으므로 아동권리의 모든 영역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RC 의거, 모든 아동은 아동기에 <표 2-4>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 빈곤층 아동의 급식문제는 ‘생존과 발달의 권리’, ‘건강하게 자랄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또한 ‘학

4) 아동방임유형 중에서 물리적 방임은 아동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의 자녀양육 소홀이 결식의 원인이라면 물리적 방임으로 볼 수 있다.

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이 관련되어 있다.

〈표 2-4〉 어린이시절에 누려야 할 권리

내용	CRC 관련 조항
평등의 권리	2, 30
최상의 이익을 고려 받을 권리	3, 18
생존과 발달의 권리	6
신분을 가질 권리	7, 8
가족을 갖고 부모의 지도를 받을 권리	5, 7, 8, 9, 10, 18, 21, 25
불법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입양되지 않을 권리	11, 21
표현과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	12, 13, 14
결사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가질 권리	15
사생활과 가정, 가족, 통신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16
적절한 정보를 얻을 권리	17
학대와 무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9
결손가정 어린이들이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20, 22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2, 38, 39
장애아가 특별히 보호받을 권리	23
건강하게 자랄 권리 및 보건진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24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권리	26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27
교육받을 권리	28, 29
휴식과 여가, 놀이와 오락, 문화와 예술을 즐길 권리	31
어린이 노동, 인신매매, 성착취나 경제적 착취,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36, 39
고문당하지 않고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37-39
범법자 어린이들이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40

자료: 유니세프. 2005. 『2005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아동의 모든 권리와 CRC조항은 단독으로 고려되어 질 수 없으나, 그 중에서 아동결식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조항을 찾는다면 제6조와 제 27조이다. 제 6조는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며 제 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라고 선언하였다. 특히 CRC 제 27조 3항은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원의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CRC는 정부에게 아동의 생존과 아동기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결식아동을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영양권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CRC는 아동이 권리를 부여받은 독립된 인격체라는 점과 아동이 보이는 정서적, 심리적인 취약성 때문에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아동권리 보호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은 성인에게 부여된 것과 같은 인권을 갖지만 동일한 위험에서도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영향을 받고, 아동기에 경험하는 발달적 위험은 성인보다 아동에게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전쟁 상황에서 난민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영양실조와 흡사상태에서 4년 이상 생활한 성인은 난민상태나 어려운 환경이 호전되면 다음에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 생활했다면 영양결핍과 방임으로 성장과 인지발달이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고, 난민상태에서 만일 학교에 다닐 기회가 없었다면, 교육기회의 상실이 가져온 결과를 회복하기가 어려워 아동이 미래에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인권에 대한 동일한 위험이라고 해도 아동에 대한 영향력은 이처럼 다를 수 있다(이재연, 2004).

따라서 아동기에 겪는 빈번한 결식이나 불균형한 영양공급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존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장신재, 박은미, 2006). 또한 단순히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 나아가 사회·정서발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발달상의 문제는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RC의 4-3-1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아동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행동지침을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결식의 문제도 이제는 단지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권리를 기초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 즉 단순한 욕구중심(need-based)의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권리중심(right-based)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권리에 기초한 접근은 결식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결식아동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권리기반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4. 우리나라 아동급식지원제도 연혁

향후 새로운 결식 관련 아동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우리나라 아동급식정책의 발달과정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급식지원사업은 6·25전쟁 이후 외국

의 원조에 의해 시작되어 2007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기 중(연 180일) 초·중·고등학교 학생(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급식과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방학 중과 토·공휴일(연 185일)에 결식하는 아동(미취학아동 일부 포함)을 대상으로 점심(때로는 석식 또는 조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급식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또한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사랑의친구들, 푸드뱅크 등에 의해 민간 단체급식이 정부의 이원화된 급식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결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표면화되고 사회문제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부)는 1989년 중식지원사업(선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1인당 1일 1식 2,500원을 국고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로 연 180일 지원하는 사업)을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표 2-5 참조).

이후 1997년 IMF 관리체제하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으로 인해 결식하는 아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교육부의 중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1997년 1,898명에서 1998년 131,333명으로 급증하였다(교육부, 1998). 이는 당시 전체학생 8,204,224명의 1.6%로서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생의 2.1%, 중학교 학생의 1.3%, 고등학교 학생의 1.0%에 해당된다(이혜원, 1999). 1991년 중식지원을 받은 학생이 151,375명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2000년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일반가정 학생들에게도 학기 중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급식정책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2004년 12월 전국 초등학교의 99%, 중학교의 95%, 고등학교의 98.4%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러한 교육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받은 저소득가정 학생은 2005년 468,288명, 2006년 526,508명으로 증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 2-5〉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 지원 연혁

구 분	연 혁
1989년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작
1997년	중식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
1999년	수업일 및 방학기간 등 중식지원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2000년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중식지원 확대(365일 지원)
2002년	학교 내·외를 기준으로 학기중과 가정에서 식사하는 방학 등의 중식지원으로 구분 운영
2004년	교육부는 학교내 급식지원, 가정에서 실시하는 방학 등의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토록 조정(국무조정실)
2005년	학생 급식비지원사업 지방으로 이양(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결정)
2005년3월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되 소요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조정(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6, 2007.

한편 학기 중 중식 외에도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1998년 12월부터 방학 중 중식지원사업이 당시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초기에는 교육부 예산에 의해 전달되었다. 이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급식이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주관부처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수가 2003년 14,533명, 2004년 55,675명에서 2005년 250,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표 2-6 참조). 보건복지부 주체의 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양되었다.

〈표 2-6〉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발달과정

연도	사업내용
2000년	아동급식(적식)사업 실시
2001년	조직지원 일부 실시
2004년	취학아동 방학·토·공휴일 중식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확대지원
2005년	아동급식지원사업 지방이양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제2절 아동급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아동급식에 관한 연구는 최근 IMF 경제위기 이후 결식아동 문제가 부각되면서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외 주로 빈곤층 아동이나 복지서비스 수급자, 결손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일부 선행연구에 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7〉 선행연구결과 정리 1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2. 연구자	이혜원
3. 연구실시년도	1999년
4. 연구목적	방학중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 가운데 교육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부모의 만족도를 비교, 평가하여 사회복지사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결식아동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방법	겨울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시설 중 지역별 유형별 할당표집 방법을 통해 전국 18개 시설과 결식아동(초등학생) 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99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함.
6. 연구내용	현행 결식아동을 위한 중식지원사업 중 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사업의 운영실태 파악 및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의 유형별(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비인가 공부방) 서비스 만족도를 비교, 평가함.
7. 연구결과	중식지원 사업 전체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100만점에 79.8점으로 평가함. 즉, 급식, 담당자, 상호작용, 지역연계의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개별화, 프로그램, 설비, 부모참여 영역의 만족도는 전체 만족도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설유형별 만족도는 비인가 공부방, 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순으로 높았으며, 담당자가 사회복지사 유자격자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있는 경우, 양부모가정,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가정, 자녀수가 2명인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8. 정책적 제언	중식지원사업의 시설, 설비의 안전성 확보 및 지리적 접근을 위한 운송수단 제공, 영양·급식의 위생적인 관리 및 개별아동에 대한 건강·위생지도 병행,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지속적인 평가 및 개발, 담당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동의 욕구와 문제 파악 및 기록 관리, 개별아동에 관한 사후관리,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을 통한 부모역할 지원,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제시함.

〈표 2-8〉 선행연구결과 정리 2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 부천시 지역의 사례 연구'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 부천시 지역의 사례연구
2. 연구자	이혜원
3. 연구실시년도	2000년
4. 연구목적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서비스 연계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 연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부천시 지역의 결식아동 지원조직인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의 역할분담과 서비스 연계활동에 초점을 두고 결식아동 지원조직 35개소의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6. 연구내용	공공기관과 민간조직의 역할분담, 서비스의 연계, 조직간 서비스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천시 지역의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연계 현황 분석 및 대안제시
7. 연구결과	결식아동 지원조직의 시설유형(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공부방)에 따라 서비스의 연계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원봉사자 관리정도에 따라 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담당 아동 수와 재정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8. 정책적 제언	현행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동반관계 모형을 제시함.

〈표 2-9〉 선행연구결과 정리 3 '결식아동 가정실태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결식아동 가정실태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2. 연구자	이상미
3. 연구실시년도	2001년
4. 연구목적	결식아동 및 그들이 속한 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결식문제의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현행 결식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평가하고 새로운 욕구를 사정함으로써 결식아동 문제에 대한 개입의 질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결식아동 지원사업의 방향 재설정 및 사업의 질과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함.
5. 연구방법	서울시 마포구 거주자로서 마포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하여 결식아동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105명과 보호자 90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포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26개)의 결식아동 지원담당자(21명)를 대상으로 200. 10. 18부터 12. 23까지 자기기입식 조사를 실시함.
6. 연구내용	결식아동 및 가정의 일반적 특성과 결식의 원인 및 결과, 서비스지원 실태 및 현행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결식아동 가정의 욕구, 결식아동 지원사업 현황,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산정기준,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의 결식아동 가정 지원사업 실태, 외국의 관련 정책동향, 결식아동 문제 예방 및 지원방안 등으로 구성됨.
7. 연구결과	<p>결식아동이 속한 가족형태는 전형적인 양친가족 보다는 편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등 결손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호자의 학력이나 고용상태, 직업, 건강, 주거형태 및 월수입에 있어서도 기존의 빈곤가족이 갖는 문제점들의 극단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음.</p> <p>아동결식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가족구성원의 알콜중독이나 심신장애 문제와 결부된 빈곤문제이며, 간접적이고 이차적인 요인으로는 가정해체의 문제나 편부모 또는 맞벌이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양육부재 등으로 나타남.</p> <p>결식문제로 나타나는 장·단기적 결과 또는 결식의 영향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정신·심리적 문제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사회적 문제도 빈번히 지적되었음.</p> <p>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59.0%가 중식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53.6%가 두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식사를 지원받고 있었고, 46.7%가 현금지원을, 도시락 배달 35.2%, 현물지원 20.0%, 식당 이용 및 식권 19.0%이었음.</p>

〈표 2-9〉 계속

<p>8. 정책적 제언</p>	<p>아동결식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결식문제를 유발하는 빈곤문제, 가족해체 문제, 보호자 취업으로 인한 양육부재 문제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보호망, 공공부조 제도의 확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가족의 소득보장을 강화하여 극단적인 빈곤문제를 예방하고, 부모 이혼시 아동양육(비)문제를 선결 지도하고 후견인이나 가정위탁제도 활용 등을 통해 가족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탁아, 자녀양육 및 사회화를 위한 공적 지원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 정책 추진토록 함.</p> <p>결식문제의 과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영역별 아동의 제반 신체적 건강문제와 정신·심리적 문제, 학습·행동적 문제, 관계 사회적 문제완화를 위한 개입이 필요함. 이를 위해 급식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정기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아동정서지도와 심리·상담서비스, 전문적 치료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의 정신·심리적 문제 완화하며, 장학금 지원, 학습지도, 공부방 시설, 전문적 상담·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의 학습·행동적 문제를 완화하고, 후견인 제도의 활용이나 인간관계 훈련,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단체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의 관계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도록 함.</p> <p>결식아동 및 그들이 속한 가정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욕구사정을 통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개발 보급토록 함.</p>
------------------	---

〈표 2-10〉 선행연구결과 정리 4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
2. 연구자	박장숙, 전진호, 김성준, 손혜숙, 이종태
3. 연구실시년도	2002년
4. 연구목적	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는 결식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결식아동의 생활실태 및 사회·심리적 특성 분석, 지원대책 관련 욕구조사 결과 등을 통해 결식아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책 개발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부산광역시 소재 6개 사회복지관을 통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결식아동 110명과 급식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1개 초등학교의 일반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재식 조사 실시
6. 연구내용	결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일반적 특성, 가정과 학교생활 환경, 가출과 자살 관련 사항, 고민사항을 비교하고, 결식지원 실태로 결식지원 방법 및 경로, 결식이유, 결식해결방법, 결식아동의 욕구 등을 조사함
7. 연구결과	<p>결식아동의 경우 주거형태는 전세·사글세·영구임대 비율과, 편부·편모의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높으며, 부모의 직업도 무직·가사·기타의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높음. 결식아동이 가정분위기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출충동 및 가출경험 모두 결식아동이 많았고, 가출에 대한 충동도 결식아동이 많았음.</p> <p>결식아동의 52%가 친구들이 자신이 결식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를 희망하였으며, 결식지원방법으로는 급식비(73%)와 먹거리(76%)가 가장 많았으며, 선호하는 지원방법으로는 생활비 형태이었음. 결식지원 경로는 대부분 사회단체와 학교가 많았음.</p> <p>결식이유로는 가난이 주요 이유이었으며, 이외 부모님의 실직, 사망, 가출 등이 있었고, 결식지원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지원으로는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희망함.</p>
8. 정책적 제언	효율적인 결식지원은 물질적 지원과 함께 손상된 정서와 소외감을 배려하는 심리적 지원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까지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결식문제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환경요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표 2-11〉 선행연구결과 정리 5 '결식아동의 급식 실시현황 및 정책제언'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결식아동의 급식 실시현황 및 정책제언
2. 연구자	정기혜
3. 연구실시년도	2005년
4. 연구목적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개진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문헌연구
6. 연구내용	결식아동 급식 실시 현황 및 문제점을 제공대상, 지원체계, 전달체계, 예산지원 체계, 도시락의 영양상태, 지원조직 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
7. 연구결과	결식대상 아동의 정의와 범위, 결식대상아동 확대 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결식아동, 빈곤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으로 대상아동 선정의 적절성 제고, 정부자원 활용 측면에서 각 학교의 급식시설 및 인력을 방학 중 적극적으로 활용, 조리식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하도록 함. 방학 중 급식단가는 기본적으로 학교급식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형평성을 우선 검토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충분한 활용이 요구됨.
8. 정책적 제언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한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차원에서의 급식관련 정책, 제도, 인프라 등에 관한 종합대책 마련

〈표 2-12〉 선행연구결과 정리 6 ‘방학 중 아동급식의 영양학적 진단 및 정책대안’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방학 중 아동급식의 영양학적 진단 및 정책대안
2. 연구자	양일선
3. 연구실시년도	2005년
4. 연구목적	결식아동 부실 도시락 식단을 영양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 도시락 식단을 제시하며, 향후 아동급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문헌연구
6. 연구내용	부실도시락의 영양학적 진단을 통해 방학 중 아동급식 개선을 위한 도시락 식단 제시. 이를 위해 도시락 식단의 구성원칙, 도시락 식단 10종, 도시락 가격제별 식단 영양소 분석을 실시함.
7. 연구결과	부실 도시락 과문의 대표적인 예인 서귀포시와 군산시의 결식아동 지원 도시락을 영양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열량이 부족하고, 주요 반찬이 가공식품, 튀김류로 지방, 콜레스테롤, 염분의 양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칼슘, 무기질 등 필수영양소가 함유된 음식이 거의 없어 영양구성이 불량함. 결식아동과 같은 영양위험군의 경우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 건강에 장애가 올 경우 신체적·정신적 발달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 체위, 건강,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급식지원에 있어 영양적 위험의 예방과 관리가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영양권장량(2000년 7차 개정)에 의한 13세 초등학교 남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식단을 제시함.
8. 정책적 제언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현재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단체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등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있어 균형잡힌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표 2-13〉 선행연구결과 정리 7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급식지원실태 및 급식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급식지원실태 및 급식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2. 연구자	장신재, 박은미
3. 연구실시년도	2006년
4. 연구목적	결식아동·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성을 평가하고, 급식지원 만족도와 이와 관련된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도출해냄으로써 향후 급식지원체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함.
5. 연구방법	2005년 3월 현재 서울지역에서 결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미취학, 초·중·고 재학생을 표본틀로 하였으며, 확률표본추출방법으로서 층화집락추출법을 활용하여 25개 자치구로 이루어진 서울권역을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지역으로 두 층으로 구분한 후 각 층을 영구임대아파트 지역과 일반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1개씩의 자치구를 무작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각 층에서 4개 동을 추출함. 추출된 4개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결식지원 아동·청소년 348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함.
6. 연구내용	좋아하는 음식제공 정도, 음식의 양에 대한 만족, 급식지원 시간의 적정성,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 실질적인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등으로 아동·청소년 자신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급식지원 관련 사항들의 만족도를 파악함.
7. 연구결과	급식지원대상자는 주로 한부모 가정의 초·중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급식기간은 1년 미만이 52.3%로 가장 많았음. 대부분의 대상자가 2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53.1%), 급식지원방법은 도시락 배달이 82.8%이었음. 선호하는 급식지원방법은 식권이나 급식비 지급 등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46.1%), 급식지원에 관해서는 대부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급식지원 사유에서는 부적절한 지원대상자가 31.8%나 되어 지원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급식지원서비스의 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으며(평균 3.41), 급식지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가정형편을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록, 수급대상자가 아닐 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8. 정책적 제언	부모의 양육능력과 의사에 대한 사정, 아동학대 및 방임예방, 적절한 보호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과 청소년보호 관련 지원서비스 확보, 이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보육기관, 아동·청소년보호전문기관 등과 같은 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망 활용 등을 제시함.

〈표 2-14〉 선행연구결과 정리 8 ‘구멍뚫린 결식아동 급식체계 해결방안은 없는가’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구멍뚫린 결식아동 급식체계 해결방안은 없는가?
2. 연구자	조홍식
3. 연구실시년도	2006년
4. 연구목적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급식지원방법, 결식아동 급식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으로 결식아동 급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문헌연구
6. 연구내용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현황 및 문제점, 급식지원 현황 및 문제점, 결식아동 급식 지원체계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의 아동급식사업 대상 선정기준, 전달체계, 사업평가방법 비교 등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함.
7. 연구결과	<p>학기 중 급식과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의 취지와 집행기관이 다르고 급식대상자 선정기준도 상이해 급식지원 아동 수의 차이를 보임.</p> <p>결식아동의 급식지원 체계의 문제점은 민간 간, 그리고 민·관간, 정부 부처간 서비스 중복 문제 및 서비스 부재문제, 지역사회복지 관련단체 및 기관 등의 역량부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식당, 도시락 업체를 통한 위탁급식 지원 증가에 따른 급식의 질 저하 우려, 아동급식에 대한 시각의 문제로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며, 성장기 아동의 적절한 영양공급을 위한 표준화된 식단 부재함. 미국과 일본의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대상선정기준, 전달체계, 급식지원사업의 배분기준 및 평가방법을 비교함.</p>
8. 정책적 제언	결식아동 지원사업에서 아동급식사업으로의 전환,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급식예산의 현실화, 효율적인 아동급식 전달체계 및 점검체계 구축, 급식 프로그램의 양적, 질적 제고 등을 제시함.

〈표 2-15〉 선행연구결과 정리 9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내용
1. 연구제목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2. 연구자	이형하
3. 연구실시년도	2006년
4. 연구목적	결식아동의 발생원인과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결식아동 지원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 연구방법	문헌연구
6. 연구내용	결식아동의 발생원인, 결식아동의 지원되는 급식의 현황 및 문제점을 Gilbert와 Terrell(2002)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기본틀(목표체계, 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방학중 급식프로그램 등을 비교함.
7. 연구결과	<p>결식아동의 발생원인 중 빈곤은 아동보다는 아동이 속한 가구의 빈곤원인으로 접근해야 함. 이혼의 증가, 한부모 가구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열악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함.</p> <p>결식아동 지원정책의 분석에서 결식아동 정책목표 개발에 있어 기본적인 관점은 결식아동을 위한 정책은 아동의 교육권과 생존권, 복지권 등 권리보장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목표체계), 결식아동은 현재의 가정 내에서 의식주를 포함하여 가장 기초적인 양육조건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이라는 점에서 중식지원 아동에 대한 명확한 대상체계 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함(대상체계), 보다 안전하고 접근성이 확보된 학교급식 시설이용 방법을 모색하고 낙인감 문제 극복을 위해 학습지도, 문화프로그램 운영, 생활지도, 심리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함께 제공(급여체계), 전달체계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부는 기초생활의 책임성과 서비스 접근용이성의 역할을 분담하여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지원된 재정과 위탁된 운영권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바탕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전달체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으로 일원화 할 것과 급식설비와 인건비 등의 현실적 급식운영비 지원의 병행을 언급함(재정체계).</p>
8. 정책적 제언	결식아동 대상선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우선실시, 민간단체에 교육복지 프로그램 신청제 도입, 방학중 학교급식 시설 활용, 농어촌, 낙도 등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직접적인 급식, 도시락배달, 현물지원이 어려운 결식아동을 위한 가정 내 적절한 요리공간 확보 및 집기비품 지원을 위한 결연사업 확대,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면, 자치단체 교육조례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내용 포함, 아동급식위원회 활성화, 아동급식 지킴이 활동 강화, 국가차원의 급식정책과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푸드뱅크와 지역아동센터 연계한 전달체계 개선 등을 제시함.

이상에서 결식아동 및 급식지원제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아동급식관련해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기준 및 효과적 급식방법의 선택이다.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동급식관련실태의 파악이다. 현재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안적으로 급식지원 아동을 대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아동결식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제도 내에서 혜택 받지 못했던 아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또한 현재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시설 중에서 일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급식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것처럼,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결식사유가 ‘생계형’에서 ‘요리곤란형’ 또는 방입아동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가족 및 보호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가족형태별 각각의 아동의 급식 욕구를 파악하여 단순히 결식문제를 ‘식사’제공으로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벗어나, 현 사회 및 가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급식방법에 대한 효과를 사례별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현 급식은 공급자 중심, 즉 행정의 편의상 지자체별로 급식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급식방법의 효과를 파악하고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단체급식소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단체급식소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단체급식아동의 자존감, 건강상태 등의 결과를 제시한 것처럼 단체급식소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체급식지원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급식방법에 대한 효과검증은 필수적이다.

종합하면 급식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 및 급식시설, 나아가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제3절 연구분석틀

빈곤층 아동에 대한 현행 급식지원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Gilbert와 Terrell(2005)가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분석틀인 급여의 대상(The Basis of Social Allocations), 사회적 급여의 형태(The Nature of Social Provision), 급여의 전달체계(The Design of Delivery System), 급여를 위한 재원(The Mode of Finance)을 기반으로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내용의 적합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재원의 충분성을 분석틀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참조).

아동급식에 있어서 급여의 지원대상이란 누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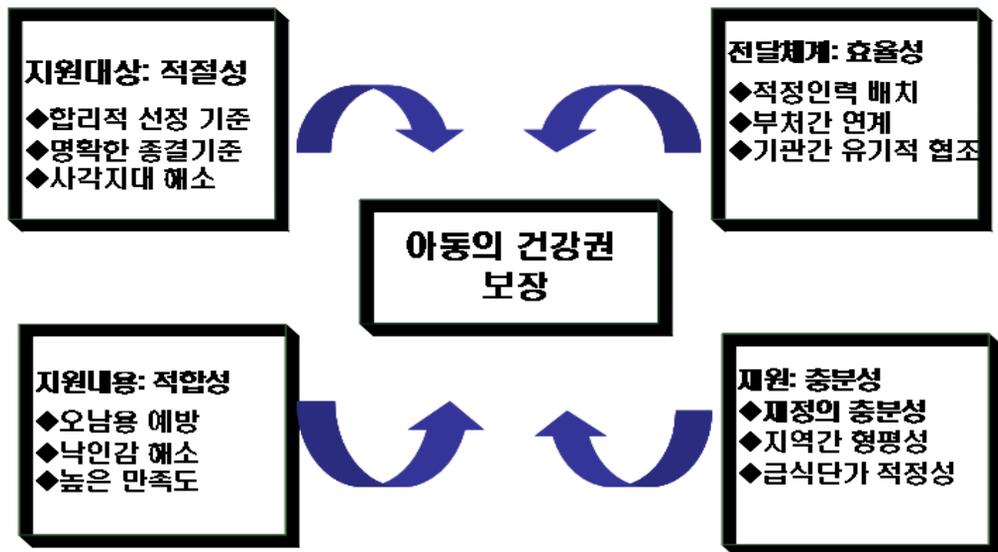
이다. 이는 대상이 바르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대상이 바로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이 명확화 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누락되지는 않는지, 즉 사각지대의 존재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가 아닌데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targeting이 잘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급여의 지원내용이란 일반적으로는 현금을 제공하는지 현물, 증서, 기회, 권력 등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것인데, 아동급식에서는 단체급식, 도시락, 주부식, 상품권, 지정식당 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각 형태에 대한 장단점의 평가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달체계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에 관한 것으로 아동급식은 공공과 민간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때, 담당인력의 충분성, 급여의 전달 상의 효율성을 위한 인프라로서 인력, 기관간 관계의 유기성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이란 사업을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와 재원의 충분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동급식에서 재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민간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급식 재정 규모에 있어서의 충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2-2) 연구분석틀



이러한 연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별 연구분석틀에 의거한 주요 조사(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6〉 연구분석틀에 의거한 연구대상별 주요 조사내용

분석틀	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민간담당자 대상 실태조사	아동설문조사	아동사례조사
급식대상	<input type="checkbox"/> 명확한 선정기준 <input type="checkbox"/> 종결기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각지대 존재 여부	<input type="checkbox"/> 명확한 선정기준	<input type="checkbox"/> 가족유형 및 가구수입	<input type="checkbox"/> 가족유형 및 경제수준 <input type="checkbox"/> 급식동기
급식내용	<input type="checkbox"/> 유형별 장단점 <input type="checkbox"/> 오남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개별 대 단체급식	<input type="checkbox"/> 바람직한 급식형태 <input type="checkbox"/> 표준화된 식단 여부 <input type="checkbox"/> 아동중심의 식사제공 <input type="checkbox"/> 개별 대 단체급식	<input type="checkbox"/> 질 및 양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발육상태 <input type="checkbox"/> 식품섭취 상태 <input type="checkbox"/> 선호하는 급식형태 <input type="checkbox"/> 낙인감여부 <input type="checkbox"/> 개별 대 단체급식 <input type="checkbox"/> 자존감 및 가족응집성	<input type="checkbox"/> 유형별 만족도 <input type="checkbox"/> 급식지원후 생활변화 <input type="checkbox"/> 개선 희망사항
전달체계	<input type="checkbox"/> 담당인력의 충분성 <input type="checkbox"/> 부처간 연계정도 <input type="checkbox"/> 공공 민간 연계정도	<input type="checkbox"/> 인력의 충분성 <input type="checkbox"/> 기관간 협조정도 <input type="checkbox"/> 급식설비 구비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식제공 장소	<input type="checkbox"/> 급식제공 장소
재원	<input type="checkbox"/> 급식단가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재정의 충분성	<input type="checkbox"/> 급식단가의 적절성 <input type="checkbox"/> 예산의 충분성	-	-

제3장 우리나라 아동급식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아동급식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 2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아동 급식지원 체계 현황을 Gilbert와 Terrell(2005)이 제시한 사회정책 분석틀인 급여의 지원대상, 급여 지원내용, 전달체계, 재원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뒤, 우리나라 급식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1절 아동 급식지원제도 현황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동급식지원은 사회복지행정적 관점에서 아동급식서비스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수급자격이 있는 아동을 선정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급식(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을 직접 전달하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재규정할 수 있다.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기본 목표는 지역사회 모든 저소득가정(절대빈곤가정은 물론 상대빈곤가정아동 포함)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 ①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급식 제공
- ② 스스로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 ③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력체계(네트워킹) 구축

가. 지원대상

우리나라에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연령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이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2007)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는 2001년 14,218명, 2002년 13,610명, 2003년 13,792명, 2004년 47,505명, 2005년 148,304명, 2006년

257,276명을 지원하였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가정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②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사회복지관 등의 급식지원기준은 지역아동센터기준에 의함
- ③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④ 학교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아동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⑤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

다섯 가지 선정기준 가운데 특히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이라는 선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역별로 또는 대상가구별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지원대상아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행정적 혼란을 가중함으로써 선정절차의 소요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소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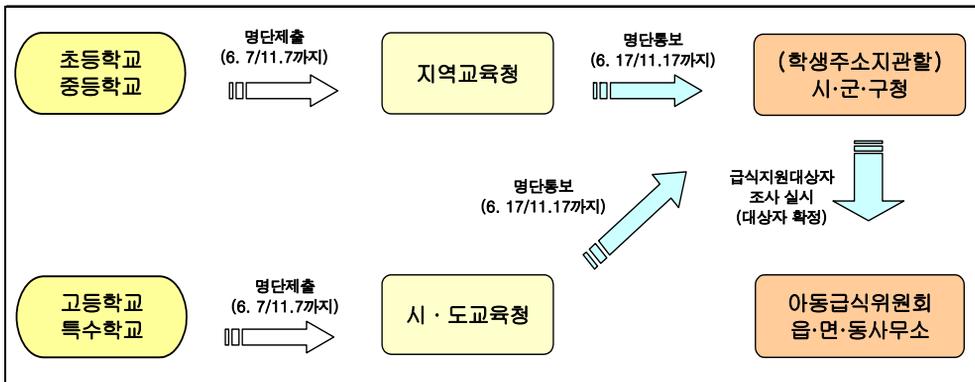
한편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대상아동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선 정기조사는 매년 상반기 6월~7월과 하반기 11월~12월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된다.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아동을 파악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계획하며 확보할 수 있는 재정규모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정기조사는 학기가 시작하는 3월에 실시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수시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연중 수시로 실시될 수 있으며,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실시될 수 있다.

- ① SOS 상담소 운영 및 SOS 상담전화(1688-1004)를 통한 신고
- ②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 등을 통한 추천
- ③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④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은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통해 현재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계속지원 여부, 급식을 지원받고 있지 않으나 급식이 필요한 새로운 아동, 현재 교육

인적자원부의 학기 중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 가운데 방학·주말·공휴일에 중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을 확인하여 앞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방학·주말·공휴일에 중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은 [그림 3-1]과 같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현재 학기 중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 명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에 따라 연 2회 이상 지원대상아동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때 읍·면·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은 지역교육청은 물론 학교 급식담당자, 교사 등과 긴밀한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중복이나 누락됨이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상아동을 선정하고 개별아동에 적합한 급식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3-1] 방학·토·공휴일 급식지원대상아동명단 전달과정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그림 3-1]에서 관할 교육청이 학생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사회 시·군·구청에 학교급식 비지원학생 명단(이하 명단)을 통보하는 횟수는 연 2회(상·하반기)이며, 통보 시기는 매년 5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명단을 6월 7일과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명단을 6월 7일과 11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명단을 제출받은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명단을 학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6월 17일과 11월 17일까지 통보한다.

지역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명단을 학생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6월 17과 11월 17일까지 통보한다. 명단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학기 중(평일 조.석식, 주말·공휴일)과 방학 중 급식지원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시·군·구청은 방학시작 7일전까지 아동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방학 중 급식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학시작 3일전까지 지역교육청(초·중학생)과 시·도교육청(고등 특수학생)에 방학 중 급식지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아동, 학기 중 중식 지원수급아동, 차상위저소득가정아동, 기타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발굴하여 추천하거나 의뢰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의 식사내용, 조리담당자상황, 동거가족, 취학여부, 기초생활수급여부, 결식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생활실태와 욕구를 수시로 조사하고 재사정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자는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아동이 느낄 수 있는 낙인감에 유의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경청하고 아동의 눈높이와 현재의 일상적인 가족상황에 맞춰 아동이 원하는 급식지원방법과 내용을 아동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해당 아동의 자립능력이 지지되고 강화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능력도 강화되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은 시·군·구청 담당자에 의하여 최종 정리되어 분석된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는 지역별로 지원대상아동을 선정하고 개인별 급식방법을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다. 아동급식위원회가 지원대상아동을 선정한 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시·군·구가 우선 해당 지원대상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추후 아동급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한편 미취학아동은 인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통해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취학아동의 급식과 보육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지원내용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우선 지원대상아동의 연령, 특히 초등학교 이상 취학여부에 따라 미취학아동급식과 취학아동급식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영·유아나 학교 밖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식(이하 미취학아동급식)은 해당 아동의 개인 및 가족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식·중식·석식과 <표 3-1>의 급식 유형들 가운데 선택하여 제공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급식(이하 취학아동급식)은 지원시기(학기 중 주중,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방학)와 지원주체(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기타 민간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제공된다.

- ① 학기 중 주말·공휴일 중식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교육청과 협의)
- ② 조·석식 연중 지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③ 방학 중 중식지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④ 학기 중 중식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학교)

이때 담당자는 해당 아동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지역특성, 예컨대 아동 및 가족의 취사 또는 조리능력, 부모의 귀가시간, 동거가족의 상황, 지역사회 식사제공 가능시설 등을 고려하여 <표 3-1>의 급식유형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여 제공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현금지급은 불가능하다. 현재 해당 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식의 유형은 우선 급식을 받는 인원수에 따라 단체급식과 개별급식으로 구분된다. 단체급식은 단체급식을 할 수 있는 비영리적 민간시설 수, 학교급식시설 대여여부 등 해당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단체급식소 급식과 일반음식점 급식으로 구분된다. 개별급식은 해당 아동과 가족의 개별상황에 따라 도시락 배달, 주·부식 지원, 식품권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현행 아동급식유형은 총 다섯 가지이며, 각 유형별 장점과 단점은 <표 3-2>와 같다.

<표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단체급식(집단급식)의 단체급식소 급식은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 사회복지관 등을 급식장소로 확대하여 급식지원대상아동은 물론 센터와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현재 함께 이용하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도 급식을 제공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조리실 등 급식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기준에 근거하여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급식지원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급식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급식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을 급식소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인근지역 학교가 방학기간도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이해하여 급식지원대상아동들에게 방학 중 또는 학기 중 주말과 공휴일에 자연학습, 컴퓨터교실, 독서교실, 캠프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교급식소 등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방안이 장려되고 있다.

〈표 3-1〉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급식유형별 장점과 단점

구분(현재 이용률, 서울)		장점	단점
단체 급식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학교급식시설 등 (26.87%)	<input type="checkbox"/> 1식 3,000원 <input type="checkbox"/> 아동과 종사자의 만족도 높음 <input type="checkbox"/> 학습·정서프로그램과 병행 <input type="checkbox"/> 식사 직접제공, 전달용이 <input type="checkbox"/> 따뜻한 밥, 신선도 위생관리 (음식부패, 식중독 예방)	<input type="checkbox"/>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 (자원봉사인력 의존) <input type="checkbox"/> 급식소 개소수의 지역별 편차 <input type="checkbox"/> 급식시간 준수/이동서비스
	일반음식점 (50.17%)	<input type="checkbox"/> 식권의 일괄(월 1회) 배급 <input type="checkbox"/> 지리적 접근성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음식선호별 선택	<input type="checkbox"/> 메뉴의 제한(중식, 분식) <input type="checkbox"/> 낮은 단가로 업소선정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한 번에 2-3장 식권 사용
개별 급식	도시락 (9.32%)	<input type="checkbox"/> 가정으로 직접배달의 편리성 <input type="checkbox"/> 배달 자원봉사자의 정기적 가정 방문에 의한 안부확인	<input type="checkbox"/> 여름철 식중독 우려 <input type="checkbox"/> 겨울철 식은 음식 취식 <input type="checkbox"/> 배달과 아동귀가 간 시간차이 <input type="checkbox"/> 낮은 급식단가(배달용기비용 부가)로 인한 영양부족 우려 <input type="checkbox"/> 배달 자원봉사의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낙인감·수치심 우려
	주·부식 (9.47%)	<input type="checkbox"/> 동사무소에서 쌀·반찬 일괄구입 후 일괄 배급 <input type="checkbox"/> 아동과 보호자의 선호 반영 <input type="checkbox"/> 장기간 보관, 맞춤형 조리 가능	<input type="checkbox"/> 가족 및 어린 아동이 조리할 수 없는 경우, 결식 우려 <input type="checkbox"/> 배송·취식이 쉬운 품목 중심 선정, 아동의 선호 미반영
	식품권 (4.04%)	<input type="checkbox"/> 아동과 보호자의 선호 <input type="checkbox"/> 자유로운 선택 <input type="checkbox"/> 조리능력이 없어도 반조리·완조리 식품의 구매 및 취사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생계급여의 부가급여로 전략 <input type="checkbox"/> 다른 생필품의 구매 가능성 (보호자의 타 용도 전용 우려) <input type="checkbox"/> 급식의 효과성저하 (취사·조리할 수 없는 가족·아동의 경우 효과성 제로)

자료: 서울시청, 「내부자료」, 2007.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 및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을 아동급식 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강원도 속초시청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지역사회 학교와 연계하여 방학 중 학교급식시설을 차용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생 60명 전원에게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조식 지원 후 지원대상아동의 비만과 유분증이 치료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었다(이승우, 2007).

한편 일반음식점 급식은 지역사회 유지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급식식당을 발굴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때 담당자는 발굴된 식당을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음식점의 위생·영양관리를 위하여 시·군·구청 위생과와 민간음식업협회 등 관련단체와의 지도감독네트워킹을 구축한다.

개별급식에 있어서 도시락 배달은 도시락배달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특히 자활근로인력을 급식 취사와 도시락 배달인력으로 활용한다. 주 부식 지원은 지역사회와 해당 아동 개인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쌀, 반찬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할인점, 농협(수협), 식품업체, 푸드뱅크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식품권, 빵 등은 오지, 산간벽지, 도서지역, 도심외곽지역, 농어촌지역 중에서 사실상 급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가능한 식품권을 통한 지원은 지양하되, 최대한 급식의 기본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부득이 식품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이 지급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방학 등 학교수업(보충수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하고 차액은 주 부식 등으로 지원한다.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는 선정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표 3-2>과 같이 개인별 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식지원계획표는 해당아동 개인별 가족사항, 급식유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전화번호, 지역사회 아동급식 관련기관·시설·단체의 담당자 연락처, 해당아동의 친척·교사·친구·이웃·교회의 연락처 등, 즉 해당아동과 가족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자원체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표 3-2> 급식지원대상아동 개인별 급식지원계획표

급식자		급식 유형	급식장소		담당공무원		자원봉사자		비고
성명	연락처		장소명	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성명	연락처	

자료: 보건복지부, 『2007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이 지역사회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이들 간 네트워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사회 아동급식 관련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 업체를 공식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사회에 홍보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② 단체급식소 급식은 사회복지 관련기관·시설·단체 등과 함께 급식을 제공받을 인원(이하 급식인원)과 급식메뉴 등을 협의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③ 관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 사회복지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
- ④ 일반음식점 급식은 희망하는 아동의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관련업체 담당

자의 아동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⑤ 공공기관에 의한 도시락 배달은 지역사회 자활기관의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도시락배달사업단을 우선적으로 활용한 급식지원사업계획(급식인원·메뉴·위생관리·식중독예방관리·도시락배달자원봉사자관리 등)을 작성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 제출, 이에 근거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⑥ 민간에 의한 도시락 배달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진함. 이때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업체는 구체적인 급식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출된 계획서 가운데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관리, 식중독, 배달지연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식중독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에는 도시락 배달을 제한함
- ⑦ 주·부식지원은 사회복지 관련기관이나 민간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급식인원, 급식메뉴, 위생관리, 배달관리, 사업자의 아동복지의식 등을 검토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 ⑧ 식품권 등 기타유형은 식품권을 전용한 사례가 없고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민간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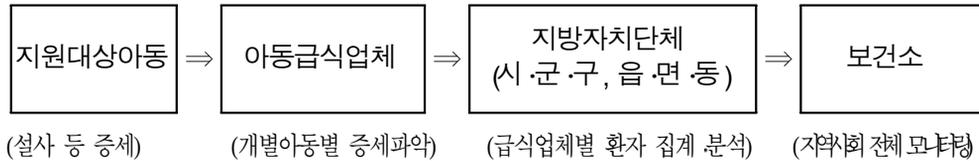
이와 같이 선정된 모든 아동급식업체는 반드시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급식메뉴를 작성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하고 당일에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기관·시설·단체, 이하 아동급식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동급식위원회가 위생관리 관련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예컨대 아동급식 담당자는 식품구입단계부터 시장조사를 통해 양질의 식품을 구입하고 이때 식품의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용기 훼손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식품의 검수와 보관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참고로 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할 지역 내 위생관련부서와 협력하여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위생관리 상태와 건강상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복지법 관련 규정⁵⁾을 준수하여 근본적으로 아동급식사업의 식중독예방 대책을 포함하는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대상아동이 급식을 제공받은 직후 30분~24시간 이내 발생한다. 따라서 식중독과 같은 급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그림 3-2]와 같은 지역사회 아동급식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아동급식업체는 아동 및 가족으로부터 이상여부 연락 등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이하 모니터)하여야 한다.

[그림 3-2] 지역사회 아동급식모니터링체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는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6)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영양기준을 별도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영양사가 아동급식위원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동위원회는 급식단가를 1식 당 3천원 이상으로 하되, 지원대상아동수와 급식유형이나 전달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단

5)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급식위생>

-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영양사가 식단을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경우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수도 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영양기준 및 급식회수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4.29>
-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급식시설(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4.29>
-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7) 학교급식의 영양기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가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자원봉사인력이 지원되는 집단급식소와 민간식당 등의 급식단가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인상될 수 있다. 이때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 안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인건비, 연료비, 도시락·주부식 배송료 등이 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아동급식지원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한편 아동급식업체는 제공하는 급식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된다.

(1) 단체급식소·일반음식점 급식(집단급식)

- 지자체 관련부서(위생과)와 협의하여 위생관리 실태 점검
- 급식소,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실태 및 시설안전 점검
- 특히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확보 등 적합한 급식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 후 결정

(2) 도시락 배달(개별급식)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락 제작·배달에 대해 식중독예방 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그러나 하절기에는 도시락 제작 및 배달사업을 억제함)

(3) 주·부식(개별급식)

-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관리
- 실제로 조리하여 식사하는지를 담당자의 전화 또는 가정방문, 배달자원봉사자 등을

구분	연령(세)	체중(kg)	신장(cm)	열량(Kcal)	단백질(g)	비타민 A(R.E.)	비타민 B1(mg)	비타민 B2(mg)	나이아신(mg)	비타민 C(mg)	비타민 D(μg)
소아	4~6	18.5	108	534	13.4	134	0.27	0.34	3.67	13.4	3.34
	7~9	26.6	126	600	16.7	167	0.30	0.37	4.00	13.4	3.34
남자	10~12	37.0	142	734	20.0	200	0.37	0.44	4.67	16.7	3.34
	13~15	50.0	159	800	23.4	234	0.40	0.47	5.34	16.7	3.34
	16~19	63.0	172	867	26.7	234	0.47	0.54	6.00	18.4	3.34
여자	10~12	36.0	142	634	20.0	200	0.34	0.40	4.34	16.7	3.34
	13~15	48.0	155	667	21.7	234	0.34	0.40	4.34	16.7	3.34
	16~19	54.0	160	700	21.7	234	0.37	0.44	4.34	18.4	3.34

* 1. 영양기준은 한 끼 기준량을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성장상태, 건강, 활동정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2. R.E.는 레티놀 당량(Retinol Equivalent)임

통해 확인

■ 조리여부 확인 시 아동의 낙인감 유의

(4) 식품권 등(개별급식)

■ 식품권의 다른 용도 사용여부, 다른 사람의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 참여 급식업체에 대해 타 용도 전용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 실시

다. 전달체계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은 <표 3-3>과 같이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정부차원의 급식지원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와 급식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이원화되어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보건교육과가 학기 중 학교급식지원을 담당하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가 방학 중과 토·공휴일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 시·도 보건복지국 산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과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급식지원 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다시 아동복지시설유형에 따라 기관(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시설(어린이집 등), 기타 단체(푸드뱅크, 자원봉사단체 등)로 구분된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실업극복운동본부는 정부와 민간의 아동급식지원을 연계하는 민간조직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3]과 같다.

〈표 3-3〉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의 운영주체별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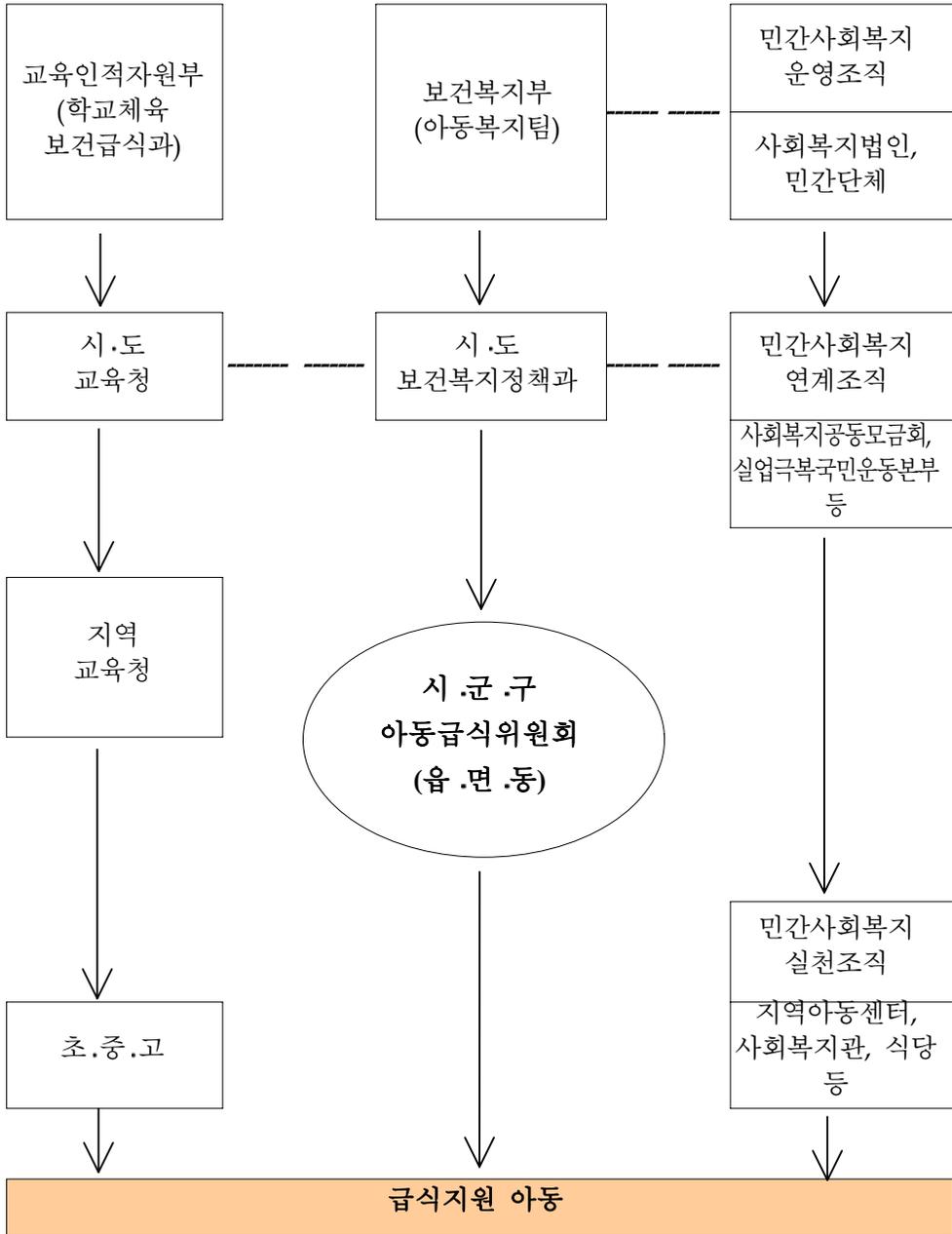
구분	운영주체		조 직	
정부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특수교육보건과 아동복지팀 시·도 보건복지정책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아동급식위원회	학교 읍·면·동사무소 희망스타트
* 정부와 민간 연계조직: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간	법인(비영리)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등	
	비법인	단체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랑의친구들 등	
		개인	결연 이웃주민 등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WE Start관련단체 종교단체 방과후교실 자활후견기관 푸드뱅크	

이와 같이 다원화된 전달체계 가운데 본 절은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 즉 지방자치단체급식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04년부터 방학 중 급식지원업무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으로써 급식관련 인프라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림 3-3]과 같이 민간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와 함께 아동급식(지방자치단체급식)을 전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속초시청 사회복지과 We Start 운영센터는 급식관련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교의 협조와 네트워킹을 통해 학교급식시설을 대여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학기 중에는 조식과 석식도 제공하였고 2007년 7월 여름방학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가정 아동 총 60명에게 영양교육 등 학습·정서·일상생활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들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려되었던 방학 중 등교로 인한 낙인감문제도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문적 개입정도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었다⁸⁾.

8) 2007년 7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급식지원실무자 대상 포커스그룹인터뷰의 기록에서 발췌·인용하였음.

(그림 3-3) 아동급식지원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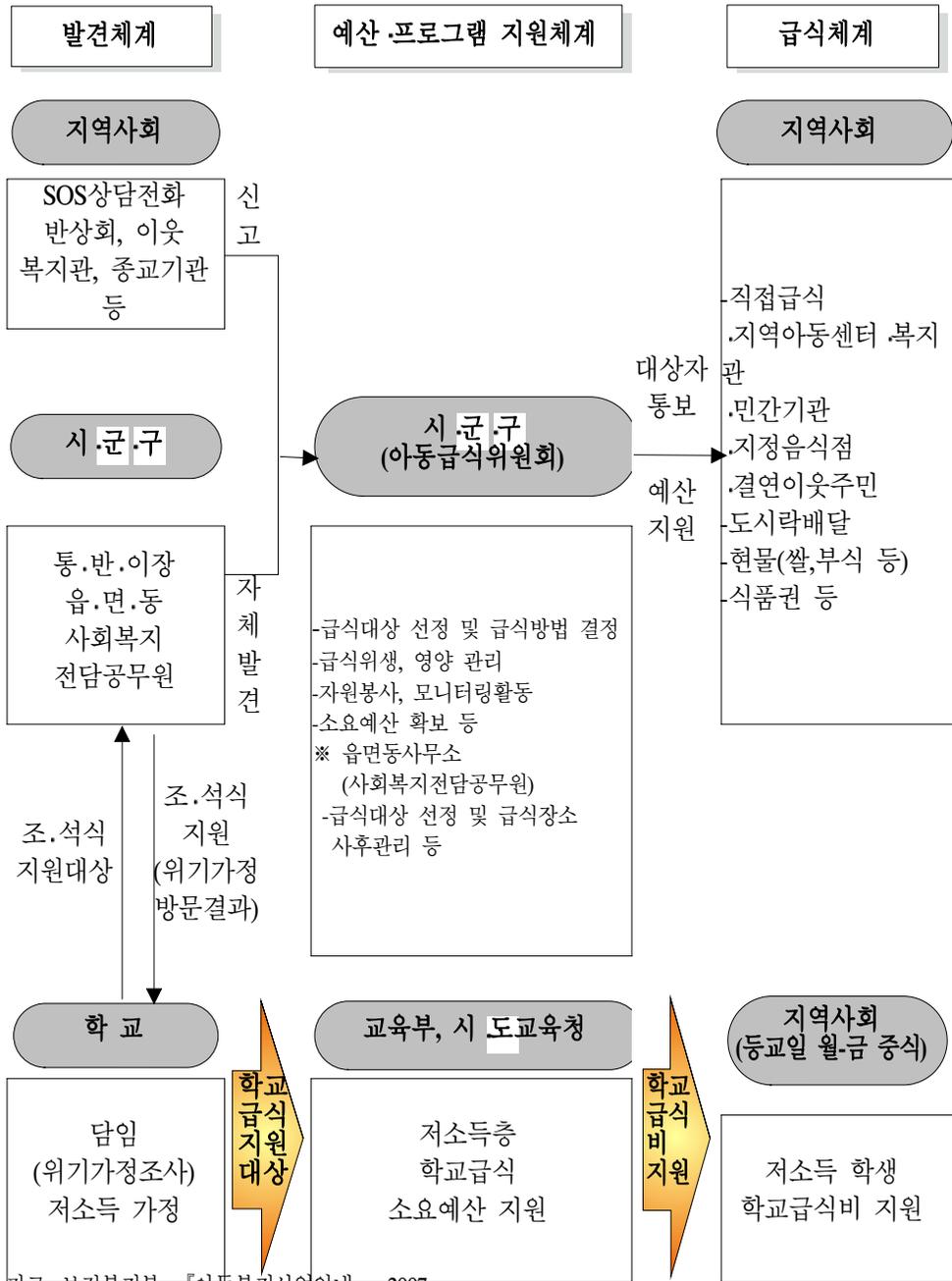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급식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의 협조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안전관리부족, 영양부족, 급식용기 비용부가, 도시락 및 주·부식배달 자원봉사자 미확보, 전문성 부족,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급식지원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영리민간(법인과 비법인)이 운영하는 아동급식지원조직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식당(일반음식점), 도시락업체를 통한 위탁급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이때 이들 민간업체의 식재료 선정기준에서부터 영양기준 준수여부 등에 관한 수시 감독(모니터링) 절차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 이로 인해 급식의 맛과 영양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04년 서귀포시와 군산시에 전달된 도시락을 영양학적으로 평가한 결과, 제공된 열량(Kcal)은 400~550Kcal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장기 10~12세 아동의 필요열량인 2,202Kcal/일(남), 1,902Kcal/일(여)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정기혜, 2005)⁹⁾. 또한 식품권의 경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실제 급식이 아동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 효과성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림 3-4]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 전달체계 가운데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능과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하였다.

9)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는 급식의 영양기준(한 끼)을 10~12세의 경우 734Kcal/일(남: 142cm, 37.0Kg), 634Kcal/일(여: 142 cm, 36.0Kg)로 제시하고 있다. 더구나 빈곤가정아동은 조식을 매일 또는 1주일에 2~3회 거른다는 조사결과(허남순, 2007에서 재인용)를 감안하면, 이들 아동은 대부분 한 끼 급식을 통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영양의 부족은 이들의 신체적 발달을 저해함은 물론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학습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그림 3-4) 지방자치단체급식지원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표 3-4〉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동위원회에서 자율선정 · 위원은 학부모, 교사, 시·군·구청, 교육청,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 단체, 아동급식단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각 1인으로 구성 · 동위원회 사무담당 간사 1인(아동급식담당계장)
운영	<p>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위원회 산하 「아동급식지킴이」를 자율적 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아동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감시 등 모니터링 실시 - 통·반장·이장,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구성 · 동 위원회 산하 「급식아동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아동의 경우 급식 외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라. 재원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기 중(연 180일) 학교급식은 국고 50%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50%로 분담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건복지부의 방학·토·공휴일(연 185일) 지방자치단체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수준에 따라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는 등 매우 불안정한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2006년 여름방학 급식지원아동수가 학기 중 19,000명에서 4,500명(학기 중 학교급식의 25%)으로 급감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 경우 학기 중 7,247명에서 방학 중 4,800명(66%)으로 감소하였다(이형하, 2006).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취학아동에게 방학·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물론 학기 중에도 조·석식을 연중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취학아동에게는 조·중·석식을 1식당 평균 3,000원(강남구의 경우 4,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연중 조·석식과 방학 중 중식은 시비 50%, 구비 50%로 나누어 부담하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교육

청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서울시청, 2007).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 아동급식관련조직의 경우 정부로부터 비정기적이며 불안정한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계획적이며 전문적인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담당인력의 인건비와 급식시설비 등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효과성마저 저하되고 있다.

한편 2004년 겨울방학 중 지방자치단체급식은 당시 아동급식지원확대정책에 의하여 국가 예비비와 복권기금 171억원과 지방비 201억원을 확보하여 전달되었고, 급식단가는 1인당 2,5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지원방법과 급식유형에 따라 급식단가의 적정성여부는 다른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기혜, 2005). 즉 도시락과 주부식의 경우 배달료(평균 500원)와 용기료(평균 300원)가 부가되기 때문에 실제 급식단가는 1,700원(식재료비는 8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으로써 급식의 영양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 보건복지부의 급식지원사업 요약

구분	내용
목적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 급식능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함
급식의 개념	-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동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식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 희망자 -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 - 학기중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자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지원내역	- 미취학아동: 조·중·석식 - 취학아동: 조·중·석식 (조·석식 년중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학기중 중식 지원은 교육청(학교),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은 사·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방학 중 중식지원: 지방자치단체 - 2005년 3월 이후 급식단가는 1식당 3천원임(이전은 2,500)
주 지원 방법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주부식지원, 기타(식품권 등) 방법으로 지원(현금지급은 불가)
연소요예산	-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자치단체가 부담 -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사·도교육비특별회계)
전달체계	-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사·군·구에서 정리 분석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 개인에 맞는 급식 방법 결정 - 「아동급식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이후 추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 사·군·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
재원	-2005년도 지방이양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안내』, 2007.

바.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2004년부터 급식지원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의 3.4배정도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04년도의 3.1배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2005년보다 1.7배 증가하였다. 지난 6년간 20배이상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매년 50%이상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3-6〉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1	14,218	1,087	8,067	3,461	1,939
2002	13,610	893	7,654	3,390	1,673
2003	13,792	790	7,275	3,788	1,939
2004	47,505	1,443	22,840	13,049	10,055
2005	148,304	1,954	71,780	41,701	32,532
2006	257,276	4,504	126,948	51,841	51,841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전체 아동수 대비 급식지원아동수(아동급식지원율)는 2003년 0.1%에서 2004년 2.1%로 약 20배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2%를 유지하고 있다.

〈표 3-7〉 급식아동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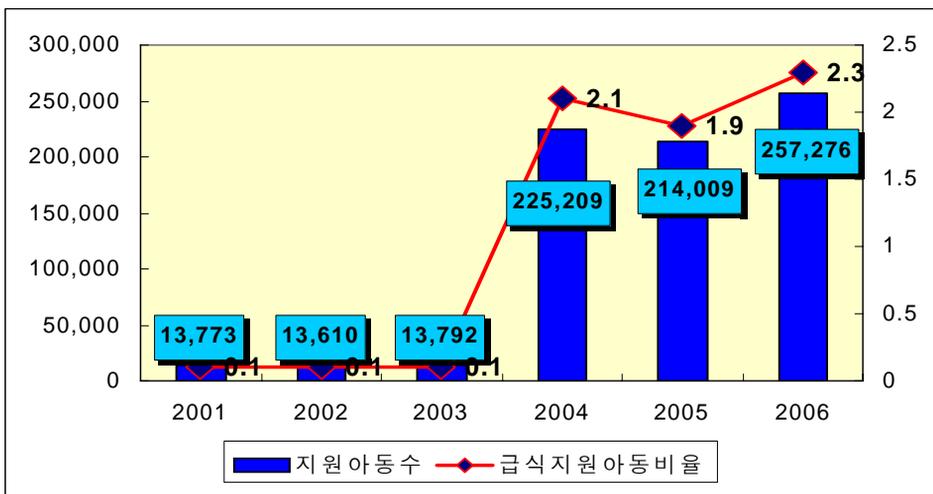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체 아동수	11,831,190	11,659,864	11,489,959	11,335,159	11,150,456	10,969,338
급식지원아동수	13,773	13,610	13,792	225,209	214,009	257,276
급식지원아동비율	0.1	0.1	0.1	2.1	1.9	2.3

주: 12월 말 기준임. 아동은 18세 미만 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그림 3-5] 급식지원 아동수 및 지원율



급식지원사유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60%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한부모 가정¹⁰⁾과 저소득맞벌이 가정이 많았다. 즉, 급식지원사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다른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문제와 복합적으로 아동양육의 어려움도 주요인이 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표 3-8〉 2006년 급식지원사유

(단위: 명)

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외						
		소계	저소득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보호자 질병·장애	부모 가출·행불	부모 알콜중독	기타
257,276 (100%)	155,170 (60%)	102,106 (40%)	37,765 (37%)	38,929 (38%)	6,736 (7%)	5,225 (5%)	707 (1%)	12,744 (12%)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현재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지원방식은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등 5가지 유형의 급식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지자체 특성에 따라 이러한 5가지 급식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 따라 급식방법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전국 16개시·도 중에서 단체급식소 지원방식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60%)이며, 일반음식점 지원방식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61%), 부산(64%), 대구(52%), 인천(49%), 광주(56%)이다. 도시락 지원방식 비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주부식 지원방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48%), 전북(54%), 전남(47%), 제주(72%)이며, 식품권 지원방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51%), 충북(57%), 충남(57%), 경북(52%), 경남(79%)이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단체급식, 일반음식점의 비율이 높은 반면, 지방은 주부식, 식품권이 높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식품권이 27%로 가장 많았고, 일반음식점 25%, 주부식 21%, 단체급식소 1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10) 김안나 외(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빈곤아동가구의 한부모 가구는 비빈곤가구보다 약 10.2% 가량 높고,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빈곤아동을 비교해 본 결과, 한부모가구의 빈곤아동률은 양부모가구의 빈곤아동률에 비해 전반적으로 2~3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3-9〉 지역별 아동급식지원 방식 분포

(단위: 명)

구분	총 계	단체급식소				일반 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기 타
		소 계	사회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기 타					
전 국	257,276 100%	41,695 15%	3,875 2%	34,558 13%	3,262 1%	64,913 25%	25,362 10%	52,812 21%	69,601 27%	2,893 1%
서 울	35,456 14%	5,560 16%	842 2%	4,213 12%	505 1%	21,762 61%	3,541 10%	3,388 10%	1,205 3%	- 0%
부 산	13,362 5%	3,012 23%	610 5%	2,226 17%	176 1%	8,506 64%	471 4%	1,070 8%	303 2%	- 0%
대 구	9,883 4%	1,122 11%	503 5%	566 6%	53 1%	5,101 52%	200 2%	3,169 32%	167 2%	124 1%
인 천	19,804 8%	3,386 17%	142 1%	3,203 16%	41 0%	9,647 49%	2,414 12%	4,288 22%	69 0%	- 0%
광 주	8,124 3%	1,671 21%	305 4%	810 10%	556 7%	4,567 56%	767 9%	777 10%	229 3%	113 1%
대 전	4,962 2%	2,984 60%	272 5%	2,540 51%	172 3%	693 14%	1,076 22%	209 4%	- 0%	- 0%
울 산	5,793 2%	1,009 17%	- 0%	979 17%	30 1%	372 6%	760 13%	702 12%	2,950 51%	- 0%
경 기	34,293 13%	10,202 30%	454 1%	8,669 25%	1,079 3%	5,005 15%	7,872 23%	6,123 18%	4,725 14%	366 1%
강 원	11,093 4%	1,199 11%	175 2%	993 9%	31 0%	386 3%	1,774 16%	5,355 48%	2,061 19%	318 3%
충 북	12,582 5%	2,802 22%	148 1%	2,654 21%	- 0%	85 1%	913 7%	1,612 13%	7,170 57%	- 0%
충 남	14,318 6%	1,683 12%	22 0%	1,661 12%	- 0%	2,426 17%	482 3%	1,591 11%	8,136 57%	- 0%
전 북	19,002 7%	1,185 6%	- 0%	886 5%	299 2%	117 1%	487 3%	10,196 54%	7,012 37%	5 0%
전 남	12,274 5%	921 8%	146 1%	674 5%	101 1%	47 0%	2,194 18%	5,761 47%	1,480 12%	1,871 15%
경 북	23,405 9%	2,265 10%	256 1%	1,790 8%	219 1%	3,534 15%	2,072 9%	3,200 14%	12,238 52%	96 0%
경 남	26,520 10%	1,981 7%	- 0%	1,981 7%	- 0%	2,665 10%	130 0%	775 3%	20,969 79%	- 0%
제 주	6,405 2%	713 11%	- 0%	713 11%	- 0%	- 0%	209 3%	4,596 72%	887 14%	- 0%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2. 교육인적자원부

가. 지원대상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1989년부터 정책사업으로 초등학교 결식아동 중식지원으로 시작하여 1997년에 중식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실제로 결식하거나 결식우려 아동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교육복지 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원과 차상위계층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표 3-10〉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내역	-학기 중 평일 학교급식 무료 제공 (연간 180일, 37만원 정도)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 전액 지원 -학교급식비 단가(1식당 평균) : 초등 1,700원, 중등2,500원 (학운위에서 결정)	
선정시기	-재학생은 2월말, 신입생은 3월초	
선정기준	자치단체 증빙에 의한 지원대상자	담임교사 추천에 의한 선정대상자
	· 자치단체 석식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 복지시설 수용학생	·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 차상위계층 · 결손,근로능력부족,실직,기타
선정절차	-학교에서 자치단체 증빙서 확인 후 선정 확정	-담임교사가 보호자 상담, 가정방문 확인 등을 통해 담임교사추천의견서 작성 >해당학생 보호자 의견 수렴 >담임추천의견서를 기초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6, 2007.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수급권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등 자치단체 증빙에 의한 지원대상자와 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 차상위계층, 결손, 근로능력부족, 실직, 기타 등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다.

자치단체(읍면동)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명단을 통보받아 선정하고 입증자료 확보가 곤란한 학생은 학교단위 '학생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학교장이 선정한다.

나. 지원내용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지원 내용을 보면, 학기 중 평일(180일)에 시도교육감 책임 하에 각급 학교를 통해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재학생은 학년 말에, 신입생은 학년 초에 선정을 한다.

다. 전달체계

2004년부터는 급식지원 관리체계도 개선되어 학기 중 평일의 학교 내 급식은 교육부-교육청-학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 및 토·공휴일 등 학교 밖의 급식지원은 복지부-자치단체-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라. 재원

한편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지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확보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담당하되 소요예산은 교육청에서 부담토록 조정되었다.

급식비 지원액은 2000년 952억원에서 2001년 1,135억원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했다가 2002년 1,121억원으로 감소하였다. 2003년 1,277억원으로 13.9% 증가, 2004년 6.8%, 2005년 6.2% 증가하였고 2006년에 21.2% 증가한 1,755억원을 급식비로 지원하였다. 2007년 4월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은 저소득층자녀 578,827명에게 급식비 205,95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액은 전년대비 17.3%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소요예산은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전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다.

마. 중식지원 이등 현황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급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학생수는 2000년 전체 학생의 2.1%인 164,00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체 학생의 7.5%인 578,827명까지로 확대되어 2000년에 비해 3.5배 정도 대상자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급식지원대상자는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39.8%), 고등학생(30.4%), 중학생(29.8%)순이다.

〈표 3-11〉 교육인적자원부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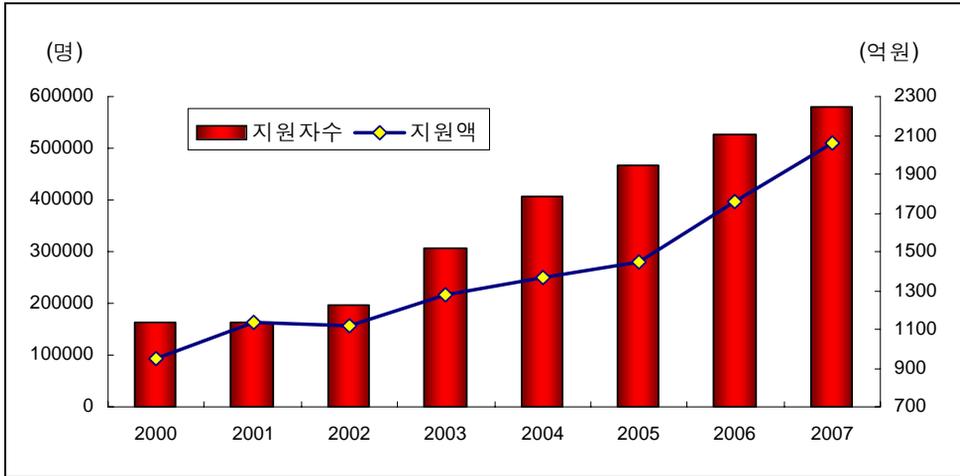
년도	전체 학생수				급식지원대상학생수				지원 비율	지원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2000	4,020,141	1,865,226	2,095,630	7,980,997	90,000	28,000	46,000	164,000	2.1	95,223
2001	4,089,569	1,835,897	1,934,647	7,860,113	90,000	28,000	46,000	164,000	2.1	113,523
2002	4,138,511	1,845,672	1,817,840	7,802,023	101,980	46,895	48,828	197,703	2.5	112,054
2003	4,075,820	1,854,657	1,766,529	7,697,006	163,610	65,606	76,352	305,568	4.0	127,703
2004	4,130,263	1,933,855	1,744,027	7,808,145	157,876	120,029	129,967	407,872	5.22	136,391
2005	4,031,590	2,004,528	1,762,882	7,799,000	193,113	142,610	132,565	468,288	6.00	144,757
2006	3,945,289	2,071,588	1,755,121	7,771,998	212,247	156,674	157,587	526,508	6.77	175,549
2007	3,826,161	2,060,781	1,852,214	7,739,156	230,277	172,614	175,936	578,827	7.5	205,952

주: 2007년도 수치는 2007년 4월 조사한 결과임.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0~2007.

급식지원 대상자수와 지원액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지원대상 학생수는 2000년과 2001년 164,000명에서, 2002년 전년대비 20.6% 증가한 197,703명, 2003년은 54.6% 증가한 305,568명, 2004년 407,872명으로 33.5% 증가, 2005년 14.8% 증가한 468,288명, 2006년은 12.4% 증가한 526,508명이었고 2007년은 대상자수 578,827명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림 3-6)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수 및 지원액 추이



자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0~2007.

2007년 학교급식의 지원사유별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수 80만명 대비 지원을 72.4%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우리아동, 복지시설수용학생, 모·부자 및 소년소녀가장은 100%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37.2%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2007년 학교무료급식 지원사유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기초생활 수급자	결식우려 아동	복지시설 수용학생	모·부자 소년(녀)가장	차상위 계층
지원대상(명)	800,000	295,043	7,692	10,974	134,264	352,027
지원인원 (지원율)	578,827 (72.4)	295,043 (100)	7,692 (100)	10,974 (100)	134,264 (100)	130,854 (37.2)

주: 2007년 4월 조사한 결과임.

자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0~2007.

2006년 12월 발표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5개년 계획을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저소득층자녀 전체(약 800천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04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결식아동, 복지시설수용아동,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 대상자는 전원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2011년까지 차상위계층 100%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3-13〉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계획

(단위: 천명, 억원)

구분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연차별 계획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학생수(천명)	579	629	679	729	800
소요액(억원)	2,060	2,230	2,410	2,590	2,800

자료: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2000~2007.

제2절 아동급식지원체계의 문제점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대 급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원화된 전달체계로 인한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방학 중 급식은 대상자 확충 등을 위해 사전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거나 구축하지 않고 확대되어 실시됨으로써 담당 인력의 업무과중과 전문성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영양사 등 급식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학 중 학교급식시설대여 등 실제적인 협조 없이 급식관련 인프라가 전혀 없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다보니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과 영양측면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인프라 부족, 급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결여, 자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활용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다(정기혜, 2005; 이형하, 2006;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2007).

1. 지원대상

아동급식의 목적은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목표는 지원대상아동의 영양과 보건을 위한 아동급식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보장함은 물론 결식의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적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생계곤란형 결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대상아동의 결식 원인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생계곤란(빈곤)에 있다는 단정(斷定)적인 전제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부의 편협한 인식은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실제 목표를 생계곤란에 의한 결식문제의 해결에만 치중하여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이 지원대상아동을 단순히 하루 한 끼니 이상 식사를 거르는 생계보호대상자로 간주하여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연장선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에 의존하여 해당아동을 소극적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거르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에만 급급한 잔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결식의 다양한 원인에 관한 가구별·지역별 실태조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상 생략되고 있다. 그 결과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가급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이라는 선정기준은 곧 담당공무원의 **임의적 해석과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지역별·가구별 일관성이 결여되고 행정적 혼란을 가중시킴으로써 행정시간은 물론 행정비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소진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지원내용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이 생계곤란형 급식지원에만 치중하고 조리곤란형 급식지원을 소홀히 한 결과, 단순급식만을 제공하고 있다. 즉 지원내용에 있어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의 실제적인 일상생활상황을 고려하여 개입한 현실적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지원대상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관한 사정과는 거리가 멀고,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또한 단절되어 있고,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위한 통합적 사례관리 또한 미흡하여 급식의 효과성이 낮고 아동과 가족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예컨대 급식지원대상아동은 영어와 수학 등 학습지원을 제공받고 싶은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현행 급식이 학습지원 프로그램과는 단절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욕구조사 결과, 생계가 곤란하나 조리에 어려움이 없는 고학년 아동의 경우 낙인감 없이 직접 조리하여 먹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행 급식지원의 60%는 식품권, 일반음식점, 주부식, 단체급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아동의 욕구와 상반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식품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오남용의 소지가 많다.

"결식아동 식품권 팝니다"

도시락 대신 식품권 일괄 지급...매매 등 부작용 속출

▲ 모 대학 인터넷에 버젓이 식품권 판매 광고가 올라왔다.

결식아동등에 대한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이 '형식'에 치우치면서 정작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능한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아동과 가족의 개별상황보다는 '안전'과 '편의'에 무게중심을 둔 급식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근 도내 모 대학교 아나바다 장터에 '마트 식품권 20장(6만원 어치) 팝니다'란 글이 올랐다. 사용가능 매장과 사용기간(2007년 9월 2일까지), 당배·주류는 구매할 수 없다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1장당 3000원짜리 20장을 5만원에 넘긴다'고 밝혔다. 3000원짜리 '마트 식품권'은 제주시에 서귀포시에서 결식학생들의 급식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초 도시락 파동 이후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상 인원이 확대됐고 해당아동의 선호하는 형식으로 지원방식이 개선되기도 했다. 식중독 등을 이유로 도시락 대신 식품권 지급이 늘어나면서 일부에서 식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생필품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다. 도내에서 식품권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결식학생은 제주시 3985명, 서귀포시 867명 등 4852명이다. 학기 중에는 1주일 또는 2주일 간격으로 식품권이 지급되지만 방학 중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상 학생별로 방학일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면서 학생에 따라 많게는 15만원 상당의 식품권을 손에 쥐게 된다. 제주시는 지역 내 5개 복지관에서, 서귀포시는 읍·면·동사무소 차원에서 지역 내 결식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교환 가능한 매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이용 현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식재료 등을 구입한 후 남은 금액만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거나 세제 등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보호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수십 장의 마트 식품권을 돈으로 교환하겠다고 나선 이번 상황에 대해 사회복지사나 관련 기관들에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주시의 경우 사회복지관 당 평균 797명의 대상학생을, 서귀포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45명) 1인당 19명을 관리해야 한다. 민간자원봉사자들도 많지만 이들의 노력만으로 급식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한 관계자는 "대상학생들에 대한 설문 등을 통해 '상품권' 지급을 결정했지만 종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모두를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대상자를 늘리기 보다는 아동과 가족의 상황에 따라 차별화할 수 있는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 제민일보(<http://www.jemin.com>). 2007년 8월 7일.

3. 전달체계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거친 아동급식지원은 일선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해 해당 아동 및 가족에게 전달된다. 이 때 담당자는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가 관할하는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 체계에 따라 급식을 전달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아 1인 당

담당 가구가 150가구 이상이 되는 등 업무량이 많아 전문성 발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더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인구집단별로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서비스의 중복과 획일화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의 아동의 상황이나 통합적 발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우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같은 전문 전담인력의 부족, 이로 인한 사례관리의 부족과 전문수퍼비전 체계의 미흡, 이미 앞에서 지적한 선정기준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지침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소진, 대상아동·가족의 욕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접근방식으로 인한 효과성의 저하,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부족, 아동위원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인력(이하 아동급식지킴이)의 활용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행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관련부처별 아동급식지원 관련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전달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보호법, 교육기본법 등 아동급식관련법은 지원대상아동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일한 대상아동에 대하여 각기 다른 부처에서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상호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처별 관련기관 간 네트워킹 미흡, 아동급식지원 이원화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지역사회 방임아동 등 위기가정아동보호네트워크의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 3-13>과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의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이 달라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그 결과 학기 중 급식지원아동수와 방학 중 급식지원아동수가 차이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학기 중에는 중식을 지원하나 방학 중에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만 지원하기하며 학기 중 중식지원대상아동이 지방자치단체급식의 지원대상에서는 탈락되기도 하는 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표 3-14〉 현행 교육청과 서울시의 급식지원대상아동의 선정기준

지원기관	선정기준	관련법
교육청	학기 중 여러 가지 사정에 학교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지원	학교급식법 제1조
서울시	학기 중 학교무료급식 대상자 및 지역사회 저소득가정 아동 중 가정사정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동사무소)를 통해 선정	아동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부지침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서울시청, 『내부자료』, 2007.

취학아동수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수는 2006년 247,772명이며 교육인적자원부 지원대상자수는 526,608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대상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지원대상자수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부처간의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 후 이를 조정하거나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표 3-15〉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급식지원대상자 현황 비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 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 복지부	교육인적 자원부
미취학	790	-	1,443	-	1,954	-	4,504	-
초등학생	7,275	163,610	22,840	157,876	71,780	193,13	126,948	212,247
중학생	3,788	65,606	13,049	120,029	41,701	142,610	51,841	156,674
고등학생	1,939	76,352	10,055	129,967	32,532	132,565	51,841	158,587
계	13,792	305,568	47,505	407,872	148,303	468,288	257,276	526,508
미취학아동제외	13,002	305,568	16,062	407,872	146,349	468,288	247,772	526,508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6.

지금까지 지적한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우리나라 전체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아동급식지원의 중심축 부재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초기 접수와 진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중앙부서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가족

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지만, 아동복지서비스를 일선에서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는 행정자치부의 산하에 있어 정책을 수립한 중앙부처의 직접 통제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및 부서 간 협조도 제한되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타 업무 겸임 등 업무과다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효율성도 저하된다.

한편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사회 아동보호네트워크(보호망)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컨대 방학 중 전달되는 지방자치단체급식은 지역단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도 노인을 위한 급식과 아동을 위한 급식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호협력이나 연계 없이 각각 독자적인 체계로 운영되거나 전국 250개 이상 설치된 푸드뱅크 체계는 거의 활용되지 않음으로써 전달체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나. 아동급식지원의 공공성 부재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지원대상아동의 보호에 관한 질적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전달체계의 난립과 업무위탁은 급식지원업무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연계와 협력체계의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공공 아동복지행정의 구심점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새로운 전달체계가 난립하고 있다.

다.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미흡

현행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는 결식과 같이 아동을 방임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인 제재가 미약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아동이 방임 및 방치되고 있으며 결식, 과식, 불균형한 영양소 섭취 등으로 인한 성장 및 발육 문제 등을 낳고 있다.

라.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와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 행정의 중복 가능성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상의하달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업무와 청소년복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전달이 중복되고 있다.

4. 재원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중앙정부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은 오직 제31조로서 비용보조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중앙정부의 명문화된 책임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재정에 관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의 미흡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격차와 급식지원제도의 불안정,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미흡으로 인한 급식지원사업의 연속성 부족, 정부의 민간조직에 대한 비정기적 지원으로 예산계획의 적절성·시의성 미흡, 인건비와 급식시설비 등 급식운영비의 비현실적 책정에 의한 전문성 저하, 급식단가의 제한으로 인한 영양부족,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급식의 형평성 미흡을 들 수 있다.

제4장 주요 선진국의 아동급식 지원제도

선진국에서는 기아가 사라진지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기 쉽지만, 선진국이지만 21세기 현재까지 기아가 존재하는 국가도 있다. 이는 국가의 가족 및 아동에 대한 복지지출규모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낮아 빈곤하여 결식하는 아동이 적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높아 결식하는 아동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아동복지체계를 갖춘 노딕국가들의 아동빈곤율¹¹⁾은 6% 전후에 불과한 반면, 미국, 영국 등은 20%를 상회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 독일 등도 10% 이상의 높은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다(Bradbury & Jäntti, 2003).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결식아동도 존재하고 있어 결식아동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선진국이면서 높은 아동빈곤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결식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사회복지 제도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 유사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구분 상에서 동일한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미국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제도

미국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제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국내 기아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서 1992년 Medford Declaration 이후 ‘기아와의 전쟁’ 선언과 미국내 기아를 1995년까지 퇴치하고 2000년까지는 미국의 모든 가정의 식량의 자족과 식량의 보장(food security)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제안 등에 힘입어 식품지원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미국 연방정부의 식품과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농무성(USDA)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첫 번째 목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양취약계층의 영양을 최소한 보장하고, 굶주리는 인구를 없애는데 두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인 미국은 잉여농산물을 저소득층에게

11) 여기서 사용한 아동빈곤율의 정의는 상대아동빈곤율로 전체 아동가구 중 OECD 국가에서 사용하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분배하여 농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급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1)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NSLP), 2) 아침급식 프로그램(School Breakfast Program: SBP), 3) 하계 급식 프로그램(Summer Food Service Program: SFSP) 이며, 이외에 아동보육시설이나 성인주간보호시설 등에 지원하는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이 있다. 이들 4가지 프로그램이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의 1/4 정도를 차지하며, 미국의 아동영양 안전망(nutrition safety net) 역할을 한다. 2004년 회계연도에 네가지 프로그램 예산은 11.9백만달러에 달한다(www.ers.usda, 2007. 8. 6 access).

이 프로그램 외에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Food Stamp) 프로그램이 있으며, 영양적으로 취약한 5세까지의 어린이와 영아, 임산부, 수유부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무성의 WIC(Women, Infants, and Children) 프로그램, 우유 급식 프로그램(Special Milk Program), 보건후생성 HRSA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미취학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육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등이 있다.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으로 농림부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EFNEP(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등도 들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매우 방대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우리나라의 실시하는 결식아동 지원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각 주정부들이 학교, 탁아소, 하절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NGO 등 자원봉사기관이 청소년과 학령기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령기 어린이 급식 및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 학교 아침 프로그램(SBP), 하계 급식 프로그램(SFSP)을 들 수 있다.

미 농무성에서는 위의 급식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나 학령기 어린이를 위한 영양 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 확대 식품영양 교육 프로그램(EFNEF Youth,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Youth)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4-H 프로그램과 비슷하나 여기서는 식품과 영양으로만 주제를 제한하여 교육시킨다.

현금 및 현물지원 이외에 미 농무부에서는 모든 학교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주정부 및 각 지역 학교영양 담당기관과 함께 영양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선택하도록 교육하고, 또한 학교 급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훈련 및 기술지원도 하고 있다. 즉,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Team Nutrition Initiative □□같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기술적 지원, 영양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프로그램인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 아침급식 프로그램(SBP), 하계 급식 프로그램(SFSP)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전달체계와 사업예산과 재원구조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NSLP)은 1946년에 제정된 National School Lunch Act에 의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점심을 급식하는 프로그램이다. 2006년에 이 프로그램의 수혜 학교는 10만개의 공립학교, 비영리 사립학교와 보육시설 등이며, 수혜 아동수는 약 3,013만명에 달한다. 이 중 반 수 이상의 학생이 무료(49.6%) 또는 저가의 식사(9.7%)를 제공받았다(USDA, 2007).

중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정부로부터 현금보조와 물품지원을 받는 대신에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영양수준을 충족하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 수혜자격이 있는 아동에게는 무료 또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 미만인 가정의 아동에게는 무료급식을, 그리고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30~185% 수준인 아동은 할인된 요금으로 실비급식을 받는다. 가구소득이 빈곤선의 185%를 넘는 가정의 아동은 식사요금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중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교는 식사제공에 소요되는 식료품비 및 급식시설 설비·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식사요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사요금은 각 지역의 학교급식 담당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각 학교 또는 지역 교육위원회는 무료 또는 실비식사 수혜대상이 될 자격요건을 결정하는 정책과 기준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또한 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수혜대상이 되는 학생이 결정되면 각 학교는 무료 및 실비식사 대상아동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다른 식당이나 배식줄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반학생과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중식 프로그램은 시행초기에는 일반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법개정을 통해 복지시설 내 아동 및 장애아동까지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취업모가 많은 지역에 있는 아동을 위한 민간 비영리 또는 공공시설로서 탁아소, 수련원, 기타 가정이 아닌 보육시설을 모두 포함한다(USDA, 2007; 조흥식 외, 2000).

- 무료 급식: 빈곤기준의 130% 미만에 해당하는 가정의 어린이
- 할인된 급식: 빈곤기준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가정의 어린이에게 수혜 가능

아침급식 프로그램(SBP)은 1966년에 일부 지역에서 학교를 선택하여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미 농무성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으며, 1975년 이후 정착되었다. 점심 급식에 비해 시행하는 학교는 적다. 아침급식 프로그램은 점심을 제공하는 학교급식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형태, 반 씩 부담하는 형태, 모두 무료인 형태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2005년에 8만 2천개 학교에 지원되었다.

하계 급식 프로그램(SFSP)은 1969년에 시작한 것으로 적어도 반 이상의 어린이가 무료거나 반값의 학교 점심 급식 자격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 제한되어 여름 방학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의 세 끼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여름방안 급식 프로그램이다.

하계급식 프로그램(SFSP)을 통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이트 내의 18세 이하 아동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라도 장애인으로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하계 급식 프로그램(SFSP)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급식하는 식사가 연방정부의 영양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방 농림부 지원사업이지만 일선에서는 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2006년에 190만명 이상의 저소득층 어린이가 방학 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 곳의 급식장소에서 무료로 식사지원 혜택을 받았다. 대상자의 기준은 50% 이상의 어린이가 185% 빈곤기준 이하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하며 그 외에도 일반 지역에서 신청을 한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금 이외에도 지역 학교, 지방 정부, 여름 캠프, 지역의 기관들, 기타 다른 비영리 단체 등의 지원이 있다. 운영의 기준은 NSLP와 같은 영양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만 18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내용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미 농무성(USDA)의 영양 표준에 맞도록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학교는 미국인 식사지침에 따른 영양적인 지침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학생들의 1일 영양 요구(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철, 칼슘, 칼로리)의 1/3 이상 충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이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결식을 하지 않고 영양가 있는 점심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무료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 받을수 있도록 현금과 식품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학교급식 프로그램을 평가 결과 학교 급식교의 학생들이 비 급식교의 학생들에 비해 열량과 영양소의 섭취가 모두 높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에서 지방 및 포화지방과 소듐, 단순 당의 섭취는 감소시키고 섬유질과 복합 탄수화물의 섭취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식단이 작성되도록 돕고 있다.

아침급식 프로그램(SBP)은 적어도 반 이상의 어린이가 무료거나 반값의 학교 점심 급식 자격이 있는 지역의 학교에 제한되어 여름 방학 동안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의 세 끼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여름방안 급식 프로그램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식 외에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 정부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는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다.

3. 전달체계

상기 3가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중식 및 아침에 대한 급식프로그램 속에서 대상아동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미국 연방정부의 식품과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농무성(USDA)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보건후생성(DHHS)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선 지역에서는 보건이나 교육부서에서 급식이나 식품영양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무성의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식품영양 담당(Food and Nutrition Service) 부서 내에 식품소비자국(Food Consumption Service: FCS)을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USDA, 2007).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농무성 식품소비자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주(state)정부 차원에서 주교육부를 거쳐 지역사회 단위의 해당 지역교육구(school districts)로 행정체계가 연결되어 있다. 학교중식 프로그램의 실시여부는 해당 지역교육구의 동의를 얻어 각 학교단위로 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하계급식 프로그램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관리하고 있으나, 주정부 차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학교중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교육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보건복지부서 또는 농무부 식품영양국 지방사무소에서 담당하기도 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지역학교구역(school district), 지방정부, 캠프 또는 민간비영리단체 등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업주체로 승인된 기관에서는 학교 또는 지역센터와 같은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아동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조홍식 외, 2000).

4. 자원

미국 연방정부의 식품과 영양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농무성(USDA)에서 지원되고 있다. 농무성 식품소비자국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은 농림부 예산의 6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현물공적 프로그램으로 의료보호(Medicaid) 다음으로 큰 예산을 가진 방대한 프로그램이다(USDA, 2007).

2006년도 학교급식 프로그램의 예산은 미화 81.9억불이며, 2006년도 아침급식 프로그램의 예산은 미화 20.4억불이 책정되어 있다. 2006년도 하계 급식 프로그램(SFSP)의 예산은 미화 2억 8천만달러이다

<표 4-1>의 이들 3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 예산과 지원대상 및 무료 및 할인급식 아동 비율 등이다. 이러한 예산에는 급식을 위한 주 정부 행정지원금과 급식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방 프로그램 총 예산이므로 전체가 무료 및 할인급식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USDA, 2007).

<표 4-1> 미국의 아동급식 프로그램 지원규모 (대상자 및 예산), 2002~2006

(2007년 7월 현재)

구분	FY 2002	FY 2003	FY 2004	FY 2005	FY 2006
학교급식프로그램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아동수(천명)	28,002	28,392	28,962	29,645	30,130
총 점심급식 서비스수(백만건)	4,717	4,763	4,842	4,976	5,028
무료급식 비율 (%)	48.3	49.0	49.5	49.8	49.6
할인급식 비율 (%)	9.4	9.5	9.6	9.6	9.7
방과후 간식서비스(백만달러)	123	139	151	164	172
현금 지원(백만달러)	6,050	6,341	6,663	7,055	7,389
물품지원(백만달러)	803	849	963	975	802
총 예산액(백만달러)	6,853	7,189	7,626	8,030	8,191
학교 아침급식 (SCHOOL BREAKFAST PROGRAM)					
아동수(천명)	8,148	8,430	8,905	9,370	9,766
총 아침급식 서비스수(백만건)	1,405	1,448	1,525	1,604	1,663
무료 및 할인급식 비율 (%)	82.9	82.8	82.4	82.1	81.2
총 예산액(백만달러)	1,567	1,652	1,776	1,927	2,043
하계 급식 프로그램 (SUMMER FOOD SERVICE PROGRAM)					
평균 하루 참여인원 (천명)	1,923	2,070	1,997	1,945	1,900
총 급식건수(백만건)	122	117	117	116	117
총 예산액(백만달러)	263	257	263	267	276

주: 이러한 예산에는 급식을 위한 주 정부 행정지원금과 급식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방 프로그램 총 예산으로 전체가 무료 및 할인급식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주에 대한 행정지원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 자료: www.usda.gov

학교중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정부로부터 현금 및 현물지원을 받는다. 현금지원 은 식사공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식료품비와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현물지원은 급식에 이용되는 일부 식품을 정부에서 기부물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아동이 특히 많은 학교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는 기본적인 현금상환 이외에 특별상환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 특별상환률(special reimbursement rate)의 적용여부는 해당 학교가 담당하는 지역의 경제여건, 주(State) 지역 평균 급식비 대비 해당학교의 급식비 수준, 해당학교의 급식프로그램 재정 상태상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조홍식 외, 2000). 미국에서 하계급식 지원 서비스의 규모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제2절 영국의 저소득층 영양지원 프로그램

영국에서는 저소득층 아동 뿐 아니라 임산부 및 출산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Healthy Start와 저소득 아동을 위한 통합 지원서비스의 Sure Start를 통해서 빈곤한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¹²⁾

영국에서는 Healthy Star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임산부와 유아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과거 Welfare Food Scheme을 새롭게 개선한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어려서부터 영양가 있고 균형잡힌 식품의 섭생을 통해서 성인기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영유기의 인생출발에서 보다 건강한 삶의 시작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편,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아동빈곤을 감소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장기적 전략 프로그램인 Sure Start를 1998년부터 시작하였다(백선희, 2006). 2010까지 아동빈곤율을 0%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Sure Start란 빈곤층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이 인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Sure) 출발하도록(Start) 돕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신노동당(New Labour's Party)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것으로 어려서부터의 박탈은 성인기의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는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어려서부터의 교육에 주력함으로써 아동이 성인이 되어 학교중퇴, 비행 및 일탈, 실업, 10대 임신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빈곤한 아동은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성인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인간의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아동이

12) 영국의 Healthy Start와 Sure Start Homepage를 참조함.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1. 지원대상

Health Start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저소득 임신부와 4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자들이 바우처를 가지고 필요한 식품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ealthy Start의 수급자격은 임신부이거나 4세미만 아동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수급받을 수 있다.

-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
-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
- Child Tax Credit(Working Tax Credit)을 받고 있고, 연평균 가구소득이 £14,495미만인 대상자 및 가족
- 18세 미만의 임신 여성

Healthy Start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임신부의 경우는 주당 £2.80, 1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5.60, 1세 이상 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주당 £2.80이다. Healthy Start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한다.

Healthy Start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장소로 약국(pharmacy), corner shops, food co-ops, 식료품점, market stalls, milk floats, vans, 수퍼마켓 등이다.

Sure Start의 대상 아동은 5세미만 아동, 특히 저소득층으로서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아동 및 가족을 주요 표적 집단으로 하고 있다. 5세 미만 아동의 3분의 1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역을 단위로 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하여 서비스 대상이 낙인을 갖게 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현재는 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의 취업, 미혼모의 경우 아동 및 미혼모 지원, 빈곤아동의 부모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펴가고 있다.

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영역인데, 영국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Sure Start를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모든 아동이 태어나서부터 필요가 충족되어 바른 인생의 출발을 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갖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사회적 및 정서적 발달, 건강 증진, 학습능력 향상, 가족의 역량 강화 등에 있다.

2. 지원내용

Sure Start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s)에서는 급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소외된 가족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과 저소득층 가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여 보다 효과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로 하여금 정보와 맞춤 서비스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둘째, 아동센터에 올 수 없는 가족을 위한 아웃리치와 가정방문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어떠한 가족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셋째, 아동센터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한다. 특히 소외된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좁히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넷째, Sure Start에서는 여러 기관간에 통합과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관간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전달체계의 개별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가족의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제공하고 직접 서비스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보편화시켜서 모든 취약계층 아동이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Sure Start 서비스는 어느 지역에서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Sure Star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outreach와 가정방문
- 가족과 부모에 대한 지원
- 양질의 놀이와 학습, 아동을 위한 케어 경험 지원
- 아동건강 및 발달과 가족건강에 대한 지역의료 보호와 안내
- 특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지원

Sure Start 프로그램 중의 일환으로 빈곤층 아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균형잡힌 영양소 공급을 통해서 비만, 심장병, 암, 당뇨병 등과 같은 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신념 하에 수행하고 있다.

한편, Sure Start에서는 아동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것 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떻게 아동들이 태어나서부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어려부터의 건강습관이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특히 아동기의 섭생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Sure Start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보육, 조기교육, 건강, 가족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센터는 지역의 필요와 부모들의 욕구에 기반하여 지역마다 다양한 서비스

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들은 서로 연계하여 정보를 주고받고 부모나 보육사를 지원하며, 보건 서비스, 가족지원, 취약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Sure Start에서의 급식지원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이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 아동센터를 통해서 운영 및 제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도 담당한다. 아동센터의 주요 역할은 모든 소외계층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연례적인 평가이다. 특히 여기서는 아웃리치를 하고 지방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하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사적 부문, 자발적 부문, 독립 부문도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양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최근 비만아동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정부는 11세 이하의 아동의 비만을 2010년까지 없애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비만퇴치에 있어서의 Sure Start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센터에서는 섭생과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동과 동적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모유수유를 통해서 비만을 예방하려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일대일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국 아동측정 프로그램(The National Child Measurement Programme)은 비만을 퇴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졸업까지 6년간 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꾸준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아동비만을 퇴치하고 있다.

3. 전달체계

Healthy Start 프로그램은 영국의 보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반면, Sure Start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11개의 부처가 된다. 아동과 관련한 부처들이 합동으로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보건부 장관이 맡고 있고, 교육 및 노동부(교육 및 기술부로 바뀜)에 새로운 기구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새 기구는 관련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설치되고 있는데, 담당자는 일시적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기도 한다.

지방정부는 모든 가족에게 센터를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에 사는 가족들이 자녀를 유모차를 태워서 이동이 가능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센터는 기존의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지역에는 Sure Start Children's Centre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Sure Start Children's Centre는 새로 설치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기존의 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시설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Sure Start 프로그램, 지역 보육시설(neighbourhood nurseries), 조기영재센터(early excellence centres), 공보육시설(maintained nursery school), 학교(schools), 가족센터(family centres), 지역센터(community centres), 보건소(health centres), 자발적 및 사적센터(voluntary and private provision) 등 Sure Start Children's Centres로 변경된 경우가 많다.

지방정부는 센터의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 내용을 만들어서 센터에 제공한다. 센터는 '보육10개년계획'(Government's ten year child-care strategy), 부모의 선택(Choices for Parents), 아동을 위한 최선의 시작(the best Start for Children) 등 영국 정부가 수립한 다양한 계획을 실행하는 기구이다. 아울러 센터를 통해서 모든 '아동이 중요하다'(Every Child Matters: 안전, 건강, 즐거움, 경제적 풍요를 주요 목표로 함)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센터는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러한 아동건강의 일환으로 급식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4. 재원

2004년 현재 Sure Start는 524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정부는 5억 파운드를 지원하였다. Sure Start는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Primary Care Trust(PCT),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즉, 모든 지역에서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구와 입법기구, 자발적 결사체가 합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17개 이상의 다양한 유형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3절 일본의 학생중식 지원사업¹³⁾

일본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학교중식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재정은 국고와 지방비로 반반씩 충당된다. 급식 제공 기관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고 방학중에는 지역의 아동관련 기관에서 급식이 제공된다.

13) 본 절은 조홍식 외(2000)의 『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서울대학교, 교육정책 연구 2000-특-07)를 주로 참조하였음.

1. 지원대상

일본에서 학교 급식은 1889년에 시작되었고, 학교급식이 보편화되고 제도화된 것은 1954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1997년 현재 초등학교의 99.4%, 중학교의 82.1%, 즉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중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학생은 <표 4-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기 중에는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자녀로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 중 학교급식비 보조가 안 되는 대상이다. 또한 차상위 계층의 준보호대상아동 중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요보호아동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아동,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민생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된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에 지원을 받은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 아동은 무료로 맞벌이 부부가구의 자녀는 유료로 지원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방학 중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2. 지원 내용 및 전달체계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학기중에는 도도부현 체육·학교건강센터 교육위원회에서 제공되거나, 시정촌의 학교급식회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방학중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거주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로 급식이 지원된다. 일반적으로 지역공민관, 자치회관, 보건소, 아동상담소, 재가센터 등에서 급식을 제공한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급식을 지원받을 때 낙인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4. 재원

학생중식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충당된다. 예산 비중은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 50%이다. 여기서 국고보조금에는 문부성 지방보조금, 농수산성 학교급식보조금이 포함된다. 일본에서는 중식지원 대상자 수가 적고 급식제공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충당에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조흥식, 2000). 이상 3개국의 아동급식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표 4-2>, <표 4-3>에 급식지원 대상, 지원내용, 전달체계, 재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4-2〉 미국, 일본, 영국 급식지원 지원대상 비교

	미국	일본	영국	
대상 선정 기준	학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자녀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 중 학교급식비 보조가 안 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의 준보호대상아동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보호아동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아동, 복지사무소, 아동상담소, 민생위원회의 추천) ※생활보호자 0.7%, 준보호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 -구직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받고 있는 대상자 및 가족 -Child Tax Credit(Working Tax Credit)을 받고 있고, 연평균 가구소득이 £14,495미만인 대상자 및 가족 -18세 미만의 임신 여성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방학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지역(open site):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된 지역이면 지역내 아동 모두에게 무료급식 ② enrolled site: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아동에게 무료 급식 ③ camp site: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캠프는 참여할 수 있음. 아동 중 학교급식 전액 또는 일부 감면 대상일 경우에만 무료급식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 아동 -기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에 따라 유료지원 -따라서 무료 중식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자녀 및 준보호대상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학중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고 일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토공휴일	토/일/공휴일에는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됨	상동	학기 중 선정기준과 같음

자료: 조홍식 외, 2000. 『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정책연구 2000-특-07, p100. 영국은 Sure Start Homepage 등 참조.

〈표 4-3〉 미국, 일본, 영국 급식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재원 비교

	미국	일본	영국
전달체계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Nutrition Service) -주(state): 주교육청(State education agency) -지역(local): 지역교육구(school district)	-일본 도·도·부·현 체육·학교건강센터 교육위원회 -시·정·촌 학교급식회	-중앙: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11개 정부 부처, Sure Start Unit(국) -지방: Local Sure Start Partnerships -민간, 자발적 결사체 등
방학중	-연방: 농무부 식품·영양국 -주(state): 대부분 지역에서 주교육청이 담당.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부 보건복지국 또는 연방정부의 농무부 식품영양국의 지역사무소에서 담당함. -지역(local):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주체가 담당. 참여사업주체는 지역교육구(school district), 지방정부, 캠프운영자, 민간비영리단체 등이 있음.	-거주지역에서 커뮤니티 케어의 형태. ※ 보통은 지역 공민관, 자치회관(우리의 민간 복지관에 해당) 혹은 보건소, 아동상담소, 재가센터	-Sure Start Children's Centres ※ 모든 지역에 공통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건강, 영양, 보육, 교육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재원	연방기금: 식품 및 급식설비 구매를 위해 각 주(state)별 배분	대체로 국고보조금(문부성 지방보조금, 총리부 학교급식보조금, 농수산성 학교급식보조금) 50%, 지방자치단체 예산 50%.	Sure Start: 정부가 5억 파운드 지원

자료: 조홍식 외. 2000. 『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정책연구 2000-특-07, p100. 영국은 Sure Start Homepage 등 참조.

제4절 시사점

이상 미국, 일본 영국의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선진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급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세 국가에서는 모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빈곤 및 급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국가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범국가 및 범정부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미래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로 접근하여 막대한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부처가 투입되어 아동급식을 포함한 빈곤아동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급식지원에 대한 재원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고, 일부만이 지방에서 충당되고 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life cycle을 고려하여 이념적인 뒷받침이 건

고함을 알 수 있다. 즉, 어려서부터의 건강이 성인기의 건강도 보장하므로, 이를 위해 건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결식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철저한 ‘Targeting’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영국에서는 아동 뿐 아니라 아동을 출산할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태아에 대한 지원도 되므로 아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철저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지원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는 소득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영양결핍을 막고, 아울러 낙인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급식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오남용의 소지**를 줄이고 있다. 영국은 바우처 사용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급식지원제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있다.

넷째, 급식지원은 다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 Head Start 및 Sure Start와 같이 통합적인 급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의 방학중 급식도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다. 물론 급식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부이고, 전국적인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통합적 차원에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영국에서는 바우처 제공을 하되, 특정 식품구입만을 인정함으로써 아동과 가족이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고, 음식 뿐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도 공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급식지원과 함께 ‘영양교육’도 병행하고 있어 아동이 음식을 고를 때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학 중에 맞벌이 가족 자녀에 대한 유료 급식지원을 하고 있어 저출산시대에 유용한 제도로 보인다. 중산층 이상 가족 중 음식을 차려줄 부모가 일 나가고 없는 경우에는 지역의 아동센터나 공공장소에서 아동들이 음식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필적이다.

제5장 공공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실태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 본 조사는 2007년 9~10월간 전자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전체 232명 지자체 공무원 중 162명이 응답하여 69.8%의 회수율을 보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 지원대상 선정방법 및 대상아동 발견경로, 조사 및 선정 시 어려운 점, 종결기준 및 사후관리 여부, 급식지원 단가 및 지원내용, 지원방법별 문제점, 학기 중과 방학 중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등이다. 그 외 학교·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 사업의 효과와 예산·인력 등 운영측면에 대한 만족도, 급식지원사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이다.

〈표 5-1〉 공무원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 주제 및 항목	문항수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급식지원아동 선정방법 및 선정 시 어려운 점, 보건복지부 지침의 적절성, 대상아동 발견 경로 및 어려운 점 등	8문항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종결기준	급식지원아동의 종결기준 여부 및 종결기준, 사후관리 실시여부 및 사후관리 서비스형태	4문항
급식지원 내용 및 방법	현재 1인당 급식단가, 가장 많이 제공하는 급식지원방법 및 선택이유, 급식지원방법별 문제점 및 개선점, 학기 중과 방학 중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등	14문항
아동급식지원제도	아동급식지원제도의 효과성, 급식지원대상 아동규모의 적절성, 예산 및 담당인력의 적정성, 오남용소지 여부, 읍면동 혹은 교육청과의 업무협력정도, 아동급식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향후 발전방향 등	17문항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직렬, 총 근무기간, 아동급식 담당기간	5문항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의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담당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5-2>

와 같다. 전체 응답자는 162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34.2%, 여성이 65.8%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대 20.0%, 30대 53.8%, 40대 이상 26.2%로 응답자의 반 이상이 30대이고 직렬을 보면 사회복지직 50.3%, 일반행정직 41.4%, 기타 8.3%이다.

총근무기간은 10년 이상이 44.7%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 39.0%, 5-10년 미만이 16.4% 순이었으며 아동급식 담당기간은 1년 미만이 63.7%, 1년-2년 미만이 26.1%, 2년 이상 10.2%로 나타나 아동급식 담당기간이 대부분 2년 미만인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지역별로 보면 광역시 30.9%, 중소도시 36.4%, 농어촌지역 32.7%로 구성되었고 주요 급식지원방법은 식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35.2%로 가장 많았고 주부식 26.5%, 일반음식점 12.3%, 단체급식과 도시락이 각각 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계	162	100.0
성		
남자	55	34.2
여자	106	65.8
연령		
20대	32	20.0
30대	86	53.8
40대 이상	42	26.2
직렬		
일반행정직	65	41.4
사회복지직	79	50.3
기타	13	8.3
총근무기간		
5년 미만	62	39.0
5-10년 미만	26	16.4
10년 이상	71	44.7
급식담당기간		
1년 미만	100	63.7
1년-2년 미만	41	26.1
2년 이상	16	10.2
지역		
광역시	50	30.9
중소도시	59	36.4
농어촌지역	53	32.7
주요 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17	10.5
일반음식점	20	12.3
도시락	17	10.5
주부식	43	26.5
식품권	57	35.2
기타	8	4.9

2. 아동급식현황

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급식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보면 전화조사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방문조사 36.4%, 기타 16.7%, 주위 추천 8.1% 순으로 나타났다. 기

타 보건복지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수급자 우선으로 지원하는 방법, 지침에 의한 서면 조사를 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표 5-3〉 아동급식대상 선정방법¹⁾

(단위: 명, %)

선정 방법	빈도	백분율
방문조사	76	36.4
전화조사	81	38.8
주위추천	17	8.1
기타	35	16.7
계	209	100.0

주: 1) 중복응답임.

아동급식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는 ‘대상아동 선정기준의 불명확’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력 또는 시간부족’ 42.9%, ‘예산부족’ 4.7%, 기타 2.6%, ‘읍면동의 협조부족’과 ‘아동 및 가족의 비협조’가 각각 1.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 아동급식대상 선정 시 어려운 점¹⁾

(단위: 명, %)

어려운점	빈도	백분율
대상아동 선정기준의 불명확	89	46.6
읍면동의 협조부족	2	1.0
인력 또는 시간 부족	82	42.9
예산부족	9	4.7
아동 및 가족의 비협조	2	1.0
기타	5	2.6
없음	2	1.0
계	191	100.0

주: 1) 중복응답임.

현재 급식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가 44.0%로 가장 많았고 ‘아니다’ 28.9%, ‘그렇다’ 18.2%, ‘전혀아니다’ 6.9%, ‘매우그렇다’ 1.9%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적절하다는 응답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평균 2.79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왔다.

〈표 5-5〉 아동급식대상 선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의 적절성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χ^2
계	6.9	28.9	44.0	18.2	1.9	100.0(159)	2.79
지역							
광역시	10.0	26.0	34.0	24.0	6.0	100.0(50)	na
중소도시	6.9	41.4	37.9	13.8	0.0	100.0(58)	
농어촌지역	3.9	17.6	60.8	17.6	0.0	100.0(51)	
주요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5.9	29.4	41.2	23.5	0.0	100.0(17)	na
일반음식점	0.0	30.0	40.0	25.0	5.0	100.0(20)	
도시락	29.4	5.9	41.2	23.5	0.0	100.0(17)	
주부식	2.4	26.2	50.0	19.0	2.4	100.0(42)	
식품권	7.3	36.4	45.5	9.1	1.8	100.0(55)	
기타	0.0	37.5	25.0	37.5	0.0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보건복지부 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91.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셀의 빈도가 5이하인 경우가 20%를 넘어서 χ^2 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표 5-6〉 보건복지부 지침 외 추가기준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계	9.0	91.0	100.0(156)	
지역				
광역시	14.3	85.7	100.0(49)	na
중소도시	3.5	96.5	100.0(57)	
농어촌지역	10.0	90.0	100.0(50)	
주요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5.0	94.1	100.0(17)	na
일반음식점	15.8	84.2	100.0(20)	
도시락	17.6	82.4	100.0(17)	
주부식	7.3	92.7	100.0(42)	
식품권	3.7	96.3	100.0(55)	
기타	25.0	75.0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담당지역 내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아동에 모든 결식아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가

에 대해 ‘예’가 55.9%, ‘아니오’가 43.5%로 나타나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식아동 포함여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예’와 ‘아니오’ 응답이 반반씩 나왔다.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행 급식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상대적 평가에 의해 결식아동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결식의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조사는 대상 아동 수 대비 담당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보호자 및 아동의 진실 은폐로 인해 대상아동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결식아동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에서 결식아동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있는 상황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내 준 명단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 명단에서 제외된 아동이 포함될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즉 결식아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표 5-7〉 담당지역 내 모든 결식아동 포함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계	55.9	43.5	100.0(161)	
지역				
광역시	59.2	40.8	100.0(49)	na
중소도시	59.3	40.7	100.0(59)	
농어촌지역	50.0	50.0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52.9	47.1	100.0(17)	na
일반음식점	75.0	25.0	100.0(20)	
도시락	64.7	35.3	100.0(17)	
주부식	46.5	53.5	100.0(42)	
식품권	56.1	42.1	100.0(55)	
기타	42.9	57.1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대상아동의 발견경로는 ‘읍면동 방문 및 면담을 통해’가 3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30.6%, ‘학교장(담임교사)·통장·반장·이장·아동위원을 통해’ 24.5%, ‘이웃의 신고’ 9.7%, 기타 2.3% 순이다.

〈표 5-8〉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견경로¹⁾

(단위: 명, %)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66	30.6
이웃의 신고	21	9.7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을 통해	53	24.5
읍면동 방문 및 면담을 통해	71	32.9
기타	5	2.3
계	216	100.0

주: 1) 중복응답임.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69.5%가 ‘인력부족’을 꼽았으며 기타 10.4%, ‘관련기관 간 협조부족’ 9.8%, ‘예산부족’ 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5-9〉 아동급식 지원대상 발견의 어려운 점¹⁾

(단위: 명, %)

어려운 점	빈도	백분율
인력부족	114	69.5
예산부족	14	8.5
관련기관 간 협조부족	16	9.8
기타	17	10.4
없음	3	1.8
계	164	100.0

주: 1) 중복응답임.

나.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종결기준

현재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종결기준이 있는 가에 대해 81.5%가 ‘종결 기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없는 경우는 18.5%에 그쳤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종결기준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고 주요 급식지원방법별로는 도시락의 경우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0〉 아동급식지원 종결기준 유무

(단위: 명, %)

구분	있다	없다	계	χ^2
계	81.5	18.5	100.0(162)	
지역				0.290
광역시	88.0	12.0	100.0(50)	
중소도시	76.3	23.7	100.0(59)	
농어촌지역	81.1	18.9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70.6	29.4	100.0(17)	
일반음식점	85.0	15.0	100.0(20)	
도시락	64.7	35.3	100.0(17)	
주부식	88.4	11.6	100.0(42)	
식품권	82.5	17.5	100.0(55)	
기타	87.5	12.5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결기준으로는 ‘전출’이 28.9%로 가장 많았고 ‘수급자(아동)의 성장·진학·취업’이 22.9%,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16.5%, ‘가정경제회복’ 16.2%, ‘수급자(아동)의 거부’ 9.5%, ‘가족재결합’ 3.2%, ‘행정적 이유’ 1.8%, 기타 1.1% 순이다.

〈표 5-11〉 아동급식지원 종결기준

(단위: 명, %)

종결기준	빈도	백분율
전출	82	28.9
가정경제회복	46	16.2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47	16.5
수급자(아동)의 성장/진학/취업	65	22.9
가족재결합	9	3.2
수급자(아동)의 거부	27	9.5
행정적 이유	5	1.8
기타	3	1.1
계	284	100.0

급식지원이 중단된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93.5%가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급식중단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5-12〉 아동급식 종결 후 사후관리 유무

(단위: 명, %)

구분	사후관리함	사후관리하지 못함	계	χ^2
계	6.5	93.5	100.0(153)	
지역				na
광역시	10.6	89.4	100.0(50)	
중소도시	3.5	96.5	100.0(59)	
농어촌지역	6.1	93.9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12.5	87.5	100.0(17)	
일반음식점	16.7	83.3	100.0(20)	
도시락	0.0	100.0	100.0(17)	
주부식	12.2	87.8	100.0(42)	
식품권	0.0	100.0	100.0(55)	
기타	0.0	100.0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다. 아동급식지원제도의 내용 및 방법

아동 1인당 급식단가는 대상자의 82.0%가 3,000원으로, 17.4%가 3,500원, 0.6%가 4,000원으로 응답하여 대부분이 급식단가를 3,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3,500원으로 책정한 비율이 높았으며 주요급식지원방법별로 보면 단체급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3,500원으로 책정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아동 1인당 급식단가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68.3%가 '예', 31.7%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역시의 경우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요급식지원방법 중에서는 일반음식점과 도시락의 경우 현재의 급식단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고 반면에 단체급식이나 주부식, 식품권의 경우에 충분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왔다. 따라서 급식 단가는 학교급식 등 전문적으로 단체급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하지만 일반음식점과 같이 아동이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메뉴에 따라 가격이 높은 것이 많아서 현행 급식단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표 5-13〉 1인당 아동급식단가

(단위: 명, %)

구분	3,000원	3,500원	4,000원	계	χ^2
계	82.0	17.4	0.6	100.0(161)	
지역					na
광역시	95.9	4.1	0.0	100.0(49)	
중소도시	62.7	37.3	0.0	100.0(59)	
농어촌지역	90.6	7.5	1.9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52.9	47.1	0.0	100.0(17)	
일반음식점	84.2	15.8	0.0	100.0(20)	
도시락	94.1	5.9	0.0	100.0(17)	
주부식	79.1	20.9	0.0	100.0(42)	
식품권	86.0	12.3	1.8	100.0(55)	
기타	100.0	0.0	0.0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표 5-14〉 아동급식단가가 충분한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계	68.3	31.7	100.0(161)	
지역				na
광역시	57.1	42.9	100.0(50)	
중소도시	75.9	24.1	100.0(58)	
농어촌지역	71.7	28.3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88.2	11.8	100.0(17)	
일반음식점	55.0	45.0	100.0(20)	
도시락	64.7	35.3	100.0(17)	
주부식	71.4	28.6	100.0(42)	
식품권	70.2	29.8	100.0(55)	
기타	42.9	57.1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다음의 <표 5-15>를 보면 주요 급식지원방법의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광역시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3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도시락 20.0%, 단체급식 18.0%, 식품권 14.0%, 주부식 1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의 경우는 식품권이 47.5%로 가장 많았고 주부식 28.8%, 단체급식 11.9%, 일반음식점 및 도시락이 각각 5.1%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지역은 식품권이 41.5%, 주부식 39.6%, 도시락 7.5%, 일반음식점 3.8%, 단

체급식 1.9%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요 급식지원방법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역시는 일반음식점을,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식품권을 이용하여 급식을 지급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

〈표 5-15〉 주요 아동급식 지원방법

(단위: 명, %)

구분	단체급식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기타	계	χ^2
계	10.5	12.3	10.5	26.5	35.2	4.9	100.0(162)	
지역								51.671***
광역시	18.0	30.0	20.0	10.0	14.0	8.0	100.0(50)	
중소도시	11.9	5.1	5.1	28.8	47.5	1.7	100.0(59)	
농어촌지역	1.9	3.8	7.5	39.6	41.5	5.7	100.0(53)	

*** p < .001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급식지원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의 <표 5-16>과 같다. 각 지역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아동 및 보호자와의 상담이나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낙인현상 방지, 지역 내 일반음식점·급식소·지역아동센터 등 인프라 활용 여부 등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급식지원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급식지원 방법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복지관은 ‘문제점이 없다’는 응답이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상의 불편’ 24.3%, ‘인력부족’ 19.4%, ‘오남용의 소지’ 9.7%, ‘예산부족’ 8.7%, ‘위생미흡’ 2.0% 순으로 나왔다.

지역아동센터는 ‘오남용의 소지’가 20.1%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는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급식비의 일부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산부족’ 19.4%, ‘이용상의 불편’ 15.3%, ‘인력부족’ 14.5%, ‘음식의 질 미흡’ 11.3% 등의 순이다. 기타 급식소는 ‘문제점이 없다’가 가장 많고 ‘이용상의 불편’ 20.0%, ‘위생미흡’ 17.6%, ‘음식의 질 미흡’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관과 달리 ‘위생과 음식의 질 미흡’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음식점은 ‘이용상의 불편’이 2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오남용의 소지’ 23.1%, 기타 13.0%, ‘음식의 질 미흡’ 10.2%, ‘위생미흡’ 10.1% 등의 순이며 도시락은 ‘인력부족’이 27.9%로 가장 많았고 ‘음식의 질 미흡’, ‘위생미흡’, ‘이용상의 불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부식의 경우도 ‘인력부족’이 가장 많았고 ‘오남용의 소지’, ‘문제없음’, ‘음식의 질미흡’과 ‘이용상의 불편’ 등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식품권은 대부분이 ‘오남용의 소지’라고 응답

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일반음식점은 낙인현상 때문에 기피가 심하며 주부식은 아동들이 직접 조리를 못할 경우 문제가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16〉 주요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택 이유

구분	선택 이유
단체급식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일반음식점	-아동들의 선호에 따른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아동들이 선호 -식품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라 생각하여 선택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식품권을 이용하였으나 급식취지 불부합 이유로 변경(서울시 방침) -지역에 있는 식당을 지정하여 아동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함
도시락	-지역적인 형편으로 선정
주부식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남용 및 부작용이 가장 적은 급식 방법 선정 -아동들이 식당 내방 급식을 싫어하고 관리가 어려우나 주부식은 영양소에 맞추어 부패성 없는 식단으로 지원됨으로 인해 건강상 및 전달상에 효율적이나 아동들이 원하는 식품을 골고루 지원하는 데는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함 -식품권은 타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단체급식 제공업소와 도시락 제공업소가 없어서 -자원봉사자,유류비 부족 등 가정방문 횟수를 줄이고 도시락수거, 식기세척을 위한 시간과 인력부족, 하절기 식중독 위험 등으로 주부식 선택함
식품권	-급식단가, 메뉴, 이용거리 문제 등으로 결식지원 아동이 거주하는 곳에 적합한 식당 지정이 어려움. -결식아동 연령상 민감한 사춘기로 주위 이웃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식당 이용이 저조하며 낮은 연령의 아동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식당 이용이 불가함 -아동(보호자) 상담 시 급식방법 결정 -결식우려라는 점이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추가적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임 -급식지원체계 미비 -가족 또는 본인의 신청(일반 식당 이용 시 교통비 추가 부담, 면소제시에 식당 이용 시 주변 시선 등 염려) -부실도시락 사태 이후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 -지역이 넓고 대상아동수가 많아 단체급식 및 도시락, 주부식 제공이 어려우며 급식제공업체에서도 급식제공에 어려움이 많아 계약을 꺼림 -전달의 용이성, 사용의 편리성, 낙인방지, 보호아동의 선호 등으로 식품권 주로 사용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식권으로 음식을 사먹을 만한 곳이 없고 밀반찬 배달해 줄 업체가 없어 상품권을 이용하여 식품 구입토록 함 -주부식 지원 등은 다시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도시락은 배달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식품권 선택함

〈표 5-17〉 아동급식 지원방법별 문제점

(단위: 명, %)

급식지원방법	인력 부족	예산 부족	음식의 질미흡	위생 미흡	오남용 의소지	이용상 의불편	기타	없음	계
사회복지관	19.4	8.7	-	2.0	9.7	24.3	1.9	34.0	100.0(103)
지역아동센터	14.5	19.4	11.3	8.1	20.1	15.3	3.2	8.1	100.0(124)
기타 급식소	4.7	5.9	14.1	17.6	2.4	20.0	8.2	27.1	100.0(85)
일반음식점(지정식당)	0.9	6.5	10.2	10.1	23.1	26.9	13.0	9.3	100.0(108)
도시락	27.9	3.8	23.2	17.3	1.9	12.5	2.9	11.5	100.0(104)
주부식	27.9	2.6	12.2	7.0	13.9	12.2	11.3	13.0	100.0(115)
식품권	2.5	1.7	2.5	-	72.7	9.1	1.7	9.9	100.0(121)

현재 담당지역 내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70.6%가 만족하고 있으며 주요급식지원 방법별로 보면 셀의 빈도가 5이하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χ^2 값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단체급식과 도시락, 식품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일반음식점과 주부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인력부족으로 전수조사 불가능하여 대상자가 적합한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적합한 대상자인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는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지원방법을 채택은 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욕구까지는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18〉 현재 지역 내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만족여부

(단위: 명, %)

구분	만족한다	아니다	계	χ^2
계	70.6	29.4	100.0(160)	
지역				0.559
광역시	71.4	28.6	100.0(49)	
중소도시	67.2	32.8	100.0(59)	
농어촌지역	73.6	26.4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82.4	17.6	100.0(17)	
일반음식점	52.6	47.4	100.0(20)	
도시락	82.4	17.6	100.0(17)	
주부식	57.1	42.9	100.0(42)	
식품권	77.2	22.8	100.0(55)	
기타	87.5	12.5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급식지원방법별 개선점을 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문인력확보’가 34.1%로 가장 높았고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배달인력확보’,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순이며 지역아동센터도 ‘전문인력확보’가 가장 높고 ‘오남용여부 점검’, ‘예산확대’, ‘자원봉사자 확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급식소는 ‘위생관리개선’이 2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음식의 질 개선’ 23.9%, ‘전문인력확보’ 21.1% 등의 순이다.

도시락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이 ‘배달인력확보’를 꼽았으며 다음이 ‘음식의 질 개선’, ‘자원봉사자 확보’ 등의 순이다. 주부식의 경우도 ‘배달인력확보’가 35.9%로 가장 높았고 ‘오남용여부 점검’, ‘음식의 질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식품권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79.6%가 ‘오남용여부 점검’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표 5-19〉 아동급식 지원방법별 개선점

(단위: 명, %)

급식지원방법	전문인력확보	위생관리개선	음식의 질 개선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배달인력확보	자원봉사자 확보	예산확대	오남용여부 점검	기타	계
사회복지관	34.1	2.3	2.3	14.8	14.8	10.2	10.2	8.0	3.4	100.0
지역아동센터	35.8	9.7	8.1	8.9	0.8	11.4	12.2	13.0	-	100.0
기타 급식소	21.1	28.2	23.9	1.4	1.4	4.2	4.2	5.6	8.9	100.0
일반음식점(지정식당)	1.1	26.6	21.3	1.1	6.4	-	14.9	21.3	7.4	100.0
도시락	1.9	9.7	19.4	1.9	50.5	13.6	1.0	-	1.9	100.0
주부식	1.9	2.9	13.6	1.0	35.9	11.7	6.8	17.5	8.7	100.0
식품권	-	0.9	1.8	0.9	1.9	0.9	9.3	79.6	3.7	100.0

급식지원방법으로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이나 주요급식지원방법별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농어촌과 주부식의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5-20〉 지역 내 학교시설을 활용한 단체급식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찬성	반대	계	χ^2
계	73.1	26.9	100.0(160)	
지역				2.084
광역시	75.5	24.5	100.0(49)	
중소도시	77.6	22.4	100.0(58)	
농어촌지역	66.0	34.0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76.5	23.5	100.0(17)	
일반음식점	75.0	25.0	100.0(20)	
도시락	88.2	11.8	100.0(17)	
주부식	67.4	32.6	100.0(42)	
식품권	70.2	29.8	100.0(55)	
기타	83.3	16.7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과반수 이상인 68.9%가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도시락’과 ‘식품권’이 각각 6.8%, ‘주부식’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이나 주요 급식지원방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지원방법으로 나왔다.

방학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역시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 33.3%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학기 중과는 달리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음으로는 ‘식품권’ 20.8%, ‘도시락’과 ‘주부식’이 각각 10.1%,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이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 지원방법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식품권’ 지원방법에 대한 응답율이 3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주부식’ 19.2%,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 17.3%, ‘도시락’ 13.5% 등의 순으로 나와 학기중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요 급식지원방법별로는 단체급식과 일반음식점, 도시락의 경우는 여전히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지, 단체급식의 경우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 역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그러나 주부식의 경우에는 ‘주부식’이 35.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 ‘도시락’의 순이었고 식품권의 경우 ‘식품권’이 48.2%로 가장 높고 다음이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방학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셀의 빈도가 5이하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χ^2 값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지역별 그리고 주요 급식지원방법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 학기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단위: 명, %)

구분	단체급식			일반 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기타	계	χ^2
	학교	사회 복지관	지역아 동센터							
계	68.9	0.6	1.2	4.3	6.8	6.2	6.8	4.9	100.0(161)	
지역										
광역시	70.0	0.0	0.0	12.0	8.0	0.0	6.0	4.0	100.0(49)	na
중소도시	70.7	1.7	3.4	1.7	5.2	5.2	5.2	6.9	100.0(58)	
농어촌지역	66.0	0.0	0.0	0.0	7.5	13.2	9.4	3.8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88.2	0.0	0.0	5.9	0.0	0.0	0.0	5.9	100.0(17)	na
일반음식점	60.0	0.0	5.0	25.0	5.0	0.0	0.0	5.0	100.0(20)	
도시락	76.5	0.0	0.0	0.0	17.6	0.0	0.0	5.9	100.0(17)	
주부식	65.1	2.3	2.3	0.0	7.0	23.3	0.0	0.0	100.0(42)	
식품권	68.4	0.0	0.0	1.8	5.3	0.0	19.3	5.3	100.0(55)	
기타	57.1	0.0	0.0	0.0	14.3	0.0	0.0	28.6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표 5-22〉 방학 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

(단위: 명, %)

구분	단체급식			일반 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기타	계	χ^2
	학교	사회 복지관	지역아 동센터							
계	33.3	3.1	8.2	6.9	10.1	10.1	20.8	7.5	100.0(161)	
지역										
광역시	42.2	4.0	10.0	16.0	4.0	4.0	10.0	10.0	100.0(49)	na
중소도시	40.4	1.8	7.0	3.5	12.3	7.0	19.3	8.8	100.0(58)	
농어촌지역	17.3	3.8	7.7	1.9	13.5	19.2	32.7	3.6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단체급식	29.4	0.0	29.4	5.9	11.8	0.0	11.8	11.8	100.0(17)	na
일반음식점	40.0	5.0	0.0	25.0	10.0	5.0	5.0	10.0	100.0(20)	
도시락	58.8	5.9	5.9	0.0	17.6	0.0	0.0	11.8	100.0(17)	
주부식	26.2	4.8	7.1	2.4	14.3	35.7	4.8	4.8	100.0(42)	
식품권	30.4	1.8	7.1	5.4	5.4	0.0	48.2	1.8	100.0(55)	
기타	28.6	0.0	0.0	14.3	0.0	0.0	1.3	42.9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현재 아동급식 담당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80.0%)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13.1%, ‘지금이 바람직하다’ 4.4%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3〉 아동급식사업 담당 부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바람직하다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교육인적자원 부로 일원화	기타	계	χ^2
계	4.4	13.1	80.0	2.5	100.0(160)	
지역						na
광역시	6.0	14.0	76.0	4.0	100.0(50)	
중소도시	3.5	12.3	82.5	1.8	100.0(57)	
농어촌지역	3.8	13.2	81.1	1.9	100.0(53)	
주요급식지원방법						na
단체급식	5.9	23.5	70.6	0.0	100.0(17)	
일반음식점	0.0	10.0	85.0	5.0	100.0(20)	
도시락	17.6	11.8	64.7	5.9	100.0(17)	
주부식	4.8	11.9	81.0	2.4	100.0(42)	
식품권	0.0	14.0	84.2	1.8	100.0(55)	
기타	14.3	0.0	85.7	0.0	100.0(8)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지역 내 아동급식 관련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복지관, 급식단체(업체),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처의 경우 ‘보통’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연계가 잘 되어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점수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정도가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복지관, 도시락 배달처, 급식단체(업체), 학교, 일반음식점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4〉 아동급식사업 운영시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학교	6.6	26.3	41.4	23.7	2.0	100.0(152)	2.88
사회복지관	6.7	12.6	37.8	37.0	5.9	100.0(119)	3.23
지역아동센터	4.1	4.1	35.9	44.8	11.0	100.0(145)	3.54
급식단체(업체)	8.2	18.2	48.2	22.7	2.7	100.0(110)	2.94
일반음식점	15.7	22.3	39.7	21.5	0.8	100.0(121)	2.69
도시락 배달처	8.9	20.5	33.9	26.8	9.8	100.0(112)	3.08

라.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관한 평가

아동급식 사업효과의 4가지 항목에 대한 5점 척도를 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오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항목의 점수가 3.55점으로 가장 높이나와 급식 지원시 오남용 점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항목은 3.37점,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지역 내 결식아동수가 감소되었다’는 3.1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왔다. 반면에 ‘현행 아동급식제도가 아동결식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는 2.88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낮게 나왔다.

〈표 5-25〉 아동급식사업의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현행 아동급식제도가 아동결식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	5.6	22.5	51.9	18.8	1.3	100.0(160)	2.88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지역 내 결식아동수가 감소되었다.	4.4	20.6	31.3	38.8	5.0	100.0(160)	3.19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	1.9	7.5	46.3	40.6	3.8	100.0(160)	3.37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오남용 소지가 있다.	1.9	16.1	23.0	42.9	16.1	100.0(120)	3.55

급식사업 운영 측면에 관한 다섯 가지 항목별 5점 척도를 보면, ‘지원대상 아동들의 지원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는 잘 되고 있다’는 3.11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왔다. 반면에 지원대상 아동규모의 적절성, 아동급식위원회의 활동 정도, 급식예산 및 담당인력수의 적정성이라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3점 이하의 점수로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수가 적정하다’ 2.23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아동급식사업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2.53점, ‘현행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가 적절하다’ 2.68점,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은 적정하다’ 2.73점이다.

〈표 5-26〉 아동급식사업의 운영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현행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는 적절하다.	10.9	31.4	37.8	18.6	1.3	100.0(156)	2.68
지원대상 아동들의 지원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는 잘 되고 있다.	2.5	19.4	45.6	30.0	2.5	100.0(160)	3.11
아동급식사업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8.8	42.1	37.1	10.7	1.3	100.0(159)	2.53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은 적정하다.	5.6	35.0	42.5	15.0	1.9	100.0(160)	2.73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수가 적정하다.	22.4	44.1	23.0	9.3	1.2	100.0(160)	2.23

관련 기관과의 연계 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의 협력 관계가 보통 수준보다 낮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읍면동 담당공무원과의 업무연계는 3.58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고 식당, 슈퍼마켓,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과의 연계는 3.22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7〉 아동급식사업 운영시 관련기관과의 연계 측면

(단위: 명, %)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아동급식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과의 업무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0.6	10.0	30.0	49.4	10.0	100.0(160)	3.58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는 잘 되어 있다.	3.1	29.6	49.7	16.4	1.3	100.0(159)	2.83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관련조직(식당, 슈퍼마켓,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간 연계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1.3	9.5	57.6	29.7	1.9	100.0(158)	3.22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방법 모호’(21.0%)를 가장 많

이 꼽았고 다음으로는 ‘담당인력 부족’ 15.0%,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14.8%,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정상 어려움’ 13.9%, ‘아동급식의 오남용’ 9.1%,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부족’ 8.9%,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부족’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8〉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¹⁾

(단위: 명, %)

장소	빈도	백분율
대상자 선정방법 모호	101	21.0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부족	37	7.7
담당인력 부족	72	15.0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정상 어려움	67	13.9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71	14.8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등 영양관리 부족	21	4.4
타프로그램과의 연계부족	15	3.1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부족	43	8.9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	9	1.9
아동급식의 오남용	44	9.1
기타	1	0.2
계	481	100.0

주: 1) 1순위,2순위,3순위별 응답을 합한 결과임.

현행 아동급식지원제도 전반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이 36.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33.3%, ‘담당인력 확충’ 13.0%,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 5.7%, ‘예산증액’ 5.2%,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 4.7%,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급식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지원받는 일이 생기며 담당부처의 일원화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표 5-29〉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¹⁾

(단위: 명, %)

장소	빈도	백분율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70	36.5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64	33.3
담당인력 확충	25	13.0
예산증액	10	5.2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	9	4.7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2	1.0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	11	5.7
기타	1	0.5
계	192	100.0

주: 1) 중복응답임.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사업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기중 토·일·공휴일과 방학중 중식지원 실시를 위하여 담당 지역 내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선정 및 급식지원방법의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가지고 급식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주로 전화조사와 방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급식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보건복지부 지침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채 20%가 못되는 등 대상아동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인력 또는 시간이 부족하여 급식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1인당 급식단가는 대부분 3,0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급식단가에 대해 60% 이상이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급식지원방법별로 보면 현재의 급식단가는 단체급식인 경우에는 충분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메뉴에 따라 가격이 높은 것이 많아서 현행 급식단가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지자체별 주요 급식지원방법은 식품권(35.2%) → 주부식(26.5%) → 일반음식점(12.3%) → 단체급식 및 도시락(각각 10.5%)순으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의 경우 일반음식점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식품권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와 급식지원 방법의 지역별 차이가 매우 유의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담당지역 내의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70.6%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체급식과 도시락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음식점이나 주부식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아동급식 전달방법과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 학기중과 방학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으로 나왔으며 특히 학기중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방학중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학교를 통한 단체급식’ 지원방법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식품권’이 가장 높아 광역시·중소도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아동급식 지원방법을 일원화하기 보다는 급식지원 시기 및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특성, 지역 내 인프라 등 지역실정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 전달체계는 80% 이상이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급식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고 지역 내 결식아동수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오남용의 소지가 높다는 의견이 있어 급식 지원 시 오남용 점검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급식사업 운영 측면에 관련 평가를 보면, 지원대상아동의 비밀 유지는 보통 이상으로 나왔으나 지원대상 아동규모의 적절성, 아동급식위원회의 활동 정도, 급식예산 및 담당인력수의 적정성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아동급식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대상자 선정방법 모호,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이원화, 담당인력 부족 등이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고 개선사항으로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담당인력 확충, 아동급식소 등 지역 인프라 확충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급식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적격자가 지원받는 일이 생기고 담당부처의 이원화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과 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야만 주어진 예산과 인력 내에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6장 민간 아동급식 지원제도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실태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민간기관으로서 아동급식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중 300개소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07. 10. 18~ 10. 19 2일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화조사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응답자는 지역 아동센터장, 생활복지사, 기타 등이다.

조사내용은 응답자 특성과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대상 수 및 선정방법, 급식담당직원 유무 및 업무량 적정여부, 급식업무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여부, 식단 작성방법, 어린이 영양상태 등을 조사하였다. 그 외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와 급식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급식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및 개선 사항 등이다.

〈표 6-1〉 민간아동급식지원제도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 주제 및 항목	문항수
아동급식 운영사항	기관의 단체급식 실시기간, 급식대상 아동 수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급식예산 및 급식담당 직원유무 및 업무량의 적정성, 외부인력활용여부, 식단작성 방법,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 등	10문항
아동급식제도에 대한 평가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정도 및 업무내용, 아동급식 단가의 충분성 및 장소의 적정성, 아동급식사업의 효과 및 성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	8문항
일반적인 아동급식제도에 대한 의견	가장 바람직한 아동급식 지원방법과 아동급식 전반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 등	2문항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직렬, 총 근무기간, 아동급식 담당기간	5문항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본 조사대상인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지원 관련 조사의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지역별 분포는 광역시 40.0%, 중소도시 51.0%, 그리고 농어촌 9.0%이었다. 응답자의 성은 75.7%가 여성, 24.3%가 남성으로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40대가 3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31.7%로 30~40대가 68.4%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2.7%, 대학원 이상 25.3%로 대학교 이상이 78.0%이었으며, 초급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대부분이 대학이상이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62.3%가 소지하고 있었으며, 직급은 센터장이 38.3%로 가장 많았고, 기타 32.3%, 생활복지사 29.3% 순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3.83년이었다.

〈표 6-2〉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년)

구분	빈도	백분율
합계	300	100.0
지역		
광역시	120	40.0
중소도시	153	51.0
농어촌	27	9.0
성		
남자	73	24.3
여자	227	75.7
연령		
20대	56	18.7
30대	95	31.7
40대	110	36.7
50대 이상	39	13.0
학력		
고졸이하	22	7.3
초대졸업	44	14.7
대학교 졸업	158	52.7
대학원 이상	76	25.3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있다	187	62.3
없다	113	37.7
직급		
센터장	115	38.3
생활복지사	88	29.3
기타	97	32.3
근무기간 ¹⁾		
1년~2년 미만	34	25.6
2년 이상~3년 미만	37	27.8
3년 이상~5년 미만	34	25.6
5년 이상	28	21.1
평균 근무기간(년)	-	3.83

주: 1) 무응답자 167명 제외

2. 단체급식 대상 수 및 대상 선정방법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가 단체급식을 실시한 기간은 1년~2년이 가장 많아 43.0%이었고 그 다음은 3년~4년 34.9%, 5년 이상이 18.5%이었으며, 1년 미만인 기관은 3.7%에 불과하였다. 단체급식 대상 아동수는 20명~30명 미만 42.2%, 30명~40명 22.8%, 40명~50명 19.0%이었으며, 50명 이상인 기관도 17개 기관(5.8%)이나 되었다.

〈표 6-3〉 단체급식 실시 기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년 미만	11	3.7
1년~2년	128	43.0
3년~4년	104	34.9
5년 이상	55	18.5
계	298	100.0

〈표 6-4〉 전체 단체급식대상 아동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20명 미만	30	10.2
20명 ~ 30명 미만	124	42.2
30명 ~ 40명 미만	67	22.8
40명 ~ 50명 미만	56	19.0
50명 이상	17	5.8
계	294	100.0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의 전체 평균 급식대상 아동 수는 31.37명으로 학년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은 평균 3.03명, 초등학생 24.51명, 그리고 중·고등학생 7.66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표 6-5〉 학년별 평균 급식대상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계
평균 급식대상 아동수	3.03	24.51	7.66	31.37
표준편차	(2.155)	(8.820)	(6.007)	(10.662)
분석대상 수	300	300	300	300

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본인 또는 가족 신청 66.3%, 동사무소에서 대상명단을 통보받음 51.7%, 주위 추천 47.2%, 가정방문 12.7%, 기타 18.3% 이었다.

〈표 6-6〉 아동급식 대상 선정방법¹⁾

(단위: %, 명)

구분	동사무소	본인 또는 가족신청	가정방문	주위 추천	기타
대상 선정방법	51.7	66.3	12.7	47.2	18.3
분석대상 수	300	300	300	300	295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3. 급식담당 직원 유무 및 업무량 적정여부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 내에 급식담당 직원이 있는 경우는 80.2%로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담당 직원이 있었으나 19.8%는 담당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23.3%, 중소도시 15.9%, 농어촌 37.0%가 급식담당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 지역별 급식담당 직원 유무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광역시	76.7	23.3	100.0(120)	9.298*
중소도시	86.1	13.9	100.0(151)	
농어촌	63.0	37.0	100.0(27)	
전체	80.2	19.8	100.0(298)	

* $p < .05$

급식담당 직원의 경우 업무량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해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44.4%이었으며, 매우 그렇다 4.1%까지 포함할 경우 48.5%가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아니다(1.2%)와 아니다(16.5%)라고 응답한 비율도 17.7%나 되어 급식담당 직원의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의 경우 보통 41.3%, 그렇다 39.1%, 매우 그렇다 1.1%로 40.2%가 업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5%는 (전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소도시는 53.4%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18.0%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농어촌은 55.6%가 (매우) 그렇다, 17.7%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업무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광역시나 중소도시 보다는 농어촌이 높은 비율이었으며,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 보다는 중소도시가, 그리고

중소도시 보다는 광역시의 경우 높은 비율을 보여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표 6-8〉 지역별 급식담당 직원의 업무량 적정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χ^2
광역시	1.1	17.4	41.3	39.1	1.1	100.0(92)	na
중소도시	1.5	16.5	28.6	47.4	6.0	100.0(133)	
농어촌	0.0	11.1	33.3	50.0	5.6	100.0(18)	
전체	1.2	16.5	33.7	44.4	4.1	100.0(243)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4. 급식업무를 위한 외부인력 활용여부, 식단작성 방법

급식업무를 위해 외부 인력 즉,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지 여부에 관해서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 중 55.0%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역시가 자원봉사 활용도가 가장 높아 70.0%이었으며, 중소도시 45.8%, 그리고 농어촌은 40.7%로 대도시일수록 자원봉사자 등의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 등의 경우 대도시나 중소도시 보다는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자원봉사인력 또한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6-9〉 급식업무를 위한 외부인력 활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광역시	70.0	30.0	100.0(120)	18.415***
중소도시	45.8	54.2	100.0(153)	
농어촌	40.7	59.3	100.0(27)	
전체	55.0	45.0	100.0(300)	

*** p< .001

다음은 식단작성 방법으로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식단 참고 22.6%, 영양사 작성 12.7%이었으며, 인터넷 이용 11.0%, 타 지역아동센터 10.7%, 보건소 7.7%, 시·구청 6.7%, 전문가에게 의뢰 4.7%, 학교급식 식단 참고 4.7%, 아동선호에 따라 작성 4.3% 등 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의 식단 작성방법은 영양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17.4%에 불과하며, 지역아동정보센터, 보건소, 타 지역아동센터, 학교급식 식단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지역아동 센터의 경우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별도로 영양사를 고용하기는 어려움기 때문이라 하겠다.

〈표 6-10〉 식단작성 방법

(단위: %, 명)

구분	영양사 작성	전문가 에게 의뢰	지역아동 정보센터	보건소 (영양사)	타 지역아동 센터	인터넷 이용	시·구청	아동선호에 따라 작성	학교 급식 참고	기타 ¹⁾	계
비율	12.7	4.7	22.6	7.7	10.7	11.0	6.7	4.3	4.7	14.9	100.0 (300)

주: 1) 타 기관 자료 이용, 학교 영양사의 도움으로 직접 작성, 부모의 의견에 따라 등 포함

5.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는 89.3%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체중(6.0%)과 비만(1.7%) 등도 나타나 아동의 영양섭취 및 건강상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는 양호 87.5%, 저체중 5.8%, 그리고 비만 1.7%이었고, 중소도시는 양호 90.1%, 저체중 5.9%, 비만 2.0%로 광역시보다 모두 높은 비율을 보였다. 농어촌은 양호 9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저체중도 7.4%로 타 지역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1〉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

(단위: %, 명)

구분	비만	저체중	양호	기타	계	평균	χ^2
광역시	1.7	5.8	87.5	5.0	100.0(120)	2.96	
중소도시	2.0	5.9	90.1	2.0	100.0(152)	2.93	-
농어촌	0.0	7.4	92.6	0.0	100.0(27)	2.93	
전체	1.7	6.0	89.3	3.0	100.0(299)	2.94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6. 타 기관과의 연계정도

결식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학교, 사회복지관, 어린이 집, 민간단체 공부방 등 지원조직의 서비스를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지원조직간, 그리고 지원조직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조직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혜원, 2000).

이러한 점에서 급식지원제도 운영 시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

하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청과의 연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5.4%(그렇다 51.9%, 매우 그렇다 33.5%)로 타 기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사무소는 49.1%, 학교 46.3%, 자원봉사단체 61.6%, 사회단체 52.6%, 종교기관 77.2%, 푸드뱅크 55.8%, 일반음식점 33.9%, 기타 47.2% 등이었다. 구청 다음에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관은 종교기관이었고, 그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푸드뱅크 등의 순이었다. 연계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기관으로는 일반음식점이 40.7%(전혀 아니다 39.0%, 아니다 1.7%)로 가장 높았고, 기타 35.7%, 사회단체 30.8%, 학교 26.8%, 동사무소 20.9% 등의 순이었다.

〈표 6-12〉 급식제도 운영 시 타 기관과의 연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계	평균
구청	-	2.7	11.9	51.9	33.5	100.0(260)	4.16
동사무소	4.3	16.6	30.1	31.3	17.8	100.0(163)	3.42
학교	7.2	19.6	26.8	38.1	8.2	100.0(97)	3.21
자원봉사단체	8.9	8.9	20.5	41.1	20.5	100.0(112)	3.55
사회단체	14.1	16.7	16.7	35.9	16.7	100.0(78)	3.24
종교기관	3.9	5.5	13.4	40.2	37.0	100.0(127)	4.01
푸드뱅크	4.0	10.9	29.3	44.3	11.5	100.0(174)	3.48
일반음식점	39.0	1.7	25.4	23.7	10.2	100.0(59)	2.64
기타	30.0	5.7	17.1	24.3	22.9	100.0(70)	3.04

7. 급식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만족도

다음은 급식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만족도로 현행 아동급식제도의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39.0%가 (매우) 그렇다 즉,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혀) 아니라고 응답하는 비율도 30.7%가 되어 급식비의 지원은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급식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 51.2%, 매우 그렇다 14.7%로 65.9%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11.1%나 되었다. 아동급식 지원 시 식당 등 식사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76.2%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8.7%만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부엌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71.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2.4%로 나타나 위생이나 안전

등을 위해 부엌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급식 전후 아동의 건강이나 영양, 생활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93.4%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그렇다 59.7%, 매우 그렇다 33.7%)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7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렇다 53.7%, 매우 그렇다 22.0%), 보통 20.7%, 만족하지 않는다는 3.7%에 불과하여 상당수가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13〉 급식비, 아동·부모의견 반영, 장소, 시설·설비, 아동의 건강, 영양상 변화, 급식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급식비 충분성	3.7	27.0	30.3	34.0	5.0	100.0(300)	3.21
아동 및 부모의견 반영	1.7	9.4	23.1	51.2	14.7	100.0(299)	3.89
식사장소의 적정성	-	8.7	15.1	56.5	19.7	100.0(299)	3.91
부엌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 마련	0.7	11.7	16.0	44.0	27.7	100.0(300)	3.81
아동 건강, 영양, 생활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	0.7	6.0	59.7	33.7	100.0(300)	4.30
아동급식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	3.7	20.7	53.7	22.0	100.0(300)	4.00

급식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만족도를 지역별로 살펴본 것이 다음 <표 6-13>이다. 현행 아동급식제도의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의 충분성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비율은 광역시 33.3%, 중소도시 42.5%, 농어촌 44.4% 순으로 높은 반면, 전혀 아니다 또는 아니다의 비율은 광역시 37.5%, 중소도시 26.2%, 농어촌 25.9% 순으로 광역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는 농어촌 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중소도시 보다는 광역시에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식 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경우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광역시가 가장 높아 13.6%이었으며, 중소도시 9.8%, 농어촌 7.7%의 순이었다.

〈표 6-14〉 지역별 급식비, 아동·부모의견 반영, 장소, 시설·설비, 아동의 건강, 영양상 변화, 급식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x ²
급식비 충분성	광역시	8.3	29.2	29.2	30.8	2.5	100.0(120)	2.57	16.215*
	중소도시	0.7	25.5	31.4	35.3	7.2	100.0(153)	3.37	
	농어촌	0.0	25.9	29.6	40.7	3.7	100.0(27)	3.40	
아동·부모 의견 반영	광역시	4.2	9.2	20.8	51.7	14.2	100.0(120)	4.00	-
	중소도시	0.0	9.8	25.5	48.4	16.3	100.0(153)	3.82	
	농어촌	0.0	7.7	19.2	65.4	7.7	100.0(26)	4.20	
급식장소 적정성	광역시	-	9.2	18.3	56.7	15.8	100.0(120)	4.07	6.707
	중소도시	-	7.2	12.5	55.9	24.3	100.0(152)	3.88	
	농어촌	-	14.8	14.8	59.3	11.1	100.0(27)	3.80	
부업시설, 환기, 안전 시설마련	광역시	0.8	10.8	18.3	40.8	29.2	100.0(120)	4.07	-
	중소도시	0.7	12.4	13.1	44.4	29.4	100.0(153)	3.76	
	농어촌	0.0	11.1	22.2	55.6	11.1	100.0(27)	3.60	
아동건강, 영양, 생활 긍정적 변화	광역시	-	0.0	4.2	49.2	46.7	100.0(120)	4.71	-
	중소도시	-	1.3	7.8	65.4	25.5	100.0(153)	4.22	
	농어촌	-	0.0	3.7	74.1	22.2	100.0(27)	4.00	
급식지원 사업성과 만족도	광역시	-	1.7	18.3	56.7	23.3	100.0(120)	4.21	4.105
	중소도시	-	4.6	22.9	51.0	21.6	100.0(153)	3.98	
	농어촌	-	7.4	18.5	55.6	18.5	100.0(27)	3.60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 p < .05

아동급식 지원 시 식당 등 식사장소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경우는 중소도시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80.2%)을 보였으며 아니다는 농어촌의 경우 14.8%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9.2%), 중소도시(7.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부업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마련이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는 비율과 (매우) 그렇지 않다는 비율 모두 중소도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 부업설비나 안전 등에 있어서 중소도시가 가장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급식 전후 아동의 건강이나 영양, 생활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광역시 95.9%, 중소도시 90.9%, 농어촌 96.3%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중소도시의 1.3%만이 나타나 지역별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급식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만족여부에 있어서는 광역시 80.0%, 농어촌 74.1%, 중소도시 72.6% 순으로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

는 응답은 농어촌(7.4%)이 광역시(1.7%)나 중소도시(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8. 급식지원 사업 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우선순위별로 제1순위와 제2순위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제1순위로 전문인력 확보(28.3%), 예산증액(22.0%), 식당설비 개선(20.7%), 급식단가 인상(11.0%), 자원봉사자 확보(8.7%)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제2순위로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식당설비 개선(20.6%), 예산증액(19.6%), 전문인력 확보(16.1%), 자원봉사자 확보(15.4%), 급식단가 인상(12.6%)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표 6-15〉 급식지원사업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

(단위: %, 명)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전문인력 확보	28.3	16.1
식당설비 개선	20.7	20.6
급식단가 인상	11.0	12.6
자원봉사자 확보	8.7	15.4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실시	5.7	11.5
예산증액	22.0	19.6
기타	3.7	4.2
계	100.0(300)	100.0(286)

응답자 특성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중 제1순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광역시는 전문인력 확보(31.7%), 식당설비 개선(20.7%), 예산증액(15.8%) 순이었으며, 중소도시는 전문인력 확보(25.5%), 예산증액(24.8%), 식당설비 개선(19.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는 예산증액(3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전문인력 확보(29.6%), 식당설비 개선(22.2%) 등을 지적하여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즉,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전문인력 확보를, 농어촌은 예산증액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외 자원봉사자 확보는 광역시나 중소도시 보다는 농어촌에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연계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보다는 광역시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6-16〉 응답자 특성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1순위

(단위: %, 명)

구분	전문 인력 확보	식당 설비 개선	급식 단가 인상	자원 봉사자 확보	교육 프로그램 연계	예산 증액	기타	계	χ^2
합계	28.3	20.7	11.0	8.7	5.7	22.0	3.7	100.0(300)	
지역									
광역시	31.7	21.7	11.7	5.8	7.5	15.8	5.8	100.0(120)	na
중소도시	25.5	19.6	12.4	10.5	4.6	24.8	2.6	100.0(153)	
농어촌	29.6	22.2	0.0	11.1	3.7	33.3	0.0	100.0(27)	
성									
남자	34.2	20.5	11.0	9.6	2.7	20.5	1.4	100.0(73)	0.646
여자	26.4	20.7	11.0	8.4	6.6	22.5	4.4	100.0(227)	
연령									
20대	23.2	7.1	17.9	14.3	10.7	25.0	1.8	100.0(56)	na
30대	24.2	22.1	11.6	5.3	6.3	24.2	6.3	100.0(95)	
40대	32.7	24.5	9.1	7.3	2.7	20.9	2.7	100.0(110)	
50대 이상	33.3	25.6	5.1	12.8	5.1	15.4	2.6	100.0(39)	
학력									
고졸이하	9.1	22.7	13.6	18.2	4.5	31.8	0.0	100.0(22)	na
초대졸업	31.8	20.5	13.6	4.5	11.4	15.9	2.3	100.0(44)	
대학교졸업	25.3	22.8	10.1	10.1	5.1	24.1	2.5	100.0(158)	
대학원이상	38.2	15.8	10.5	5.3	3.9	18.4	7.9	100.0(76)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	32.1	16.6	12.8	4.8	5.9	24.1	3.7	100.0(187)	0.008*
없다	22.1	27.4	8.0	15.0	5.3	18.6	3.5	100.0(113)	
직급									
센터장	28.7	24.3	8.7	7.0	6.1	20.0	5.2	100.0(115)	0.101
생활복지사	36.4	10.2	14.8	6.8	8.0	21.6	2.3	100.0(88)	
기타	20.6	25.8	10.3	12.4	3.1	24.7	3.1	100.0(97)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 p < .05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예산증액을, 30대는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증액이 동일한 비율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은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는 예산증액을, 그리고 초대졸업 이상은 전문인력 확보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대학원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38.2%).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사회복지사인 경우 전문인력 확보(32.1%)를,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식당설비 개선(27.4%)을 가장 시급히 개

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현 직급별로는 센터장이거나 생활복지사인 경우 전문인력 확보를, 그 외 응답자는 식당설비 개선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의 제2순위를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식당설비 개선(광역시: 22.9%, 중소도시: 19.7%)이, 그리고 농어촌은 예산증액(26.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문인력 확보와 급식단가 인상은 광역시 보다는 중소도시가, 그리고 중소도시 보다는 농어촌이 비율이 높아 제1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응답자 성별로는 남자는 식당설비 개선, 급식단가 인상, 전문인력 확보 순으로, 여자는 예산증액, 식당설비 개선, 자원봉사자 확보, 전문인력 확보 순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는 식당설비 개선, 교육프로그램 연계를, 30대는 예산증액, 전문인력 확보 순으로, 40대는 식당개선 설비, 예산증액, 50대 이상은 식당설비 개선, 전문인력 확보를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고졸이하와 대학교 졸업자는 예산증액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대졸업자는 자원봉사자 확보를, 대학원 이상은 식당설비 개선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아 학력별 차이를 보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별로는 사회복지사일 경우 식당설비 개선(22.2%)을,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아닌 경우에는 예산증액(19.1%)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직급별로는 센터장은 식당설비 개선(27.0%)을, 생활복지사와 기타 직급은 예산증액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6-17〉 응답자 특성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 제2순위

(단위: %, 명)

구분	전문 인력 확보	식당 설비 개선	급식 단가 인상	자원 봉사자 확보	교육 프로그 램연계	예산 증액	기타	계	x ²
합계	16.1	20.6	12.6	15.4	11.5	19.6	4.2	100.0(286)	
지역									
광역시	15.3	22.9	11.9	16.1	6.8	22.0	5.1	100.0(118)	na
중소도시	16.2	19.7	12.0	14.8	16.9	16.2	4.2	100.0(142)	
농어촌	19.2	15.4	19.2	15.4	3.8	26.9	0.0	100.0(25)	
성									
남자	17.4	27.5	18.8	13.0	7.2	13.0	2.9	100.0(69)	9.150
여자	15.7	18.4	10.6	16.1	12.9	21.7	4.6	100.0(217)	
연령									
20대	17.0	22.6	5.7	13.2	20.8	17.0	3.8	100.0(53)	na
30대	19.1	14.6	13.5	13.5	11.2	22.5	5.6	100.0(89)	
40대	13.1	22.4	15.0	18.7	7.5	21.5	1.9	100.0(107)	
50대 이상	16.2	27.0	13.5	13.5	10.8	10.8	8.1	100.0(37)	
학력									
고졸이하	22.7	4.5	18.2	18.2	0.0	31.8	4.5	100.0(22)	na
초대졸업	16.7	16.7	11.9	23.8	11.9	16.7	2.4	100.0(42)	
대학교졸업	15.2	17.9	12.6	13.2	13.9	21.9	5.3	100.0(151)	
대학원이상	15.5	33.8	11.3	14.1	9.9	12.7	2.8	100.0(71)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다	15.3	22.2	10.2	16.5	11.9	19.9	4.0	100.0(176)	3.192
없다	17.3	18.2	16.4	13.6	10.9	19.1	4.5	100.0(110)	
직급									
센터장	19.8	27.0	9.9	13.5	8.1	16.2	5.4	100.0(115)	20.100
생활복지사	8.5	14.6	9.8	20.7	17.1	24.4	4.9	100.0(88)	
기타	18.3	18.3	18.3	12.9	10.8	19.4	2.2	100.0(97)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9.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에 관해 질문한 결과로 사회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단체급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7%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응답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는 학교단체 급식(7.3%), 도시락 3.0%, 주부식 1.7%이었고 식품권은 0.3%에 불과하였다.

〈표 6-18〉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학교단체 급식	22	7.3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260	86.7
일반음식점	-	-
도시락	9	3.0
주부식	5	1.7
식품권	1	0.3
기타	3	1.0
계	300	100.0

10. 아동급식 지원제도 개선사항

현재의 아동급식 지원제도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제1순위로 예산증액(29.0%)을 지적하였고, 그 다음은 담당인력 확충(25.3%),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16.3%),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9.7%),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7.0%) 등을 지적하였다.

〈표 6-19〉 아동급식 지원제도 전반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위: %, 명)

구분	제1순위	제2순위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16.3	7.1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7.0	7.1
담당인력 확충	25.3	16.7
예산증액	29.0	16.7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	9.7	16.3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1.0	3.4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	4.7	10.9
급식종결기준 마련	-	0.3
급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0	11.2
표준식단 마련 지침	2.3	8.8
기타	1.7	1.4
계	100.0(300)	100.0(294)

제2순위로 담당인력 확충과 예산증액이 각각 16.7%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16.3%), 급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11.2%), 아동급식

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10.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체계는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으로 구분되며, 정부차원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행정자치부 시·도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운영주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종교·민간지원단체, 개인, 각종 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이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 식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들 아동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낙인현상으로 인해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급식률이 저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한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의 전체 평균 급식대상 아동 수는 31.37명으로 초등학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즉, 보호자가 돌보지 않으면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의 아동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급식담당 직원이 없는 경우도 20% 정도나 되며, 급식담당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업무량이 많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업무를 위한 외부인력은 45.0%가 활용하지 못하며, 특히 농어촌일 경우 그 비율이 높아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 식단 작성에 있어서 영양사가 작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우는 17.4%에 불과하며, 아동의 성장발육상태에 있어서도 저체중과 비만 등도 일정 비율 나타나고 있어 빈곤아동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영양사 등에 의한 식단작성을 통해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 아동급식 전달기관의 경우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영양사를 고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도차원이나 시·군·구 차원에서 모범급식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급식지원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타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일반음식점이나 사회복지관, 학교, 동사무소 등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담당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조직의 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아동급식지원 제도 전반에 관한 만족도에 있어서도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의 충분성과

부엌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마련에 있어서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예산증액, 식당설비 개선 등이 높은 비율로 지적되었고, 개선사항으로도 예산증액, 담당인력 확충,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식비 지원예산의 증액과 담당인력의 확충, 그리고 조리실의 제반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대상아동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급식을 지원받아야 할 아동이 누락되거나, 대상이 아닌데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7장 아동급식 이용아동 실태조사 결과

제1절 실태조사 개요

빈곤층 아동의 급식과 영양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의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급식지원 유형에 따라서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 600명과 지정음식점(식권), 상품권, 주부식 도시락 등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아동 400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단체급식소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만나 아동에게 설문지를 주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여 회수하는 자기보고식과, 아동이 응답한 내용을 면접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였다.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조사는 전국 29개 지역아동센터¹⁴⁾의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조사는 전국 총 20지역¹⁵⁾을 네 가지 급식방법마다 5지역씩 한 지역에서 20명의 아동을 조사하여 각각의 급식방법마다 100명씩 총 4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7년 9월 12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다.

조사내용은 아동의 방과 후 생활, 건강상태, 식사형태, 영양섭취 상태, 급식지원형태, 급식 욕구 등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였다. 그 외 학교생활, 자아존중감,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¹⁶⁾, 아동의 가정환경 및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표 7-1 참조).

14)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강북구, 서울시 노원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마포구, 부산시 해운대, 대구시 중구, 대구시 남구, 인천시 남구, 인천시 부평구,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울산시 중구, 울산시 남구,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춘천시, 충남 아산시(2), 충남 부여군, 충남 서천군, 전남 목포시, 전남 장성군, 경남 양산시, 경남 남해군, 경남 함양군 총 28개동 지역, 지역아동센터 29개소

15)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광진구, 부산시 해운대구, 울산시 동구, 울산시 남구, 대구시 중구, 대구시 남구, 광주시 북구, 인천시 부평구, 인천시 남구,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성남시, 강원도 춘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부여군, 경남 양산시, 경남 함양군, 전남 목포시 총 20개동 지역

16) 본 연구에서는 아동결식을 방임을 결과로 가정하고, 방임은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으로 측정가능하다고 보아,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Olson의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성원이 자신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지각된) 측정하는 것이다(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척도는 본 장의 후반후에서 제시하였다.

〈표 7-1〉 아동 설문조사 내용

영역	세부 주제 및 항목	문항수
방과후생활	지역아동센터 이용,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과 하는일, 조리가능 여부 등	5문항
건강상태	키, 몸무게, 활동성, 집중성, 건강상태, 질병	5문항
식사형태	하루식사빈도, 식사시간, 아침식사형태, 저녁식사형태, 보호자의 식사관심도 등	8문항
영양섭취 상태	식품군별 섭취횟수, 간식섭취 종류	2문항
급식지원형태	지원기간, 지원기관, 학기중/토·공/방학중 급식지원방법	3문항
급식지원에 대한 욕구	학기중/토·공/방학중 급식지원방법 희망지원 급식방법, 식사메뉴와 질 및 양 만족도, 위생상태 만족도, 친구인지여부, 급식지원시 참여 프로그램 등	12문항
학교생활	친구와의 관계, 학업성적	2문항
자아존중감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	10문항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	Olson의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	20문항
아동특성 및 가정환경	연령, 성별, 가족유형, 가족수, 형제수, 보호자직업 및 학력, 가구수입, 수급권여부 등	8문항

제2절 실태조사 결과

1. 응답아동의 특성

설문조사 대상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설문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아동을 제외한 944명을 본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이를 아동의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단체급식을 받는 아동은 543명이며 지정음식점(식권), 상품권, 주부식, 도시락 등의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는 아동은 401명이었다. 이는 표집 시 조사방법의 한계 상 개별급식과 단체급식지원의 비율은 4대 6정도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이는 435명, 여이는 483명으로 여아가 조금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501명, 중소도시 284명, 농어촌 15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2 참조).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4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285명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233명의 순이었다. 초등학생은 단체급식의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개별급식을 받는 아동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 이용 아동이 초등학생이라는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7-2〉 응답자 특성

(단위 : %, 명)

장소	개별급식	단체급식	전체	χ ²
계	401	543	944	
지역				23.957***
대도시	235(46.9)	266(53.1)	501(100.0)	
중소도시	126(44.4)	158(55.6)	284(100.0)	
농어촌	40(25.2)	119(74.8)	159(100.0)	
성				7.408**
남자	209(48.0)	226(52.0)	435(100.0)	
여자	189(39.1)	294(60.9)	483(100.0)	
연령				151.682***
초등저학년	76(26.7)	209(73.3)	285(100.0)	
초등고학년	142(35.4)	259(64.6)	401(100.0)	
중고등학생	180(77.3)	53(22.7)	233(100.0)	
가족유형				49.007***
일반가정	116(30.2)	268(69.8)	384(100.0)	
한부모가정	124(57.7)	91(42.3)	215(100.0)	
조손가정	76(46.6)	87(53.4)	163(100.0)	
기타	58(51.1)	65(48.9)	133(100.0)	
가구주입				37.695***
50만원미만	43(33.1)	87(66.9)	130(100.0)	
50-100만원	133(51.2)	127(48.8)	260(100.0)	
100-200만원	73(39.9)	110(60.1)	183(100.0)	
200만원이상	10(13.5)	64(86.5)	74(100.0)	
보호자학력				90.838***
무학	61(63.5)	35(36.5)	96(100.0)	
초등학교졸업	59(55.1)	48(44.9)	107(100.0)	
중학교졸업	59(64.8)	32(35.2)	91(100.0)	
고등학교졸업	188(60.0)	188(50.0)	376(100.0)	
대학교졸업이상	18(12.9)	121(87.1)	139(100.0)	
보호자직업				70.295***
전문직	3(9.1)	30(90.9)	33(100.0)	
사무직	18(24.3)	56(75.7)	74(100.0)	
노동근로직	70(50.4)	69(49.6)	139(100.0)	
자영업	20(36.4)	35(53.6)	55(100.0)	
판매/서비스직	70(40.2)	104(59.8)	174(100.0)	
무직	81(69.8)	35(30.2)	116(100.0)	
주부	79(47.9)	86(52.1)	165(100.0)	
기타	45(34.1)	87(65.9)	132(100.0)	

무응답 제외

p<0.01 *p<0.001

가족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가정의 아동의 응답이 38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 215명, 조손가정이 163명의 순이었다. 특히 일반가정은 단체급식 지원받는 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수입은 50-100만원이 26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100-200만원 183명, 50만원미만 130명, 200만원 이상 74명의 순이었다. 가구수입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급식지원 받는 아동의 대부분이 저소득가정일 거라는 예상과 일치되나, 아동에게 직접 가구의 수입정도를 질문하였기에 정확한 수치라 볼 수는 없다.

보호자 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졸업이상 139명, 초등학교 졸업 107명, 무학 96명, 중학교 졸업 96명의 순이었다. 보호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판매/서비스직 174명, 주부165명, 노동근로직 139명, 무직 116명의 순으로 높았으며 사무직74명, 자영업55명의 순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전체아동의 10%이상의 아동의 보호자가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빈곤층 아동의 보호자는 학력이 낮으며, 저임금의 직업일 거라는 예상과 일치한다.

2. 급식지원 아동의 방과후 생활

가. 방과후 생활

조사대상 아동의 50%이상이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의 81.4%가 매일 이용하였고, 개별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84.7%가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즉, 개별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은 단체급식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3 참조).

아동의 배경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또는 자주 이용하는 반면에, 중고등학생의 32%정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과 주요대상을 고려한다면 예상된 결과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단체급식소의 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정 아동을 제외한 다른 가족유형들의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아동이 많았다.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아동이 75.7%가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0만원 미만, 50~100만원, 100~200만원의 순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역아동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매일 이용하는 비율의 역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구수입에 따라서도 지역아동센터를 매일 이용하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 두 군으로 구분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하는 횟수는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매일 이용하거나 거의 가지 않는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이 시간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일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참여에 있어 매일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환경의 아동들의 급식 및 보호, 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7-3〉 지역아동센터 이용

(단위: %, 명)

	거의 가지않는다	가끔간다	자주간다	매일간다	계	χ^2
계	35.4	4.4	9.1	51.2	100.0(936)	
구분						
개별급식	81.7	4.5	3.3	8.8	100.0(399)	672.876***
단체급식	.9	4.3	13.4	81.4	100.0(537)	
성						
남자	41.1	4.2	8.8	45.9	100.0(431)	9.457*
여자	31.5	4.6	9.2	54.8	100.0(480)	
연령						
초등저학년	22.2	4.2	13.4	60.2	100.0(284)	168.673***
초등고학년	27.0	3.8	7.8	61.5	100.0(397)	
중고등학생	62.8	5.2	6.4	25.6	100.0(172)	
가족유형						
일반가정	26.6	3.6	12.8	57.0	100.0(384)	44.638***
한부모가정	49.0	4.8	6.7	39.5	100.0(210)	
조손가정	32.1	6.8	7.4	53.7	100.0(162)	
기타	44.7	2.3	6.1	47.0	100.0(132)	
가구수입						
50만원미만	28.7	3.9	10.9	56.6	100.0(129)	37.899***
50-100만원	45.6	3.1	8.5	42.9	100.0(259)	
100-200만원	35.2	6.0	8.2	50.5	100.0(182)	
200만원이상	10.8	5.4	8.1	75.7	100.0(74)	

*p<.05, ***p<.001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보호자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과반수 이상의 아동이 부모님 또는 어른이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21.6%, 어른없이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 15.4%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어른이 없는 경우가 약 37%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다(표 7-4 참조).

지원받는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체급식받는 아동의 25.6%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개별급식은 조금 낮은 16.4%로 나타났다. 즉, 집에 혼자 방치되기 쉬운 아동들이 단체급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아동의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별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가족유형별로는 한 부모 가정아동이 방과후 집에 어른이 없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어른이 계신 경우는 가장 낮았다. 일반가정 아동은 집에 어른이 계신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도 22.3%로 나타나, 집에 혼자 방치되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뚜렷이 구분되었다.

〈표 7-4〉 방과후 보호자가 집에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집에 아무도없음	형제자매만 있음(어른없음)	부모님 또는 어른계심	기타	계	χ^2
계	21.6	15.4	57.2	5.8	100.0(925)	
구분						
개별급식	16.4	18.1	62.7	2.8	100.0(397)	27.303***
단체급식	25.6	13.3	53.0	8.1	100.0(528)	
성						
남자	20.3	15.0	59.3	5.4	100.0(428)	1.402
여자	23.0	15.4	55.7	5.9	100.0(474)	
연령						
초등저학년	25.6	13.9	56.96	3.9	100.0(281)	10.024
초등고학년	21.7	14.3	56.6	7.4	100.0(392)	
중고등학생	16.5	18.8	58.8	5.9	100.0(170)	
가족유형						
일반가정	22.3	12.7	59.9	5.0	100.0(377)	49.836***
한부모가정	27.2	23.0	45.5	4.2	100.0(213)	
조손가정	22.2	22.2	51.3	4.4	100.0(158)	
기타	13.1	4.6	71.5	10.8	100.0(130)	
가구수입						
50만원미만	20.6	11.1	64.3	4.0	100.0(126)	17.212*
50-100만원	23.1	16.9	53.3	6.7	100.0(255)	
100-200만원	24.9	18.2	50.8	6.1	100.0(181)	
200만원이상	28.8	2.7	64.4	4.1	100.0(73)	

*p<.05, ***p<.001

가구수입별로 보면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가진 아동들 중에 방과 후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가 2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입이 높을 수록 방과 후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일반가정의 경우 부모님 모두가 맞벌이하는 2인생계자이거나, 한

부모 가정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유일한 생계자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어, 수입이 높은 경우 아동이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높은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방과 후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 아동이 약 45%로 가장 높았으며, 1~2시간이 27%, 3~4시간이 13.3%, 5시간 이상이 14.8%의 순이었다.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이 3시간이상인 아동이 30% 미만을 차지하여 높은 편이고, 아동의 하교시간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이 늦은 저녁까지 혼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저녁식사의 해결이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으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5〉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1시간 미만	261	44.9
1시간-2시간	157	27.0
3-4시간	77	13.3
5시간 이상	86	14.8
계	581	100.0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는 일은 T·V시청 37.1%, 인터넷게임 28.2%순으로 가장 높았으며 휴식 및 놀기 16.0%, 숙제 및 공부 13.0%의 순이었다. 즉, 대부분의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에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자의 지도·감독 없이 T·V시청과 인터넷게임 등을 이용하였다.

〈표 7-6〉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하는 일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휴식 및 놀기	85	16.0
숙제및공부(과외포함)	69	13.0
TV시청	197	37.1
인터넷 게임	150	28.2
집안일(청소, 빨래, 요리 등)	16	3.0
기타	14	2.6
계	531	100.0

나. 가사 참여

전체아동 중에서도 혼자서 식사준비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78.9%, 할 수 없다고

대답한 아동은 21.1%로 대부분의 아동이 혼자서 식사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가족유형별로는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모든 배경변인에서 식사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뚜렷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64.4%,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81.2%, 중·고등학생의 경우 91.7%가 혼자서 식사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서 식사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혼자 식사준비가 가능하였다. 가구수입별로 살펴보면 50~100만원과 100~200만원의 경우 식사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만원 미만과 200만원 이상보다 높았다.

〈표 7-7〉 혼자식사준비 가능 여부

(단위 : %, 명)

장소	예	아니오	계	$\frac{2}{X}$
계	78.3	21.7	100.0(898)	
구분				7.481**
개별급식	82.5	75.0	100.0(703)	
단체급식	75.0	25.0	100.0(195)	
성				.686
남자	77.0	23.0	100.0(413)	
여자	79.3	20.7	100.0(464)	
연령				57.944
초등저학년	64.4	35.6	100.0(267)	
초등고학년	81.2	18.8	100.0(378)	
중고등학생	91.7	9.2	100.0(230)	
가족유형				2.171
일반가정	76.5	23.5	100.0(362)	
한부모가정	76.8	23.2	100.0(203)	
조손가정	82.1	17.9	100.0(156)	
기타	78.9	21.1	100.0(128)	
가구수입				8.137*
50만원미만	71.5	28.5	100.0(123)	
50-100만원	83.9	16.1	100.0(249)	
100-200만원	80.3	19.7	100.0(173)	
200만원이상	77.1	22.9	100.0(70)	

이러한 전체적 결과를 볼 때, 아동에게 요리·영양 교육 등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고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요리 등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은 아동의 급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차선의 대안일 뿐, 아동급식의 본질적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혼자 있을 때 조리해 먹는다고 대답한 경우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집에 먹을 음식이 없을 때 12.7%로 나타났다. 조리하지 못하고 대답한 경우도 25.2%로 높은 편이었다. 아동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 조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표 7-8〉 직접 조리하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직접조리하지 못함	206	25.2
혼자있을때	306	37.5
집에 먹을 음식이 없을때	104	12.7
요리하고 싶을때	105	12.9
어른이 요리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45	5.5
기타	51	6.2
계	817	100.0

가정에서 가사일을 얼마나 돕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전혀 돕지 않는 아동 비율이 24.1%, 가끔 돕는 아동이 57.4%, 자주 하는 아동이 13.7%, 매일하는 아동이 4.7%로 약 80% 이상의 아동이 가사일을 돕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배경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르면 남아가 여아보다 가사일을 더 적게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약 89%정도가 가사일을 돕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사참여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과 가구수입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 추세를 살펴보면, 배경변인에 상관없이 가사일을 돕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가사일을 돕고 있는지 여부

(단위: %, 명)

가사일	전혀하지 않는다	가끔한다	자주한다	매일한다	계	χ^2
계	24.1	57.4	13.7	4.7	100.0(867)	
구분						7.397
개별급식	27.6	26.2	12.9	3.3	100.0(395)	
단체급식	21.2	58.5	14.4	5.9	100.0(472)	
성						18.293***
남자	29.9	55.6	10.9	3.7	100.0(405)	
여자	19.0	58.2	16.9	5.9	100.0(443)	
연령						48.947***
초등저학년	37.7	51.0	7.4	3.9	100.0(257)	
초등고학년	19.6	59.2	16.3	4.9	100.0(368)	
중고등학생	15.1	60.2	18.7	6.0	100.0(166)	
가족유형						12.476
일반가정	26.4	56.3	11.9	5.4	100.0(352)	
한부모가정	24.1	59.3	15.1	1.5	100.0(199)	
조손가정	19.6	60.1	13.5	6.8	100.0(148)	
기타	25.6	50.4	18.2	5.8	100.0(121)	
가구수입						6.453
50만원미만	26.3	55.9	10.2	7.6	100.0(118)	
50-100만원	21.8	58.8	14.8	4.6	100.0(243)	
100-200만원	26.1	57.7	13.7	7.1	100.0(168)	
200만원이상	29.0	58.1	9.7	3.2	100.0(62)	

* p < .05, *** p < .001

2. 급식지원 아동의 건강상태 및 학교생활

가. 건강상태와 질병상태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은 평소 스스로 인식하는 활동성과 수업의 집중력, 건강상태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수업에 집중이 잘되며,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상태를 아동의 배경변인별로 분석하면 우선 활동성은 급식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F=12.911, p<0.01), 단체급식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 받는 아동보다 활동적이라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배경변인인 성, 연령, 가족유형,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수업집중력을 살펴보면, 급식유형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F=4.316, p<0.1), 즉 단체급식 아동이 개별급식 아동보다 수업집중력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F=5.935, p<0.05), 여아가 남아보다 수업집중력이 높았다. 연령별에 따라서 수업에 대한 집중력은 차이가 나타났으며(F=5.158, P<0.01), 학년이 낮을수록 수업의 집중력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급식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F=7.132, p<0.01),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을 받는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른 배경변인인 성, 연령, 가족유형, 가구수입에 따라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7-10〉 아동의 건강상태와 학교생활

	단위 M(SD)		
	활동성	수업집중력	건강상태
구분			
개별급식	3.27(1.07)	3.08(.78)	3.70(.83)
단체급식	3.53(1.10)	3.20(.95)	3.87(1.03)
F	12.911***	4.316**	7.132**
성			
남자	3.377(1.10)	3.08(.95)	3.80(.95)
여자	3.45(1.11)	3.22(.87)	3.82(.94)
F	.925	5.935*	.084
연령			
초등저학년	3.45(1.15)	3.26(.98)	3.82(.95)
초등고학년	3.41(1.11)	3.16(.86)	3.83(.95)
중고등학생	3.39(1.03)	3.01(.88)	3.74(.96)
F	.218	5.158**	.689
가족유형			
일반가정	3.46(1.09)	3.22(.89)	3.78(.98)
한부모가정	3.40(1.08)	3.13(.87)	3.80(.82)
조손가정	3.43(1.13)	3.07(.94)	3.75(1.02)
기타	3.33(1.12)	3.15(.81)	3.92(.90)
F	.426	1.163	.957
가구수입			
50만원미만	3.33(1.11)	3.13(.99)	3.78(1.06)
50-100만원	3.36(1.11)	3.19(.84)	3.80(.89)
100-200만원	3.49(1.02)	3.14(.87)	3.82(.94)
200만원이상	3.41(1.19)	3.33(.93)	3.77(1.12)
F	.701	.975	.971

*p<.05, **p<0.01, ***p<.001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유형은 활동성, 집중력, 건강상태 모든 변인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즉 단체급식을 받는 아동의 이 세 개의 변수 모두에서 개별급식 받는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인현상을 방지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아동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급식소를 확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급 및 복지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단체급식소의 장점을 계속해서 강화하며 또한, 급식지원아동의 연령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다른 다양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체급식소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아픈 곳이나 불편한 곳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정도의 아동들이 아픈데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질병상태에 대해 응답한 내용 중 감기 및 호흡기 질환이 16.8%로 질병이 가장 높았으며, 시력약화 및 눈병 7.5%, 치아 및 잇몸질환 6.3%, 두통 및 어지러움 증 6.0% 순으로 높았으며, 기타도 8.6%로 나타났다.

〈표 7-11〉 질병(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아픈데 없음	503	48.9
감기/호흡기질환	173	16.8
두통/어지러움증	62	6.0
치아/잇몸질환	65	6.3
시력약화/눈병	77	7.5
소화불량/기능약화	17	1.7
장염설사	24	2.3
빈혈	19	1.9
기타	88	8.6
계	1,028	100

나. 학교생활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은 평소 스스로 인식하는 친구관계와 학업성적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가 많고 인기가 많은 것이며, 학업성적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아동의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우선 친구관계는 급식지원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F=3.662, p<0.05$), 즉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보다 친구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른 배경변인인 성, 연령, 가족유형, 가구수입에 따라서

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표 7-12〉 아동의 친구관계 및 학업성적

단위: M(SD)

	친구관계	학업성적
구분		
개별급식	2.73(.79)	2.80(.82)
단체급식	2.85(.81)	3.01(.80)
F	5.16*	13.637***
성		
남자	2.75(.81)	2.84(.83)
여자	2.85(.80)	2.99(.79)
F	3.662	8.037**
연령		
초등저학년	2.82(.81)	3.16(.72)
초등고학년	2.77(.86)	2.90(.82)
중고등학생	2.82(.70)	2.67(.83)
F	.435	23.961***
가족유형		
일반가정	2.81(.79)	3.00(.76)
한부모가정	2.82(.84)	2.94(.81)
조손가정	2.71(.80)	2.72(.84)
기타	2.85(.77)	2.86(.87)
F	.906	4.875**
가구수입		
50만원미만	2.62(.87)	2.80(.93)
50-100만원	2.82(.79)	2.92(.84)
100-200만원	2.81(.84)	3.00(.77)
200만원이상	2.93(.90)	3.01(.86)
F	2.464	1.635

학업성적은 급식지원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F=13.637, p<0.001$), 즉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학업성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F=8.037, p<0.01$),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성적이 높았다. 연령별에 따라 학업성적은 차이가 나타났으며($F=23.961, P<0.001$), 학년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성적이 낮아지는 것은 결식환경의 누적의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식사의 형태와 빈도가 학업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급식 지원을 받는 청소년에게는 식사의 제공뿐만 아니라 학업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결식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족유형별에 따라 학업성적에 차이가 나타났으며($F=4.875, p<0.01$). 일반가정이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조손가정 아동이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입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급식유형은 친구관계와 학업성적 두 변인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즉 단체급식을 받는 개별급식을 받는 아동보다 아동이 친구관계가 좋으며, 학업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3. 급식지원 아동의 저체중 및 과체중과 비만 상태

가. 저체중율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저체중율은 9.8%였고, 남학생은 10.0%, 여학생은 9.5%이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0~14세 아동의 저체중율은 7.1% (남자 6.4%, 여자 7.9%)이고, 15~19세의 저체중율은 2.4% (남자 2.5%, 여자 2.2%)이었다. 본 조사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비하여 정확한 연령을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저체중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상당히 저영양상태에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조사결과를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한 중고등학생과 비교하면, 2005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고1~2학년)의 저체중율이 각각 8.7%, 3.7%이고, 2006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고1~3학년)의 저체중율이 각각 9.5%, 3.2%임에 비하여 본 조사의 중고등학생의 저체중 비율은 9.5%로 저체중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 중고등학생의 저체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의 표본이 결식아동을 대표하지는 못하므로 결식아동의 저체중율이 일반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표 7-13〉 급식지원 아동의 저체중 및 과체중, 비만 상태

(단위: %, 명)

	체중 구분(저체중 및 비만)			계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및 비만	
성별				
남자	10.0	78.8	11.1	100.0 (359)
여자	9.5	85.0	5.4	100.0 (367)
계	9.8	82.0	8.3	100.0 (726)
학년별×성별				
초등저학년				
남자	11.5	77.0	11.5	100.0 (87)
여자	10.3	85.1	4.6	100.0 (87)
계	10.9	81.0	8.0	100.0 (174)
초등고학년				
남자	8.3	79.5	12.2	100.0 (156)
여자	10.7	82.2	7.1	100.0 (169)
계	9.5	80.9	9.5	100.0 (325)
중고등				
남자	11.5	78.8	9.7	100.0 (113)
여자	7.5	89.7	2.8	100.0 (107)
계	9.5	84.1	6.4	100.0 (220)

주: 저체중률은 대상자의 체중이 2007년도 신장별 표준체중 대비 80% 미만인 비율
과체중 및 비만율은 대상자의 체중이 2007년도 신장별 표준체중 대비 120% 이상인 비율

나. 과체중과 비만을

본 조사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8.3%였고, 남학생은 11.5%, 여학생은 8.3% 이었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0~14세 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14.9% (남자 17.9%, 여자 11.4%)이고, 15~19세의 과체중 및 비만율은 13.7% (남자 13.9%, 여자 13.5%)이었다. 본 조사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비하여 정확한 연령을 비교하지는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하여 과체중 및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와 비교가 가능한 중고등학생과 비교하면, 2005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고1~2학년)의 비만율(체중과다 및 비만율)이 각각 8.1%, 9.47%이고, 2006년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고1~3학년)의 저체중율이 각각 8.1%, 10.6%임에 비하여 본 조사의 중고등학생의 비만 비율은 6.4%로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여자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높았는데 전국의 일반 중고등학생의 비만을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조사의 표본이 결식아동을 대표하지는 못하므로 결식아동의 과다체중 및 비만율이 일반 중고등학생에 비하여 낮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 급식지원 아동의 저체중율이 일반 아동보다 매우 높았으며, 과다체중 및 비만아동의 비율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에서 여자에 비하여 저체중 비율과 과다체중 비율이 높은 것을 보여 급식지원 아동 중에서도 남자 아동의 영양 문제가 좀더 심각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급식지원 아동의 식생활 상황

가. 급식지원 아동의 식사 섭취 상황

급식아동의 식사빈도를 보면 2/3 정도의 아동이 하루 3끼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하루에 1끼 식사를 하는 아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2.5%로 나타났으며, 2번 식사하는 경우는 중고등학생에서는 3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지원 아동들의 식사 결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14 참조). 급식지원형태별로는 식권이나 식재료를 개별적으로 공급받는 아동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에 비하여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4〉 급식지원 아동의 하루 식사횟수

(단위: %, 명)

구분	하루적자 횟수				계	χ ²
	1번	2번	3번	3번 이상		
계	1.0	26.7	66.1	6.2	100.0 (917)	40.618***
개별급식	0.3	33.8	64.5	1.5	100.0 (391)	
단체급식	1.5	21.5	67.3	9.7	100.0 (526)	
초등저학년	2.5	21.8	70.9	4.7	100.0 (275)	na
초등고학년	0.3	25.2	68.4	6.2	100.0 (369)	
중고등학생	0.4	35.7	57.0	7.0	100.0 (230)	

***p<.001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급식지원 아동들의 아침식사 결식 상황을 보면 일주일에 거의 먹지 않았다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고 특히 식권이나 식재료를 개별적으로 공급받는 아동에서 그 비율이 다소 높았다. 아침식사 결식율은 초등학교저학년에서 중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높은 상황이었다(표 7-15 참조).

〈표 7-15〉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아침식사 빈도

(단위: %, 명)

구분	아침식사 빈도				계	χ^2
	거의 먹지않았다	일주일에 1-2번먹었다	일주일에 3-4번먹었다	매일 먹었다		
계	22.1	7.7	12.0	58.1	100.0 (931)	6.437
개별급식	24.1	9.0	9.5	57.3	100.0 (398)	
단체급식	20.6	6.8	13.9	58.7	100.0 (533)	na
초등저학년	17.0	8.2	11.3	63.5	100.0 (282)	
초등고학년	21.8	6.3	13.7	58.1	100.0 (394)	
중고등학생	29.6	9.9	11.2	49.4	100.0 (233)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급식지원 아동들이 점심식사는 대부분 학교급식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점심결식율은 매우 낮음을 볼 수 있다(표 7-16 참조).

〈표 7-16〉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점심식사 빈도

(단위: %, 명)

구분	점심식사 빈도				계	χ^2
	거의 먹지않았다	일주일에 1-2번먹었다	일주일에 3-4번먹었다	매일 먹었다		
계	1.7	2.0	2.9	93.3	100.0 (932)	20.542***
개별급식	0.8	0.3	1.5	97.5	100.0 (398)	
단체급식	2.4	3.4	3.9	90.3	100.0 (534)	na
초등저학년	2.5	3.5	4.3	89.7	100.0 (282)	
초등고학년	1.5	1.0	2.3	95.2	100.0 (395)	
중고등학생	0.9	1.7	2.6	94.8	100.0 (233)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p<.001

급식지원 아동들의 1주일간 저녁식사 빈도를 통해서 저녁식사 결식 상황을 보면 점심식사에 비하여 결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아동들의 저녁결식이 개인별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 비하여 다소 저녁 결식 빈도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며, 중고등학생의 저녁식사 결식이 초등학교에 비하여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17 참조).

〈표 7-17〉 급식지원 아동의 1주일간 저녁식사 빈도

(단위: %, 명)

구분	저녁식사 빈도				계	χ^2
	거의 먹지않았다	일주일 에 1-2번먹었다	일주일 에 3-4번먹었다	매일 먹었다		
계	2.3	1.8	6.4	89.5	100.0(931)	
개별급식	1.3	1.3	6.3	91.2	100.0(399)	4.641
단체급식	3.0	2.3	6.6	88.2	100.0(399)	
초등저학년	3.9	2.5	3.9	89.7	100.0(281)	21.350**
초등고학년	1.5	1.3	4.8	92.4	100.0(395)	
중고등학생	1.7	2.1	11.6	84.5	100.0(233)	

**p<0.01

아침을 결식하는 아동들의 결식이유를 보면 ‘시간이 없어서’와 ‘식욕이 없어서’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4.2%), 혼자 먹기 싫어서(3.3%)로 결식아동의 식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단체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러한 이유로 결식하는 아동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7-18 참조).

〈표 7-18〉 급식지원 아동의 아침결식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결식이유									계	χ^2
	음식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기 싫어서	시간이 없어서	습관이 되어서	몸이 아파서	기타		
계	2.7	19.9	4.5	4.2	3.3	43.3	12.7	2.7	6.7	100.0(448)	
개별급식	2.9	22.2	7.6	1.8	2.3	42.7	17.0	2.3	1.2	100.0(171)	28.467***
단체급식	2.5	18.4	2.5	5.8	4.0	43.7	10.1	2.9	10.1	100.0(277)	
초등저학년	2.5	19.2	3.3	8.3	5.0	40.0	11.7	1.7	8.3	100.0(120)	na
초등고학년	3.1	21.6	2.6	3.1	4.1	42.3	12.9	2.6	7.7	100.0(194)	
중고등학생	2.4	16.3	7.3	1.6	0.8	51.2	13.8	2.4	4.1	100.0(123)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p<.001

저녁을 결식하는 아동들의 결식이유를 보면 ‘식욕이 없어서(26.3%)’, ‘혼자먹기 싫어서(10.6%)’, ‘습관이 되어서(10.1%)’, ‘반찬이 없어서(10.1%)’, ‘음식이 없어서(6.7)’로 나타나 결식아동의 저녁식사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다. 개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에서 더욱 이러한 이유를 들고 있어 이들이 저녁식사의 결식이 더욱 심각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러한 이유로 결식하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중고등학생에서는 습관이 되어서와 식욕이 없어서 저녁 결식을 하

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회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9 참조).

〈표 7-19〉 급식지원 아동의 저녁 결식 이유

(단위: %, 명)

구분	저녁결식 이유											계	χ^2
	음식이 없어서	식욕이 없어서	반찬이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먹어서	시간이 없어서	절약하기 위해서	약해 습관이 되어서	몸이 아파서	음식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혼자 먹어서		
계	6.7	26.3	10.1	6.7	10.6	5.6	1.1	10.1	5.6	5.6	11.7	100.0(179)	
개별급식	10.4	31.3	14.6	6.3	4.2	4.2	2.1	16.7	--	6.3	4.2	100.0(48)	na
단체급식	5.3	24.4	8.4	6.9	13.0	6.1	0.8	7.6	7.6	5.3	14.5	100.0(131)	
초등저학년	3.3	21.3	9.8	9.8	16.4	3.3	-	8.2	6.6	6.6	16.4	100.0(61)	na
초등고학년	12.3	26.2	10.8	6.2	10.8	7.7	1.5	7.7	4.6	4.6	9.2	100.0(65)	
중고등학생	4.3	32.6	8.7	4.3	4.3	4.3	2.2	15.2	2.2	6.5	17.4	100.0(46)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급식지원 아동에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개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러한 식사의 불규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7-20 참조).

〈표 7-20〉 급식지원 아동의 식사시간의 규칙 정도

(단위: %, 명)

구분	식사시간				계	χ^2
	매우 불규칙하다	불규칙한 편이다	규칙적인 편이다	매우 규칙적이다		
계	3.1	14.9	65.8	16.2	100.0(912)	
개별급식	3.8	18.2	71.4	6.6	100.0(391)	48.064***
단체급식	2.5	12.5	61.6	23.4	100.0(521)	
초등저학년	1.8	9.9	68.6	19.7	100.0(274)	44.975***
초등고학년	2.1	12.3	66.8	18.8	100.0(383)	
중고등학생	5.6	24.7	62.3	7.4	100.0(231)	

***p<.001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아침식사는 어머니가 준비해 주는 경우가 가장 많기는 하였으나, 아버지나 할머니, 친척 등 아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고, 내가 직접 준비한다는 아동도 5.0%에 이른다. 반면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경우도 15.2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들이 조손가정 등의 가족상황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생에서는 내가 직접한다는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표 7-21 참조).

〈표 7-21〉 급식지원아동의 아침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아침식사 준비									계	χ^2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누나	기타 친척	내가 직접	급식 지원	먹지 않음		
계	53.0	6.8	17.9	0.6	2.2	3.1	5.0	0.8	10.7	100.0 (907)	
개별급식	46.3	7.4	17.8	0.3	2.1	4.8	5.1	1.1	15.2	100.0(376)	na
단체급식	57.8	6.4	17.9	0.8	2.3	1.9	4.9	0.6	7.5	100.0(531)	
초등저학년	56.3	6.1	19.7	1.4	3.2	2.9	2.5	1.4	6.5	100.0(279)	na
초등고학년	57.3	7.3	16.3	0.3	1.8	2.8	3.6	0.5	10.1	100.0(386)	
중고등학생	41.2	6.3	18.1		1.4	4.1	10.9	0.5	17.6	100.0(221)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저녁식사 준비 상황은 개별지원인가, 단체지원인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으며, 초등학생과 중고등의 차이도 많았다. 단체지원을 받는 아동은 저녁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직접 준비한다는 아동도 6.9%에 이른다. 중고등학생에서 ‘내가 직접한다’는 학생의 비율도 높았다(표 7-22 참조).

〈표 7-22〉 급식지원아동의 저녁식사를 준비해 주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저녁식사 준비									계	χ^2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형/누나	기타 친척	내가 직접	급식 지원	먹지 않음		
계	38.3	6.7	16.2	0.9	2.9	4.8	6.8	22.4	1.1	100.0(932)	
개별급식	43.9	9.1	21.0	1.3	5.3	4.8	10.1	3.5	1.0	100.0(396)	157.515***
단체급식	34.1	4.9	12.7	0.6	1.1	4.9	4.3	36.4	1.1	100.0(536)	
초등저학년	41.3	6.0	15.3	1.8	3.6	3.9	3.2	23.5	1.4	100.0(281)	na
초등고학년	37.6	6.6	14.6	0.8	2.0	4.5	4.8	28.5	0.5	100.0(396)	
중고등학생	37.1	7.3	20.7		3.4	6.5	15.1	8.2	1.7	100.0(232)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p<.001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식사상황으로 가족과 함께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아침식사는 혼자 먹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15.7%였고, 저녁 식사는 혼자 먹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7.8%로 나타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아동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식형태별로 개별지원을 받는 아동에게서,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서 혼자 먹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23, 표 7-24 참조).

〈표 7-23〉 가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족과 함께 아침식사 여부			계	χ^2
	함께 먹는다	혼자 먹는다	기타		
계	71.0	15.7	13.3	100.0(885)	3.353
개별급식	69.1	18.4	12.5	100.0(353)	
단체급식	72.2	13.9	13.9	100.0(532)	
초등저학년	74.6	11.2	14.1	100.0(276)	40.117***
초등고학년	76.4	11.3	12.3	100.0(381)	
중고등학생	57.0	29.0	14.0	100.0(207)	

***p<.001

〈표 7-24〉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 여부			계	χ^2
	함께 먹는다	혼자 먹는다	기타		
계	78.4	7.8	13.8	100.0(926)	60.580***
개별급식	85.1	10.8	4.0	100.0(397)	
단체급식	73.3	5.5	21.2	100.0(529)	
초등저학년	78.6	3.9	17.4	100.0(281)	34.558***
초등고학년	79.6	6.1	14.2	100.0(393)	
중고등학생	77.2	15.5	7.3	100.0(232)	

***p<.001

나. 급식지원 아동의 주요 식품별 식품섭취 빈도

급식지원 아동의 식품섭취 상황을 면접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식품이나 음식의 식품섭취 빈도를 아동들의 자가보고(self-reported) 결과를 분석하였다. 식품빈도는 ‘하루에 3회 이상’, ‘하루에 2회’, ‘하루에 1회’, ‘일주일에 4-6회’,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1년에 6-11’, ‘거의 안먹음’의 10단계로 빈도를 질문하였고, 식품의 특성에 따라 섭취 빈도를 묶어서 섭취빈도를 분류하였다.

밥의 섭취 빈도는 식사의 규칙성과 균형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 밥이 섭취 빈도는 일반아동에 비하여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결식아동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영선 외, 2007). 그런데 본 조사결과, 하루에 1번이라는 빈도가 62.7%로 높았고, 하루에 2번 먹는다는 아동의 비율이 29.7%였고, 특히 단체지원을 받는 아

동에서 하루 1번 밥식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7-25 참조).

〈표 7-25〉 급식지원아동의 밥(흰밥, 잡곡밥)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밥(흰밥, 잡곡밥)의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하루에 2번	하루에 3번	하루 1번미만		
계	62.3	29.7	3.8	4.3	100.0(933)	
개별급식	55.8	39.9	3.0	1.3	100.0(398)	45.188***
단체급식	67.1	22.1	4.3	6.5	100.0(535)	
초등저학년	64.5	24.8	6.0	4.6	100.0(282)	30.141***
초등고학년	66.2	26.2	2.5	5.0	100.0(397)	
중고등학생	52.8	42.1	3.4	1.7	100.0(233)	

***p<.001

라면류의 섭취는 1끼 식사로 섭취할 경우 영양의 불균형, 지방과 나트륨의 과다섭취를 초래한다. 라면류의 섭취빈도는 특히 결식아동에서 편의성 때문에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섭취 빈도가 높았다(표 7-26 참조).

〈표 7-26〉 급식지원아동의 라면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라면류의 섭취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4-6회	일주일에 1-3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미만		
계	13.5	6.0	52.4	11.4	16.8	100.0(924)	
개별급식	5.5	8.5	62.0	14.3	9.8	100.0(400)	79.676***
단체급식	19.7	4.0	45.0	9.2	22.1	100.0(524)	
초등저학년	14.1	5.1	49.5	11.6	19.9	100.0(277)	22.819**
초등고학년	14.2	4.3	51.9	11.4	18.2	100.0(395)	
중고등학생	10.3	10.3	58.2	11.6	9.5	100.0(232)	

p<0.01, *p<.001

성장기에 있는 아동기에 중요한 동물성 단백질의 급원 식품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섭취 빈도를 보면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2-6회’ 섭취 아동의 비율이 높아 단백질 급원 식품의 섭취는 비교적 양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섭취빈도가 일주일에 1회나 그 미만 또는 거의 안 먹는 경우도 3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부 급식지원 아동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의 섭취가 매우 불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표 7-27 참조).

〈표 7-27〉 급식지원아동의 육류 및 난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2-6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1회 미만	거의 안먹음		
계	27.6	41.6	14.1	12.6	4.0	100.0(920)	31.408***
개별급식	26.1	49.1	14.3	9.5	1.0	100.0(399)	
단체급식	28.8	35.9	14.0	15.0	6.3	100.0(521)	
초등저학년	28.7	37.5	14.5	11.6	7.6	100.0(275)	17.363*
초등고학년	26.9	42.6	14.2	12.9	3.3	100.0(394)	
중고등학생	25.1	46.8	13.0	13.9	1.3	100.0(231)	

*p<0.5, ***p<.001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급원식품의 하나로 포화지방산이 낮은 생선류의 섭취는 좋은 동물성 단백질의 급원식품이다. 생선류의 섭취 빈도는 1주일에 1회 미만이 44.6%로 섭취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28 참조).

〈표 7-28〉 급식지원아동의 생선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생선류의 섭취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2-6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1회 미만	거의 안먹음		
계	17.5	37.9	19.0	15.4	10.2	100.0(921)	33.666***
개별급식	10.3	43.5	22.8	13.8	9.8	100.0(400)	
단체급식	23.0	33.6	16.1	16.7	10.6	100.0(521)	
초등저학년	21.9	35.8	18.6	11.7	12.0	100.0(274)	13.763
초등고학년	15.4	41.3	18.2	16.7	8.4	100.0(395)	
중고등학생	14.2	36.2	21.1	17.7	10.8	100.0(232)	

***p<.001

야채류의 섭취는 과일류와 함께 무기질 및 비타민의 급원이 되어 영양의 균형섭취에 중요하다. 야채류의 섭취빈도는 하루 3번 이상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급식 지원 아동의 야채류 섭취빈도는 하루에 3회 이상 및 하루에 1-2회 섭취빈도를 나타낸 경우가 많았지만 일주일에 2-6회, 일주일에 1회 이하, 거의 안먹는 경우가 40.1%가 되어 급식지원 아동 중에서 야채섭취가 부족한 집단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표 7-29 참조).

〈표 7-29〉 급식지원아동의 야채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야채류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3회 이상	하루에 1-2번	일주일에 2-6회	일주일에 1회 이하	거의 안먹음		
계	24.5	35.3	25.1	10.7	4.3	100.0(921)	
개별급식	21.0	39.5	27.8	8.5	3.3	100.0(400)	14.444**
단체급식	27.3	32.1	23.0	12.5	5.2	100.0(521)	
초등저학년	25.6	34.1	21.2	11.7	7.3	100.0(273)	15.372
초등고학년	26.4	34.8	25.4	10.6	2.8	100.0(397)	
중고등학생	20.8	36.4	30.3	9.1	3.5	100.0(231)	

**p<0.01

과일류 및 과일주스는 야채류와 더불어 무기질 및 비타민이 되어 영양의 균형섭취에 중요하다. 급식 지원 아동의 과일류 및 과일주스 섭취빈도를 보면 하루에 3회 이상 및 하루에 1-2회 섭취빈도를 나타낸 경우가 적었고 대부분이 일주일에 2-6회를 섭취하였으며, 일주일에 1회 이하나 거의 안 먹는 경우가 28.1%가 되어 과일섭취가 부족한 집단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일류는 가격이 높아 소득계층에 따라 섭취빈도에 차이가 큰 식품군으로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서 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표 7-30 참조).

〈표 7-30〉 급식지원아동의 과일 또는 과일주스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과일 또는 과일주스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3회 이상	하루에 1-2번	일주일에 2-6회	일주일에 1회 이하	거의 안먹음		
계	8.7	23.0	40.3	22.0	6.1	100.0(923)	
개별급식	2.5	19.0	48.6	25.8	4.0	100.0(399)	57.118***
단체급식	13.4	26.0	34.0	19.1	7.6	100.0(524)	
초등저학년	11.9	23.4	42.4	16.2	6.1	100.0(278)	15.715*
초등고학년	7.6	24.7	38.4	23.0	6.3	100.0(396)	
중고등학생	6.1	19.6	41.3	27.4	5.7	100.0(230)	

*p<0.5, ***p<.001

성장발육, 특히 키와 뼈의 성장에 필수적인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는 성장기 아동에서는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할 식품이다. 본 조사결과 하루에 1-2회 섭취한다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였으나 일주일에 1회 이하나 거의 안 먹고 있다는 아동들도 15.1%나 되어 급식지원 아동 중 칼슘급원 식품의

섭취가 부족한 아동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들의 영양상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표 7-31 참조).

〈표 7-31〉 급식지원아동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우유 및 유제품 섭취빈도					계	\bar{x}
	하루에 3회 이상	하루에 1-2번	일주일에 2-6회	일주일에 1회 이하	거의 안먹음		
계	13.2	49.8	21.9	9.7	5.4	100.0(918)	
개별지원	7.5	53.4	25.4	10.2	3.5	100.0(401)	28.667***
단체지원	17.6	47.0	19.1	9.3	7.0	100.0(517)	
초등저학년	13.6	55.7	17.9	7.7	5.1	100.0(273)	41.889***
초등고학년	14.7	53.0	19.5	7.1	5.6	100.0(394)	
중고등학생	8.7	38.1	30.7	17.3	5.2	100.0(231)	

***p<.001

급식지원 아동들이 끼니를 혼자서 해결하거나 도시락을 배달받는 경우가 많아 염분이 높은 저장식품인 밀반찬, 젓갈, 짬아찌류의 섭취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 조사결과에서도 이들 염분함량이 높은 저장식품의 섭취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밀반찬, 젓갈, 짬아찌류의 섭취를 하루에 1번 이상 한다는 아동이 20.0%나 되며, 일주일에 4-6회를 한다는 아동이 27.2%, 일주일에 2-3회 먹는다는 아동이 21.5%로 염분 섭취가 높고, 영양가는 낮고 염분이 높은 식품의 섭취가 잦은 것은 급식지원 아동의 식생활에서 큰 문제로 볼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식품지원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며, 이들 아동에 대한 식생활과 영양지도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파악되었다(표 7-32 참조).

〈표 7-32〉 급식지원아동의 밀반찬, 젓갈, 짬아찌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밀반찬, 젓갈, 짬아찌 등 섭취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4-6회	일주일 2-3회	일주일에 1번 이하		
계	20.0	27.2	21.5	31.3	100.0(918)	
개별급식	20.4	29.1	25.6	24.9	100.0(398)	15.841**
단체급식	19.8	25.8	18.3	36.2	100.0(520)	
초등저학년	18.5	27.7	18.1	35.8	100.0(271)	9.092
초등고학년	22.7	28.0	21.9	27.5	100.0(271)	
중고등학생	18.7	26.1	25.7	29.6	100.0(100)	

**p<.01

급식지원 아동들은 튀김, 볶음류 등 패스트푸드나 간식에서 많이 섭취하는 튀김류와 볶음류 음식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주일에 1-3회가 43.1%, 일주일에 4-6회가 9.8%, 하루에 1번 이상이 17.2%로 지방과 열량의 함량이 높고, 트랜스지방이 높을 수 있고, 과체중과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유인하는 식습관을 가져올 수 있는 식품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식생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개별지원을 받는 아동과 중고생학생에서 튀기거나 볶는 음식의 섭취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33 참조).

〈표 7-33〉 급식지원아동의 튀김, 볶음류의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튀김, 볶음류 음식의 섭취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4-6회	일주일에 1-3회	한달에 2-3회	한달에 1회 미만		
계	17.2	9.8	43.4	9.1	20.5	100.0(919)	26.567***
개별급식	11.3	11.5	50.0	7.3	20.0	100.0(400)	
단체급식	21.8	8.5	38.3	10.6	20.8	100.0(519)	
초등저학년	17.9	9.9	41.0	8.1	23.1	100.0(273)	6.469
초등고학년	18.3	8.9	44.7	10.2	18.0	100.0(394)	
중고등학생	13.8	11.2	46.1	8.6	20.3	100.0(232)	

***p<.001

콜라, 사이다, 과일탄산음료 등의 탄산음료는 단순당의 섭취를 높이고, 영양가를 부족하며, 치아우식증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나쁜 식습관을 고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탄산음료 섭취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비만과 영양불량을 가져오는 식품으로 판매규제 등이 유럽 등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식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탄산음료의 주 소비층이 아동과 청소년으로 알려져 있는데(보건복지부, 2006), 급식지원 아동들의 탄산음료 섭취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번 이상 섭취아동이 16.2%, 일주일에 2-6회가 29.6%, 1주일에 1회가 18.7%로 탄산음료의 섭취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아동의 식습관의 문제의 하나로 개선되어야 할 식사문제로 파악되었다(표 7-34 참조).

〈표 7-34〉 급식지원아동의 탄산음료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탄산음료의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2-6회	1주일에 1회	1주일에 1회 미만		
계	16.2	29.6	18.7	35.4	100.0(918)	
개별급식	8.0	30.2	22.4	39.4	100.0(401)	38.375***
단체급식	22.6	29.2	15.9	32.3	100.0(517)	
초등저학년	20.2	25.4	20.2	34.2	100.0(272)	9.512
초등고학년	15.7	29.9	18.3	36.0	100.0(394)	
중고등학생	12.5	35.3	18.5	33.6	100.0(232)	

***p<.001

급식지원 아동들이 스스로 보고하고 있는 비위생적이거나 무허가 식품으로 보이는 불량 식품의 섭취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1번이상이 5.0%, 일주일에 4-6회가 17.5%, 일주일에 2-3회가 20.0%로 많은 급식지원 아동들이 위생적으로나 영양적으로 불량한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식품선택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식생활지도와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불량식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환경여건의 조성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35 참조).

〈표 7-35〉 급식지원아동의 불량식품 섭취빈도

(단위: %, 명)

구분	불량식품(비위생식품, 무허가 식품) 섭취 빈도				계	\bar{x}
	하루에 1번 이상	일주일에 4-6회	일주일 2-3회	일주일에 하루 1번 이하		
계	5.0	17.5	20.0	57.5	100.0(920)	
개별급식	1.5	11.5	21.3	65.8	100.0(400)	40.827***
단체급식	7.7	22.1	19.0	51.2	100.0(520)	
초등저학년	18.5	27.7	18.1	35.8	100.0(275)	14.394*
초등고학년	22.7	28.0	21.9	27.5	100.0(392)	
중고등학생	18.7	26.1	25.7	29.6	100.0(233)	

*p<.05, ***p<.001

5. 급식방법

가. 급식지원 기간 및 장소

급식을 지원받은 기간은 3년 이상이 가장 많은 42.8%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1년이상~2

년미만으로 파악되었다(표 7-36 참조). 전체적으로 2년 이상이 56%로서 과반수임을 알 수 있다. 6개월 미만의 급식대상자는 10%이하로서 적은 편이었다. 향후에는 급식을 어느 정도 받은 후 종결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즉, 급식대상자로서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머물러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급식종결 기준이 없어서 한번 급식을 받게 되면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상황이다. 이는 서비스의 남용과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종결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표 7-36〉 급식지원 받은 기간

(단위: 명, %)

기간	빈도	백분율
6개월 미만	93	10.2
6개월~1년 미만	119	13.1
1년 이상~2년 미만	187	20.6
2년이상~3년 미만	121	13.3
3년 이상	389	42.8
계	909	100.0

현재 무료급식을 받고 장소를 파악하였더니, 가장 많은 곳이 지역아동센터로 39.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동사무소로 29.9%가 급식지원을 받고 있었다(표 7-37 참조). 학교는 16.6%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관 6.7%, 종교단체 2.7% 등으로 소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아동이 급식을 받고 있는 기관은 지역아동센터, 동사무소, 학교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배경별로 보면 우선 급식유형에 따라서 개별급식은 주로 동사무소와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고,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에서 받고 있었다. 성별로는 여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복지관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비율이 남아보다 높았고, 남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동사무소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즉, 민간기관의 참여율이 남아보다 여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높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동사무소로부터 지원받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유형별로는 일반가정과 소년소녀가정을 포함한 기타의 유형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조손가정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동사무소는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이용비율이 높았다. 가구 수입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비율이 높았고, 50만원 미만의 아동은 사회복지관 이용비율이 높았다.

〈표 7-37〉 무료 급식을 받고 있는 장소

(단위: %, 명)

장소	학교	동사무소	지역 아동센터	사회 복지관	종교단체	기타	계	χ^2
계	16.6	29.9	39.2	6.7	2.7	4.8	100.0(920)	
구분								
개별급식	22.0	67.0	0.5	4.8	1.3	4.5	100.0(400)	618.836***
단체급식	12.5	1.3	69.0	8.3	3.8	5.2	100.0(520)	
성								
남자	17.3	33.5	35.1	4.9	2.8	6.3	100.0(427)	14.113*
여자	16.3	27.5	42.1	8.2	2.7	3.2	100.0(473)	
연령								
초등저학년	14.7	20.1	50.4	7.6	3.6	3.6	100.0(278)	99.204***
초등고학년	16.4	24.4	43.3	6.7	3.3	5.9	100.0(390)	
중고등학생	20.2	51.9	17.2	6.0	0.9	3.9	100.0(233)	
가족유형								
일반가정	16.8	23.5	48.0	4.3	2.9	4.5	100.0(375)	57.437***
한부모가정	17.2	36.5	31.3	7.1	1.9	6.0	100.0(367)	
조손가정	14.7	39.2	25.5	15.7	2.9	2.0	100.0(102)	
기타	18.8	18.8	45.3	6.3	6.3	4.7	100.0(64)	
가구수입								
50만원미만	15.1	20.6	39.7	15.9	2.4	6.3	100.0(126)	41.965***
50-100만원	22.6	28.4	33.5	7.4	3.5	4.7	100.0(257)	
100-200만원	15.6	28.3	44.4	2.2	3.9	5.6	100.0(180)	
200만원이상	17.4	8.7	52.2	7.2	5.8	8.7	100.0(69)	

주: 중복응답을 한 변수로 만들어서 분석함. * p < .05, *** p < .001

나. 현행 급식지원방법

지원받는 무료급식유형을 식사별로 살펴보았다. 이때, 아동의 학년을 비교변수로 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침식사의 경우 학기중에는 대부분인 90.6%는 지원을 받지 않고 있었는데, 지원받는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무료 학교 급식이 가장 많았다(표 7-38 참조). 학년별 차이는 별로 없었다. 토요일·공휴일도 지원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90.5%이었고, 기타 다음으로 지원받는 형태는 지역아동센터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방학중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7-38〉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아침 급식방법

(단위: %, 명)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아침				토요일·공휴일 아침				방학중 아침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90.8	88.9	94.1	90.6	89.3	87.6	96.7	90.5	86.6	83.2	89.1	85.6
무료학교 급식	2.9	2.2	2.1	2.4	0.4	1.1	0.0	0.6	1.3	0.3	0.0	0.5
지역아동센터 등	0.8	0.8	1.6	1.0	3.8	2.8	0.0	2.4	5.4	3.6	1.6	3.7
지정식당이용(식품권)	0.0	0.0	0.0	0.0	0.4	0.8	0.5	0.6	0.4	0.3	1.6	0.6
도시락 배달	0.8	2.2	0.0	1.3	0.8	1.4	0.0	0.9	1.3	3.3	1.1	2.2
밀반찬 배달	0.4	0.6	1.1	0.6	0.4	0.0	0.5	0.3	0.4	0.8	1.1	0.8
현물(주부식 재료)	0.8	0.6	0.0	0.5	0.8	1.4	1.1	1.2	0.8	2.2	1.6	1.7
상품권(식재료 구입)	0.0	0.0	0.0	0.0	0.0	0.0	0.0	0.0	0.8	0.6	0.5	0.6
현금	0.0	0.0	0.0	0.0	0.0	0.3	0.0	0.1	0.4	0.3	0.0	0.3
기타	3.3	5.0	1.1	3.6	3.4	4.5	1.1	3.4	2.5	5.5	3.3	4.1
계	100.0 (240)	100.0 (359)	100.0 (187)	100.0 (783)	100.0 (238)	100.0 (355)	100.0 (183)	100.0 (776)	100.0 (239)	100.0 (363)	100.0 (184)	100.0 (786)
χ^2	na				na				na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점심의 경우는 학기중에는 무료급식이 가장 많은 74.1%이었다(표 7-39 참조). 지원받지 않는 경우도 16.3%나 되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오전수업만 하는 아동으로 추정된다. 중고등학생 중 9.6%는 어떠한 급식도 지원받지 않고 있었는데, 이 대상은 복지의 사각지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토요일·공휴일에는 지원받지 않음이 가장 많은 56.0%, 그 다음이 지역아동센터로 17.6%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은 지정식당이용(식품권) 9.7%, 도시락 배달 6.9%, 현물(주부식 재료) 및 상품권(식재료 구입) 각 2.6%, 2.5%의 분포로 나타났다.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을 급식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 34.7%이었고, 그 다음은 지원받지 않음으로 25.3%로 파악되었다. 지정식당이용도 11.4%로 상당수 되었고, 도시락 배달 9.0%, 상품권 8.2%, 현물 5.7% 등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방학중 점심의 경우는 학년별 차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지정식당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상품권, 현물 등의 형태가 다른 학년에 비해 매우 많았다. 저학년일수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7-39〉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점심급식방법

(단위: %, 명)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점심				토요일·공휴일 점심				방학중 점심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20.5	17.6	9.6	16.3	59.8	54.6	53.7	56.0	28.6	25.6	20.6	25.3
무료학교 급식	67.2	71.6	86.0	74.1	1.5	2.1	1.4	1.8	0.8	1.8	1.3	1.4
지역아동센터 등	6.6	5.4	0.9	4.6	23.2	20.1	6.9	17.6	46.2	40.4	11.2	34.7
지정식당이용(식품권)	0.0	0.8	0.4	0.5	5.8	6.9	19.3	9.7	6.4	6.7	25.6	11.4
도시락 배달	0.0	0.5	0.4	0.3	3.9	8.2	6.9	6.5	4.1	10.6	12.1	9.0
밀반찬 배달	0.4	0.8	1.3	0.8	0.4	0.8	0.9	0.7	1.5	1.3	1.3	1.4
현물(주부식 재료)	0.8	0.0	0.0	0.2	2.3	0.8	6.0	2.6	2.6	4.7	11.2	5.7
상품권(식재료 구입)	0.4	0.3	0.4	0.3	1.5	2.1	4.1	2.5	6.8	5.4	14.8	8.2
현금	0.0	0.3	0.0	0.1	0.0	0.0	0.0	0.0	0.4	0.8	0.4	0.6
기타	4.2	2.8	0.9	2.7	1.5	4.5	0.9	2.7	2.6	2.6	1.3	2.3
계	100.0 (259)	100.0 (387)	100.0 (229)	100.0 (875)	100.0 (259)	100.0 (379)	100.0 (218)	100.0 (856)	100.0 (266)	100.0 (386)	100.0 (223)	100.0 (875)
χ^2	na				na				na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저년의 경우 학기중의 경우는 지원받지 않는 경우가 반에 해당하는 50.9%이었고,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로 42.3%이다(표 7-40 참조).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이 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토요일·공휴일에는 대부분인 82.8%가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지원받는 경우는 대부분 초등학생들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방학중에는 지원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6.3%이고, 지원은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로부터 급식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고등학생은 지정식당이나 상품권을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7-40-1>에는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식유형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7-40〉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저녁급식방법

(단위: %, 명)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저녁				토요일·공휴일 저녁				방학중 저녁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43.1	45.1	73.2	50.9	81.7	80.0	89.6	82.8	62.7	63.5	76.6	66.3
무료학교 급식	0.8	1.6	3.2	1.7	1.2	0.6	0.0	0.6	1.6	0.8	0.0	0.9
지역아동센터 등	52.3	47.7	17.9	42.3	12.4	11.1	6.0	10.3	28.9	27.1	12.0	24.2
지정식당이용(식품권)	0.8	0.5	1.1	0.7	0.0	0.8	0.0	0.4	0.8	1.1	2.7	1.4
도시락 배달	0.0	1.3	1.1	0.8	0.0	0.3	0.0	0.1	0.8	0.8	0.5	0.8
밀반찬 배달	0.4	0.3	1.6	0.6	0.8	0.3	1.1	0.6	0.0	1.1	1.1	0.8
현물(주부식 재료)	0.7	0.8	0.5	0.7	1.2	0.6	0.5	0.8	0.8	0.3	0.5	0.5
상품권(식재료 구입)	0.4	0.3	1.1	0.5	0.4	0.8	1.1	0.8	2.0	1.4	3.8	2.1
현금	0.4	0.3	0.0	0.2	0.0	0.3	0.0	0.1	0.4	0.0	0.0	0.1
기타	1.2	2.1	0.5	1.5	2.1	5.3	1.6	3.4	2.0	3.9	2.7	3.0
계	100.0 (260)	100.0 (375)	100.0 (190)	100.0 (825)	100.0 (241)	100.0 (360)	100.0 (183)	100.0 (784)	100.0 (249)	100.0 (362)	100.0 (184)	100.0 (795)
χ^2	na				na				na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표 7-40-1〉 시기별 지원받고 있는 주요 급식방법

(단위: %)

구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90.6 • 기타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학교 급식 74.1 • 지원받지 않음 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50.9 • 지역아동센터 42.3
토·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90.5 • 기타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56.0 • 지역아동센터 17.6 • 지정식당이용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82.8 • 지역아동센터 10.3
방학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85.6 • 기타 4.1 • 지역아동센터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34.7 • 지원받지 않음 25.3 • 지정식당이용 11.4 • 도시락 배달 9.0 • 상품권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66.3 • 지역아동센터 24.2

다. 희망 급식지원방법

희망하는 아침급식방법은 학기 중에는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69.0% 이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의 응답률이 높았다(표 7-41 참조). 지원받고 싶지 않음을 제외했을 때, 무료학교급식이 가장 많은 6.6%이고,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4.5%, 현금 4.5% 등으로 파악되어 아침식사에 대한 선호는 적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

학교 저학년은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 배달을, 초등학교 고학년은 무료학교 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중고등학생은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토요일·공휴일에도 아침급식을 받기 원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많은 67.3%이었다.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학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침을 지원받기 원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현금과 도시락 배달을, 중고등학생은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아동센터를 희망하는 반면, 고연령일수록 단체보다는 도시락 배달 같은 개별급식이나 현금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방학중 아침식사의 경우도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63.9%로 가장 많았다. 희망하는 경우는 현금과,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상품권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은 도시락 배달을, 중고등학생은 현금지원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표 7-41〉 학년별 희망 아침급식방법

(단위: %, 명)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아침				토요일·공휴일 아침				방학중 아침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63.9	70.8	72.1	69.0	65.1	68.2	68.1	67.3	62.3	64.7	64.3	63.9
무료학교 급식	12.2	5.6	1.1	6.6	3.8	1.1	1.1	1.9	3.3	0.8	0.5	1.5
지역아동센터 등	8.0	2.5	3.8	4.5	10.9	2.8	3.8	5.5	15.9	4.8	4.4	8.1
지정식당이용(식품권)	0.4	1.4	2.2	1.3	0.4	3.1	3.3	2.3	2.1	2.5	3.3	2.6
도시락 배달	6.3	5.1	3.8	5.1	9.7	5.3	2.2	5.9	5.9	7.6	4.4	6.3
밀반찬 배달	0.8	1.1	1.1	1.0	0.4	2.8	1.6	1.8	0.4	1.7	1.1	1.2
현물(주부식 재료)	1.3	0.6	2.2	1.2	1.3	0.8	2.7	1.4	1.3	0.3	1.1	0.8
상품권(식재료 구입)	2.5	2.5	3.3	2.7	2.5	3.6	3.3	3.2	2.9	3.9	6.0	4.1
현금	2.5	3.7	8.7	4.5	4.6	5.8	12.1	6.9	4.6	6.7	13.2	7.6
기타	2.1	6.7	1.6	4.1	1.3	6.4	1.6	3.7	1.3	7.0	1.6	4.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8)	(356)	(183)	(777)	(238)	(359)	(182)	(779)	(239)	(357)	(182)	(778)
χ^2	na				na				na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점심의 경우는 학기중에는 무료학교 급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62.2%, 표 7-42 참조). 그 다음은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18.2%이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학교에서의 급식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토요일·공휴일에는 다양한 급식형태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급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인 35.3%이고,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13.3%, 도시락 배달 10.8%, 현금지원 10.0% 등으로 파악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역아동센터와 도시락배달, 현금, 무료학교 급식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은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상품권, 현금, 무료학교 급식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은 현금, 지정식당이용, 도시락배달, 상품권의 순이었다.

방학중에는 지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24.0%에 불과하고, 지역아동센터, 상품권, 도시락배달, 현금 등 다양한 지원유형을 희망하고 있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도시락 배달, 상품권, 현금, 지정식당이용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도 이와 거의 유사하게 지역아동센터, 도시락배달, 상품권, 지정식당이용, 현금의 순이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상품권, 지정식당이용, 지역아동센터의 순으로 나타나 고연령일수록 급식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었다.

〈표 7-42〉 학년별 희망 점심급식방법

(단위: %, 명)

희망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점심				토요일·공휴일 점심				방학중 점심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24.1	18.4	10.9	18.2	39.5	38.1	25.7	35.3	28.7	25.4	16.0	24.0
무료학교 급식	53.3	60.3	75.9	62.2	6.3	3.8	4.5	4.7	5.4	3.2	2.7	3.8
지역아동센터 등	11.3	6.5	3.6	7.2	18.2	12.9	8.6	13.3	29.5	25.9	10.5	23.0
지정식당이용(식품권)	1.6	3.0	3.2	2.6	6.3	7.0	15.3	9.0	6.2	7.6	15.5	9.2
도시락 배달	3.9	2.4	2.3	2.8	11.9	14.7	10.8	12.9	9.7	12.7	8.2	10.6
밑반찬 배달	0.4	0.8	0.0	0.5	0.8	2.1	4.1	2.2	0.8	1.4	2.3	1.4
현물(주부식 재료)	1.2	0.3	0.0	0.5	2.4	0.3	3.6	1.8	2.3	1.6	5.9	3.0
상품권(식재료 구입)	1.9	1.6	1.4	1.7	5.9	8.6	7.7	7.5	8.1	11.4	17.8	12.0
현금	1.2	2.2	1.8	1.8	6.7	7.2	18.5	10.0	7.4	7.3	20.1	10.6
기타	1.2	4.6	0.9	2.6	2.0	5.4	1.4	3.3	1.9	3.5	0.9	2.4
계	100.0 (257)	100.0 (370)	100.0 (220)	100.0 (847)	100.0 (253)	100.0 (373)	100.0 (222)	100.0 (848)	100.0 (258)	100.0 (370)	100.0 (219)	100.0 (847)
χ^2	na				80.640***				97.910***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 p < .001

저년의 경우는 학기중에는 지원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2.0%로 과반수 이하이었고,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장 많은 응답은 지역아동센터로 29.3%이었다(표 7-43 참조). 나머지는

상품권, 현금 등 소수만이 지적하였다. 학력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도시락배달, 현금, 상품권의 순이었고, 고학년은 지역아동센터, 현금, 상품권의 순으로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상품권과 현금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고, 무료 학교 급식과 도시락배달도 소수 있었다. 특이하게 저녁의 경우는 모든 연령대에서 현금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토요일·공휴일에는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과반수를 약간 넘는 51.0%이었고,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현금, 도시락배달, 상품권 등의 순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역시 지역아동센터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현금, 도시락 배달로 파악되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기타를 제외하면 지역아동센터, 현금, 상품권, 도시락 배달의 순으로 저학년과 거의 유사하다. 중·고등학생은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이 지역아동센터, 상품권, 도시락 배달의 순이었다.

〈표 7-43〉 학년별 희망 저녁급식방법

(단위: %, 명)

희망 급식지원방법	학기중 저녁				토요일·공휴일 저녁				방학중 저녁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초저	초고	중고	소계
지원받지 않음	37.9	42.4	46.8	42.0	49.8	54.8	45.5	51.0	42.5	46.6	42.9	44.4
무료학교 급식	3.5	3.3	5.8	4.0	2.1	2.2	0.5	1.8	3.2	1.4	0.5	1.8
지역아동센터 등	37.9	32.2	12.1	29.3	21.4	10.1	10.1	13.6	28.6	18.4	12.2	20.2
지정식당이용(상품권)	1.6	1.7	4.7	2.3	2.1	4.2	5.3	3.8	2.0	3.9	4.2	3.4
도시락 배달	5.5	3.0	5.3	4.3	7.0	5.1	7.4	6.2	7.1	5.6	5.8	6.1
밑반찬 배달	1.2	3.0	3.7	2.6	0.4	2.2	4.8	2.3	0.4	2.5	3.7	2.1
현물(주부식 재료)	0.8	0.3	0.5	0.5	3.7	0.8	2.1	2.0	2.8	1.4	2.6	2.1
상품권(식재료 구입)	4.7	5.0	10.0	6.1	3.7	6.2	8.5	6.0	4.0	6.4	10.1	6.5
현금	5.5	5.2	9.5	6.3	8.6	7.9	14.3	9.6	8.3	7.5	16.4	9.9
기타	1.6	3.9	1.6	2.6	1.2	6.5	1.6	3.7	1.2	6.1	1.6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6)	(363)	(190)	(809)	(243)	(356)	(189)	(788)	(252)	(358)	(189)	(799)
χ^2	na				62.912***				61.122***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방학중에는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44.4%이었고, 그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현금, 상품권, 도시락배달 등의 순이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현금, 도시락 배달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고, 고학년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현금, 상품권의 순으로 희망하고 있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현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그 다음

이 지역아동센터, 상품권 등의 순으로 보다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낙인이 없는 급식지원방법을 원하고 있었다. 시기별로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은 <표 7-43-1>에 제시하였다.

<표 7-43-1> 시기별 희망하는 주요 급식방법

(단위: %)

구 분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
학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69.0 • 무료학교 급식 6.6 • 지역아동센터 4.5 • 현금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학교 급식 62.2 • 지원받지 않음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42.0 • 지역아동센터 29.3 • 현금 6.3 • 상품권 6.1
토·공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67.3 • 현금 6.9 • 도시락 배달 5.9 • 지정식당이용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35.3 • 지역아동센터 13.3 • 도시락 배달 12.0 • 현금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51.0 • 지역아동센터 13.6 • 현금 9.6 • 도시락 배달 6.2 • 상품권 6.0
방학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63.9 • 지역아동센터 8.1 • 현금 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24.0 • 지역아동센터 23.0 • 상품권 12.0 • 도시락 배달 10.6 • 현금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받지 않음 44.4 • 지역아동센터 20.2 • 현금 9.9 • 상품권 6.5 • 도시락 배달 6.1

라. 급식만족도

급식만족도를 급식유형별로 살펴보았더니, 4점 척도로 했을 때 대체적으로 평균이 2.8이상으로 높아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표 7-44 참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급식 유형은 단체급식이었고, 그 다음이 무료학교급식, 지정식당, 도시락, 밀반찬의 순이었다. 특히 단체급식은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이 46.3%나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게 파악되었다. 반면, 밀반찬의 경우는 ‘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합하면 27.2%, 도시락은 35.7%로 불만족한 응답이 많았다. 도시락과 밀반찬 제공에 있어서 아동의 요구와 상치되는 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불만족하다는 응답만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이유를 파악하였다.

불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락의 경우 불만족한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28.1%)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32.2%), 맛이 없다(19.3%)의 순으로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7-45 참조). 밀반찬의 경우도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32.1%), 맛이 없다(21.4%),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17.9%)로 순서는 도시락과 약간 다르지만 주요 이유는 비슷하였다. 즉, 아동들은 반찬의 종류와 맛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44〉 급식방법별 식사메뉴와 질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장소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만족한편	매우 만족	계	평균
무료학교급식	2.4	14.4	57.7	25.5	100.0(679)	3.06
단체급식	3.0	11.5	39.1	46.3	100.0(460)	3.29
지정식당	3.2	13.2	59.3	24.3	100.0(189)	3.05
도시락	2.4	33.3	40.5	23.8	100.0(126)	2.86
밀반찬	13.6	13.6	47.5	25.4	100.0(59)	2.85

다른 유형의 경우도 맛과 메뉴의 다양성, 음식의 종류 등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많아 나타나, 아동의 기호에 맞는 메뉴의 개발과 음식의 선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 영양적으로 균형잡혀 있으면서 맛도 있고 아동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식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7-45〉 급식방법별 식사메뉴와 질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장소	맛이 없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	간이 맞지 않다	싼 재료를 사용한다	기타	계
무료학교급식	33.1	14.9	23.0	13.5	5.4	10.1	100.0(148)
단체급식	12.0	26.1	25.0	15.2	1.1	20.7	100.0(92)
지정식당	17.8	17.8	15.6	11.1	11.1	26.7	100.0(45)
도시락	19.3	28.1	21.1	12.3	1.8	17.5	100.0(57)
밀반찬	21.4	32.1	17.9	7.1	3.6	17.9	100.0(28)

이번에는 밥과 반찬의 양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질보다는 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7-46 참조). 이 항목에서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단체급식이었고, 그 다음은 지정식당, 무료학교급식, 도시락, 밀반찬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불만족한 이유를 파악한 결과 기타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표 7-47 참조). 즉, 밥과 반찬의 양의 부족보다는 질의 문제가 더 심각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양보다는 반찬의 종류와 맛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7-46〉 급식방법별 밥과 반찬 양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장소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만족한편	매우 만족	계	평균
무료학교급식	2.0	11.7	58.5	27.8	100.0(648)	3.12
단체급식	1.9	9.2	41.3	47.6	100.0(424)	3.35
지정식당	0.6	10.4	61.3	27.7	100.0(173)	3.16
도시락	2.5	10.8	63.3	23.3	100.0(120)	3.08
밀반찬	9.3	9.3	53.7	27.8	100.0(54)	3.00

〈표 7-47〉 급식방법별 밥과 반찬의 불충분 항목

(단위: %, 명)

장소	밥이 부족	반찬이 부족	모두 부족	기타	계
무료학교급식	10.3	31.9	29.3	28.4	100.0(116)
단체급식	10.0	13.3	18.3	58.3	100.0(60)
지정식당	21.2	6.1	27.3	45.5	100.0(33)
도시락	10.3	24.1	24.1	41.4	100.0(29)
밀반찬	4.3	13.0	34.8	47.8	100.0(23)

위생상태 만족도는 평균 3.10으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표 7-48 참조). 이를 개별 급식과 단체급식을 비교해서 살펴본 결과, 개별급식에 비해 단체급식에 있어서 위생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단체급식의 경우는 대부분인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고, 개별급식의 경우는 86% 정도가 만족하고 있었다. 평균도 개별급식은 2.92인 반면, 단체급식은 3.24로 차이가 나고 있었다.

〈표 7-48〉 급식방법별 위생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장소	매우 불만족	약간불만족	만족한편	매우만족	계	평균	χ^2 X
계	2.3	9.1	64.8	23.7	100.0(910)	3.10	
구분							
개별급식	2.5	10.8	78.8	7.8	100.0(397)	2.92	98.970***
단체급식	2.1	7.8	54.0	36.1	100.0(513)	3.24	

*** p < .001

마. 급식지원 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

급식 받는 것을 친구들이 아는지의 여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6.5%으로, 아니오

53.5%보다 약간 적었다(표 7-49 참조). 독립변수별 비교에 있어서는 급식유형별로만 유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개별급식에 비해 단체급식의 경우는 친구들이 안다는 비율이 더 많았다. 아울러 단체급식의 경우는 친구들이 알고 있다는 비율이 51.8%로 모른다 48.2%보다 더 많았다. 단체급식의 경우는 다른 아동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급식지원 받는 것에 대한 친구들의 인지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성, 연령, 가족유형, 가구수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49) 급식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친구들의 인지 여부

(단위: %, 명)

장소	예	아니오	계	χ^2
계	46.5	53.5	100.0(895)	
구분				12.887***
개별급식	39.7	60.3	100.0(395)	
단체급식	51.8	48.2	100.0(500)	
성				2.341
남자	49.2	50.8	100.0(415)	
여자	44.0	56.0	100.0(457)	
연령				0.500
초등저학년	44.5	55.0	100.0(265)	
초등고학년	46.6	53.4	100.0(380)	
중고등학생	47.6	52.4	100.0(229)	
가족유형				2.576
일반가정	48.7	51.3	100.0(359)	
한부모가정	46.3	53.7	100.0(367)	
조손가정	39.6	60.4	100.0(96)	
기타	46.8	53.2	100.0(62)	
가구수입				0.733
50만원미만	47.6	52.4	100.0(124)	
50-100만원	48.0	52.0	100.0(252)	
100-200만원	50.3	49.7	100.0(175)	
200만원이상	52.9	47.1	100.0(68)	

*** p < .001

급식을 받는 것에 대해 친구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여부를 통해서 낙인감이나 수치감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 하였다(표 7-50 참조). 조사결과 무료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은 친구들의 인지여부에 대해서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5.0%로 나타나 낙인감이나 수치감의 소지는 비교적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인 32.6%로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개별급식을 받는 아동이고, 학년별로는 중고등학생이 많고,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족 아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표 7-50〉 급식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친구들이 알기 원치 않는 여부

(단위: %, 명)

장소	예	아니오	상관없다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다	계	χ^2
계	32.6	13.2	45.0	9.2	100.0(887)	
구분						
개별급식	49.6	6.5	40.1	6.5	100.0(397)	78.480***
단체급식	21.0	18.6	49.0	11.4	100.0(490)	
성						
남자	29.6	12.3	48.2	9.9	100.0(415)	4.232
여자	34.7	14.2	42.2	8.9	100.0(450)	
연령						
초등저학년	30.3	17.2	41.6	10.9	100.0(267)	15.703*
초등고학년	31.7	12.8	45.9	9.6	100.0(375)	
중고등학생	36.9	7.1	49.3	6.7	100.0(225)	
가족유형						
일반가정	27.5	15.6	46.5	10.5	100.0(353)	20.621*
한부모가정	35.0	9.6	46.8	8.5	100.0(363)	
조손가정	45.8	14.6	33.3	6.3	100.0(96)	
기타	27.4	17.7	43.5	11.3	100.0(62)	
가구수입						
50만원미만	39.8	16.3	34.1	9.8	100.0(123)	12.866
50-100만원	31.7	13.4	45.1	9.8	100.0(246)	
100-200만원	30.0	11.8	47.1	11.2	100.0(170)	
200만원이상	20.9	22.4	46.3	10.4	100.0(67)	

* $p < .05$, *** $p < .001$

다음에는 급식 받을 때의 느낌을 통해서 낙인감과 수치감을 살펴보았는데, 조사 결과 의외로 급식 받을 때 ‘감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54.9%이었고,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응답도 38.8%나 되었다(표 7-51 참조). 반면 부끄럽다 4.4%, 짜증난다 1.7%, 화가 난다 0.2% 등으로 낙인감이나 수치감을 느끼는 아동은 6% 이하의 소수로 파악되었다.

독립변수별로는 급식유형, 성, 연령, 가구수입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급식유형별로는 개별급식보다는 단체급식의 경우 급식에 대해 감사한 느낌이 더 많았고, 개별급식은 특별한 느낌이 없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갖는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아동의 경우는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여자아동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더불어 부끄럽다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중고등학생은 특별한 느낌이 없거나, 부끄럽다는 응답이 많았고, 초등학생은 감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수입별로는 50-100만원의 소득의 경우 부끄럽다는 응답이 많았고, 5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구 아동과 2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 아동의 경우 감사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로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동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소수만이 수치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개별급식 받는 아동, 여자아동, 중고등학생, 100-200만원의 가구소득 아동의 경우가 급식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수치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 대해 무료급식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나 상담 등이 필요하다.

〈표 7-51〉 급식 받을 때의 느낌

(단위: %, 명)

장소	특별한 느낌 없다	감사하다	부끄럽다	화가난다	짜증난다	계	χ^2
계	38.8	54.9	4.4	0.2	1.7	100.0(894)	
구분							
개별급식	45.9	46.4	6.4	0.0	1.3	100.0(392)	26.979***
단체급식	33.3	61.6	2.8	0.4	2.0	100.0(502)	
성							
남자	43.8	51.4	3.8	0.5	0.5	100.0(418)	14.308**
여자	34.4	58.8	4.6	0.0	2.2	100.0(454)	
연령							
초등저학년	32.8	62.7	2.6	0.0	1.9	100.0(268)	20.192**
초등고학년	39.4	54.9	3.9	0.5	1.3	100.0(381)	
중고등학생	45.6	46.0	7.1	0.0	1.3	100.0(226)	
가족유형							
일반가정	38.5	56.7	2.5	0.0	2.3	100.0(353)	19.703
한부모가정	37.3	54.3	6.5	0.3	1.6	100.0(370)	
조손가정	37.8	58.2	3.1	0.0	1.0	100.0(98)	
기타	50.8	44.3	3.3	1.6	0.0	100.0(61)	
가구수입							
50만원미만	32.3	59.8	3.9	0.8	3.1	100.0(127)	25.879*
50-100만원	49.2	43.2	5.2	0.0	2.4	100.0(250)	
100-200만원	36.8	54.6	7.5	0.0	1.1	100.0(174)	
200만원이상	38.2	58.8	0.0	1.5	1.5	100.0(68)	

* p < .05, ** p < .01, *** p < .001

바. 급식함께 제공받는 프로그램 유형

급식과 함께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제공되는 경우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52 참조). 상담이나 치료, 집단활동 등은 소수만이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7-52〉 급식과 함께 제공받는 프로그램(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음	366	41.8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19	2.2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13	1.5
심리, 언어, 놀이치료 등	10	1.1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35	4.0
견학, 방문 등 1일 집단활동	15	1.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 집단프로그램	16	1.8
학습지원 프로그램	344	39.3
기타	57	6.5
계	875	100.0

사. 요리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은 많은 경우 식사 때 부모 중 한쪽의 부재나 양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식사를 차려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대비해서 아동이 스스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이 요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참여의향이 있다고 한 아동은 59.3%, 아니오는 40.7%로 과반수를 약간 넘는 아동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표 7-53 참조).

독립변수별로는 급식유형별, 성별, 연령별 차이가 유의하였는데, 우선 급식 유형별로는 단체급식 참여 아동의 경우가 요리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자아동이,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가 참여의향이 많았다. 가족유형별, 가구수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개별급식을 받는 아동, 남자아동,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7-53〉 요리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 명)

장소	예	아니오	계	χ^2
계	59.3	40.7	100.0(908)	
구분				
개별급식	42.6	57.4	100.0(392)	79.193***
단체급식	71.9	28.1	100.0(516)	
성				
남자	44.4	55.6	100.0(421)	71.568***
여자	72.4	27.6	100.0(464)	
연령				
초등저학년	57.0	43.0	100.0(272)	25.388***
초등고학년	68.0	32.0	100.0(388)	
중고등학생	47.8	52.2	100.0(228)	
가족유형				
일반가정	63.9	36.1	100.0(368)	6.577
한부모가정	57.7	42.3	100.0(366)	
조손가정	54.1	45.9	100.0(98)	
기타	50.8	49.2	100.0(63)	
가구수입				
50만원미만	60.9	39.1	100.0(128)	9.455*
50-100만원	55.2	44.8	100.0(252)	
100-200만원	63.1	36.9	100.0(176)	
200만원이상	74.6	25.4	100.0(71)	

* p < .05, *** p < .001

요리와 더불어 영양교육도 중요하다. 특히 부모가 부재한 아동의 경우 영양가 있는 음식 보다는 입맛에는 맞으나 건강에 해로운 단음식, 튀긴 음식, 짠음식 등을 섭취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영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아동에게 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아동에게 영양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긍정보다는 부정의 응답이 56.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7-54 참조). 즉 아동은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정규 학교 수업 중에 일부로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독립변수별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모두 유의하였다. 급식형태별로는 단체급식의 경우가 영양교육을 선호하고 있었고,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가족유형별로는 일반가정, 가구수입별로는 100-200만원의 경우가 영양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영양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교육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구성하되,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 안에 포함시켜서 제공할 때, 영양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54〉 영양교육 참여 의향

(단위: %, 명)

장소	예	아니오	계	χ^2
계	43.2	56.8	100.0(902)	
구분				
개별급식	29.5	70.5	100.0(387)	52.442***
단체급식	53.6	46.4	100.0(515)	
성				
남자	32.7	67.3	100.0(419)	36.596***
여자	52.9	47.1	100.0(461)	
연령				
초등저학년	47.2	52.8	100.0(269)	22.938***
초등고학년	48.8	51.2	100.0(387)	
중고등학생	30.0	70.0	100.0(227)	
가족유형				
일반가정	49.0	51.0	100.0(365)	9.587*
한부모가정	40.7	59.3	100.0(364)	
조손가정	34.7	65.3	100.0(98)	
기타	38.1	61.9	100.0(63)	
가구수입				
50만원미만	45.3	54.7	100.0(128)	7.889*
50-100만원	38.1	61.9	100.0(252)	
100-200만원	51.7	48.3	100.0(174)	
200만원이상	45.1	54.9	100.0(71)	

* p < .05, *** p < .001

아. 단체급식 장소 및 만족도

다음에는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장소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하다는 이유, 집에서 단체급식 지원받는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하였다. 우선 단체급식 제공 받는 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3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표 7-55 참조). 만족과 매우 만족을 합하면 90.5%나 된다. 셀의 빈도 문제로 χ^2 을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평균값을 통해서 독립변수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로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장소 만족도가 높았고,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가족유형별로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가구수입별로는 200만원 이상 가구에 사는 아동이 장소 만족도가 높았다.

불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소수만이 이유를 지적하였다(표 7-56

참조). 이유로 지적된 것은 거리, 맛, 메뉴, 반찬부족, 음식이 식음 등 장소자체보다는 음식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지적되었다.

〈표 7-55〉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	평균/ 2	\bar{x}
계	1.8	7.7	46.9	43.6	100.0(507)	3.32	
성							
남자	2.3	8.0	48.4	41.3	100.0(213)	3.29	na
여자	1.1	7.6	46.0	45.3	100.0(276)	3.36	
연령							
초등저학년	2.2	9.2	37.0	51.6	100.0(184)	3.38	na
초등고학년	1.6	6.1	52.2	40.0	100.0(245)	3.31	
중고등학생	0.0	9.5	58.7	31.7	100.0(63)	3.22	
가족유형							
일반가정	1.6	8.2	45.3	44.9	100.0(245)	3.33	na
한부모가정	1.1	7.3	52.0	39.7	100.0(179)	3.30	
조손가정	4.8	9.5	33.3	52.4	100.0(42)	3.33	
기타	2.9	2.9	50.0	44.1	100.0(34)	3.35	
가구수입							
50만원미만	6.9	8.0	42.5	42.5	100.0(87)	3.21	na
50-100만원	0.8	6.4	50.4	42.4	100.0(125)	3.34	
100-200만원	1.0	7.9	57.4	33.7	100.0(101)	3.24	
200만원이상	1.8	9.1	27.3	61.8	100.0(55)	3.49	

na: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유효한 Chi-square 검증 결과를 보증할 수 없게 되었음.

〈표 7-56〉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 불만족 이유

(단위: 명)

불만족 이유	빈도	불만족 이유	빈도
거리가 멀다	1	반찬이 부족하다	1
별 이유없이 싫다	1	싫어하는 음식이 나온다	3
맛이 없다	3	음식이 식는다	1
먹고싶은 장소가 아니다	1	짜증난다	1
메뉴가 단순하다	1		

집에서 단체급식 지원받는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 30분 이내가 80.5%로 대부분이었다. 대중을 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9.8%나 되고 있어서 단체급식 장소가 부족한 지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7-57 참조). 정부는 연차적으로 지역아

동선터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으로서는 급식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 등을 운행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표 7-57〉 집에서 단체급식지원 받는 장소까지 걸리는 시간

(단위: %, 명)

급식장소까지의 걸리는 시간	빈도	백분율
집에서 걸어서 10분내에 도착	208	43.2
집에서 걸어서 20분내에 도착	120	24.9
집에서 걸어서 30분내에 도착	60	12.4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	47	9.8
기타	47	9.8
계	482	100.0

자. 도시락 및 식재료 공유여부

도시락과 식재료를 지원받는 경우 이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는지의 여부와 그렇다면 그 대상, 그리고 향후 희망의사 등을 파악하였다. 우선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지지의 여부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73.6%로 전체의 3분의 2 가량이나 되었다(표 7-58 참조). 연령별, 가구수입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구수입별로는 100~200만원의 경우가 가족과 급식을 나누어 먹는 비율이 많았다.

〈표 7-58〉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는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계	χ^2
계	73.6	26.4	100.0(349)	
성				0.990
남자	72.3	27.7	100.0(173)	
여자	77.0	23.0	100.0(165)	
연령				7.022*
초등저학년	74.0	26.0	100.0(77)	
초등고학년	68.7	31.3	100.0(163)	
중고등학생	83.3	16.7	100.0(102)	
가족유형				5.816
일반가정	67.0	33.0	100.0(112)	
한부모가정	78.1	21.9	100.0(155)	
조손가정	80.9	19.1	100.0(47)	
기타	68.8	31.3	100.0(32)	
가구수입				12.559**
50만원미만	53.7	46.3	100.0(54)	
50-100만원	73.3	26.7	100.0(105)	
100-200만원	78.4	21.6	100.0(74)	
200만원이상	52.4	47.6	100.0(21)	

* $p < .05$ ** $p < .01$

그렇다면 누구와 나누어 먹는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가장 많은 43.4%이었고, 그 다음은 형제.자매 26.9%, 조부모님 16.8%, 친척.기타 12.8%의 순이었다(표 7-59 참조). 가족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은 부모님과 급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고, 조손가정은 조부모님, 기타의 경우는 친척.기타와 나누어 먹는 비율이 많았다. 즉 급식은 아동 본인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중요한 급식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59〉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나누어 먹는 대상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친척·기타	계	\bar{x}
계	43.4	16.8	26.9	12.8	100.0(297)	
성						1.212
남자	46.6	15.5	26.4	11.5	100.0(148)	
여자	41.0	19.4	28.1	11.5	100.0(139)	
연령						4.362
초등저학년	41.7	15.3	26.4	16.7	100.0(72)	
초등고학년	41.1	17.8	27.1	14.0	100.0(129)	
중고등학생	47.2	18.0	28.1	6.7	100.0(89)	
가족유형						106.508***
일반가정	52.1	8.3	24.0	15.6	100.0(96)	
한부모가정	53.8	10.6	28.0	7.6	100.0(132)	
조손가정	4.7	62.8	25.6	7.0	100.0(43)	
기타	20.0	4.0	36.0	40.0	100.0(25)	
가구수입						16.734
50만원미만	32.6	28.3	23.9	15.2	100.0(46)	
50-100만원	42.5	13.8	27.6	16.1	100.0(87)	
100-200만원	54.0	12.7	19.0	14.3	100.0(63)	
200만원이상	26.7	0.0	40.0	33.3	100.0(15)	

*** p < .001

향후 급식을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을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8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7-60 참조). 즉, 급식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성원을 위해서도 제공되기를 원함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에 있어서는 가구수입별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100~200만원 사이의 아동의 경우 급식을 나누어 먹기 원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7-60〉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다른 가족과 나누어 먹을 의향

(단위: %, 명)

장소	예	아니오	계	χ^2
계	80.1	19.9	100.0(332)	
성				2.758
남자	77.4	22.6	100.0(164)	
여자	84.7	15.3	100.0(157)	
연령				1.836
초등저학년	77.8	22.2	100.0(72)	
초등고학년	78.7	21.3	100.0(155)	
중고등학생	84.8	15.2	100.0(99)	
가족유형				0.642
일반가정	78.3	21.7	100.0(106)	
한부모가정	82.3	17.7	100.0(147)	
조손가정	80.0	20.0	100.0(45)	
기타	80.6	19.4	100.0(31)	
가구수입				8.187*
50만원미만	64.7	35.3	100.0(51)	
50-100만원	80.0	20.0	100.0(100)	
100-200만원	84.3	15.7	100.0(70)	
200만원이상	66.7	33.3	100.0(21)	

* $p < .05$

급식을 나누어 먹기 원하는 대상은 부모님이 가장 많은 53.0%이었고, 그 다음은 형제 자매로 19.2%, 조부모님 18.5%, 친척·기타 9.3%의 순이었다(표 7-61 참조). 즉 직계가족과 급식을 나누어먹기 원하는 비율이 대분이었다.

〈표 7-61〉 도시락이나 식재료를 나누어 먹기 원하는 대상

(단위: %, 명)

구분	부모님	조부모님	형제자매	친척·기타	계	\bar{x}
계	53.0	18.5	19.2	9.3	100.0(302)	
성						1.030
남자	55.3	17.3	19.3	8.0	100.0(150)	
여자	50.7	20.8	18.3	9.7	100.0(144)	
연령						6.332
초등저학년	48.5	19.1	23.5	8.8	100.0(68)	
초등고학년	51.4	20.1	16.0	12.5	100.0(144)	
중고등학생	58.1	16.3	20.9	4.7	100.0(86)	
가족유형						106.451***
일반가정	64.9	9.3	16.5	9.3	100.0(97)	
한부모가정	62.1	14.4	18.2	5.3	100.0(132)	
조손가정	2.4	64.3	28.6	4.8	100.0(42)	
기타	43.3	3.3	20.0	33.3	100.0(30)	
가구수입						11.412
50만원미만	40.4	29.8	21.3	8.5	100.0(47)	
50-100만원	50.5	11.8	23.7	14.0	100.0(93)	
100-200만원	55.6	12.7	20.6	11.1	100.0(63)	
200만원이상	58.8	5.9	17.6	17.6	100.0(17)	

*** p < .001

6. 급식지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급식지원 받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급식지원 받는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Olson의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이며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성 및 응집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이며, 적응성은 .83, 응집성은 .7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아동의 배경변인별로 분석하면, 하루식사 빈도에 따라 아동 자아존중감은 차이를 보였으며($F=11.486$, $p<0.001$), 하루 한번 식사하는 아동보다 두 번 이상 식사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녁식사 빈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였으며($F=4.028$, $p<0.001$), 주 1-2회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보다 매일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표 7-62 참조). 그 외 다른 배경변인인 급식유형, 아침식사

빈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7-62〉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단위 : M(SD)

	자아존중감	가족 적응성	가족 응집성
구분			
개별급식	30.14(4.62)	27.03(5.45)	32.06(5.53)
단체급식	29.87(5.36)	28.86(7.76)	32.75(7.37)
F	.590	15.339***	2.333
하루식사빈도			
1일 1식	24.50(4.54)a	27.17(9.92)a	26.14(11.42)a
1일 2식	29.06(4.86)b	26.78(6.49)a	31.01(6.49)b
1일 3식	30.41(4.95)b	28.55(6.97)a	28.55(6.97)b
F	11.486***	5.565**	11.943***
아침식사빈도			
거의먹지않음	29.27(5.18)	27.52(6.59)	30.95(6.87)a
주 1-2회	29.25(4.82)	26.84(5.86)	31.23(6.33)a
주 3-4회	30.27(5.20)	28.78(7.53)	33.03(6.56)b
매일	30.31(4.93)	28.05(6.87)	33.09(6.42)b
F	2.556	1.584	6.017***
저녁식사빈도			
거의먹지않음	28.37(4.62)ab	28.44(5.56)	30.83(6.78)
주 1-2회	26.87(6.02)a	25.71(9.08)	29.56(10.59)
주 3-4회	28.79(5.22)ab	28.06(6.96)	31.05(6.58)
매일	30.10(4.97)b	28.08(6.85)	32.66(6.46)
F	4.028***	.566	2.475

* p< .05, ** p < 0.01, *** p < 0.001

주: scheffe 사후검정 - a, b, c 다른 집단

가족 적응성을 살펴보면 급식지원유형에 따라 가족적응성에 차이를 보였으며(F=15.339, p<0.001), 즉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의 가족이 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루 식사빈도에 따라서 가족 적응성에 차이를 보였으며(F=5.565, p<0.01), 사후검증으로 집단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외 다른 변인인 아침식사 빈도, 저녁식사 빈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의 응집성을 살펴보면 하루식사 빈도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은 차이를 보였으며(F=11.943, p<0.001), 하루 한 끼 식사하는 아동보다 2-3끼 먹는 아동의 가족 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빈도에 따라 가족의 응집성은 차이를 보였으며(F=6.017, p<0.001),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3번이상하는 아동이 2번 미만 식사하는 아동보다 가족의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하루 식사빈도는 자아존중감과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즉 하루 식사빈도가 많은 아동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가족의 적응성이 높으며 응집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루 식사빈도는 자아존중감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과 중요한 변수로, 결식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도 낮아진다. 결식빈도가 높은 아동의 가정이 응집성과 적응성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아침식사가 가족의 응집성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결식이 단지 아동의 신체성장과 영양 및 건강문제에만 결부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에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결식아동가족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결식의 문제를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방임과 관련지어 본다면, 가족기능 향상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이다.

7. 시사점

급식지원을 받는 이용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급식지원받는 아동은 방과후 어른이 없는 경우가 약 37%이상으로 적지 않았다. 전체아동 중에서도 혼자서 식사준비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78.9%로 대부분의 아동이 혼자서 식사준비가 가능하다.

아동의 건강상태를 아동의 배경변인별로 분석하면 우선 활동성은 급식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단체급식을 받는 아동이 활동성, 집중력, 건강상태 모두에서 개별급식 받는 아동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 있어서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보다 친구관계가 좋았다. 학업성적도 단체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이 개별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보다 높았다. 따라서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식사의 제공뿐만 아니라 학업지원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결식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식지원 아동들의 식사 결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식지원 아동에서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식생활 패턴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개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중고등학생 중에서 이러한 식사의 불규칙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라면류의 섭취빈도는 특히 결식아동에서 편의성 때문에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급식지원 아동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급원 식품의 섭취가 매우 불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야채, 과일, 칼슘 섭취가 부족한 집단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염분

섭취가 높고, 영양가는 낮고 염분이 높은 식품의 섭취가 잦은 것은 급식지원 아동의 식생활에서 큰 문제로 파악되었다. 지방과 열량의 함량이 높고, 트랜스지방이 높을 수 있고, 과체중과 장기적으로 만성질환을 유인하는 식습관을 가져올 수 있는 식품의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식생활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탄산음료의 섭취가 잦은 것으로 나타나 식습관의 문제의 하나로 개선되어야 할 식사문제로 파악되었다.

대체적으로 급식지원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하여 저체중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식지원 대상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상당히 저영양상태에 있다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일반아동의 과체중 및 비만율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일반 아동에 비하여 과체중 및 비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급식 실태조사 결과 학교를 통한 무료급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급식지원방법으로 파악되었다.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은 학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로 초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배달, 식재료 구입을 위한 상품권 등을 희망하고 있는데 반해, 중고등학생들은 현금을 선호하고 있었다. 즉,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율성이 높고 낙인감이 낮은 형태의 지원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토요일과 공휴일에 점심을 제공하기 원하는 비율이 높아 급식지원에 있어서 주말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급식유형별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은 무료학교급식의 경우는 음식의 맛,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과 도시락배달에 있어서는 메뉴의 다양화, 지정식당의 경우는 맛, 메뉴의 다양화, 음식의 종류 등, 밀반찬의 경우는 메뉴의 다양화 등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의 기호에 맞게 다양한 메뉴가 개발되어야 할 것인데, 이때 균형있는 영양이 공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에 대한 낙인감이나 수치감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히려 급식받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감사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급식과 함께 요리 및 영양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선호도는 그다지 높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분야의 교육이 매우 절실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아동이 혼자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원받고 있는 도시락이나 식재료는 가족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향후에도 가족들과 음식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가족유형과 관계없이 지원받는 급식에 대해서는 아동 혼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먹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급식이 아동만을 위한 것인데, 이를 가족과 공유하는 것이 옳은 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정서상 집으로 배달되는 음식은 가족과 나누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식사의

양에 있어서 전 가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추후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결식의 횟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도 낮아진다. 따라서 결식아동에게는 자아존중감 향상 및 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결식아동의 가족기능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는 ‘결식’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볼 것인가에 대한 시각과 일치한다. 따라서 결식아동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사만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결식의 원인 및 그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제3절 사례조사 결과

급식지원 받는 아동의 실태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이 아동을 직접 만나서 일대일 또는 소집단 인터뷰하였다. 조사대상은 여섯 가지 급식유형의 사례별로 5~6명의 아동을 조사하여 총 30명이다. 이 중에서 면접태도가 너무 소극적이고, 면접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1명을 제외한 총 29명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면접 아동의 주요특성은 <표 7-63>에 제시하였다.

면접시 미리 준비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급식을 받게 된 동기, 급식후 생활변화, 지원받고 있는 급식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다. 면접은 주로 단체 급식소 또는 아동의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동이 원하는 경우 약속장소(음식점)에서 만나 30-40분가량 실시하였다. 다음에는 급식유형별로 사례분석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7-63〉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1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5학년, 12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2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2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3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4학년, 11살	부자가족	1년 11개월
4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4학년, 11살	부자가족	1년 11개월
5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4학년, 11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6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2학년, 9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7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초등학교 2학년, 9살	모자가족	1년 8개월
8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중학교 1학년, 14살	양친부모가족	2년 8개월
9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여	고등학교 1학년, 17살	모자가족	4년
10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고등학교 2학년, 18살	양친부모가족	1년
11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세	모자가족	1년
12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세	양친부모	1년2개월
13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4학년, 10세	모자가족	1년
14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양친부모가족	1년2개월
15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2학년, 14세	모자가족	1년8개월
16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살	부자가족	7개월
17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3학년, 9살	양친부모가족	1년 5개월
18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남	초등학교 4학년, 10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19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5학년, 11살	양친부모가족	1년 8개월
20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6학년, 12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21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4학년, 10세	부자가족	1년
22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친인척 거주	1년
23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조손가족	4년
24	주부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2학년, 8세	조손가족	1년
25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초등학교 3학년, 9세	모자가족	1년1개월
26	도시락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2학년, 14세	조손가족	4개월
27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중학교 2학년, 14세	모자가족	1년1개월
28	도시락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3학년, 15세	부자가족	1년
29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고등학교 1학년, 16세	부자가족	1년

1. 속초시 WE Start의 조식지원 사례

단체급식으로 아침식사를 지원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6명으로 남아 3명과 여아 3명이며, 초등학교 2학년 아동 1명과 4·5학년 아동 5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은 양친부모가족이 2명, 조손가정이 2명, 부자가정이 2명이었으며, 급식기간은 1년 10개월-11개월로 나타났다. 사례별(1~6) 구체적 면접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7-64〉 단체급식 조식 지원사례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1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5학년, 12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2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2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3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4학년, 11살	부자가족	1년 11개월
4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4학년, 11살	부자가족	1년 11개월
5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4학년, 11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6	단체급식(조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2학년, 9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가. 급식지원 받게 된 동기

사례아동들이 어떻게 조식을 지원받게 되었나를 살펴보기 전에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에서 조식지원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불리는 청호동에 소재해 있는데, 이곳은 섬 지역은 아니지만 속초시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지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문화적 및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지역이다. 최근 드라마 촬영지가 되면서 외부인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시로 갈 수 있는 다리를 공사하는 중에 있다. 이곳에는 주로 실향민, 탈북자, 원주민 등이 살고 있고, 주 산업은 어업이다. 중소도시이지만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산업 대신 오징어잡이 등과 같은 어업 중심이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지역이다.

속초시 위스타트운영센터에서는 2005년 11월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결식아동 조식지원’ 사업인 ‘아해수랏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지역의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 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전국적으로 수범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학기중 조식참여 학생은 약 16명, 방학 중 참여아동은 1일 평균 77명 정도이다.

조식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시청 공무원이 지역사회아동의 결식원인과 욕구를 조사한 결

과 결식아동의 대부분이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결식보다는 환경적 요인 즉, 조손세대, 한부모 세대, 부모의 직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결식은 아동방임과 직결됨을 인식한 담당자는 식사제공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조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즉, 식사 자체보다는 아동에 대한 통합 지원방법으로 조식지원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담당자가 아침상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아침을 주었다.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된 후 8주이후 부터는 아동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위스타트 운영센터로 오게 하여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 현재 약 7~8명의 아동이 센터에 와서 아침을 먹고 있다. 사례조사는 아침식사를 제공받고 있는 6명과 조식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수행하고 있는 센터장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들이 조식지원을 받게 된 동기는 가족의 구조적 상황 상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상 아동들은 해체가족으로 주로 모가 부재한 상태로서, 아버지들은 식사준비 등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식사를 차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조사대상 네 사례 중 양친부모가정 아동은 사례 2, 사례 3 두 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손가족과 부자가정이다. 사례 1의 경우는 할머니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어서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례 3의 경우는 ‘이모’라고 불리는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식사 준비를 해준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사례는 사례 4로 생후 6개월 후 어머니의 가출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부자가정이다. 아버지는 자식에 대해 전혀 책임감이 없어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불구하고 ‘유분증’이 있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해서 비만한 상태이다(키: 141.6cm, 몸무게: 45.6kg). 사례 6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형제와 같이 사는 조손가족이다.

센터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결식하는 아동은 거의 없다. 결식의 주된 이유는 가족해체로 인해서, 특히 모의 부재로 인해서, 식사준비를 하지 못하게 된데서 오는 ‘요리곤란형 결식’이 대부분이다. 여섯 사례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이 위스타트 센터에 오게 된 경로는 대부분 공식 및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이다. 앞의 네 사례는 친인척이나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센터에 오게 되었다.

공부방 선생님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사례 1)

할머니와 친할 시청 언니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사례 2)

친구소개로 오게 되었다. (사례 3, 사례 4)

위스타트의 소개로 오게 되었다. (사례 5, 사례 6)

반면 나머지 두 사례는 위스타트 직원이 아동을 직접 발견하고 권유하여 조식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센터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보다는 아는 친지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수요자나 수요자의 측근에서 서비스를 찾아가는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제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급식사업이나 급식을 제공하는 개별 센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달체계 전반적인 문제이다.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아동에게 접근하다 보니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이 발생하게 된다.

나. 급식 지원받은 후 아동의 생활변화

조식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집에서 방임된 채 혼자 식사하다가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게 되어서 아동들은 식사하는 것이 매우 즐겁다.

음식이 맛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따분했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며 먹으니까 좋아요.

(사례 1)

친구들과 먹어서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례 2, 사례 3, 사례 4)

집에서는 혼자 끼얹 보고 쓸쓸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혼자 먹지 않고, 친구들이랑 대화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사례 5)

집에서는 아예 먹지 않았어요. 다 같이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사례 5)

특히 속초시 센터에서는 중식이나 석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조식’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매우 정책적 함의가 크다. 성장기 아동에게는 아침식사는 매우 중요한 식사이다. 아침을 거른다는 것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내포한다. 결식하는 이유는 집에 부모나 부모의 역할을 하는 보호자의 부재를 의미한다. 앞의 실태조사 분석결과에서도 아침결식과 가족적응성과의 반비례관계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아동들은 식사만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석이 잦고, 준비물이나 숙제를 챙기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성적은 떨어지게 된다.

식단은 센터 직원(총 6명)이 심사숙고하여 작성한다. 예를 들어 10월 식단은 다음 표와 같다. 위생면이나 메뉴 등 모든 면에서 아동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다만 식사를 공부하

는 곳과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불만족하다.

따르 빵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5)

〈표 7-65〉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의 10월 아침 식단표

요일 날짜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1 토스트 달걀후라이 우유	2 쌀밥 자리동 김치 배추된장국	3 ★	4 치즈스틱 삶은달걀 오렌지주스	5 잡곡밥 야채고기완자전 김치 근대국	6 오우라이스 계란국 김치
	8 곡물씨리얼 우유	9 김치볶음밥 단무지 콩나물국	10 스타게티 오렌지주스	11 물만두 단무지 당근주스	12 쌀밥 소시지 달걀야채말이 시금치국	13 ★
3주	15 후랑크소시지 초코우유	16 잡곡밥 닭도리탕 호박된장국 김치	17 페스츨리빵 샐러드 우유	18 쌀밥 돈가스 김치 장요구르트	19 흑미밥 오징어야채볶음 김치 두부된장국	20 주먹밥 김치 오명국
	22 카스테라 스프	23 잡채밥 김치 호박된장국	24 치킨샌드위치 요구르트	25 카레라이스 김치 사과	26 쌀밥 후랑크소시지볶음 김치 미역국	27 ★
5주	29 베이컨샌드위치 초코우유	30 꼬마김밥 단무지 시금치된장국	31 비빔밥 김치 계란파국			

자료: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 내부자료, 2007.

조식 참여 후 아동은 지각, 결석이 사라졌고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것도 사라졌으며 학교성적도 향상되었다. 사례 4 같은 경우는 아직도 비만이기는 하지만, 비만도가 많이 완화되었다. 즉, 결식은 음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방임’인 것이다. 결식아동은 학교생활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여 성적부진, 사회성 결핍 등 다양한 문제를 낳고 이는 성인의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센터는 학기중에 조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방학중에는 중식제공을 제공한다. 급식과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이 센터에서는 방학 중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데 있어서 매우 독보적이다. 시청 담당자(현재는 센터 소장)의 노력과 설득으로 학교가 아동에게 문을 개방하게 되었고, 특히 학원과 같은 사교육에서 소외된 아동들이 센터에 와

서 학습과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조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은 방과 후 센터의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미술, 종이접기, 풍선아트, 영어, 레크레이션, 연극, 논술 등 다양한 특기 및 적성교육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속초 센터의 경우는 아동이 연극이라는 예술활동을 통해서 삶의 질이 매우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성적 향상, 자신감 제고, 사회성 발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센터에서 보강수업을 해 주어서 성적이 올랐어요. (사례 3)

공부를 배우니까 좋아요. 그리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사례 5)

급식지원을 받은 후 학교에서 공부가 잘 되었요. (사례 6)

작년에는 전국 초등학교 연극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센터의 모든 아동들이 연극연습에 몰입하고 있었고, 특히 센터장은 고위험 아동들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여 사회심리적인 치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센터활동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간식제공에 있다. 간식은 매일 제공되는데 인스턴트식품을 제공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2명이 직접 준비한다. 10월 간식식단표는 다음 표와 같다. 아동들은 간식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었다. 센터를 통해서 아동들의 방임상태가 줄어들 뿐 아니라, 영양가 있는 주부식을 섭취함으로써 성장 발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 비만예방 등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된 아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7-66〉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 10월 간식 식단표

날짜	월(1)	화(2)	수(3)	목(4)	금(5)
식단	떡볶이	호이호이 우유(cup)		물만두	핫도그
날짜	월(8)	화(9)	수(10)	목(11)	금(12)
식단	야채샌드위치	오뎅국	김밥1/2 요구르트	시루떡 보리차	잔치국수
날짜	월(15)	화(16)	수(17)	목(18)	금(19)
식단	오뎅국	으깬감자	스프 모닝빵	미수가루	부추전
날짜	월(22)	화(23)	수(24)	목(25)	금(26)
식단	요플레 바나나	카레라면	잡채	참치샌드위치	떡볶이
날짜	월(29)	화(30)	수(31)		
식단	시루떡 보리차	미수가루	cy코우유		
비고	*쓰레기봉투, 키친타올, LPG가스				

자료: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 내부자료, 2007.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기중 조식 및 간식 제공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센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이다. 우선, 센터에서 지적한 문제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선정에 있다. 기존의 급식아동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인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지, 실제로 급식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굶는 아동은 거의 없고,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결식이 대부분이다. 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조식을 이용하는 아동 16명 중 수급자는 단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생활고보다는 가족해체로 인한 ‘요리곤란형’ 결식아동으로 파악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이 지역사회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센터에서 결식아동을 발굴하기에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민간이 개별아동에 관한 정보 없이 사례를 발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례관리의 부재에 있다. 이는 앞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발굴하여 적절하게 보호하는 전달체계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결식아동들은 다양한 사회심리, 정서, 방임, 학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각 아동 사례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센터가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

히 아동의 발굴, 사정, 배치 등은 지역사회에 적절한 공공기구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대한 아동방임 문제이다. 센터가 오픈하지 않는 주말에 아동의 음식섭취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이 시간 동안은 아동이 또 다시 방임되는 기간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개입이 지속적이 되지 못하게 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주말의 식단을 파악한 결과 아동은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등이 부족한 채, 주로 김치, 젓갈, 찌개 등의 고염식을 주로 하고 있고, 식단도 어른 위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식사를 혼자 하는 경우도 많고, 간식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하루의 3식 식단이 거의 비슷해서 다양성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사지원서비스나 도시락 배달, 나아가서는 센터 운영을 고려해 보도록 해야 한다.

위스타트 센터 사업을 통해서 발견한 점은 아동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이 매우 성공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음식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여 매우 긍정적인 결실을 거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와의 연계의 필요성으로 본 고에서는 학기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조식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두었지만, 방학중 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양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의 시설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더 많은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이 통합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2. 식품권(상품권)

식품권을 지원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4명으로 남아 3명과 여아 1명이며, 초등학교 2학년 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2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유형은 양친부모가족이 2명 모자가정이 2명이었으며, 급식기간은 1년에서부터 4년까지 나타났다. 사례별(7~10) 구체적 면접내용은 <부록 1>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7-67> 식품권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7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초등학교 2학년, 9살	모자가족	1년 8개월
8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중학교 1학년, 14살	양친부모가족	2년 8개월
9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여	고등학교 1학년, 17살	모자가족	4년
10	식품권(상품권)	청주	중소도시	남	고등학교 2학년, 18살	양친부모가족	1년

가. 급식지원을 받게 된 동기

식품권으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청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네 가정을 소개해 주어서 사례 면접을 실시하였다. 두 사례는 동사무소에서, 나머지 두 사례는 각 가정에서 실시하였다.

처음엔 급식지원을 급식소에서 하다가 아동들이 잘 오지 않아 식품권으로 바꾸어서 지급을 하게 되었다. 동사무소에서 2-3개월에 한번씩 통장들에게 식품권을 주면, 통장들이 해당 지역 내 급식지원 대상 부모에게 식품권을 전달해 준다. 한 끼니 당 3,000원 씩으로 계산해서 학기 중에는 1번에 4만5천원(15일), 방학 중에는 12만원(40일)어치의 식품권을 준다.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네 가정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고 가족유형을 보면 사례 8만 양친부모가정이고 나머지 세 가정은 모자가정이다. 사례 9는 부가 아파서 고향에 있는 데 떨어져 산 지 10년이 지났고 사례 10은 작년에 부의 사업이 망하면서 모가 아파서 쓰러져 생활고를 겪게 되어 수급자가 되었으며 지금은 부모가 이혼을 한 상태이다. 양친부모가정도 아버지가 병환중이라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동들은 주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도우미로 일하면서 수급자 생계비와 식품권으로 생활하고 있다.

급식지원을 받게 된 동기는 부 또는 모가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수급자가 되면서 바로 급식지원 대상자가 된 경우도 있다.

어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하였다. (사례 7, 사례9)

통장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다(사례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서 급식지원을 받게 되었다. (사례 10)

나. 급식 지원 받은 후 아동의 생활변화

식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마트나 슈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권을 가지고 청주에 있는 재래시장(육거리시장)에 가면 누구나 구매 물품에 제한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낙인없이 식료품이나 다른 필요한 물건들, 생필품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사례조사 대상 가정의 아동과 부모들은 다른 급식전달방법보다 식품권을 선호하고 있다. 식품권이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도 없어서 좋다는 것이다. 일부 상점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불친절한 때도 있긴 하지만 사용이 편리한 식품권에 만족하고 있다.

시장에서 식품권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동이 먹고 싶은 것을 마련할 수 있다. (사례 7)

낙인현상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 (사례 8)

시장에 가서 반찬을 많이 사는데 주로 아동과 함께 가서 식품권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먹는 데에 도움이 되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사례 9)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좋다. (사례 10)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주에서 식품권으로 급식을 지급받고 있는 네 가지 사례 모두 식품권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 오히려 도시락이나 다른 급식지원방법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식품권으로 지급하기 전에 지정식당, 단체급식으로 지급하였는데 아동들이 낙인현상 때문에 아동의 참여율이 낮아서 식품권으로 바꾸었다.

식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통 아동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아동들이 원하는 것,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사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식품권이 경제적으로 생활에 도움은 되지만 아동급식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오남용의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주시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오남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는 있지만 결식아동이 생기는 주요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동들이 먹고 싶은 것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 주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는 방안인 것 같아서 식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정음식점(식권)

식권을 지원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5명으로 모두 여아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2명, 고학년 2명 중학생 1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유형은 양친부모가족이 2명 모자가정이 3명이었으며, 급식기간은 1년에서부터 1년 8개월로 나타났다. 사례별(11~15) 구체적 면접내용은 <부록 1>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7-68〉 식권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11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세	모자가족	1년
12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세	양친부모	1년2개월
13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4학년, 10세	모자가족	1년
14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양친부모가족	1년2개월
15	지정음식점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2학년, 14세	모자가족	1년8개월

가. 급식 지원받게 된 동기

동사무소에서 지정식당 식권을 받아 사용하는 사례의 경우 모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들은 모자가정이 많았고, 양친부모 가정이라 하더라도 부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모가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가정이었다. 모자 가정의 부의 부재원인은 모든 사례가 사별로 인한 것이었다.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는 직업을 가져야만 했고, 그로 인해 아동들을 제대로 돌 볼 수 없게 되어 주변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식권을 신청하게 된 가정들이었다.

5 사례 중 직접 만난 4사례(사례 11~15)의 양육자는 식권을 사용하여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최대한 챙겨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챙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직접 챙겨줄 수 있는 아침식사의 경우에는 절대로 거르는 일이 없도록 매일 신경을 써서 차려주었고, 아동들끼리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을 위해서 밥과 반찬을 준비해 두고 직장에 나간다고 했다. 가끔 식권을 사용하여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경우에는 전화를 통하여 무엇을 어디에서 먹었는지 꼭 체크한다고 했다.

지역사회에서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은 10군데 정도로 대부분이 중국집이며 그 외에는 분식집(김밥천국)과 제과점으로 메뉴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아동들이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할 수 있는 메뉴는 별로 다양하지 못하다.

가끔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국집이랑 분식집(김밥천국) 빼고는 먹을 곳이 별로 없어요. (사례13)

식권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한식집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15)

나. 급식지원 받은 후 아동의 생활 변화

모든 사례의 주 양육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아동들이 직접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경

우가 많다.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녁이나 주말에는 대부분의 경우 양육자가 밥과 반찬을 미리 해 놓고 나가면 아동들이 직접 차려 먹는다. 가끔 반찬이 맘에 안 들면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그것이 귀찮다고 느껴지면 양육자의 동의 하에 그 때셔야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해결한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배달을 시킬 때에는 중국요리를 시켜 먹었고, 가끔 배달이 안 되는 분식집에 가서 끼니를 때운다고 했다. 그러나 사례 11와 13의 경우 모자가정으로 주 양육자의 직업적 특성상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아동들끼리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여자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배달을 시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양육자는 아동들에게 배달은 하지 말라고 했고, 식권을 사용하여 끼니를 해결해야 할 경우 대부분 분식집에 가서 김밥이나 라면 등을 사 먹는다고 했다.

식권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식권 한 장에 3,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며, 여아들만 있는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권의 사용은 최후의 식사해결 수단이다.

사례15의 경우에만 양육자가 밥이나 반찬 같은 것을 해 놓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 차려 먹는다고 했다. 만들어 먹을 재료가 없거나 식사준비가 귀찮을 경우,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식사를 해결한다.

빵은 꼭 챙겨먹어유. 가끔 반찬이 없거나 귀찮을 때 중국집에서 자정편을 시켜먹기도 하구유. (사례15)

제과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빵은 식사대용이 아닌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식권을 사용하여 빵을 사 먹는다는 것은 조금은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주는 이용하지 않고 가끔 간식이 필요할 때에만 이용한다.

식권을 지급받고 나서 부모들은 조금은 안심이 되며, 식사를 챙겨놓고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식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동들도 이용하는 데에 조금은 불편하지만,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식권을 사용하여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언짜가 안 계실 때 언니양 가서 사 먹으면 편하고 좋아유. (사례12)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정 음식점 식권 지원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식권을 사용할 수 음식점의 수가 너무 적고, 메뉴가 한정적이다. 한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은 10곳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수가 적은 만큼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종류도 매우 한정적이다.

둘째, 3,000원이라는 가격에 맞추어 음식을 사 먹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식권의 가격에 딱 맞추어 음식을 먹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이 3,000원 이상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식권 한 장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돈을 보태거나 식권 두 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식권 두장을 사용하게 되면 또 돈이 남게 된다. 이럴 경우 남은 돈은 잔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금액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 잔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기 싫어도 그 음식점에 다시 가야한다는 것이다.

돈이 남으면 차라리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도장을 찍어주면 다음에 가기 싫어도 남은 돈을 쓰기 위해 또 그 식당에 가야 하니까 좀 불편해요. (사례13)

자장면도 3,500원인데 3,000원 짜리 한 장으로 사 먹기에는 좀 불편해요. 항상 잔돈을 챙겨가야 하거나 아니면 두 장을 사용해요. 두 장을 사용할 때는 먹고 싶은 것 한 개씩 그냥 싼 거 한 개 시켜서 먹다가 남기고 나뒀던 때도 있어요. (사례14)

위의 사례에서 만난 아동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지적하였다. 첫째, 메뉴의 폭을 넓혀 달라는 것이었다. 패스트 푸드점이나 치킨 같은 것도 식권을 사용하여 먹고 싶다고 했다. 그 나이 때의 다른 아동들처럼 가끔은 패스트 푸드점에서 햄버거를 먹거나 치킨 같은 것을 먹을 수 있으면 좋는데 가격이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가 사 주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식권을 사용하여 햄버거나 치킨을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한식 메뉴를 넓혀 줄 것을 요구했다. 지금 한 군데 정도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기사 식당 같은 곳이라 아동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중국요리도 좋긴 하지만 찌개종류로 먹을 수 있는 한식집도 더 폭 넓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맛있는 찌개를 파는 한식집에서도 식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식집이 한 곳 있기는 하는데 너무 맛이 없고, 기사식당 분위기가 가기도 좀 불편해요. 비싸기도 하구요.. (사례15)

둘째, 식권을 사용 할 때 잔돈이 남게 되면 그냥 돈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잔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가기 싫은 음식점에 가야하는 경우도 생기고, 기억하고 있다가 챙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생각해 본다면 먼저, 지정 음식점의 수를 늘려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메뉴의 폭을 넓히고, 그 나이 때의 아동이라는 좋아할 수 있는 패스트 푸드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지원받는 아동을 위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이 현명하게 음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음으로 잔돈처리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이 있으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식권의 형태를 바꾸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현금으로 직접 잔돈을 지급하는 방법 또한 아동이 식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식권 형태 자체를 바꾸는 방법으로 하여 잔돈이 남지 않도록 한다면 그 문제점 또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4. 기아대책본부의 단체급식 지원사례

단체급식으로 저녁식사를 지원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5명으로 남아 1명과 여아 4명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2명과 고학년 3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유형은 양친부모가족이 3명 조손가정이 1명, 부자가정이 1명이었으며, 급식기간은 7개월에서 1년 10개월로 나타났다. 사례별 (16~20) 구체적 면접내용은 <부록 1> 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7-69> 단체급식 석식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16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2학년, 8살	부자가족	7개월
17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3학년, 9살	양친부모가족	1년 5개월
18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남	초등학교 4학년, 10살	양친부모가족	1년 10개월
19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5학년, 11살	양친부모가족	1년 8개월
20	단체급식(석식)	서울	대도시	여	초등학교 6학년, 12살	조손가족	1년 10개월

가. 급식지원 받게 된 동기

서울시 망원동에 위치한 기아대책 성산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망원 1, 2동, 성산 1동 동사무소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사례 16~20).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공된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말까지 제공되기도 하나, 1년에 5-6회 정도로 매우 적다. 입소 직후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생활 복지사를 통해 접수되고, 통과가 되면 아동 1인당 하루에 3,000원씩 출석한 날수만큼 계산되어 매 달 지역아동센터 급식 통장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입금된다. 이 예산으로 급식은 운영되며 주·부식, 간식 모두 포함된 가격이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은 약 20명 정도 된다.

이 곳의 아동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많다. 결손가정이 아닌 양친부모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님 모두 직장을 다니거나 어린 동생이 있어서 아동을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고소득을 보장받는 곳이 아니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엄마가 안 계셔서 밥은 거의 할머니가 챙겨주세요. 그런데 가깝은 못 챙겨주시 때도 있어요. (사례16)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셔서 집에 있을 때 할머니가 밥을 챙겨주세요. 가깝은 혼자 챙겨 먹기도 해요. 혼자 먹으면 씁쓸하고 가스렌지 사용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해요. (사례17)

부모님 중에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아동들도 있다. 그런 가정인 경우 두 분 중 한 분은 중병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동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취업 중인 양육자 때문에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되었고, 식사를 끼니때마다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급식 메뉴는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면접이 평일 저녁시간에 이루어져, 급식이 제공되는 시간과 일치하여 급식메뉴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메뉴는 쌀밥, 삶은 오징어, 소불고기, 굴무생채, 다시막 튀각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못 먹어 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영양면에서 더 좋은 거 같아요. (사례18)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주말에는 조부모, 친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식사를 챙겨준다. 친부모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동의 식사를 챙겨줄 형편이 되지 않아 거의 할머니가 챙겨주신다. 그 외에 친부모와 살지만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직접 차려 먹고,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접 식사를 챙겨주고 있

다.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센터의 특성상 대부분의 아동과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일요일에는 교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었다.

나. 급식지원 받은 후 아동의 생활 변화

챙겨 줄 사람이 없어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게 되면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례 18의 경우는 급식지원을 받기 전에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는 학원에 가기 전에 집을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가끔씩 귀찮아서 굶거나 대충 해결할 때가 있었다고 한다. 단체급식소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나서는 그런 이유로 식사를 거를 일이 없어졌다.

저녁에 태권도 학원에 가야하는데 가기 전에 집에 들러서 밥을 먹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저녁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기도 하구요. (사례 18)

부모님 중에 중병이 있는 아동들은 저녁 식사를 부모님께서 챙겨주는 것이 참 부담스러웠고 불편했는데 급식을 받게 되면서부터 그런 불편함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편해진 것 같아 좋다고 말해 급식지원을 통해 심적인 평안함을 얻었음을 볼 수 있다. 또 집에서 어른들과 식사를 같이 할 때에는 왠지 모르는 불편함이 항상 있었는데 센터에서는 친구들과 편하게 얘기도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하다.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주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얘기도 많이 못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급식을 할 때에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는 자유스런 분위기라 편해요. (사례17)

집에 가면 엄마가 얘기를 보시느라 힘드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먹는 것이 마음이 더 편해요. (사례19)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지원만 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영어, 스포츠댄스, 성경공부, 주산, 학습지, 피아노, 다양한 공연관람 등을 통한 체험학습이 이뤄진다. 모두 봉사자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아동들은 다양하게 본인의 흥미에 맞게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센터에서 봉사자를 통하여 지원하는 학습지원 서비스는 아동들의 학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체급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말과 방학 중 저녁에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중에는 학교와 센터에 의해서 보호받는 아동들이 주말이나 방학 중 저녁에는 제대로 보호해 줄 요소가 부족해 보였다.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가정으로 아동의 욕구와 영양을 파악하여 주말에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정은 드물었다. 이것은 아동의 영양 불균형과 방임의 가능성 문제를 보여준다.

센터에서 방학 중에는 점심만 먹는데, 저녁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6)

주말에는 가정에 봉사자를 파견하거나, 센터 운영, 아니면 도시락 배달을 통해서라도 아동들을 보호하고 영양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단체급식의 메뉴가 좀 더 아동 중심으로 맞춰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성인 입맛에 맞추어 그 기준으로 메뉴를 아동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정말 원하는 메뉴를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급식 실시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메뉴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메뉴의 변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급식지원이 도움이 되기는 하나 가끔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와 먹기에 조금 거북스러울 때도 있다. (사례19)

5. 주부식 지원사례

주부식 지원을 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4명으로 남아 1명과 여아 3명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1명과 고학년 3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유형은 모두 해체가정으로 부자가정 1명, 조손가정 2명, 친인척집 거주가 1명, 급식기간은 1년에서 4년으로 나타났다. 사례별(21~24) 구체적인 면접내용은 <부록 1>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7-70〉 주부식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21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4학년, 10세	부자가족	1년
22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친인척 거주	1년
23	주부식	속초	어촌	여	초등학교 5학년, 11세	조손가족	4년
24	주부식	속초	어촌	남	초등학교 2학년, 8세	조손가족	1년

가. 급식지원 받게 된 동기

본 사례대상아동은 조손가정이며, 부자가정, 친인척집 거주 등으로 모든 아동이 해체가정 이면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다. 모든 사례가 아동에게 직접 음식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한번씩 양곡(쌀)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지원기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모두 1년은 넘은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모든 사례의 아동들이 양곡지원을 받는 사유가 아동자신의 결 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히 자신의 가정에 지원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부식 지원을 받기 전 대부분의 아동은 보호자의 건강이 나빠거나, 일을 하러 나가서 집에 없는 경우를 이유로 하루 세끼를 모두 먹지 못하였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 형제가 있으며 형제가 차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직접 차려먹기도 하였다.

보통 할머니가 챙겨주시는데, 할머니가 허기 아프실 때 잘 안 먹는다. (사례23)

주린 할머니가 챙겨주시고, 오빠가 해줄 때도 있다. 직접 차려먹기도 한다(사례21)

할머니가 차려주거나, 사촌언니가 챙겨준다. 혼자 먹을 때도 있다. 토요일은 혼자 먹는다(사례 22)

나. 급식 지원받은 후 아동의 생활변화

양곡(쌀) 지원 받은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생활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이는 도시락이나 밑반찬처럼 조리완제품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한달에 한번 지원을 받는 것이라 아동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이 주부식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먹는 게 생겨서 좋다(사례24).

우리는 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부족한 것 보다 낫다(사례22)

급식 지원 후 좋은 점은 식사가 제공되어서 좋다가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많았으며, 아동의 직접적 만족감이라기보다 보호자가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 대리만족하는 것 같았다. 특히 보호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만족도가 반영된 것 같다.

쌀 사는데 돈이 안 들어서 좋다(사례 22).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아동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양곡은 결식아동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라기 보다는 해체가정을 위한 가정지원의 성격으로 변질된 것 같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단계급식을 제외한 개별급식 방법으로는 지정식당이용(식권), 도시락 배달, 상품권, 주부식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주부식 지원은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행정 편의상 실시되는 지원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결식아동으로 선정되는 대부분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의 아동으로 수급권가정의 지원 내용에는 식비지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또한 양곡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쌀이 많아서 할머니가 좋아해요. 쌀이 남아돌아서 친척들한테 나누어 준적도 있어요. 쌀이 많아서 벌레가 생긴 적도 있어요(사례 21).

또한 경제적 사정 외에 아동결식이 발생하는 이유는 보호자의 부재와 방임으로 인한 것으로 보호자의 도움으로 요리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지원되는 양곡만으로는 식사를 해결할 수 없다. 일요일 하루 동안의 아동의 식단을 살펴보니 아동 모두가 아침을 먹지 않았고, 점심식사도 종교시설의 교육프로그램(교회, 성당)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컵라면 등 간단하게 먹은 걸로 대답하였다. 즉, 주부식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식사를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주부식으로 지원되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주로 지원하는 주부식 품목은 양곡으로 양곡(쌀)만으로 영양가 있는 식단을 차릴 수 없다는 점은 주부식 지원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이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밥'만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양곡 지원 외에 모든 아동이 강력하게 지원받길 원했던 품목은 과일이었다. 대부분의 아동이 가정에서 과일을 섭취하지 못하는 걸고 나타났으며, 밀반찬과 간식 배달을 원하는 아동도 있었다. 따라서 그 지원품목을 다양화하여 균형 잡힌 식품을 제공하거나, 급식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인 저소득 가정에서 부족하기 쉬운 식품 및 영양군을 조사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쌀은 많으니까 과일 같은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사례 21)

쌀 외에 다른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사례 22)

먹는 것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밀반찬도 배달 했으면 좋겠고, 통닭 피자도 주었으면 좋겠다(사례 23).

반찬이 있었으면 좋겠다(사례 24)

마지막으로 주부식 지원사례를 통해 발견한 점은 주부식 지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즉 가정지원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즉 주부식 지원의 초점 및 그 수혜대상이 아동이 아니라 아동과 가족이 되거나 그 보호자가 되기도 한다. 물론 아동복지서비스와 가족복지서비스는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급식지원은 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우선의 목적이므로 아동 결식이 해결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의 성격이 강해야 한다.

즉, 아동복지서비스로 지원되는 것만큼 대상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결식의 사유가 점차적으로 경제적 이유보다는 가정해체의 증가와 방임의 증가로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는 예상의 관점에서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아동 결식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되도록 아동 중심적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부식 지원은 아동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가장 최후의 방안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6. 도시락의 지원사례

도시락 지원을 받는 사례의 아동은 총 5명으로 남아 3명과 여아 2명이며 초등학교 저학년 1명, 중학생 3명, 고등학생 1명이다. 조사대상의 가족 유형은 모두 해체가정으로 한부모가정이 4명, 조손가정이 1명이었으며, 급식기간은 4개월에서 1년 1개월로 비교적 지원받은 기간은 짧은 편이었다. 사례별(25~29) 구체적 면접내용은 〈부록 1〉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표 7-71〉 도시락 사례조사 대상아동의 주요 특성

번호	급식유형	지역	지역유형	성	학년 및 연령	가족유형	급식기간
25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초등학교 3학년,9세	모자가족	1년1개월
26	도시락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2학년,14세	조손가족	4개월
27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중학교 2학년,14세	모자가족	1년1개월
28	도시락	서울	대도시	여	중학교 3학년,15세	부자가족	1년
29	도시락	서울	대도시	남	고등학교 1학년,16세	부자가족	1년

가. 지원 받게 된 동기

도시락 지원은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평일 저녁에 지원되는 것이다. 모자가정인 사례25와 사례27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기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정의 어려움을 알고 신청을 해 주었다. 그러나 모자가정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었기에 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을 해 주지 않았고,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다섯 가정 중에서 모자가정을 제외하고는 주 양육자가 항상 집에 있었다. 부자가정인 사례28, 29는 주 양육자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인해 경제적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조손가정인 사례26 또한 주 양육자인 할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나. 급식 지원받은 후 아동의 생활변화

부자가정(사례28, 29)과 조손가정(사례26)의 경우 항상 반찬을 해 식사를 챙겨준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힘에 부치는 일이었기에 주중 도시락 지원을 받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모든 사람의 입맛이 다르기에 배달되는 도시락이 아동들 입맛에 모두 맞지는 않지만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된다고 하였다.

반찬이 항상 맛이 있는 것은 아닌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도시락이 있어서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돼서 편해요. (사례26)

술식이 입맛에 맞지는 않는데, 편하긴 해요. (사례29)

전 날 배달 온 도시락 반찬이 남은 경우, 남은 도시락 반찬에 간단한 요리를 첨가하여 아침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모자가정인 사례25와 27은 배달되는 반찬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밥과 국만 준비해 놓고 나가면 아이들끼리 저녁을 챙겨 먹는다고 했다. 가끔은 배달되는 밑반찬이 입맛에 맞지 않아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있다고 했다. 배달되는 반찬 메뉴가 모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엄마가 계시지 않는 평일 저녁에는 밥만 해주면 배달된 반찬과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말에는 도시락 지원이 되지 않아 아동들의 영양섭취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본 면접이 이뤄진 날이 일요일이었고 그 전 날은 일명 '놀토'라고 하여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이었다. 아동들에게 전 날 먹은 음식에 대해 물어보니 모두 너무 간단하게 답하였다.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서 거의 먹지 못했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단하게 식사를 한 후에, 오후 늦게 저녁을 미리 먹었다고 했다. 식사 내용으로는 밥이 있으면 밥을 먹되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국수를 먹는거나 라면을 먹는 아동들이 있었고, 오후에도 간단하게 김밥이나 떡볶이를 사 먹었다고 했다. 과일이나 유제품 등의 음식은 전혀 먹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다. 간식도 거의 먹지 못한다고 했다.

어제는 학교에 안 가는 날이라 아침에 늦게까지 잤어요. 별로 입맛도 없고 특별히 챙겨 먹을 것도 없어서 간단하게 있는 거 대충 먹었어요. (사례26)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국수 삶아 먹었어요. 학교 안 가는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어요. (사례28)

가끔 누가 사준 빵이 집에 있으면 먹을 수 있는데 일부러 사다가 먹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주 양육자가 집에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정과 조손가정인 사례26은 아이들 입에 맞는 반찬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는 경제적 형편도 아니어서 도시락 지원이 되지 않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집에 있는 것을 먹거나 밖에서 누가 사주는 것을 먹어 대충 끼니를 해결한다고 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세 가정의 아동 모두 평균 체격보다 말라보였으며,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욕심도 없어 보였다. 맛있는 것,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별다른

게 답하지 않았고 흥미를 보여주지 않았었다.

특별하게 좋아하는 거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않구... (사례29)

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락 배달과 학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주말에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례25와 27과 같이
주 양육자가 주말에 집에 있고, 아동들 입에 맞는 반찬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는 것이 쉽지 않아보였다. 특히, 부자가정이나
조손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 양육자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동들 입에 맞는 음식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나마 집에 남아 있는 것
을 먹거나 밖에서 누가 사 주는 것을 먹음으로 대충 끼니를 해결한다고 했다.

둘째, 도시락 배달로 식사 자체는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아동의 균
형적인 영양상태를 보장할 수 있기는 힘들어 보였다. 과일이나 유제품 같은 것의 지원은 전
혀 되지 않기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도시락의 반찬이 모두 입
맛에 맞아 다 먹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기에 비록 식단이 영양소를 고려하여
짜여진 것이라고 해도 아동들이 그 식단대로 다 섭취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었다.

도시락 배달 오면 거의 남겨요. 반찬이 맛도 없고,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요. (사례29)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유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많이 필요해서 식사 시간에 섭취하
는 것 외에 따로 섭취해야 하지만 지원이 없으며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그저
끼니만 겨우 해결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아동들이 인터뷰 시 급식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주말까지도 도시락
배달이 된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
면 좋겠다고 했다. 둘째, 과일이나 간식의 지원이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끔 과
일도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사 먹을 수 없다고 했다. 도시락이 배달
될 때 조금이라도 과일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과일 외에도 다른 간식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났던 한 아동은 이렇게까지 말하였다.

밥 많고 간식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간식도 지원해서 먹고 싶을 때 많껏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5)

아동의 음식에 대한 욕구는 다양하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은 그런 아동의 음식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물론, 만났던 모든 아동들은 도시락 배달이나 밑반찬 배달로 인하여 한 끼 식사를 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왕 도움 받는 것이라면 좀 더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찬의 간이라든가, 종류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밥 이외에도 가끔은 다른 종류의 음식이 배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다.

이런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지금의 도시락 배달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주말 동안에 아동들의 영양 빈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도시락 배달이 주말까지 확대 되거나, 음식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음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정에 봉사자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락 배달 시 밥, 반찬, 국 정도의 기본적인 제공이 아니라 과일이나 유제품 같은 것도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보관할 곳이 없어 상태보존의 위험이 있다면 도시락 가방을 냉·보온이 되는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시사점

사례조사를 통하여 결식아동의 가정환경 및 결식의 원인과 여섯 가지 유형의 급식방법별로 장점 및 단점과 아동의 욕구를 자세하게 파악하였다(표 7-72 참조). 급식방법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아동은 해체가정아동이거나 주양육자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토.공휴일에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아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모든 사례아동들이 토.공휴일의 급식제공에 대한 욕구가 큰 편이었다. 급식에 대한 만족은 그 방법이나 제공되는 메뉴 등과 상관없이 경제적 이득과 관련하여 높았으며, 식사해결측면에서는 급식방법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체급식으로 조식을 제공받는 위스타트 사례는 급식지원의 모범적 사례로 본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 아동급식 전달체계 전반의 문제점과 특히 경제적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는 현 급식아동의 선정기준의 오류를 확연히 확인하였다. 식품권 지원사례는 식품권의 편리한 사

용으로 아동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만족도가 높으나, 아동급식 지원취지와 생활필수품을 사는 등 오남용의 문제점이 있다. 식권(지정음식점)의 지원사례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과 그 메뉴에 한계가 있으며, 식권 사용 후 남은 잔돈의 처리로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단체급식으로 석식을 지원하는 기아대책본부의 지역아동센터 사례의 경우 급식뿐만 아니라, 학습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만족도 높았다. 그러나 토·공휴일에는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주말에는 보호 및 급식지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표 7-72〉 급식지원 유형별 장단점 및 개선방안

유형	장점	단점	개선방안
단체급식 (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서비스로 아동의 성장, 발달, 학력에 유익 • 방입, 사회적 배제 예방 • 균형있는 영양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인의 우려가 높음 • 주말에는 제공되지 않아 결식의 우려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인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아동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보호함. • 주말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함
식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인없음 • 자유롭게 원하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등도 구매 가능하여 오남용의 소지가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권 사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
지정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이 간편함 • 조리를 할 필요가 없어 이용이 편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중국집과 분식집 위주임. 제과점은 주식공급원이 아니라서 이용이 저조함. • 아동만 있을 경우 음식배달이 위험할 수 있음 • 식권 액수의 제한으로 사용이 자유롭지 못함 • 잔돈 처리가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식당이 다양화되어 아동의 욕구에 맞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 • 식권 형태를 바꾸어 잔돈이 남지 않도록 함
단체급식 (석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가 있는 음식 제공 •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이 즐거움 • 가족에게 식사차림의 번거로움을 주지 않음 •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업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음 • 어른 위주의 식단이 제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말 프로그램 제공 • 식단 작성시 아동의 욕구 반영
주부식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남용의 소지가 있음 • 완제품이 아니어서 아동은 식사해결이 어려움 • 양곡만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이외 과일지원을 원함 • 지원품목을 다양화 함 • 직접적인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변환해야 함
도시락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해결에 도움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찬이 입맛에 맞거나 맛이 없을 때가 자주 있음. • 토공휴일에 지원되지 않아 결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제품, 과일, 간식 제공 필요 • 토공휴일에 식사제공 필요

주부식 지원사례는 아동의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지원의 성격이 커서 보호자의 부재와 방임으로 인한 결식문제의 해결이 힘든 단점이 있다. 도시락 지원사례는 완전조리된 식품이 아동의 가정까지 배달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으나, 다양한 아동의 식품선호도 및 욕구를 모두 반영해주기 힘들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도시락 배달시 아동기에 필요한 과일 및 유제품 등의 간식제공에 대한 욕구가 커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섯 가지 급식 유형별 사례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급식지원대상자를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등 보호자의 양육기능 약화로 인한 '요리곤란형' 아동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리곤란형'아동의 지원에 적합한 급식지원방법을 택하여 완전조리된 식품이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로 토.공휴일에도 급식이 지원되어야 하겠고, 급식지원 서비스에 결식아동의 학습 및 정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8장 결론: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행 빈곤층 아동을 위한 급식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무원, 민간급식담당자,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한 4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급식담당공무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는 첫째, 급식지원 대상 아동선정 상의 문제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이 불명확하고 해당 아동을 발굴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급식 담당 공무원의 아동선정을 위한 방문조사는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36.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화나 주위 추천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많고, 동시에 급식이 필요 없는 데도 급식제도 안에 포함된 아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교로부터 추천된 아동의 경우는 급식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학생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과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미납한 것인지 다른 방임 등의 이유로 미납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오남용의 소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급식아동선정을 위해 아동급식 정기조사 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식방법 및 급식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위원회의 수당 문제나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통보한 아동명단 자료가 주소, 학교 등이 정확하지 않거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방학 중 결식대상 아동명단을 통보해 주는 시기가 너무 촉박하여 제대로 지자체에서 결식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급식이 종결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결식 재발생 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도에서 벗어난 아동까지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또한 아동급식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지원대상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대상이 적합한지, 적합한 대상에게 아동급식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지 파악하기 힘들다. 아동급식담당공무원 한 명이 700~1000명 가까이 되는 대상아동

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읍면동으로의 아동관련 자료를 취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만 아동의 방임 여부, 영양 및 건강상태 등이 점검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례관리를 위한 기구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 대도시 보다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일반음식점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지원하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데 지원방법별로 문제가 다소 있어서 효율적인 급식지원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급식방법 선정을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와 지역 급식관련 인프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관련기관간의 연계, 특히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학교, 일반음식점과의 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아 급식제도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담당자 실태조사 결과, 첫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담당 지원인 없는 경우가 20%나 되고 있고, 담당자가 있다 해도 업무가 과중하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상당수 자원봉사인력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있었으나, 농어촌의 경우는 자원봉사 인력 등이 부족하여 인력난이 더욱 심각하다.

둘째, 급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의 하나가 영양가 있고 균형잡힌 식단에 있는데,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영양사 없이 식단을 작성하고 있다.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표준화된 식단을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급식지원제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음식점, 사회단체, 학교, 동사무소 등과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급식상의 누수나 기타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예산부족과 인력부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양자는 서로 연계된 것으로 예산이 충분해야 인력을 활용하는데도 용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이양된 상태에서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수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급식지원사업의 국고 환수를 주장하기도 하는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급식의 대상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은 방임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았다. 방과후 37% 이상의 아동이 어른 없이 지내고 있었다.

둘째, 급식지원받는 아동의 영양상태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식사시

간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영양상에서 문제가 있는 라면류, 영양가 낮은 음식, 탄산음료 등의 섭취빈도는 높고, 성장기에 필요한 단백질, 야채, 과일, 칼슘섭취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들은 저체중인 경우가 일반아동에 비해 많았으나 비만율은 낮았다.

아동들이 선호하는 급식방법은 학기중에는 학교로부터의 급식이었는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지역아동센터, 도시락, 현금 등의 형태로 급식지원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는 학교 수업이 있는 토요일만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다. 희망하는 급식유형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단체급식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고, 그 다음이 도시락 배달, 식재료 구입을 위한 상품권의 순이었는데 반해, 중고등학생들은 현금이었다.

급식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낙인감보다는 ‘감사하다’는 의식이 많았다. 도시락이나 식재료는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공유를 희망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분석결과 결식은 가족의 적응성과 응집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고, 결식아동일수록 자존감도 낮아 결식은 아동의 정서발달과도 관련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결식예방을 위해서는 식사제공 뿐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이 가족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족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급식 유형별 사례조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급식방법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첫째, 대부분의 아동이 해체가정아동이거나 주양육자가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로 파악되었으며, 아동의 토요일·공휴일에 대한 급식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둘째, 급식유형별로는 단체급식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식품권은 오납용, 식권은 접근가능 음식점과 메뉴의 한계, 주부식은 조리곤란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례결과를 근거로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시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가족해체 등 보호자의 양육기능 약화로 인한 ‘요리곤란형’ 아동으로 확대와 토요일·공휴일 급식지원 및 급식지원과 학습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제2절 아동급식지원제도 기본 개선방향

1. 결식에 대한 아동권리적 접근과 공공성 강화

아동급식지원제도는 급식 지원시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해당 아동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Straus 외의 척도(1995)에 근거하여 아동의 결식을 방임, 즉 양육자인 부모(또는 실제 보호자)와 사회의 물리적 방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¹⁷⁾ 모든 아동의 기초생활보장과 방임으로부

터의 보호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법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결식이라는 방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이 법률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목적은 관할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모든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역할이 취약한 가정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심리적·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는 아동복지의 책임 주체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며, 이들 각각의 양육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가정에서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중앙정부가 책정한 시책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역할을 지지하고 보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을 방임이나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기반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구체적 목표는 아동결식의 개인·가족·지역사회 원인을 해당 아동과 가족의 의견을 경청하여 사정하고 보다 다양한 원인별로 개입하여 궁극적으로 부모의 양육기능과 아동의 자립적인 일상생활관리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즉 현행 아동급식지원사업의 목표는 부모의 양육지원과 아동의 자립지원, 그리고 아동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보장을 추가하여야 한다.

이로써 담당공무원은 생계곤란형 결식은 물론 조리곤란형 결식 등 해당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아동결식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이며 제도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결식의 유형은 생계곤란형 결식과 조리곤란형 결식으로 구분하고, 결식의 원인은 생계를 곤란하게 하는 절대빈곤 즉 경제적 양육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생계가 유지되어도 조리와 취사를 곤란하게 하는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양육능력의 부족 등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결식에 관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단순히 응급구호차원의 급식 지원으로 그치지보다는 부모교육, 가족 및 아동 대상 영양교육과 일상생활기술훈련 등을 통

17)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결식 등 방임되는 아동의 보호명령 등 사법기관에 의한 보호조치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사법기관은 법률적 판단과 심판을 넘어 아동복지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장기 아동방임과 학대로 인한 부모의 친권제한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해 가족 단위로 양육자로서의 부모와 가족의 기능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아동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함께 부모의 경제적 양육능력과 자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개발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2. 아동급식지원의 원칙

아동급식지원 시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실태조사와 외국의 제도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첫째, 급식지원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아동중심의 서비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급식지원은 음식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지원서비스이어야 한다. 이때, 균형잡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아동에 대한 단독지원에서 벗어나서 아동이 속한 가족 전체 대한 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한다. 가족이 결핍되어 있는 영역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할 때, 나아가서는 결식아동이 예방되고 다른 아동 및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로 완화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급식지원이 오남용이나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 적용대상이 아닌데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급식지원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급식지원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재정 및 법제도적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급식지원은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전문 인력이 중심이 되어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이 충분히 지원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달성될 수 있다.

제3절 아동급식지원제도 개선방안

1. 지원대상

가. 선정기준 명확화

앞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행 지침상으로는 급식지원대상아동의 개념과 선정기준이 모호하다. 임의적 해석이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기준은 삭제되고, 지원대상아동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지원 대상 아동 및 가족의 구체적인 욕구별로 명료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원대상 아동 및 가정의 욕구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아동급식이 지원되어야 한다.

결식아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와 함께 대상아동의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서 대상아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통보한 아동의 선정기준과 지자체별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다. 교육청에서 통보한 모든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또한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아동이나 보호자가 찾아와서 지원 요청 시에는 거부할 기준이 없어 거의 지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학교급식과 지방자치단체급식 간 선정기준의 조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선정기준 재설정

아울러 현행 지원기준은 주로 생활곤란형 결식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생활곤란상태는 아니나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결핍으로 결식하고 있는 아동을 급식지원대상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인 급식지원대상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모든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한 사례는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55.9%에 불과한 점을 염두에 두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의 발견체계가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족한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아동사례관리

따라서 급식의 지원대상을 융통성있게 하여 담당자나 아동전문가가 아동에 대한 개별 판정을 통해서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과 같이 학교 담임교사의 추천에 의해서 급식대상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 명단으로부터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을 재조사하는 것은 예산상의 낭비이다. 이를 일원화하여 반복적인 조사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우려한 것과는 달리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급식 종결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다만 종결된 아동에 대한 사후사례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서 급식지원제도 밖으로 이동한 아동의 결식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지역사회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2. 지원내용

가. 단체급식 확대

아동들이 지원받고 있는 급식지원내용과 유형은 다양하고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는 쉽게 결론내기 어렵다. 이는 각 지역의 실정과 형편,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유형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동을 위한 바른 급식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동 및 민간담당자 실태조사 결과 단체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이 성적이나 자존감, 가족의 적응성 및 응집성 등 많은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급식 제공시 결식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사회정서적 측면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아동급식지원사업은 학습지도, 컴퓨터교육, 자아존중감 향상, 의사소통기술, 자기주장향상, 문화체험, 일상생활기술, 식사예절,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급식지원아동이 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아동복지관련조직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 결식원인 파악을 통한 급식지원 재사정

특히 급식지원대상아동 중 상당수가 방과후 집에 아무도 없거나 형제, 자매만 있다고 응답한 사실에 근거하여 어른(부모 또는 보호자)의 부재가 아동의 결식 즉 방임을 초래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아동 및 가족의 사례별 결식의 원인을 파악한 후, 원인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단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식제공 이후의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점, 예컨대 지리적 접근이 낮아 직접적 식사제공이 어려운 농어촌·낙도·오지 아동, 고학년으로 정서적 접근이 낮아 급식지원을 꺼리는 아동, 개인음식 취향으로 거부하는 아동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재사정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다. 토요일 및 일요일 급식지원 및 간식제공

그리고 현행 급식지원제도는 토요일 석식과 일요일에는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서 이때 아동들은 결식하거나 영양가 낮은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급식은 주로 주식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성장기 아동에게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우유나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는 과일제공이 절실하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급식지원시 과일, 야채만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와 함께 비타민제도 공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식품권, 주부식의 제공은 아동의 영양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

라. 학교시설을 이용한 급식지원 확대

가능하면, 학교급식시설을 활용하여 영양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제공되는 단체급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급식 사고시의 책임소재와 학교시설 운영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문제 등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 그럼에도 학교는 아동에게 있어서 가장 접근이 용이하고 급식지원이 낙인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학교가 개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체급식소를 만드는 것이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원의 낭비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지역에서는 특히 방학중 학교를 통한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때, 급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라.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아동급식과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급식제공만이 아니라 저소득 부모가 자활할 때까지 담당공무원이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탈출을 도와야 한다. 아동의 성장기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방임과 무관심 등으로 인해 빈곤가정아동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사회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성장과정 중 무료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건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되, 정부는 해당아동과 가족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민간은 정부로부터 책정된 재정과 위탁된 운영권에 근거하여 해당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맞는 급식지원, 정서지원, 학습지원, 일상생활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전달체계¹⁸⁾

가. 아동급식지원의 중심축 형성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초기 접수와 진단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협력과 네트워크체계에서 중심축을 형성할 수 있는 허브조직과 전문인력(예컨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사정 그리고 수시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중심축의 전문인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급식전달체계 일원화

급식전달체계 상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현재는 지원예산이 연중취학, 연중미취학, 학기중, 방학중으로 나뉘어 있을 뿐 아니라 도비, 시비, 교육청특별회계, 분권교부세 등으로도 나누어져 있고 게다가 지원비율까지도 각각 달라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많아 아동급식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다.

아동급식사업의 담당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인 80%의 담당공무원들은 급식사업 담당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로 일원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담당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여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지원을 결정하면 예산의 낭비와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여 아동급식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 지방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행자부 행정체계로의 네트워크 구축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급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유형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위기가정아동을 위한 상담, 보호, 후원, 자립지원 등을 상호연계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로써 정부조직(중앙정부와 지방정부)과 민간조직 간 급식지원관련 역할분담과 상호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 이때 행정체계 차원에서는 다원화된 관련 부처 간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육구조사를 통해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선정

18) "결식아동 문제를 현장에서 느끼는 관련 공무원들조차 결식아동에 대한 개념 성립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진 결식아동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막연히 밥 먹지 못하거나 우려되는 아동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장에서는 이 기준만으로는 딜레마에 부딪칠 때가 많다"며 "현장 공무원들이 대상 아동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이 좋다고 한들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찬밥이라도 같이 먹을 사람이 필요하다" "민간은 서로 밀어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준을 과학적으로 책정하고, 집행체계 차원에서는 담당 실무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자원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의 공동개발과 평가, 피드백의 상호교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¹⁹⁾

특히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과 해당 학교의 교사가 협력하여 아동의 급식욕구를 사정할 수 있도록 행정적 네트워킹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와 급식아동지킴이 그리고 급식아동후원회와 보건소 등 공공전달체계와 연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급식 외에도 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건강교육, 영양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민간아동복지조직과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유명무실한 아동위원회 지역사회 아동보호 네트워크의 협력기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전문아동위원의 지도감독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라. 공공 및 민간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기존 담당자에게 훈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단체급식소에서는 영양사를 고용하거나, 지자체에서 영양사에 의뢰하여 균형있는 식단을 공급하도록 한다.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으로 영양사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효율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가가 참여하는 상설 민관협의기구를 중앙과 지방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급식지원대상자 발굴 조사, 급식현장 실태 확인 및 사후관리 등으로 일선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므로 급식업무보조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예로 저소득 조손가정의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각각에 규정된 적용 요건을 확인하여 각각의 창구에 급여 신청을 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복합적인 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민간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등에 가정봉사원의 파견 요청 등을 각각 의뢰하여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많은 업무를 담당할 때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19) 성공적인 예로 부천시청은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특별제정을 마련하여 실업극복운동본부와 여성노동자회를 통하여 민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부천시 교육청은 저소득가정아동급식을 위한 특별제정을 확보하여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이혜원, 2000).

보조인력은 첫째,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 인력 지원의 형태를 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도우미를 선발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인력지원(노동부 고용지원센터)을 받을 수 있다. 방학 중 급식확대 지원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일선 지자체에서 급식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 인력을 일선 지자체(시·군·구, 읍·면·동)에 배치(보건복지부→노동부 협의)하도록 한다.

나아가서는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확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투자의 맥락에서 사회적인 주요 이슈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미래를 이끌어갈 동력인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아동급식 측면에서는 공공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마. 복지주체간 네트워크구축

푸드뱅크, 아동학대예방센터, 쉼터, 복지관 등 지역 복지 주체 사이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통해 자원개발 등에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청와대에서 정책이 중복돼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할 분담 및 조정이 필요하다. 빈곤가정아동 성장단계별·분야별 대책 마련 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 역할분담 등 서로 다른 아동복지 주체 간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4. 재원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취약아동의 토·공휴일 중식지원예산은 교육청이 부담(시·도교육비특별회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아동급식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하여 시·군·구별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교육청 예산을 시·군·구에 지원하거나, 급식공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지역별 구체적 재정지원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아동급식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여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아동급식 전담자와 같은 추가적인 인력확보를 통해 아동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담

당공무원의 가구별 조사비용과 사례관리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사례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 1인당 사례관리 가구는 반드시 50가구 이내여야 한다.

5.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

아동급식사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영양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다.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아동급식 지침이」를 두어서 아동급식의 진행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는 아동급식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급식지원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선정하며, 급식단체(업체)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아동만족, 아동급식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시·군·구, 읍·면·동(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식지원아동, 급식단체(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급식사업이 효과성이 제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명순. 2000. 「빈곤(결식)아동의 현황과 통합적 사회복지 접근방안」, 결식아동의 사회복지대책 워크숍.
- 곽훈용. 2001. 「결식아동 문제의 해결방안」,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재욱·모수미·이정원·최혜미. 1995. 『생활주기영양학』, 효일문화사.
- 김경륜. 2005. 「아동발달특성과 아동권리」. 아동권리교육과정 교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김혜경. 2003. 「학령기 전·후 아동의 영양과 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논집』, 4, pp.71-84.
- 박장숙. 1999.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장숙·전진호·김성준·손혜숙·이종태. 2002. 「결식아동의 실태와 특성」, 인제의과대학, 4, pp.721-728.
- 배은주·권진희·윤희정·이성국. 2001. 「일부 초등학교 결식학생의 영양실태」, 『대학영양학회 학술지』, 7(4), pp.349-360.
- 보건복지부. 2007. 「아동복지사업안내」.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2007. 「아동급식지원종합대책개선대책(안)」. 내부자료.
- 서초구립 반포종합사회복지관·서울대학교 실천사회복지연구회, 2007. 『실천가와 연구자를 위한 사회복지척도집』 제2판, 서울: 나눔의 집.
- 성내종합사회복지관. 2007. 「결식아동급식서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속초시 위스타트 운영센터, 내부자료, 2007.
- 염 환. 2000. 「결식아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학교급식과 시설급식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나눔의집.
- 유니세프. 2005. 『2005세계아동현황보고서』.
- 이상미. 2001. 『결식아동 가정실태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홀트아동복지연구소.
- 이은주. 2007. 「빈곤아동의 아동방임현황과 정책방향」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사회권 심포지엄 자료집」.

- 이형하. 2006. 「방학중 결식아동지원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8-2.
- 이혜원. 1999. "결식아동 중식지원사업의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제8호.
- 이혜원. 1999. 「결식아동문제의 현황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 이혜원. 2000. 「결식아동 지원조직간 서비스 연계: 부천지역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15.
- 장신재·박은미. 2006.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급식지원실태 및 급식지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제10권, 제4호, pp.771-793.
- 정경배·김미숙. 1999.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현황과 정책방향」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방향 세미나. 99-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pp. 70-71.
- 정기혜. 2005. 「결식아동의 급식실시 현황 및 정책제언」, 『보건복지포럼』, 제101호.
- 조홍식·김경혜·변재관. 2000. 『학생 중식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모델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정책연구 2000-특-07, p102.
- 황영자. 2002.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Gilbert, Neil and Paul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Boston: Pearson, 2005.

<http://www.ers.usda>

<http://www.fns.usda.gov>

<http://www.csrees.usda.gov>

부 록

부록 1. 아동사례조사 면접내용 요약

부록 2. 전국 아동·청소년 급식 및 영양 실태조사표

부록 3. 급식담당 공무원 실태조사표

부록 4. 민간 급식담당자 실태조사표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1

사례 1과의 면접은 속초의 위스타트 운영센터에서 이루어졌다. 12세의 초등학교 남자아동으로 조손가족이다. 가족의 구성원은 할머니, 큰아버지, 남동생과 본인 4식구이다. 할머니는 중풍으로 장애가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사례 1이 센터에 와서 아침식사를 하기 전까지 음식을 차려주셨다. 사례 1은 매우 활발하고 센터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다. 센터는 아는 공부방 선생님의 소개로 2005년 11월부터(4학년) 동생하고(8살, 초등학교 1학년) 다니기 시작했다.

센터에서 식사하기 전에는 할머니께서 주로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셨다. 점심은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는다. 집에서 먹을 때는 맛도 별로 없었고, 뭔가 빠져있는 느낌이 들었다. 센터에 와서 먹으니까 맛도 있을 뿐 아니라 친구들과 얘기하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울러 센터에서 방과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중에서 레크레이션이 가장 좋다.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본인은 센터에 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좋다. 학교 친구들이 사례가 센터에 다니면서 무료 급식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

면접일은 월요일이었는데, 그 전날인 일요일 집에서 먹은 음식을 물어보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로 할머니가 간단한 음식을 차려주신다. 아침에는 고모가 차려준 카레를 먹었고, 점심에는 고구마를 먹었다. 저녁은 할머니가 차려준 카레를 다시 먹었다. 간식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센터의 지원이 없이는 아동은 매우 열악한 영양공급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은 안계시고 큰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는데, 그나마 큰아버지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할머니는 장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손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영양가 있는 주부식을 아동에게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게는 센터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센터에서 균형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부와 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특히 집에서는 방임된 채 있었는데, 센터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인지 센터의 아동들이 매우 밝고 선생님들을 잘 따르고 있다.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2

사례 2는 초등학교 5학년(12살) 여자 아동으로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다. 가족은 부모와 할머니 그리고 본인 등 4명으로 부모님은 두 분 다 무직상태이다. 1년 전에 할머니가 아시는 공무원의 소개로 센터에 처음 오게 되었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부모님은 아침 일찌기 나가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차려 주시면 혼자서 먹었다. 센터에서 조식을 먹기 전에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저녁은 집에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았다.

센터에 와서는 집과 달리 혼자서 밥을 먹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주위 친구들이 무료 급식 받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 센터의 음식은 맛도 있고 양도 적당하며 위생적이라고 본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가 가장 좋다.

일요일 집에서 먹은 음식은 아침은 먹지 않았고, 점심은 김치찌개, 밥, 무말랭이, 김치를 저녁으로는 순두부, 굴, 밥, 찌개 등을 먹었다. 간식은 먹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은 센터의 개입이 없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결식이 문제라기보다는 균형 잡히지 않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집에서 먹는 식사는 어른 위주이기 때문에 아동기에 필요한 단백질군의 섭취가 적고, 짜거나 채소 위주의 식단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임에 있는데, 부모는 일을 나가고 할머니와도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데 센터에 와서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겁게 보내고 있다. 센터를 통해 방임과 불균형한 음식 섭취가 동시에 해결되고 있다.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3

사례 3은 11살(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 아동이다. 부자가족으로 아버지와 이모로 불리우는 아버지의 여자친구와 본인 3가족이 살고 있다. 아동은 다소 마련이고, 성격은 매우 활발하다. 학교에서 인라인스케이트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아버지는 택시운전을 하신다. 아버지가 일찍이 일을 나가시기 때문에 센터에서 조식을 먹기 전에는 아침을 거의 먹지 못하거나 아빠나 이모가 가끔씩 차려주었다.

센터에 오게 된 경위는 2학년 때 아는 친구의 소개에 의한 것이었다. 센터에서 처음 조식을 시작했을 때는 아침을 직접 집까지 배달해 주었다. 이때는 아버지와 같이 아침식사를 했다. 센터에서 식사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특히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것이 좋다. 아침식사에 대한 교육도 받아서, 아침을 먹지 않으면 두뇌 회전이 잘 되지 않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도 알고 있다. 매일 센터에 8시에 와서 아침을 먹는다.

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연극을 가장 좋아한다. 연극연습하는 날은 센터에서 저녁도 먹는다. 아울러 센터에서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수업도 해 주어서 성적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센터의 단점은 아이들이 식사 중에 너무 떠는다는 점이다.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 이모나 아빠가 차려주는데, 보통 아침은 먹지 않고 저녁은 아침과 같은 식사를 한다. 면접 전날 먹었던 것은 명란젓, 젓갈, 밥, 김치 등을 2끼 먹었다. 이와 같이 사례 2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먹는 음식은 영양 면이나 식단면에서 아동에 적합하지 않다. 메뉴가 다양하지 않은 것을 물론이고, 단백질의 섭취가 거의 없으며 짠 젓갈이나 김치가 주요 메뉴여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아동은 키 137cm에 29kg으로 저체중 상태이다. 가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매우 밝고 자기표현도 잘 한다. 센터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자존감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추측된다.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4

초등학교 4학년의 남자아동인 사례 4는 택시기사를 하는 아버지와 단둘이서 사는 전형적인 부자가족이다. 어머니는 결혼한지 6개월만에 가출했다. 아버지는 수입은 적지는 않으나 자녀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아동은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유분증, 비만(키: 141.6kg, 몸무게: 45.6kg), 왕따, 학교결석 등으로 센터에 와서 유분증은 어느 정도 완화되다가 담당자가 바뀌면서 다시 재발되었는데, 이전처럼 심하지는 않다. 센터장에 의하면 이 아동의 가족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복지의 사각지대이다. 경제적인 수준으로는 전혀 복지의 대상자가 아니나, 보호의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 거의 매일 방치된 사례이다. 센터에 오기 전까지 아동은 아침에 깨워주는 가족이 없어서 1주일이면 3-4일은 결석하였다.

2학년 때 친구소개로 센터를 알게 되어 센터에서 아침을 먹으러 오게 되면서 학교출석이 규칙적이 되었고, 유분증도 사라졌다. 센터에서 먹는 식사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특히 집에서와 달리 혼자먹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이 사례는 전형적인 방임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가족인 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아버지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동을 돌 볼 수도 없고, 아마 돌 볼 줄도 모를 것이다. 이는 사회적 방임에 해당한다. 이러한 아동에 대한 발견체계가 마련되어 아동에 대한 사정과 개입 등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2학년까지의 방임으로 인해서 센터에 와서 일부 행동이 수정되기는 하였으나, 담당자가 방심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고위험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는 이와 같은 아동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부족으로 아동은 보호에서 제외된다. 이는 모두 추후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몫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은 영양소 공급 뿐 아니라, 아동의 전인격적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식에 대한 접근은 음식과 함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5

면접은 위스타트 센터에서 약 30분가량 진행되었다. 00이는 부모님, 언니 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어부이다. 00이는 면접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면접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면접상황에 대해서도 흥미로워하였다.

00이는 센터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된지는 1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엄마가 일찍 나가시면 아침을 먹지 못하였는데 센터에 와서 다같이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게 되어서 좋다고 하였다.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서 공부도 잘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센터의 조식제공프로그램 중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식당이 없어서 공부하는 상에서 밥을 먹는데 따로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지금 공부하는 상에서 먹는 것도 깨끗이 닦아도 숟가락, 젓가락 놓으면 조금 더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센터에서 아침식사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장 좋은 점은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서 좋으며, 반찬이 매일 달라져서 너무 좋다고 하였다. 제공되는 반찬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만족한다고 하였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조식 제공 프로그램 외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위스타트에서 영어, 논술 등 학습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공부를 배우니까 좋으며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급식을 받지 않았을 때는 아침은 아예 먹지 않고 학교에 갔으며, 노는 토요일은 아침 겸 점심을 먹어서 하루에 2끼만 먹었다고 하였다. 보호자가 계시지 않을 때, 언니가 차려주기도 하고 직접 요리해 먹기도 한다고 하였다. 가능한 요리는 계란 후라이, 오이무침을 이야기 하였고, 오이무침을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주었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로 아침은 집에서 콩밥과 김치, 냉동숯불갈비를 엄마가 차려주셔서 먹었고, 점심으로는 컵라면을 먹고 간식으로 초코과자를 먹었으며 저녁에는 언니가 만들어준 김치볶음 밥을 먹었다.

00이가 현재 가장 원하는 것은 가족모두와 함께 노는 것이며, 지원받고 싶은 것은 현재 언니랑 함께 방을 쓰고 있는데 자신만의 방을 갖고 싶다고 하였다.

00이는 위스타트센터 조식제공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 하였고, 계속 참여하길 바랐다.

위스타트 센터 조식이용 사례: 사례 6

00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여아로 키가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컸으며, 아주 조용한 아이였다. 아버지와 조부모, 남동생 다섯식구와 함께 살고 있다. 면접에도 아주 소극적이어서, 질문에 한참 생각하고 대답했으며 목소리도 아주 작았다. 몇몇 질문은 대답을 하지않았다. 면접자가 여러번 반복하여 질문하고 쉽게 질문내용을 설명하여야, 그제서야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평소에 식사를 챙겨주는 사람은 할머니로 매일 하루 세끼를 모두 먹고 있지는 않다. 학교에 가는 날은 위스타트 조식제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할머니가 아침식사를 챙겨주시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센터에 나와서 아침식사를 한다. 센터에 나와서 아침을 먹는 것에 대해 다경이는 모든 것에 만족하였고, 자신에게 무척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도 잘된다고 하였다.

위스타트 조식제공프로그램 외에 미술과 논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미술프로그램은 직접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아한다고 하였다.

노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서 식사는 챙겨먹지 못한 날도 있으며,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주로 굶는다고 한다. 그러나 할머니가 주로 준비해주시며, 다경이가 직접 계란 후라이 같은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다고 하였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로 아침에는 김치와 밥을 먹었고, 점심은 작은 엄마가 주먹밥을 만들어주셔서 먹었다고 한다. 저녁은 밥과 오징어알 반찬을 주 반찬으로 해서 먹었다고 하였다.

소심한 00이는 면접에는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위스타트 조식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였다.

상품권 이용 사례: 사례 7

면접은 청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약 45분간 이루어졌으며 OO는 만나기 힘들고 식품권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아동보다는 보호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엄마와 면접을 하였다.

OO네는 모자가정으로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도우미로 일하시는 엄마는 휴게실에서 면접하는 동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질문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았다.

현재 OO는 학기 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주로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급식지원은 작년 2006년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받았으며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받게 되었다.

식품권은 동사무소에서 2-3개월에 한번씩 통장에게 나누어 주면 통장이 엄마에게 1회에 학기중에는 4만5천원, 방학중에는 12만원 정도의 식품권을 전달하여 주고 있다. 식품권은 재래시장이 육거리 시장에 가서 구매물품에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식품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낙인현상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상점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불친절할 때도 있으나 식당을 지정하는 것보다 마트나 시장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므로 아동이 먹고 싶은 것을 마련할 수 있어 현재 받는 급식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원비라고 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급식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시락보다 상품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므로 상품권으로 지속되기를 요망한다고 하였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점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을 친구들이 알지 못하며 저학년이라 어려서 식품권 지원, 학교 급식 등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적은 없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47세때 지원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해결하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으며 급식 지원받기 전에는 아침, 점심은 엄마가 준비해 주시고 점심과 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지원받았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주로 집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엄마가 밥을 챙겨 주시고 있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이었으며 아침에 콩나물국과 밥, 김치류로 식사하고 점심은 국수와 치즈, 감, 김치류, 저녁엔 콩나물국, 김, 밥, 두부, 김치류로 식사하였으며 간식은 저녁 후에 우유를 마셨고 식사는 엄마가 집에서 챙겨주셨다고 한다.

상품권 이용 사례: 사례 8

면접은 00네 집에서 약 45분간 이루어졌으며 00와 엄마와 함께 면접을 하였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도 높았다.

00네는 양친부모가정으로 형제 수는 3명이고 현재 아빠가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생활이 어려워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 양육자는 엄마이다.

현재 00는 학기 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주로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급식지원은 2005년부터 통장님이 엄마에게 2-3개월에 한번씩 1회 평균 10만원 정도씩 식품권을 전달해 주셔서 급식지원을 받게 되었고 재래시장인 육거리 시장에 가서 주로 닭고치, 만두, 과일 등을 구매해서 먹고 있다. 시장에서 식품권으로 구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며 급식지원이 낙인현상 없이 다른 학생과 동일하게 지급되므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원비라고 하였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급식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법이 가장 좋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을 친구들이 알지 못하며 창피해서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급식 받기 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으며 세 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였다고 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주로 집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주로 엄마가 밥을 챙겨 주시고 있다. 공휴일의 경우 아빠가 병환 중이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야하므로 공휴일에 2회 식사만 하고 있다. 식사로 밥을 먹으며 라면 등은 비만 위험 때문에 엄마가 사다 놓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 일주일 중 아침밥을 굶은 적은 6일이었고 저녁밥은 굶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이었으며 아침에 김이랑 밥, 김치류, 감을 먹었고 점심은 김밥, 저녁엔 밥, 순두부찌개, 계란, 김치류로 식사하였으며 간식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는 치킨팝콘과 슬러시(음료수)를 먹었고 저녁 후 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한다.

식품권 이용 사례: 사례 9

면접은 청주의 한 동사무소에서 약 50분간 이루어졌으며 OO와는 직접 만나기 힘들고 식품권 지원의 경우 아동보다는 보호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엄마와 면접을 하였다.

OO네는 모자가정으로 엄마와 단 둘이서 살고 있으며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아빠는 아파서 고향에 계시고 있는 데 10년간 떨어져 지냈다고 한다. 동사무소에서 임시직으로 봉사 및 청소일을 하시는 엄마가 주 양육자이며 휴게실에서 면접하는 동안 엄마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으며 질문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지 않아 질문과는 다른 대답을 하기도 하고 수급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 거 같았다.

OO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적게 조금만 먹는 편이어서 키와 체중이 평균보다 작아서 왜소하고 몸이 약하다. 그리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라 수업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쉬면서 공부하거나 비즈공예나 별집기 등 만들기를 하며 혼자 지내기를 좋아한다고 했다. 몸이 약해서 학원 다니기 힘들다고 하며 골고루 잘 먹기는 하는데 많이 안 먹는 편이라고 했다.

현재 OO는 학기 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주로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먹고 있었다. 급식지원은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았다고 하며 5학년이 되었을 때 급식지원이 상품권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식품권은 동사무소에서 2-3개월에 한번씩 통장에게 나누어 주면 통장이 엄마에게 1회에 학기중에는 4만5천원, 방학중에는 12만원 정도의 식품권을 전달하여 주고 있다. 식품권은 재래시장이 육거리 시장에 가서 구매물품에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식품권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낙인현상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OO네는 주로 반찬을 많이 사며 OO와 함께 엄마가 시장에 가서 산다고 했다. 일부 식당에서 식품권을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받는지 안받는지를 물어봐야 되서 창피스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농협 물류센터에서 구매할 때보다는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고 불친절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도 도시락 보다는 식품권이 낫다고 대답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먹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 기름, 연료비라고 했으며 현재 받고 있는 급식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반가워하지 않고 불친절해서 창피하지만 먹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급식 지원을 받는 것을 일부 친구들이 알고 있을 수 있으며 솔직하게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편이라 했고 창피하고 그런 적은 없다고 엄마는 대답하였다.

급식 지원 받기 전에 굶은 적은 없으며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먹는다고 하며 하루 세 끼 식사는 몸이 약해서 신경 써서 엄마가 챙겨준다고 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주로 집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우동이나 라면을 직접 해서 먹기도 한다.

지난 일주일 간 엄마가 아침은 꼬박 챙겨주는 편인데 아침에 밥하고 국이랑 해서 1-2순가락 밖에 먹지 않는다고 하며 저녁밥은 매일 먹고 있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이었으며 아침에 만두와 계란으로 식사하고 점심은 햄버거, 저녁엔 밥과 국으로 식사하였으며 간식은 점식과 저녁 사이에 아주 가끔 먹는데 과자나 초코렛 등을 먹으며 과일은 전혀 잘 안 먹는다고 한다.

상품권 이용 사례: 사례 10

면접은 OO네 집에서 약 50분간 이루어졌으며 식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OO와 엄마가 함께 면접을 하였다.

OO네는 현재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상태라서 엄마와 OO,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으며 작년에 아빠 사업이 망하면서 엄마가 아파 쓰러지면서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엄마는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서 생활능력이 없이 아이들 식사와 학교 생활 등을 챙겨주고 있고 생활비는 생계비와 식품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OO는 힘든 상황임에도 상당히 밝고 씩씩하였으며 급식받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했다. 주위에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이 없어서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참여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하였다. 급식 지원을 받은 것은 1-2년 정도 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서 급식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통장을 통해 식품권을 1인당 오만원 정도씩 전달받고 있으며 재래시장인 육걸이 시장에서 음식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도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 OO가 먹고 싶어하는 것 뿐 아니라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구매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식품권으로 받는 것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현재 급식지원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구매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다른 급식서비스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현재 급식지원 받는 것을 친구들은 모른다고 하였으며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불편해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현재 OO는 학기 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주로 집에서 엄마가 챙겨주는 밥이나 라면을 먹고 있었다. 급식지원 받기 전에 굶은 적은 없으면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였다고 했다. 식품권을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일일이 받는지 안받는지 물어봐야 되서 창피스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농협 물류센터에서 구매할 때보다는 조금 사용하기 불편하고 불친절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그래도 도시락 보다는 식품권이 낫다고 대답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원비 지원과 교육서비스 제공이라고 한다.

지난 일주일 간 아침과 저녁을 굶은 적이 한번도 없으며 면접 전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아침에 밥과 반찬으로 식사하고 점심은 라면과 밥, 저녁엔 밥과 반찬으로 식사하였으며 간식

은 점식과 저녁 사이에 떡을 먹었으며 간식은 별로 없다고 대답하였고 과일은 하루에 한개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 우유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지정음식점 이용 사례: 사례 11

본 면접은 불광동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 'L'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OO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언니와 엄마와 함께 사는 모자가정에 속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약속 장소로 나온 OO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색함을 보이지 않고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다. 학교에서 받는 급식과 지정 음식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OO이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만난 거라고 하자 괜찮다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OO이는 현재 주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 급식지원을 받고 있고, 주중 저녁이나 방학 때에는 지역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말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지정음식점 식권지원을 받고 있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유는, 본인은 고기반찬을 싫어하는데 고기반찬이 많이 나오며, 밥도 많이 먹고 싶지 않은데 많이 줘서 불편하다고 했다. 한 마디로 “형편 없어요.”라고 OO이가 말했다.

그러나 지역센터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며 먹을 수 있고, 양도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했다.

지정음식점 식권은 언니가 한 달에 한 번 동사무소에 가서 직접 받아오며 급식지원이 되지 않는 주말 점심이나 저녁에 이용한다고 했다.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토요일에도 직장을 나가시기 때문에 거의 언니와 집에 같이 있으며, 밥과 반찬을 차려 놓고 나가는 날에는 언니가 챙겨줘서 먹거나 언니도 친구집에 가서 없을 때에는 OO이가 직접 차려먹기도 한다고 했다. 딱히 입에 맞는 반찬이 없을 때에는 언니와 함께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김밥천국에 가서 라면이나 김밥을 사 먹는다고 했다. 대부분의 지정음식점 주인들은 친절하게 대해주시나 김밥천국 주인은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불편하다고 했고, 특히 음식이 맛이 없게 나와서 싫다고 했다. 가끔은 애들끼리만 왔다고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며 불편한 점들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식권을 사용해서 햄버거나 치킨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끔은 햄버거나 치킨이 먹고 싶기도 한데 사 먹을 형편이 되지 않아 어렵다고 했다.

아침식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꼭 챙겨주시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서 못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챙겨먹는다고 했다.

면접 전날은 금요일로 학교에서 저녁에 행사가 있었다. 점심까지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이 돼서 영양 측면에서 균형적인 식사를 했으나, 저녁에는 행사 준비 때문에 대충 끼니를 해결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묻자, OO이는 얼굴을 가까이 대며 기다렸다는 듯이 “대학교까지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공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듯 보였다. 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꼭 대학교에도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다짐하는 듯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지정음식점 이용 사례: 사례 12

본 면접은 불광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L'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OO이는 언니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양친부모가정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다. OO이가 수급자로 된 때는 작년에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정음식점 식권에 관련된 사항은 어머니가 아직 OO이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할 때 개선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머니와 다시 면접을 실시하였다. 학교 급식 또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OO이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 또한 만족도와 개선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후에 어머니와 면접을 하며 보충했다.

OO이는 낮을 많이 가리는 편이어서 처음 보는 사람과 쉽게 얘기를 잘 하지 않는다고 했다. 많이 쑥스러운지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에만 잠깐씩 고개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 줬다.

현재 OO이는 주중에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급식 지원이 되지 않는 주말 점심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지원되는 지정음식점 식권을 받고 있었다. 주변에 지역센터가 있어서 주중 저녁에 이용할 수 있지만 엄마가 분위기를 살펴본 결과 OO이의 성격 상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하여 센터는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무료급식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배식을 하기 때문에 먹고 싶은 양 만큼 먹을 수도 있고, 교실에서 배식이 이뤄져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다고 했다.

지정음식점 식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불만스러워 했다. 식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한정되어 있고, 메뉴도 다양하지 못 해서 불편하다고 했다. 더 다양한 음식점에서 식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침 식사는 엄마가 챙겨주시기 때문에 거르는 일이 없다고 했다. 또 주중 저녁에는 엄마가 해 놓고 나가신 밥과 반찬을 언니가 챙겨줘서 같이 먹고, 주말에는 식권을 사용해서 식사를 해결하거나 저녁과 마찬가지로 언니가 챙겨줘서 같이 먹는다고 했다. 가끔 언니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못 챙겨 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본인이 스스로 챙겨먹기도 한다고 했다.

면접을 하기 전 날은 금요일로 학교에서 저녁에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저녁에는

행사 준비로 인해 저녁식사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간단하게 언니, 엄마와 함께 치킨을 사 먹었다고 하며 식권으로도 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얘기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냐는 질문에는 답을 잘 하지 못했다. 나중에 어머니와의 면접 중에 OO이가 천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몸이 매우 약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이기에 의료비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지정음식점 이용 사례: 사례 13

본 면접은 불광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L’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OO이는 동생과 엄마가 함께 사는 모자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이다. 엄마는 한 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집에는 동생과 둘이 있다고 했다.

동생 손을 꼭 잡고 약속 장소에 나온 OO이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낯설어 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냐는 일상적인 질문에 “엄마가 아침에 겨울잠바 꺼내줘서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별로 안 추워요.”라고 성실하게 답해 주었다.

현재 OO이는 주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저녁이나 방학 중에는 지역센터에서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급식 지원이 되지 않는 주말에는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는 지정음식점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무료급식은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누군가 배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뷔페식으로 각자 가져다 먹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반찬 종류는 조금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본인이 젓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젓갈 종류의 반찬이 조금 더 많이 나왔으면 바람이 있다고 했다.

지역센터에서 지원되는 단체급식은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맛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먹어서 더 재미있다고 했다.

지정음식점 식권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의 불만스러운 점을 얘기해 주었다. 다른 곳은 다 괜찮는데 김밥천국 주인은 엄마랑 갈 때랑 동생하고만 갈 때랑 태도가 다르다고 했다. 엄마랑 가면 음식도 빨리 나오고 더 맛있고 친절하지만 동생하고만 가면 음식도 늦게 주고 라면 같은 것도 불어서 나오고 불친절하다고 했다. 또 지정음식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뉴가 한정되어 있어서 햄버거나 치킨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끔 치킨도 먹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지만 사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먹지 못한다고 했다.

면접을 하기 전 날은 금요일로 학교에서 저녁에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점심까지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아서 어느 정도 영양 측면에서 균형적인 식단이었지만, 저녁에는 연습관계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대충 끼니를 해결했다고 했다.

보통 아침식사는 엄마가 챙겨주신다고 했다.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지각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아침을 먹고 나온다고 했다. 평소 엄마가 집에 안 계시는데 급식 지원도 되지 않아 동생과 함께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날에는 엄마가 준비해 주신 밥을 차

려 먹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 식권을 사용해서 중국요리를 시켜 먹거나 나와서 사 먹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더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냐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이 너무 좁다며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주었다. 또 대학교까지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계속 못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춰주었다.

지정음식점 이용 사례: 사례 14

본 면접은 불광동에 있는 패스트푸드점 'L'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OO이는 동생과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양친부모가정이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다. OO이가 수급자로 된 때는 작년에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면서 부터였다. 그 이후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셔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정음식점 식권에 관련된 사항은 어머니가 아직 OO이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할 때 개선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으며 그 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머니와 다시 면접을 실시하였다. 학교 급식 또한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OO이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셔서 그 부분 또한 만족도와 개선점을 중심으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고 부족한 부분은 후에 어머니와 면접을 하며 보충했다.

현재 OO이는 주중 점심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주말을 위한 지정음식점 식권을 지원받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주일에 1-2회 정도 가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하나, 어머니가 살펴보고 단체급식이 맘이 놓이지 않아 급식지원은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은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했다. 가끔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이 나올 때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깨끗하고, 먹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했다.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음식점 식권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더 다양한 종류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특히, 한식집이나 치킨 같은 것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OO이는 이 식권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는 모르고 있었다.)

아침 식사는 엄마가 챙겨주시기 때문에 늦게 일어나서 못 먹지 않는 이상 꼭 먹고 나간다고 했다. 엄마가 계시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해 놓으신 밥과 반찬을 챙겨 먹거나 엄마와 얘기한 후에 식권을 사용하여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 동생과 둘만 있을 때에는 엄마가 위험하니까 배달은 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고 했다.

면접을 하기 전 날은 금요일로 학교에서 저녁에 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저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균형적인 식사를 했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문자 의료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재 이가 모양이 틀어지고 있는데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교정을 해야 하지만 현재 가정 형편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모양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얼굴 전체적인 모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꼭 치료받고 싶다고 하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정음식점 이용 사례: 사례 15

본 면접은 OO이네 집 근처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OO이는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언니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정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였다.

이틀 전에 약속을 했었으나, 약속을 잊고 친구를 데리고 왔으며 집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집 밖 공터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밖에서 얘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미안해하며 면접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내내 밝고 활발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OO이와 나는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OO이는 학교에서는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한 번 지정음식점 식권을 지원받고 있다. 무료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받기 시작했으며, 지정음식점 식권 지원은 작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학교 급식은 담임 선생님이 가정형편을 아시고 알아서 신청해 주신 것이고, 지정음식점 식권은 엄마가 직접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했다.

무료급식에 대한 생각은 그리 좋지 않았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어제 남은 반찬이나 음식 재료들을 오늘 재활용해서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싫고 지저분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래도 지난 번에 급식지원이 한동안 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 때 너무 불편했다고 말하며 차라리 급식지원 받는 것이 귀찮지 않고 편해 좋다고 했다.

지정음식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었다. 한 곳만 제외하고는 음식점 주인들도 매우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좋다고 했다. 그러나 메뉴가 좀 한정적이어서 한식집 식당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식권을 사용 할 때 거스름 돈과 관련해서는 좀 불편하다고 했다. 가격에 맞지 않아 식권을 사용했을 때 돈이 남게 되면 메모를 해 주거나 체크를 해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차라리 돈으로 거슬러 주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식권은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8장만 지급이 된다. 그 외에 무료급식이나 식권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거의 OO이가 직접 차려먹는다고 했다.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은 거의 없고, 만약 집에 마땅히 먹을 것이 없다면 식권을 사용한다든가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해결한다고 했다. 엄마는 직장에 다니셔서 매일 밥 늦게 들어오시고, 언니도 학교에서 늦게 오기 때문에 식사를 거의 혼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불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불편함도 없다고 했다.

가정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있으며, 학원이나 학습지원 받는 것도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면접이 진행되기 전 날은 평일이었고, 학교에서 급식지원도 받는 날이었기에 식단은 대체적으로 영양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짜여진 것 같았다. 하지만 OO이는 평소에도 이렇게 잘 차려먹는다며 “제 등치를 보세요. 굵고는 못 살아요. 꼭 차려 먹어요.”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단체급식 이용사례 사례16

본 면접은 망원동에 위치한 'S'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OO이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고, 트럭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빠의 벌이가 많지 않아 어려운 형편이지만, 할머니 소유의 집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면접자와 잘 알고 지냈던 OO이는 제법 긴 면접 동안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였다.

OO이는 현재 학기 중에는 주중에 저녁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다.

OO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학교에 다녀 온 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편안하게 친구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간식과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으며, 학교 선생님은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는 먹고 싶은 반찬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위생 상태에 관한 질문에 OO이는 “깨끗해요, 사실 밥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특별히 만족하지 않는 건 없어요.”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먹어서 어떤 점이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 OO이는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그 시간에 더 놀 수 있고, 할머니도 저 밥 안 차려줘도 되니까 편하실 것 같아요.”라며 급식이 자신보다 할머니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다 같이 급식을 먹어서 어떤 점이 좋으냐는 질문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재미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기분이 정말 ‘엑스’예요. 할머니는 나랑 같이 안 드시고, 나보다 먼저 드실 때가 먹고, 같이 먹어도 할머니는 재미없어요.” 라고 힘주어 말했다. 급식 먹어서 안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해요. 하지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되요.”라고 괜찮다는 듯 강조해서 말했다가 “선생님이 직접 가져다주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자신도 멋쩍은지 “헤헤”하고 웃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묻자, OO이는 한 동안 생각한 후에 “쌀을 갖다주면 좋을 것 같고... 과일을 좋아하는데, 사과랑 수박 같은 것도 갖다주었으면 좋겠어요. 집에 는 지금 아빠가 팔고 남은 감 밖에 없거든요...”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물으니, 지역아동센터에서 방학 때에도 저녁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였다.

OO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지원 외에도 영어, 댄스, 주산, 체험학습 등의 서비스를 받

고 있었고, 영어와 댄스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00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생활을 매우 만족해하고 있었고, 급식 지원도 그 중에 하나로 여기며, 수치심 같은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체급식 이용사례 사례17

본 면접은 망원동에 위치한 'S'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00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다. 가벼운 장애가 있는 아빠는 오토바이 타고 택배일을 하시고, 엄마도 일을 하셔서 할머니가 00이와 오빠의 끼니를 챙겨주고 있었다.

목소리가 큰 00이는 면접 시간 내내 큰 소리로 잘 대답하였다.

00이는 1년 5개월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받고 있었다.

00이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먹을 때에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서 썰렁한데, 다 같이 급식을 먹어서 가장 좋은 점은 친구들과 재밌게 말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00이는 친한 친구를 여기로 데려다가 같이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싶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여기에서 말을 하면서 먹으면 좋을 것 같다며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에서 여럿이 먹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위생 상태에 관한 질문에 00이는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단체 급식의 안 좋은 점에 관한 질문에 00이는 다른 사람이 배식을 하므로 많거나 적어도 양을 조절하기가 어렵다며 자기가 배식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먹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도시락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서 급식보다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 도시락을 누군가 가져다주면 어떨까 라는 질문에 00이는 누가 도시락을 갖다 준다면, 일단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여기서 먹고, 그 도시락은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골고루 나눠 먹고 싶다고 했다. 누가 식권을 준다고 해도 2장을 달라고 해서 가족 중 한 명과 같이 먹고 싶다며, 가족들이나 다른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00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서비스 외에도 음악치료, 댄스, 미술, 영어, 체험학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체험학습 가는 날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가장 좋다고 했다.

00이 아빠는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간식이랑 저녁도 먹을 수 있으니 다른 학원에 다니게 되더라도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한다.

00이는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은 좋은 일자리 소개라고 대답했다. 현재 아빠는

오토바이로 택배 일을 하시고 엄마만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아빠가 엄마랑 같이 멋진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다.

단체급식 이용사례 사례18

본 면접은 망원동에 위치한 'S'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OO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7살 여동생과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빠듯한 월급으로 4식구가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계셔서 끼니를 잘 챙겨주시는 편이었지만, 엄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에서 밥을 꼭 먹고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급의 회장이라는 OO는 면접 시간 내내 진지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OO이는 1년 10개월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받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메뉴와 질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며, 식사량도 적당하고 많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위생상태 또한 좋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기 때문에 태권도 가기 전에 집에 들려 밥을 먹지 않아도 된다며 여기서는 저녁밥을 꼬박꼬박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또 여기서 여럿이 같이 먹으면 밥 먹는 것이 더 즐겁다고 했다.

반면, 불편한 점은 먹기 싫은 반찬도 먹어야 하고 선생님이 검사를 하실 때는 억지로 먹을 때도 있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하지만, 집에서 잘 안 먹어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영양 면에서는 급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여기서 급식을 받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OO는 지금 받고 있는 급식 서비스 외에 또 다른 추가 서비스를 원하지 않았고, 천천히 여유롭게 집에서 먹는 게 여기에서 조금 급하게 먹는 것보다 마음이 더 편한 것 같다고 했다.

OO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서비스 외에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바이올린, 체험 학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족들과 자주 못 가는 재밌는 곳에 갈 수 있는 체험학습을 가장 좋아했다.

학업 성적이 상위권인 OO는 고액의 사설학원을 보내기 어려워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다. OO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내용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공부하면서 학교공부나 시험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는 물어볼 수가 없는데, 여기

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곳에 다닌 이후로 시험 성적도 조금 올랐다고 수줍은 듯 말했다.

00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학원비라고 대답했다. 지금은 이 곳 외에 태권도만 다니고 있는데, 회비가 8만원이라 다른 곳에 더 다니고 싶어도 엄마가 회비를 부담스러워하신다고 했다. 고학년이 되면 보습 학원에도 다녀보고 싶다고 배움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

단체급식 이용사례 사례19

본 면접은 망원동에 위치한 'S'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0분간 진행되었다.

00이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여자 아이이다. 나이에 비해 큰 체격에 통통한 00이네 가족은 부모님, 중학교에 다니는 언니 2명,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1학년 남동생, 2살짜리 여동생까지 모두 7명이다.

어린 늦둥이를 돌보느라 바쁜 엄마는 집안일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00이와 1학년 남동생이 간식이랑 밥도 주고, 공부까지 시켜주는 지역아동센터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하신다. 그러나 00이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가끔 결석할 때가 있다고 했다.

00이는 1년 8개월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받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상태와 질에는 만족하고 있었으며, 식사량에도 만족하고 있었으나, 가끔 입맛에 맞지 않은 음식이 나와 먹기 거부할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서 먹는 급식이 도움이 되고 있고, 엄마가 집에서 애기를 보시느라 힘드시므로 엄마를 위해서 여기서 먹어야만 할 것 같다며 밥을 어디서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00이는 집에서 먹는 저녁은 주로 둘째 언니가 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며, 나도 같이 도와야 먹을 수 있고 늘 무얼 먹을까 걱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방금 조리한 음식을 여럿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집에서는 언니들이 조용한 편이라 재미가 없다고 덧붙이며, 가끔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먹느라 반찬이식을 때가 있어서 그 점이 안 좋은 점이라고 했다.

여기서 급식을 받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친구들은 내가 이곳에 다니는 것을 잘 모르지만, 알아도 상관없고 괜찮다고 했다.

00이는 급식이 더 좋아지려면 지금보다 음식의 질만 더 높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급식을 하지 않는 다른 날(토·일요일, 방학 중 저녁 식사)에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질문에 00이는 엄마나 언니가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하루 세 끼를 골고루 잘 먹는 편이나 늦잠을 자서 아침을 거를 때가 많다고 했다. 엄마는 주로 국이나 찌개를 해주시고, 언니는 라면이나 볶음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해주는데, 언니가 해 주는 음식은 평소에 잘 안 먹는 음식이어서 더 새롭고 맛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점심은 스스로 차려 먹거나 언니가 준비해주고, 저녁은 엄마가 준비해준다. 가끔 아빠가

일찍 들어오신 날에는 외식을 하기도 한다고 하며, 일요일에는 주로 교회에 가서 먹을 때가 많다고 했다.

00이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비라고 대답했다. 엄마가 막내를 임신했을 때 자궁암이 있었다가 완치되었는데, 엄마가 또 아프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며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원비가 많이 들긴 하겠지만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주신다고 했으니, 도움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단체급식 이용사례 사례20

본 면접은 망원동에 위치한 'S'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되었다.

00이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여자 아이이다. 돌아가신 엄마를 닮았다는 00이는 6학년이지만 160센티미터가 넘는 큰 체격에 잘 웃는 아이였다. 00이네 아버지는 약 2년 전 쯤 집을 나가 시고, 간경화로 엄마도 돌아가셔서 2년 전부터 60세이신 친할머니와 4학년짜리 남동생과 살고 있다.

할머니와 살게 되면서부터 학교에서 무료급식 지원을 받고 있으며 2006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면서 학기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식사를, 방학 중에는 점심식사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 받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상태와 질에는 매우 만족하고 있었으며, 오늘의 메뉴도 기대가 되고, 식사량에도 많거나 부족하지 않고 딱 적당하다고 했다. 양이 부족하면 더 먹을 수 있고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

특히 여기 밥 주시는 분이 있어서 좋고, 할머니가 집에서 번거롭게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집에서 내가 직접 차려 먹으면 귀찮은데, 여기서 밥을 먹으면 편하다고 했다.

단체급식의 좋은 점은 여럿이서 먹을 수 있어서 심심하지 않다는 것이고, 단체급식의 나쁜 점은 없는 것 같으며 급식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집에서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해서 짜증날 때가 있다고 했다.

학교 친구들은 자신이 여기서 밥을 먹는 것을 모르고, 말하지 않았으나 알아도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으며, 방학 중에는 여기서 점심만 주는데, 저녁도 먹을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우유 외에 다른 간식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체육 후에 우유를 먹으면 시원해서 좋지만 우유는 겨울에는 추워서 먹기가 어렵고, 요플레나 초코우유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00이는 급식 외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국어, 영어, 수학, 스포츠 댄스, 미술, 체험학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여름에 2박 3일로 영어 마을에 갔을 때이고, 새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어서 좋았으며 또 가고 싶다고 했다. 00이는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이 학교생활이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만족해 했고, 집에 혼자 있으면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놀기만 하는데 여기 오면 공부를

시켜주어서 좋은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우리 가정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간식비와 학원비, 치료비라고 했다.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가 항상 있다면 밖에서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라 간식을 덜 먹지만, 예전에는 과자를 자주 사 먹었다고 한다. 학원비가 있다면 음악학원에 다니면서 정식으로 플루트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레슨을 받지만, 학원을 다니면 더 열심히 할 것 같다고 했다. 치료비는 혈압이 높고 허리가 아프신 할머니와 아토피가 심한 동생에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주부식 이용사례: 사례 21

본 면접은 아동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속초시 We start센터가 위치하여 센터에서 약 30분간 진행되었다. 사례아동은 또래아동보다 이해능력이 좋은 편이었으며, 면접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례아동은 현재 아버지, 조부모, 형제 총 5명이 함께 살고 있는 부자가정이다. 사례아동의 보호자인 아버지는 건축사이며, 사례아동을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할머니였다. 주부식 지원과 관련한 인터뷰 내용에서도 아동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할머니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였다.

사례아동은 한달에 한번씩 쌀을 지원받고 있으며, 과거에도 명절때에는 민간기관에서 음식지원을 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컴퓨터도 지원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였다.

아동은 양곡 지원받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쌀을 안사도 되니까 돈이 절약된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다. 그러나 쌀에 벌레가 생긴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자신의 집에 쌀이 많아 남고 있으며 그것을 친척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였다.

현재 주부식 지원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하였으나, 쌀은 많으니까 과일, 반찬, 간식도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동은 지난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거의 세끼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는 주로 할머니가 챙겨주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할머니가 안계시면 직접 차려먹기도 하고, 오빠가 챙겨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자신이 직접 차려먹는 다는 것에 자랑스러워 하였다.

면접전날은 일요일로 아침은 간단하게 주먹밥에 된장국을 먹었다고 하였고, 점심은 컵라면으로 간단하게 먹고 WE START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센터에 와서 스파게티를 먹었다고 한다. 저녁은 밥과 된장국 김치를 먹었으며, 다른 밑반찬은 먹었는지 생각안한다고 했다.

현재 우리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도움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을 때, 급식지원을 이야기 하면서 과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음식외에 다른 것도 말해도 된다고 하자 문제집, 학용품, 옷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주부식 이용사례: 사례 22

사례 22 아동은 친인척 집(큰아버지)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현재 큰아버지, 큰 어머니, 사촌 언니, 사촌 언니의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여기로 이사 오기 전 살던 동네에서도 급식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과거에 쌀, 밀반찬, 라면 등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였다.

현재 지원 받는 쌀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된다고 아주 강조하였고, 지금 쌀 양이 적으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자신의 집은 쌀을 아주 많이 먹는다고 절대로 남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본 면접자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지원이 중단될지 모를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에 본 질문에 과민반응하여 의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과 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보였다.

추가로 지원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과일을 원하며 메론, 귤 특히 귤을 꼭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매번 다른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였으면 좋겠다고 대답하며, 계절별 과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면접자에게 그렇게 적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밀반찬, 간식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시 한번 밀반찬은 조금 주어도 간식과 과일을 아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 실사는 할머니가 차려주거나 사촌언니가 차려주며, 토요일은 혼자 먹는다고 하였다. 혼자 먹을 때는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먹기도 한다며, 자신이 할줄 아는 요리를 면접자에게 알려주었다. 면접자가 요리방법을 물으니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 대체적으로 매일 꼬박 세끼 식사를 한다고 하였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로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밀반찬과 밥을 먹었으며, 점심에는 성당에서 뷔페로 떡, 국수, 아이스크림, 떡볶이 등 여러 가지 많이 먹었다고 하였다. 어제 위스타트 행사가 있어서 센터에 와서 스파게티를 또 먹었다고 하였다.

쌀 지원 외에 가족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밀반찬, 문제집, 학용품, 옷 등을 이야기하다가 그냥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쌀 이외에 다른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주부식 이용사례: 사례 23

사례23 아동은 할머니와 함께 동생과 셋이 사는 조손가정으로 할머니는 일이 있을 때만 밭일을 나가신다고 하였다. 면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아주 많이 말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이해력은 보통 수준이어서 질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

사례 23은 1학년 때 동사무소에서 찾아와서 급식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현재 약 4년간 급식지원을 받고 있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보낸 것인지 확실하지 모르지만 밀반찬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현재 급식지원이 도움이 자신의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쌀 외에 추가로 지원받고 싶은 것은 밀반찬과 과일 등을 이야기했으며, 음식 외에 다른 것도 이야기해도 되냐고 면접자에게 먼저 물은 후 다양한 용품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다. 전기밥솥을 살려고 할머니가 돈을 모으시는데, 전기밥솥도 주었으면 좋겠고, 할머니가 입을 두꺼운 잠바도 있었으면 좋겠으며 생활용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며 우선 할머니가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면접자가 아동이 직접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하니, 그냥 옷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쌀 지원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양이 적으니까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양을 늘리는 것을 강조하였고,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급식 지원에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 먹는 것이 생겨서 그냥 좋다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평소 식생활은 매일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먹어서 굶는 날은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면접자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의 식사에 대해 묻자 할머니가 챙겨주신다고 대답한 후, 할머니가 허리 아프실 때는 잘 안 먹는다고 대답하였다. 아동의 응답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면접 전날은 일요일로 아침은 먹지 못하였고, 점심은 교회에서 준 음식을 먹었으며 저녁은 가지볶음과 김치와 밥을 먹었다고 대답하였다. 이를 통해서도 아동의 식사가 규칙적이지 못하며, 이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부식 이용사례: 사례 24

사례24 아동은 조부모와 형제 없이 혼자 살고 있었으며, 보호자인 할아버지의 직업은 어부이다. 면접에 대해 조금 당황스러워 하였고, 질문내용을 조금 이해 못하기도 하였으며, 면접시간이 지날수록 면접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나 면접 내용 중에서 자신의 욕구와 관련된 것은 비교적 다른 질문들보다 적극적으로 대답하였다.

처음 급식지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동은 잘 모르고 있었으며, 쌀 지원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 하였다. 쌀 지원이 현재 도움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그냥 먹는 것이 생겨서 좋다고 간단하게 대답하였다.

쌀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었으면 하는 내용에는 반찬을 이야기 하였으며, 꼭 집에서 배달 받지 않아도 되면 직접 사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특히 간식을 사먹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쌀도 주고 다른 먹을 것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생활용품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추가로 지원되기 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했으나, 쌀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강조하였다.

평소 식사는 할아버지가 챙겨주시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 세끼 식 모두 식사한다고 하였다. 면접 전날인 일요일에 먹은 음식은 아침은 생각이 안 나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배를 먹었다고 했다. 점심도 먹지 않으며, 저녁은 고기반찬을 먹었다고 하였는데 자신 없이 대답하였다. 아동이 식사내용에는 무척 수동적으로 대답하였으며, 조금 예민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의 인터뷰에 소극적이라 인터뷰는 짧게 끝났고, 인터뷰가 끝나자 황급히 나갔다.

도시락 이용사례: 사례 25

본 면접은 OO이네 집에서 약 40분간 이뤄졌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OO이네는 엄마, 형과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정이다. 엄마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권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낯선 사람과의 첫 만남임에도 OO이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반갑게 인사도 해 주고, 모자를 쓰고 나오며 왜 모자를 쓰고 있는지 설명도 해주고, 환하게 웃으며 면접 시간 내내 성실하게 질문에 대한 답도 해 주었다. OO이와 나는 얘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무료급식(학기 중 점심만)을 받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이고,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2006년도 초이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때 당시에는 도시락이 아닌 상품권을 받았다고 한다. 한 달에 9만원씩 마트 상품권이 나오면 그 것으로 부식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지원 되던 것이 2006년 9월부터는 도시락(일주일에 5일)으로 지원되었고, 입에 맞지 않아 많이 버릴 수 밖에 없게 되어 2007년 8월부터는 밀반찬만 일주일에 2번씩 받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급식위원회를 결성하여 돌아가면서 감독을 나오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이나, 메뉴 같은 부분 모두 만족스럽다고 했다. 또 급식지원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지 않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밀반찬 배달과 관련해서는 만족스럽기는 하나, 싫어하는 반찬이 가끔 나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다.

현재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간식이라고 했다. 과자나 빵 같은 간식거리가 여유 있어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식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서 특별히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고, 무료급식지원의 장점으로는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편하다고 했다. 또 무료급식에 대해 별로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며 친구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안다고 해서 기분 나쁠 것은 없다고 했다. 오히려 자신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했다.

지원되는 급식서비스로 인해 학교에 가는 날은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을 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저녁에는 거의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엄마가 준비해 놓은 반찬과 밥을 혼자 챙겨서 먹는다고 했다. 가끔 입맛에 맞는 반찬이 없을 때에는 굶기도 한다고 했다. 혼자 있는 이유는, 엄마는 회사에 나가시고 형은 청소년 수련관에 가기 때문이다. OO이가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근처에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고 만약에 받기를 원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복지관에 가야만 한다고 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엄마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했다.

아침은 엄마가 챙겨주시기 때문에 굶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저녁은 가끔 맛있는 것이 없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거르기도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면접이 이뤄진 날은 일요일이었고 전 날은 노는 토요일이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먹은 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아침에는 밥과 부대찌개, 점심에는 생선구이, 저녁에는 짜파게티를 먹었고, 간식으로는 오전에 빵피젤을 먹었다고 했다. 집에 간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식은 거의 먹지 못한다고 덧 붙였다.

도시락 이용사례: 사례 26

면접은 OO이네 집에서 약 35분간 이뤄졌다.

OO이는 형제가 없으며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조손가정이었다. 할머니께서는 근로 능력이 없어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며 최소한의 수고비를 받으신다고 했고 그렇기에 OO이는 수급권 대상자였다.

현재 OO이가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는 학기 중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지원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저녁에 제공되는 도시락 배달이었다.

도시락 배달을 받게 된 것은 지난 7월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신청을 했다고 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고 찍힌 주머니에 담겨져 배달되는 도시락은 봉사자를 통해 배달되고 하교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배달해 주시는 분과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고 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서비스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위생적인 면에서도 깨끗하여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전혀 없다고 했다. 도시락 배달도 반찬이 4가지가 오고, 메뉴도 다양하며 입맛에 맞아 아주 만족스럽다고 했다.

가정에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용돈이라고 했다. 현재 지원되는 수급비로는 학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용돈이 넉넉지 않아 이롭다고 했다. 원래는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방과 후 교실을 다녔으나, 거리도 너무 멀고 아이들 대비 교사 비율이 적어 배우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학원을 등록하여 다니게 됐는데 학원비가 그리 싼 편이 아니라 지원되는 수급비로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했다.

급식 지원 받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 비밀스럽게 잘 해주셔서 친구들은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알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했다.

급식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할머니께서 식사를 챙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아침에 일찍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했다.

면접 전날은 노는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까지 자느라고 아침식사를 하지 못했으며 늦게 일어나 점심에 밥과 햄, 젓갈을 먹었다고 했다. 저녁엔 고구마와 우유를 먹었는데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배가 별로 안 곱은 날이었고 딱히 밥을 대신해 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고 덧붙여 말해주었다.

도시락 이용사례: 사례 27

본 면접은 OO이네 집에서 약 40분간 이뤄졌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OO이는 엄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모자가정이다. 엄마가 회사에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권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다.

처음 집에 들어가자, 인사만 하고 텔레비전에 집중을 했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이런 조사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하자며 단 둘이 앉아 얘기를 나누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실하게 답을 잘 해주었다.

현재 OO이가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는 학기 중 점심에 학교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과 학기 중 저녁과 방학 중 점심과 저녁이 제공되는 수련관에서의 단체 급식,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제공되는 밑반찬배달이다. 이런 급식지원 서비스 말고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방과후 교실을 통해 특기적성과 학습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다.

학교 무료급식지원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터이다.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은 2006년도 초이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어머니가 직접 동사무소에 찾아가 사정을 하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때 당시에는 도시락이 아닌 상품권을 받았다고 한다. 한 달에 9만원씩 마트 상품권이 나오면 그 것으로 부식을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렇게 지원 되던 것이 2006년 9월부터는 도시락(일주일에 5일)으로 지원되었고, 입에 맞지 않아 많이 버릴 수 밖에 없게 되어 2007년 8월부터는 부식만 일주일에 2번씩 받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청소년 수련관은 6학년 때부터 다녔고, 단체 급식도 그 때부터 제공을 받게 된 것이다.

청소년 수련관에서 받고 있는 급식서비스는 현재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별 다르게 할 말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부식배달 서비스는 반찬 종류가 맘에 안 든다고 했다. 한 번 배달될 때 4가지 종류의 반찬이 오는데 일주일에 한 두 번은 배추김치, 깍두기가 같이 와서 싫을 때가 있다고 했다. 김치 종류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했다. 그 전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 급식 얘기가 나오니 말을 쉬지 않고 했다. 먼저, 초등학교 5년 동안 입맛이 길들여져서 중학교 급식이 입맛에 맞지 않고, 맛도 훨씬 없다고 했다. 제공되는 양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으나 배식해 주시는 분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많이 달라고 해도 조금만 주신다고 했다. 또 급식지원에 있어서 문제가 조금 생겨 1학기 때 한 동안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때 당시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 오고 무료급식 대상자 아이들은 한 교실에 모여 밥을 시켜먹었다고 했다. 하지만 메뉴의 선택권

은 없었고 선생님이 시켜주는 것을 먹어야 했으며, 따로 한 교실에 모여 먹는 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현재 다시 급식이 이뤄져서 급식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지금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용돈 지원과 문화상품권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친구들과 가끔은 영화도 보고 싶은데 여의치 않다고 했고, 책도 읽고 싶은 것이 많은데 살 형편이 되지 않아 문화상품권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급식지원서비스를 받아 좋게 느껴지는 것은 본인은 딱히 없고 그냥 엄마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라고 했다.

친구들이 무료급식에 대해 잘 모르나 가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알게 되어 와서 물어본다고 했다. 친구들이 “너는 왜 돈 안내고 무료로 지원받아?”라고 물어보면 OO이는 “그럼, 너도 신청해서 무료로 지원받든가”라고 답한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알아도 별 상관 없다고 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은 거의 없고 먹기 싫거나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가끔 있다고 했다. 급식지원을 받지 않는 날에는 만약 수련관이 오픈을 하면 그 곳에서 밥을 먹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엄마가 학교 쉬는 날은 회사도 쉬어서 밥을 챙겨주신다고 했다.

평소에도 아침은 엄마가, 저녁은 수련관에서 챙겨 먹기 때문에 굶은 적은 없다고 했다.

면접은 일요일에 실시되었으니 전 날은 토요일(노는 토요일).

식사 메뉴를 정리해 보면, 아침은 늦게 일어나 굶고 점심 먹기 전에 바나나를 먹었다고 한다. 점심에는 교회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었고 간식으로 빵과 요쿠르트를 먹었다고 했다. 저녁은 집에서 짜파게티를 먹었다고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일과 젤리를 먹었다고 했다.

도시락 이용사례: 사례 28

면접은 OO네 집에서 약 35분간 이뤄졌다.

OO네는 부자가정으로 오빠와 아빠가 같이 산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다.

집에 들어서자 반갑게 인사해 주었고, 면접하는 동안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며 집중해 주었다. 그러나 평소에 급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본적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 OO는 학기 중 점심에는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저녁에 도시락 배달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급식 지원서비스 외에 사회복지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영어과외를 받고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급식서비스는 받았고 도시락 배달은 1년 정도 됐다고 했다. 학교 급식은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 받게 되었고, 도시락 배달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 주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도시락은 일주일에 5번 플라스틱 도시락 통에 넣어져서 배달이 된다고 했다. 오늘 받은 도시락은 내일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2개의 도시락통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었다. 학교 시간과 배달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거의 집 앞에서 마주칠 일은 없고 가끔 마주치게 되어도 그냥 지나친다고 했다. 즉 배달해 주시는 분과 OO는 도시락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했다.

학교에서 지원되는 급식서비스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메뉴도 다양하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시락배달은 맛이 없어서 별로라고 말했다.

학교무료급식지원에 대해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 친구들은 모른다고 했다.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이 알 방법은 없다고 했고, 그렇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급식지원이나 도시락 배달이 없는 공휴일에는 아빠가 식사를 챙겨주시고 굶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가장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상품권 지원을 받고 싶다고 했다.

면접을 실시 하기 전 날 식사메뉴를 정리해 보면, 아침에는 잔치국수를 만들어 먹었고, 점심에는 간단하게 김밥을 먹었다고 했다. 저녁에는 닭고기와 밥을 먹었고 저녁 식사 전에 도넛츠를 간식으로 먹었다고 했다.

도시락 이용사례: 사례 29

면접은 OO이네 집에서 약 35분간 이뤄졌다.

OO이네는 부자가정으로 여동생과 아빠가 같이 산다. 아빠가 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수급권자로 지원을 받고 있었다.

OO이는 면접시간 내내 거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물어보면 그 때서야 잠깐 고개를 들어 생각하다가 아주 짧게 대답해 주곤 했다.

OO이는 현재 학교에서 학기 중에만 점심에 무료급식지원을 받고 있었고,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저녁에 도시락배달을 받고 있었다. 학교에서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지금 다니는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도시락도 1년 정도 배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 하고 있었다. 주방과 식당의 위치가 달라 주방까지는 볼 수 없지만 식당은 항상 깨끗하다고 했으며, 메뉴도 다양하고 양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고 했다. 도시락 배달은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했다. 특별히 싫은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아 답을 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했다.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친구들은 모른다고 했고, 선생님께서 말하지 않는 이상 친구들이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가정에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문화상품권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교재 값이 비싸고, 영화도 가끔 보고 싶은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고 했다.

급식지원을 받지 않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아빠가 식사를 챙겨주시고, 교회에 가는 날은 교회에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했다.

그래서 굶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가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시간이 없어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있다고 했다.

면접 전 날 먹었던 메뉴를 정리해 보면, 아침에는 아시는 분이 사 주셔서 밖에서 돈까스를 먹었고, 점심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 건너뛰었다가 저녁 전에 도너츠를 먹었다고 했다. 저녁에는 닭고기와 밥을 먹었고 그 이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았다고 했다.

유형	조사구번호	응답자 번호

전국 아동·청소년 급식 및 영양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급식 및 영양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지원제도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 여러분께서는 급식지원을 받으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향후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수립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어 아동·청소년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응답하는 모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오니 모든 설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

담당자 : 김미숙 연구위원 02-380-8144 mskim@kihasa.re.kr

홍 미 연구원 02-380-8113 mhong@kihasa.re.kr

김효진 연구원 02-380-8240 hjkim@kihasa.re.kr

팩 스 : 384-3084

아 동	성 명	연락처
지역아동센터 명		
주 소	_____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조 사 원	성 명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수업시간 중 수업에 집중이 잘 되는 편인가요?

- ① 전혀 되지 않는다 ② 잘 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잘되는 편이다 ⑤ 매우 잘 된다

4.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떠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한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다

5. 현재 아픈 데가 있나요? 어디가 불편한가요? (질병명 또는 불편한 부위 모두 표시)

- ① 아픈데 없다 ① 감기/호흡기 질환 ② 두통/어지러움증 ③ 치아/잇몸질환
④ 시력약화 ⑤ 눈병 ⑥ 소화불량/기능약화
⑦ 장염/설사 ⑧ 빈혈 ⑨ 기타_____

III. 다음은 여러분의 식사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평소 하루에 보통 몇 번 식사를 하나요?

- ① 1번 ② 2번 ③ 3번(아침, 점심, 저녁) ④ 3번 이상

2. 지난 1년간 평균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식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빈칸에 적어주세요.

A. 아침식사	2-1. _____	① 거의 먹지 않았다 ② 일주일에 1~2번 먹었다 ③ 일주일에 3~4번 먹었다 ④ 매일 먹었다
B. 점심식사	2-2. _____	
C. 저녁식사	2-3. _____	

3. 학생의 식사시간은 어느 정도 규칙적인가요?

- ① 매우 불규칙하다 ② 불규칙한 편이다 ③ 규칙적인 편이다 ④ 매우 규칙적이다

4. 평소 아침식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4-1. 주로 먹는 아침식사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밥(과 국) ③ 빵(과 우유) ④ 라면 등 면류
⑤ 햄버거, 피자 등 ⑥ 시리얼과 우유 ⑦ 과자류
⑧ 기타 (무엇: _____)

4-2. 아침식사는 주로 누가 준비해 주나요? (하나만 선택)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⑥ 기타 친척이나 아는 사람 (누구: _____) ⑦ 내가 직접 준비한다
⑧ 급식지원 받는다 ⑨ 거의 먹지 않는다

4-3. 아침식사를 잘 먹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아침을 꼭 먹는다 ① 음식이 없어서
② 식욕이 없어서 ③ 반찬이 없어서

- ④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⑤ 혼자 먹기 싫어서
- ⑥ 시간이 없어서 ⑦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려고)
- ⑧ 습관이 되어 ⑨ 몸이 아파서
- ⑩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4-4. 아침을 굶는 경우 점심식사(학교급식 등) 전에 간식을 하거나 요기를 때우는 적이 있나요?
 ① 없다 (→질문 5) ② 가끔 있다(→질문 4-4-1) ③ 자주 있다 (→질문 4-4-1)

4-4-1. 그러면 간식으로 주로 어떤 것을 먹나요?

간식: _____

5. 평소 저녁식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5-1. 주로 먹는 저녁식사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 ① 거의 먹지 않는다 ② 밥(과 국, 반찬) ③ 빵(과 우유) ④ 라면 등 면류
- ⑤ 햄버거, 피자 등 ⑥ 떡볶이, 고추류 ⑦ 과자류 ⑧ 중국음식
- ⑨ 기타 (무엇: _____)

5-2. 저녁식사는 주로 누가 준비해 주나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 ⑥ 기타 친척이나 아는 사람 (누구: _____) ⑦ 내가 직접 준비한다
- ⑧ 급식지원을 받는다 ⑨ 거의 먹지 않는다

5-3. 저녁식사를 잘 먹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저녁을 꼭 먹는다 ① 음식이 없어서
- ② 식욕이 없어서 ③ 반찬이 없어서
- ④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⑤ 혼자 먹기 싫어서
- ⑥ 시간이 없어서 ⑦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려고)
- ⑧ 습관이 되어 ⑨ 몸이 아파서
- ⑩ 오후 간식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⑪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6. 부모님이나 주로 함께하는 보호자가 학생의 식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는 편이다
- ③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④ 매우 관심이 있다

7. 집에 있을 때 자신을 주로 돌봐주는 어른이 식사를 얼마나 자주 준비해 주나요?

- ① 전혀 준비해 주지 않는다 ② 가끔 준비해 준다
- ③ 자주 준비해 준다 ④ 항상 준비해 준다 ⑤ 돌봐주는 어른이 없다.

8. 평소 아침과 저녁 식사는 가족(가족 중 한사람이라도)과 함께 하나요?

8-1	아침식사	① 함께 먹는다 ② 혼자 먹는다 ③기타()
8-2	저녁식사	① 함께 먹는다 ② 혼자 먹는다 ③기타()

IV. 다음은 여러분의 영양섭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식품들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 편입니까? 해당 번호에 V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많이 먹는 종류도 써주세요.

식품 및 음식명	섭취빈도			일주일			한달		1년	⑩ 거의 안 먹음	많이 먹는 종류
	① 3회 이상	② 2회	③ 1회	④ 4~6 회	⑤ 2~3 회	⑥ 1회	⑦ 2~3 회	⑧ 1회	⑨ 6~11회		
1. 밥(흰밥, 잡곡밥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라면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빵/떡/케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과자/스낵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생선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야채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과일 또는 과일쥬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우유 및 유제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밀반찬, 젓갈, 장아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튀김, 볶음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과일 탄산음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불량식품 (비위생적이거나 무허가 식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가장 자주 먹는 간식의 종류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과자나 스낵류 ② 빵과 케익류 ③ 라면
 ④ 과일 또는 과일쥬스 ⑤ 우유 또는 유제품 ⑥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과일탄산음료 등)
 ⑦ 초콜릿, 사탕 ⑧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⑩ 기타_____

2. 현재 제공되는 급식방법별로 식사메뉴와 질, 식사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번호를 적어주세요. 본인이 해당되는 급식방법에 대해서만 응답하면 됩니다.

급식 방법	2-1. 식사메뉴와 질에 만족하나요?		2-2.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2-3. 제공되는 밥과 반찬 양에 만족하나요?		2-4. 충분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① 매우불만족 ② 약간불만족 ③ 만족한 편 ④ 매우 만족	→질문 2-2 →질문 2-3	① 맛이 없다 ② 메뉴가 다양하지 않다 ③ 싫어하는 음식이 많다 ④ 간이 맞지 않다 ⑤ 싼 재료를 사용한다 ⑥ 기타()	① 지원받지 않음	① 매우불만족 ② 약간불만족 ③ 만족한 편 ④ 매우 만족	→질문 2-4 →질문 3	① 밥이 부족 ② 반찬이 부족 ③ 밥 반찬 모두 부족 ④ 기타()	
A. 무료 학교급식	2-1-A. _____		2-2-A. _____		2-3-A. _____		2-4-A. _____	
B.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단체급식	2-1-B. _____		2-2-B. _____		2-3-B. _____		2-4-B. _____	
C. 지정식당 또는 일반음식점(식권)	2-1-C. _____		2-2-C. _____		2-3-D. _____		2-4-D. _____	
D. 도시락 배달	2-1-D. _____		2-2-D. _____		2-3-D. _____		2-4-D. _____	
E. 밀반찬 배달	2-1-E. _____		2-2-E. _____		2-3-E. _____		2-4-D. _____	
F. 기타()	2-1-F. _____		2-2-F. _____		2-3-F. _____		2-4-F. _____	



3. 현재 지원받고 있는 급식의 위생상태에 만족하나요?

- ①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한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조사원 : 질문 VI-2에 해당하는 칸(급식방법)만 <보기>에서 찾아서 기재

4. 현재 학생이 급식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알고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4-1. 급식 지원받는 것을 친구가 모르길 원하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③ 상관없다 ④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다

5. 급식지원을 받을 때 느낌은 어떠한가요?

- ① 특별한 느낌 없다 ② 감사하다 ③ 부끄럽다 ④ 화가 난다 ⑤ 짜증난다

6. 급식과 함께 현재 제공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음
 ①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②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방문
 ③ 심리, 언어, 놀이치료 등 ④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⑤ 견학, 방문 등 1일 집단 활동 ⑥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⑦ 학습지원 프로그램 ⑧ 기타 (무엇:_____)

7. 요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하고 싶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8.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참여하고 싶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조사원

- 질문 9~10번은 단체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만 질문할 것

※ 질문 9~10번은 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등 일정 장소에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만 대답해주세요.

9. 현재 급식지원 받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질문 9-1)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질문 9-1)
③ 대체로 만족한다(→질문 10) ④ 매우 만족한다(→질문 10)

9-1.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현재 급식 지원 받고 있는 장소는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나요? (학교급식 제외)

- ① 집에서 걸어서 10분내에 도착 ② 집에서 걸어서 20분내에 도착
③ 집에서 걸어서 30분내에 도착 ④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함 ⑤ 기타 (_____)

※조사원

※ 질문 11~12번은 도시락 배달이나 음식을 재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만 대답해주세요. 질문할 것
~~※ 질문 11~12번은 가정으로 음식 또는 식재료 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만 질문할 것~~

11. 현재 도시락 배달이나 식재료를 지원 받고 있다면 다른 가족과 같이 나누어 먹고 있나요?

- ① 예 (→질문 11-1) ② 아니오 (→질문 11-2)

11-1. 누구와 급식을 나누어 먹고 있나요?

- ① 부모님 ② 할머니·할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척 ⑤ 기타(_____)

12. 지금 받고 있는 급식을 다른 가족과 같이 먹기를 바라나요?

- ① 예 (→질문 12-1) ② 아니오 (→조사표 p.8 VIII)

12-1. 그러면 누구와 급식을 나누기를 원하나요?

- ① 부모님 ② 할머니·할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척 ⑤ 기타(_____)

VII.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라 생각하나요?
 ① 친구가 별로 없다 ② 친한 친구가 조금 있다
 ③ 친구가 많은 편이다 ④ 친구가 아주 많다(인기가 좋다).
2. 여러분의 학업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아주 못함 ② 보통 이하 ③ 보통 ④ 잘함 ④ 아주 잘함

VIII.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1.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정도에 V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8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9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현재 자신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V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때때로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항상 서로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훈육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 내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가족에서는 식구 모두가 가장(지도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끼리 더 가깝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은 차별(상, 별)에 대해 함께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밀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가족에서는 자녀들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가족은 함께 하는 활동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가족에서는 규칙(규율)이 바뀌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가족에서는 가사 일에 대한 책임이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할 때 집안 식구들과 상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가족에서는 가장(지도자)이 누구라고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19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가족에서는 누가 가사 일을 하는지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IX. 다음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2. 학 년	①초등학교 _____학년 ②중학교 _____학년 ③고등학교 _____학년
3.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4. 나를 포함하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는 총 몇 명인가요? _____명

4-1.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 또는 오빠
 ⑥ 누나 또는 언니 ⑦ 남동생 ⑧ 여동생 ⑨ 기타 친척(_____)

4-2. 함께 살고 있는 형제나 자매는 몇 명인가요?

- ① 없다(외동아) ② 1명 ③ 2명 ④ 3명 ⑤ 4명이상

5. 현재 가족의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 ① 양부모가정 ②모자가정 ③ 부자가정 ④ 조손가정
 ⑤ 세쌍가정(소년소녀가정) ⑥ 다문화가정 ⑦기타 (_____)

6. 주로 돌봐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 ⑥ 기타 친척 _____

6-1. 보호자(주로 돌봐주는 어른)의 학력은 어떻게 되나요?

- ① 무학 ② 초등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초대/대졸/중퇴 ⑥ 대학원 이상

6-2. 보호자(주로 돌봐주는 어른)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노동근로직 ④ 자영업 ⑤ 판매/서비스직
 ⑥ 농어업 ⑦ 무직 ⑧ 주부 ⑨ 학생 ⑩ 기타(_____)

6-3. 보호자(주양육자)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요?

- ① 전혀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7. 가족의 한달 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나요(세금 포함)?

- ① 50만원 미만 ② 50-100만원 미만 ③ 100-200만원 미만
 ④ 200-300만원 미만 ⑤ 300-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 이상

설문에 응답해 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8. 현재 우리 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나요?

- ① 아니오 ② 예 ③ 모른다 ④ 기타(예: 차상위계층)_____

※ 조사원 : 질문 5와 8번은

-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 조사인 경우 센터 담당자에게 질문할 것

- 가구 조사인 경우 아동에게 직접 질문할 것

Region		ID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로 「빈곤층 아동급식지원제도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의 실태를 파악하고 급식지원제도의 정책상·운영상 미비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지자체별 현황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견은 급식제도 개선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10분간만 시간을 내 주셔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 조사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김미숙 연구위원 (02-380-8144, mskim@kihasa.re.kr)

홍미 연구원 (02-380-8113, mhong@kihasa.re.kr)

김호진 연구원 (02-380-8240, hjkim@kihasa.re.kr)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 42-14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

팩스 : 02-384-3084

아래에 귀하의 주소와 성함 및 연락처를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시도/시군구)			
아동급식 담당자 성함		연락처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명단으로부터 귀하의 담당 지역에서는 급식지원 아동을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① 방문조사 ② 전화조사 ③ 주위 추천 ④ 기타(_____)
2. 귀 지역(읍면동 포함)에서 급식 대상아동을 선정하는데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대상아동 선정기준의 불명확 ② 읍면동의 협조 부족
③ 인력 또는 시간부족 ④ 예산부족
⑤ 아동 및 가족의 비협조 ⑥ 기타(_____)
3.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선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이 대상아동 선정기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급식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모두에게 급식지원
- 학기 중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명단 통보)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학교교사, 민간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등의 아동관련 민간관계자가 추천하는 자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4. 위의 복지부지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선정기준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문 4-1로) ↓ ② 없다 (문 5로)

4-1. 만약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십니까?

5. 담당지역 내에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아동에 모든 결식아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이유는? _____)
6. 교육청 통보인원 외에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로서 지역 내에서 급식지원 대상아동을 발견하게 되는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② 이웃의 신고
③ 학교장(담임교사), 통장, 반장, 이장, 아동위원을 통해
④ 읍면동 방문 및 면담을 통해 ⑤ 기타 (_____)
7. 지역 내에서 신규 급식 대상 아동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인력부족 ② 예산부족 ③ 관련기관 간 협조부족 ④ 기타 (_____)

II. 다음은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종결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 종결기준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문 1-1로) ↓ ② 없다 (문 2로)

1-1. 있다면 종결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전출 ② 가정경제회복 ③ 수급자(보호자)의 거부
④ 수급자(아동)의 성장/진학/취업 ⑤ 가족재결합
⑥ 수급자(아동)의 거부 ⑦ 행정적 이유 ⑧ 기타 (_____)

2. 급식지원이 중단된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시나요?

- ① 사후관리 함 (문 2-1로) ↓ ② 사후관리하지 못함 (문 III-1로)

2-1. 사후관리를 하고 계시다면 사후관리 서비스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전화상담 ② 가정방문 ③ 기타 (_____)

III.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급식지원하고 있는 아동의 1인당 급식단가는 얼마입니까?

- ① 3,000원 ② 3,500원 ③ 4,000원 ④기타 (_____)

2. 현재 아동 1인당 급식단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이유는? _____)

3. 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단체급식 ② 식품권 ③ 도시락 ④ 주부식 ⑤ 식품권
⑥ 기타 (_____)

4. 그 급식 지원방법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현재 아동급식 지원방법별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법별로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방법	번호	<보기>
1) 사회복지관		① 없음
2) 지역아동센터		① 인력부족
3) 기타 급식소		② 예산부족
4) 일반음식점(지정 식당)		③ 음식의 질 미흡
5) 도시락		④ 위생미흡
6) 주부식		⑤ 오남용의 소지
7) 식품권		⑥ 이용 상의 불편(거리, 비용, 요리 등)
8) 기타 ()		⑦ 기타

6. 현재 담당하시는 지역 내의 아동급식 지원방법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달기관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임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학교	①	②	③	④	⑤
2)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아동센터	①	②	③	④	⑤
4) 급식단체(업체)	①	②	③	④	⑤
5) 일반음식점	①	②	③	④	⑤
6) 도시락 배달처	①	②	③	④	⑤
7) 기타()	①	②	③	④	⑤

13. 현재 아동급식비에 사용하시는 연간 예산액을 항목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금액
1) 국비	
2) 시도비	
3) 시군구비(자체비용)	
4) 후원금	
5) 기타	
총 액	

IV. 이번에는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 항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임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현행 아동급식제도가 아동결식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지역 내 결식아동수가 감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지원대상 아동들의 지원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현행 아동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규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1. 적절하지 않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다		② 너무 적다		
6. 아동급식사업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아동급식 지원사업의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제도에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급식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읍면동 담당공무원 과의 업무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 과의 협력관계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위한 관련조직(식당, 수퍼마켓,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간 연계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1. 그렇지 않다면 어느 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_____				

13. 현행 급식지원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대상자 선정방법 모호 ② 급식단가 등 소요자원 부족
 ③ 담당인력 부족 ④ 아동급식 지원방법 선정상 어려움
 ⑤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이원화 ⑥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등 영양관리 부족
 ⑦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부족 ⑧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부족
 ⑨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부족 ⑩ 아동급식의 오남용
 ⑪ 기타 (_____)

14. 현재 아동급식 지원제도 전반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②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③ 담당인력 확충 ④ 예산증액 ⑤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
 ⑥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⑦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
 ⑧ 기타 (_____)

15. 그동안 아동급식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점을 토대로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 사항에 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만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직렬은? ① 일반행정직 ② 사회복지직 ③ 기타 (_____)
 4.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총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5. 귀하께서 아동급식 지원사업을 담당하신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 급식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고 계신지 각각의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	()원
교육청	()원
사회복지공동모금	()원
후원·결연금	()원
자체 부담금	()원
사회단체 지원금	()원
기타()	()원
계	()원

6. 현재 귀 기관에는 급식담당 직원(정규직, 계약직)이 있습니까?

- ① 예 (문 6-1로) ↓ ② 아니오 (문 7로)

6-1. 급식담당 직원의 업무량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급식업무를 위해 외부 인력(자원봉사 등)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8. 귀 기관에서 식단은 주로 어떻게 만드십니까?

- ① 영양사가 작성 ② 아동선호에 따라 작성
 ③ 부모의견에 따라 작성 ④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⑤ 기타()

9. 귀 기관의 아동의 성장발육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비만 ② 저체중 ③ 양호함 ④ 기타()

10. 급식제도 운영 시 지역사회와 다음 기관과의 연계(네트워크)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사항에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①전혀 아니다	②아니다	③보통임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연계 시 주요업무내용
1) 구청	①	②	③	④	⑤	
2) 동사무소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①	②	③	④	⑤	
4) 자원봉사단체	①	②	③	④	⑤	
5) 사회단체	①	②	③	④	⑤	
6) 종교기관	①	②	③	④	⑤	
7) 푸드뱅크	①	②	③	④	⑤	
8) 일반음식점	①	②	③	④	⑤	
9) 기타()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임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현행 아동급식제도의 1인당 아동급식 지원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급식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 및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아동급식 지원 시 식당 등 식사 장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4. 부엌 설비, 환기, 안전 등의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5. 아동급식 전후 아동의 건강이나 영양, 생활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6.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17. 귀 기관의 급식 운영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전문 인력 확보(영양사 등) ② 식당설비 개선 ③ 급식단가 인상
④ 자원봉사자 확보 ⑤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실시
⑥ 예산증액 ⑦ 기타(_____)

II. 다음은 일반적인 아동급식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빈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방법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단체급식 ② 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③ 일반음식점 ④ 도시락 ⑤ 주부식 ⑥ 식품권 ⑦ 기타(_____)
2. 현재 아동급식 지원제도 전반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대상아동에 대한 정확한 선정기준 마련 ② 아동급식사업 담당부처의 일원화
③ 담당인력 확충 ④ 예산증액 ⑤ 학교 등 지역인프라와의 연계
⑥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활성화 ⑦ 아동급식소 등 지역인프라 확충
⑧ 급식종결기준 마련 ⑨ 급식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⑩ 표준식단마련 지침 ⑪ 기타 (_____)

III. 마지막으로 일반적 사항에 관해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만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초대졸 ③ 대졸 이상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는? ① 있다 (문 4-1로) ② 없다 (문 5로)
- 4-1.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몇 급인지? ① 1급 ② 2급
5. 귀하께서 현 시설에서 근무하신 총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타 아동급식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